

공무원 노조의  
새 지평을 열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 자랑스러운 공지의 역사, 경북교육노조 15년

역사는 주관적인 기록이다. 어떤 역사도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다.

역사는 보는 사람의, 또는 읽는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에 따라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관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경북교육노조15년은 자랑스러운 공지의 역사다. 경북교육청노동조합 15년이 빛나는 승리만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15년은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우리 모두의 정직한 발자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일한다'는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조합원 누구도 낙오하지 않은 채 어깨를 걸고 이 길을 걸어왔다.

노조를 진보와 보수로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길을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념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올바르지 못한 일터를 바꾸고, 불평등이 가득했던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려 걸어왔을 뿐이다.

그 길에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다. 때로는 사측과 격렬하게 부딪쳤고, 때로는 내부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마음을 잃지 않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가며 노조를 키워냈다.

지난 15년 간 우리는 단위노조 최초 단체교섭, 노사상생선언, 초중등교육법 개정, 각 직급 정원

확대, 기능직의 행정직 전환 등 공무원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굵직굵직한 사업에 앞장서서 참여했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정부의 압력에는 하나로 단결하여 이를 막아왔다. 우리는 대한민국 노조사에 한 획을 긋는 수많은 자리에 함께했다.

경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경북교육상에 일반직원 포함, 대대적인 정원확대, 행정인력·재정운영·업무효율화 방안모색을 위한 TF팀 운영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수많은 정책들을 경북교육청과 협의 하에 만들어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조례 제정, 당직근무자 전일제 휴무, 감사제도 개선, 맞춤형 복지비 향상, 특별휴가 확대, 재량휴업일 신설, 나 홀로 행정실장 처우개선, 소수직렬 근무환경 개선 등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이뤄냈다.

경북교육노조 조합원들은 그 오랜 시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노조를 믿어주고 지원해주셨다. 15년간 함께 참여해주신 수많은 조합원들께 말로는 다 못할 감사함을 느낀다. 조합원들의 따뜻한 응원과 굳세게 잡아준 손이 지금 경북교육노조를 있게 한 힘이었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분들과 함께 걸어온 15년이 내게는 자랑스러운 긍지의 역사다.

현재의 모든 사실은 언젠가는 과거가 된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노력들도 망각과 소멸을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때로는 눈물을 삼켜가며 공무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싸워온 우리의 노력은 '경북교육노조 15년사' 안에서 고스란히 살아숨 쉴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는 이 15년의 기록이 앞으로 다시 이 길을 걸어야 할 남은 사람들에게 작은 초석이 되길 바라며,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18년 겨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중 기

##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 발자취를 기록하는 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조사를 받아드니, 경북교육노조와 함께 걸어온 파란만장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경북교육노조의 태동 때부터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해 왔기에 그 감회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온갖 탄압과 억압, 때로는 공직사회 개혁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동료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냐?’ 는 국민들의 원성마저 버텨가며 우리는 정년 평등화 · 공무원직종개편 · 연금 투쟁 ·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척결 등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김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북교육노조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 역사가 곧 공노총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힘겨웠던 시간, 경북교육노조가 총단결 해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공직사회의 미래를 위해 성과주의 폐지 · 대정부 단체교섭 · 지방공무원들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발에 땀나도록 뛰며 불철주야 협상과 투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 경북교육노조 동지 여러분의 성원과 단결의 힘을 보태주시시오. 그 힘을 원동력 삼아 공노총과 함께 공무원 노동운동 역사의 새 장을 써 내려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쟁과 단결로 인사드리며,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표해 노동운동 역사 발자취 기록 책자인 「공무원 노조의 새 지평을 열다」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연 율

##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선구적 역할을 하는 노조 기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원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역사와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단체교섭, 공무원직종개편, 공무원연금투쟁, 정년평등화 등 공직사회 혁신과 개혁을 이루어 가는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늘 최선봉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김중기 위원장님과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과 투쟁의 성과는 교육청노조의 성과로 이어졌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행정실 수당의 신설이라는 커다란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투쟁의 성과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경북교육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연금투쟁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준비하여 떠나던 길을 올라와여의도에서 연금 투쟁하던 조합원 여러분의 단결된 힘과 모습은 진정 감동이었습니다. 경북교육노조 조합원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북교육노조가 노동조합의 제1의 노조이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노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노동자의 권리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한 경북교육노조의 15년사 「공무원 노조의 새 지평을 열다」의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재형

## 따뜻한 교육혁명, 함께 만들어갑시다!



늘 더 나은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경북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15년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곧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의 시기를 준비시켜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북교육이 '따뜻한 교육혁명'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현재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동시에 미래의 삶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따뜻한 교육혁명의 취지입니다.

교육혁명의 실현은 교육청만의 의지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교육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특히 학교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의 노력 없이는 경북교육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교육노조는 지난 15년간 반목하는 일 없이 언제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북교육노조가 얼마나 학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는지 옆에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김종기 위원장님과 노조 간부들, 그리고 노조원들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노조의 좋은 파트너로서 더 나은 학교환경, 더 발전하는 경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통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교육, 따뜻한 교육혁명을 위한 희망찬 출발!"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교육노조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노조사 발간이 경북의 미래교육을 향한 나침반이 되고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15년사 「공무원 노조의 새 지평을 열다」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경북교육청공무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 노조 성장과 발전의 굳건한 시금석이 되길



경북교육노조의 15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 오시면서 이번 노조 15년사를 발간하신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님과 정원상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북교육노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화된 노동조합으로 탈바꿈하면서 조합원들이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 질 높은 후생복지, 근무여건 개선, 조직 내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15년사 발간은 그동안 경북교육노조의 성과와 역사를 기록하고 조합원간 소통과 참여를 높이며 공감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회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봉사자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노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교육공무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경북교육노조가족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 상생하는 노사, 발전하는 경상북도교육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창립 15주년 역사가 담긴 노조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공직의 위상을 높이고 경북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봉사하고 헌신의 자세로 새로운 노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경북교육노조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공무원노조의 새 지평을 열다」에는 경북교육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조의 땀과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5년사가 향후 타 노조의 발전에도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경북교육노조는 ‘상생하는 노조’로 전국적인 명성이 높습니다. 교육청으로는 드물게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대상’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 증명하듯, 경북교육청과 경북교육노조는 협력과 상생으로 경북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노사협의회’와 ‘노사합동 워크숍’은 다른 노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북교육청노조만의 위대한 점이라 할 만합니다.

2016년 정부가 경북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을 때 경북교육청노조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함께 이를 저지해냈습니다. 이때 저는 경북교육노조의 힘과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로도 수많은 성과를 통해 경북교육노조는 ‘노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왔습니다.

이번 노조사 발간을 계기로 경북교육노조가 한층 더 수준 높은 노사문화를 만들고, 국민과 경북교육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노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곽 경 호





심볼의 의미

맑은 눈(아래)으로 세상을 보며 학생이 다시 경북으로 돌아오는 원의 원리(둥근 원)와 바다(강물이 바다로 향하고 있음)와 같은 넓은 이상으로 미래(떠오르는 해)를 향해 전진하자는 의미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참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임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우리 모두는 노동조합으로 다시 출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참 봉사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추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창조적 노동문화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원만의 독자노선과 자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비록 험난하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희망의 이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합원은 대내외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하였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 주요 연혁

1999. 01. 01.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  
09.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 모임(28명)  
11. 1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창립  
초대 회장 김광곤
2004. 04. 01. 제2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  
제2대 회장 이철연  
07.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결성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법외)  
위원장 이철연, 사무총장 안길운
2006. 01. 28.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02. 17.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  
04. 15. 제1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위원장 이철연, 사무총장 김태균·박흥기
2007. 06. 28. 2006년 단체협약 체결
2008. 04. 15. 제2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위원장 이철연, 사무총장 박흥기·박귀훈·김광현
2011. 04. 15. 제3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위원장 이철연, 사무총장 윤석주·안승완
2013. 04. 15. 제4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위원장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박흥기, 사무총장 정원상
2014. 03. 17. 2013년 단체협약 체결
2015. 04. 15. 제5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위원장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박흥기, 사무총장 정원상
2017. 04. 15. 제6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위원장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서종철, 사무총장 정원상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사진으로 보는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15년







직협 입시총회 (2004)



공노총 지도부초청 세미나 (2004. 11. 20)



2004 노조(법외) 출범식





도의회 1인 시위 (2004. 10. 21 ~ 28)



도의회 항의 방문 (2004. 10. 27)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 규탄 결의대회 (2005)



직협 퇴직공무원 환송연 (2005. 6. 29.)



경교노 상임위원회 정기회 (2005. 8. 29.)



노조 창립 1주년 기념식 (2005. 11. 2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상북도교육청간 1차 본교섭 (2006)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대회 (2006)

노조 정기 대의원대회 및 출정식 (2006)





노조 사무실 이전 개소식 (2006. 9. 11.)  
단체교섭 실무교섭 (2006)

제4회 한마음체육대회 (2006. 9. 23)  
독도 방문 (2006)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 (2006. 3. 4.)



제2기 경북교육노조 출범식 (2008. 4. 11.)



단체협약 조인식 (2007. 6. 28.)



정년평등 1인 시위 (2007)



대정부 단체교섭 참여 (2008)



교육위원회 의장단 면담 (2009)



지부 사무국장 회의 (2008. 6. 9.)



노조-교육청간 정책협의회 (2009)



노사합동 워크숍 (2010)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 찾기 이벤트 시상식 (2010)  
경북교육상 조례 졸속 처리 철회 및 행정사무감사 개선 기자회견 (2011)

직렬별(사서직) 간담회 (2010. 7. 30)  
본조 임원 회의 (2011. 11. 7.)



제3기 노조 출범식 (2011. 4. 15.)





중복감사 개선 1인 시위 (2012. 10. 10.)



교원 업무 이관 반대 1인 시위 (2012)



행정직 응시생 격려 (2011. 7. 9.)



울진지부 찾아가는 협의회 (2011. 9. 21.)



영남지역 교육청노조 임원 워크숍 (2013. 8)



영남지역 교육청노조 임원 워크숍 (2013. 11)



교원연구비 지급 반대 기자회견 (2013)



제4기 노조 출범식 (2013)



단체교섭 본교섭 (2013)



제회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2013)



지부 조합원 현장의 메아리 듣기 (2013)



소년소녀 가장돕기 노사합동 김장 담그기 (2013)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 투어 (2014)  
 안행부 주관 공무원연금 포럼 원천 봉쇄 (2014)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노총 총력결의대회 (2014)



경북교육노조-경북교육청 단체협약 조인식 (2014)



제2회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2014)



경북교육상 조례 개정 발의 의견서 전달 (2014)



조합원과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 (2015)



대구경북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총회 (20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20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 제5대 김종기 위원장 취임식 추

일 자 : 2015. 4. 15.(수) 장 소 : 평산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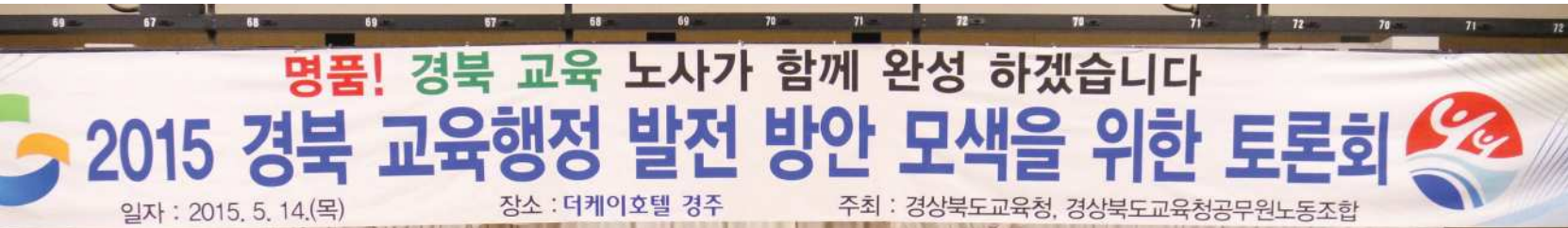
제5기 노조 출범식 (2015. 4. 15)



노사협의회 (2015)



신청사 이전 연거 건의 (2015)



제3회 학교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2015)



행정인력 적정 배치를 통한 조합원 근무여건 개선 TF 회의 (2015)





하반기 조합원 노동교육 (2015)

연금개혁 저지 공투본 3.28 총력결의대회 (2015)





공무원 노사문화 대상 수상 (2016)



1사분기 노사협의회 (2016)



대구경북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총회 (2016)



공무원 노사문화 대상 수상 (2016)



교육부장관 면담 (2016)



조합원 노동교육 (2016. 8.)



조합원과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 (2016)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2016)



노사합동 워크숍 (2016)



노사실적 보고회 (2016)



한마음체육대회 (2016)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랑의 이불 나눔 (2016)



노사합동 봉사활동 (2016)



성과주의 반대 국회 1인 시위 (2016)



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봉사 활동 (201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6대 출범식**  
 ─ 일시 : 2017년 5월 12일(금) 16시 ─ ─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응비관 ─



제6기 노조 출범식 (2017)



조합원과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 (2017)



제6기 노조 임원과 교육감 상견례 (2017)  
 노사실적 보고회 (2017)  
 대구경북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단합대회 (2017)



성과연봉제 반대 1인 시위 (2017)



성과주의 폐지 1인 시위 (2017)



성과주의 폐지 공동 기자회견 (2017)



성과연봉제 및 성과주의 폐지를 위한 천막 철야 농성 (2017)





노사합동 봉사활동 (2017)



노사합동 워크숍 (2017)



교육부장관 면담 (2017)



사랑의 쌀 기증 (2017)  
소년소녀 가장돕기 사랑의 이불 나눔 (2017)



포항 지진피해 성금 전달 (2017)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 (2017)



지부 간담회 (2018)  
지부 간담회 (2018)

대구경북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총회 (2018)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개선 국회 토론회 (2018)



대구경북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2018)



공무원 제단체 문재인정부 규탄대회 (2018)





사무관 승진 면접시험 격려 방문 (2018)



신규임용예정자 연수 시 노조 홍보 (2018)



노조 임원과 민선4기 교육감 상견례 (2018)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2018)



노조 임원 연수 (2018)



노사합동 봉사활동 (2018)



제3회 대구경북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회장배 축구대회 (2018)



행정실 법제회 국회 토론회 (2018)



한마음체육대회 (2018)



조협원과 교육감과의 참좋은 대화 (2018)

# CONTENTS

발 간 사  
축 사  
노조 상징 소개  
출범선언문  
주요연혁

사진으로 보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 ..... 012

제1장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와 법외노조 (1999~2006년) ..... 052

제1절 노조의 여명, 직장협의회 (1999~2004년) ..... 054

1. 공무원노조의 탄생 배경
2.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3. 교육감과 첫 협의를 시작하다
4.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시위
5. 경북교육행정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한마음체육대회

제2절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법외노조) 창립 (2004~2006년) ..... 063

1. 경북교육노조 출범
2.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3. 전공노 파업에 반대하며 우리만의 길을 가다
4. 가능직 사무직군 교육행정직 제한경쟁시험 도입
5. 봉사활동과 이웃사랑의 시작
6. 경북교육노조 임원 노동교육

조원정 초대 경교련 회장 인터뷰



제2장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 노사관계의 시작 (2006~2013년) ..... 074

제1절 제1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06~2008년) ..... 076

1. 공무원노동조합의 시대가 열린다
2. 조합원 행동강령 제1호
3.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 확대
4. 단위노조 최초 단체교섭
5. 상급단체와 함께 대정부 단체교섭 참여
6. 정치후원금 기탁과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제2절 제2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08~2011년) ..... 087

1. 제2기, 출범하다
2. 공무원연금개혁 저지 투쟁 참여
3. 경북교육노조 정책연구소 설립과 경북교육협의회 발족
4.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정책협의회
5. 현장의 메아리 듣기
6. 맞춤형복지 100포인트 상향 조정
7.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상 시상
8. 노조 임원 노동교육과 노사합동 워크숍
9. 직렬별 대표자 토론회
10. 한마음체육대회와 사랑의 연탄 나눔
11. 상급단체와 함께한 성과들

제3절 제3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1~2013년) ..... 106

1. 제3기 경북교육노조 출범하다
2. 통신 3사 노조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돕기 협약체결
3.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확대
4. 노사합동 연수
5. 정보업무, 행정실 이관을 막아내다
6. 경북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7. 상급단체와 함께 한 성과들

이철연 1~3기 위원장 인터뷰

제3장 노동조합의 새로운 길을 만들다 (2013~2018년) ..... 126

제1절 제4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3~2015년) ..... 128

1. 제4기 경북교육노조 임원 선거
2. 제4기 경북교육노조 출범식
3. 경북교육노조 중점 추진 사업
4. 자명증 창간
5.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6.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 타결
7. 경북교육노조 노동교육
8. 교육행정직, 경북교육상 수상의 길을 열다
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
10.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11. 단설·병설 유치원 인력 증원
12.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표창
13. 학교 행정실 직무분석 연구용역 의뢰
14. 교육현장의 소리를 듣다
15.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16. 한마음체육대회와 조합원 고충 상담
17. 저소득층 자녀 돕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18.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첫 노사협의회 성과

최정연 부위원장 / 주경영 서기관 인터뷰

제2절 제5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5~2017년) ..... 158

1. 제5기 김종기 위원장 취임식 및 노사 상생 협약식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저지
3. 행정인력·재정운영·업무효율화 방안모색을 위한 TF팀 운영
4. 경북교육노조·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대상' 선정
5. 일반직 5·6급 정원 확대
6. 행정실 법제화 추진
7. 대경공공노조와 영남지역교육청노조를 주도하다
8. 권역별 노동교육
9. 노사합동 워크숍
10.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11. 한마음체육대회
12. 경북교육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노사합동 봉사활동
13. 2015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2016년 사랑의 이불 나눔
14.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노사협의회 성과

서종철 수석부위원장 / 박홍기 사무관 인터뷰

제3절 제6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7~현재)	178
----------------------------------	-----

1. 제6기 경북교육노조 출범식
  2.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투쟁
  3. 특수직무수당 신설
  4. 권역별 노동교육
  5. 노사 합동 워크숍과 노조 간부교육
  6. 교육부장관 면담
  7.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8. 한마음체육대회
  9. 노사합동 사회봉사활동 및 지진피해 성금 전달
  10.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노사협의회 성과
- 윤병선 구미지부 대의원 / 정원상 사무총장 인터뷰  
김종기 위원장 인터뷰

제4장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지부 소개	200
--------------------------	-----

- |          |          |          |          |
|----------|----------|----------|----------|
| 1. 포항지부  | 2. 경주지부  | 3. 김천지부  | 4. 안동지부  |
| 5. 구미지부  | 6. 영주지부  | 7. 영천지부  | 8. 상주지부  |
| 9. 문경지부  | 10. 경산지부 | 11. 군위지부 | 12. 의성지부 |
| 13. 청송지부 | 14. 영양지부 | 15. 영덕지부 | 16. 청도지부 |
| 17. 고령지부 | 18. 성주지부 | 19. 칠곡지부 | 20. 예천지부 |
| 21. 봉화지부 | 22. 울진지부 | 23. 울릉지부 | 24. 본청지부 |

부록	226
----	-----

연표	228
조직도 · 역대임원	261
강령 · 규약	271
단체협약서	288
노사협의회 내용	311
성명서 · 논평 · 보도자료	334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제1장 | 1999~2006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범외노조

## 제1절 노조의 여명, 직장협의회 (1999~2004년)

### 1. 공무원노조의 탄생 배경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IMF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국민들은 속절없이 '6.25 이후 최대의 국란'으로 불리는 외환위기를 목도했다. 수많은 기업이 부도를 내고 실업자들이 속출했으며 구조조정, 부도, 자살, 실직, 체불, 감봉 등의 단어들로 뉴스가 가득 찼다. 사회의 분위기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공무원 사회도 IMF의 공포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정부가 공무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의 세금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월급과 연금을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기능직을 위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주로 힘없는 하급공무원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민간보다 월급은 훨씬 적지만 '성실히 일하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살아 가던 공무원들은 커다란 분노를 느꼈다.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과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던 고용안정이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분노에 불을 붙인 것은 연금 삭감이었다. 지금까지 박봉을 전디게 했던 힘은 '그래도 퇴직하면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었는데 이런 믿음이 깨지자 공무원들은 정부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다.

이제까지 '나는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이며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공무원들은 일련의 일들을 거치며 '공무원은 나라의 신복이 아니다. 공무원은 노동자다'라는 의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자의식의 변화를 통해 권위적인 공무원 조직에 갇혀져 있던 공무원들은 스스로의 자발성을 가진 노동자로서 성장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단체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절감했다. 그동안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아무데도 말할 곳이 없었던 공무원들이 모여 노조를 만든 배경이다.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공무원 사회에 만연했던 불평등과 불합리를 들 수 있다. 어떤 사회든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한 비리와 불평등은 항시 존재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위계가 확실하다는 특성과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향이 심했다. 비록 공무원 조직 내에서 많은 비리와 불평등이 존재했지만, 공무원들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

심으로 이를 묵묵히 견뎌왔다. 상급자의 부정부패, 만연된 인사적체, 과중한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등도 소리 없이 견뎌다. 하지만 인식의 급성장을 겪으며 “공무원 사회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견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올바른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욕망과, 공무원 사회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공무원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씨로 타올랐다.

그 당시 한국사회 전체에서 만들어지던 외부적인 영향도 공무원 노동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미 한국은 사회적으로는 민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공무원노조를 지원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오래전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기존의 노동운동 세력들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다. 공무원노조를 가능케 했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역시 기존 노동운동세력의 뒷받침으로 성사된 일이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 노동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의식변화였다. 공무원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보니 단체행동을 할 때 일반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것은 국민정서를 고려한 공무원 스스로의 검열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전까지 경제성장과 반공이데올로기에 얽매어 있던 국민정서가 계속된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노동운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국민정서의 변화는 공무원들에게 ‘우리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었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큰 빈발 없이 공무원 노동운동을 가능하게 한 촉매제가 되었다.

## 2.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이처럼 공무원 단체 활동이 힘을 얻는 사회분위기 속에 1998년 1월 15일 김대중 정부가 IMF 극복을 목적으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사정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노동정책과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였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같은 해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10대 사회적 의제’를 선정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직협법)’이 시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도 단체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지자 1999년 1월 12일,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초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를 등록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마른 장작에 불이 당겨진 것처럼 전국 공무원들의 직협 활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를 만들고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수동적인 문화가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곳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해지자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열망하던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직협이 구성되었다. 또한 이런 움직임에 자극받아 이제까지 억압되어 있던 공무원 사회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9년 3월 22일, 지방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대구광역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대구시청공직협)’를 설립했다. 곧 이어 부산, 광주, 경북 등도 공직협의 깃발을 올렸다.

경북교육청은 1999년 9월 10일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지고 28명이 참석하여 설립 결의 및 준비사항을 협의했다. 10월 11일에는 직장협의회 설립 안내를 공고하고 11월 11일부터 회원가입 접수를 시작해서 11월 19일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마침내 1999년 11월에 본청에서 ‘경북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초대 회장에 도교육청 김광근을 추대했다. 12월 17일에는 경북교육청 별관 대회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당시 본청, 도서관, 공립고등학교, 공립특수학교의 가입대상 인원 674명 중 242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35.9%였다.

1999년에 공직협은 전국 62곳으로 늘어났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직협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바라던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물론 공직협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일단 설립단위가 4급 이상 기관장이 있는 기관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으며 가입대상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고위직, 중간간부, 특수직 등 많은 수의 공무원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향력 있는 협의회 설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신속히 직협을 설립하며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갔다.

직장협의회는 다른 공무원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타 기관의 조직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직장협의회들의 주체들은 아직 직협이 만들어지지 않은 기관들을 지원하면서 설립을 늘려나갔다. 물론 법적인 제약들과, 정부와 대치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노조 설립으로 바로 이어지는는 못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자발적인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이미 거



대한 변화는 시작된 것이었다.

공직협은 공직협으로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공직협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 단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공직협은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바로 공직협법 시행령 2조 2항 ‘공직협 간의 연합단체 결성 불허’ 라는 조항 때문이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단체를 결성하고 힘을 키워야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니 노조로의 발전은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직협을 키워나가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직협의 주체들은 현행법과 제도, 한계와 문제점을 절박하게 실감했다. 현실적인 벽을 절감한 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공무원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연이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도 개별 직협을 뛰어넘는 더 영향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타당성에 힘을 더했다.

1999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공직협 주최로 열린 ‘공직협 전국대표자 간담회’는 이후 횡수를 거듭해나갈수록 참여인원을 늘려나갔다. 이듬해 2000년 2월 19일에는 123개 직협이 경북도청에 모여 노조의 바로 전 단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를 조직했다. 법을 어기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는 없었던 직협 임원들은 ‘연합단체 결성 불허’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연구모임



직협 시군지부장 및 임원 상임회의 (2005. 4. 11.)

의 형태로 모여 추후 노조로의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2004년 1월 31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충남교육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교협)를 조직했다. 전교협은 회장에 서용률 충남교육청 직협 회장, 감사장에 조규천 서울시교육청 직협 회장, 그리고 대변인에 이철연 경북교육청 직협 회장을 선출했다. 전교협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행정가족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 등 제반적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범했는데 이철연 회장은 이후 많은 활동을 통해 전교협에서의 입지를 키워갔다.

전교협은 이후 공무원조합입법, 정년 평등화, 6급 근속승진, 5급 사무관 승진제고 개선,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 폐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기능직공무원 정원 및 승진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추후 노조활동의 초석을 놓았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자 보수적인 경상북도 공무원 사회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었다. 그간 공직협 활동으로 힘을 얻은 직협 회원들은 경상북도 직협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노조로의 성장을 꾀했으나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2002년 5월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창립하는 등 가까운 대구에서조차 공무원노조를 설립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경상북도교육청 직협은 타 시도보다는 조금 늦은 2004년 6월 12일, 경북 전체 시·군 직협을 엮어 '경상북도교육행정기관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경교련)'를 출범시키고 초대 회장으로 조원정 안동교육청직장협의회 회장을 선출했다. 조원정 회장은 초기 직협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까지 안동지부장으로 노조에 헌신했다.

경교련의 설립은 경북의 23개 시군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역사적인 사업이었으며 훗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창립의 근간이 되었다.

### 3. 교육감과 첫 협의를 시작하다

사회적 분위기와 다수의 무관심으로 잠시 침체되었던 직협은 2004년 4월 1일 이철연 회장을 선출하고 제2기의 깃발을 올리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변화하는 경북교육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출범한 2기 직협은 그간 경상북도교육청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로 경상북도교육감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

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는 교육감과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협상대상자로 생각하며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2004년 8월 30일, 직협 측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기획부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재정부장, 여성부장이 참석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기획관리국장, 총무과장, 인사담당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첫 협의가 시작됐다.

1차 협의요청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 한마음체육대회 참가경비 예산 확보, 학교 일용직 인력관리 및 활용방안 개선 요구 등이었다.

노사가 함께 한 첫 자리이니만큼 양측 모두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도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 승진 및 상위직급 정원 확보, 기능직 외근직 책상 및 컴퓨터 확보, 한마음체육대회 참가경비 예산 확보, 학교 일용직 인력관리 및 활용방안 개선 등 경교련이 요구한 것에 대해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일반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직협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달된 것이라면 관련법규 내에서는 허용하는 한편, 횡수에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교육감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공무원 사회의 단체 활동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시기여서 큰 충돌 없이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하며 노사합의에 다가갈 수 있었다.

#### 4.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시위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들은 국정 감사, 교육위원회 감사, 시도지방의회 감사, 중앙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수많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과중한 업무를 견디고 있었다. 특히 국정 감사 때는 일선 시군의 교육장, 일선학교의 학교장, 교감들의 출장명세서까지 일일이 제출해야 했고, 자료제출 요구가 9월을 넘기다보니 행정공무원들은 신학기 준비를 해야 할 시간까지 자료제출 업무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이렇게 제출된 서류가 입법 자료로 실제 활용되는 예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다.

공무원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감사업무가 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보다 못한 공무원들은 도의회에 이 같은 중복 감사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교련에서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시위’

를 준비했다. 단합된 힘을 모아 불공정한 환경을 바로잡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였다.

경북교육청 개청 이후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첫 사업인 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가운데 2004년 10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는 이후 5일간 계속되었고 직협 회원들의 단합된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상부기관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후에도 이철연 회장이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을 만나 국정 감사 자료제출 간소화를 요구하는 등 국정 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2005년에는 경북교육청이 국감기관에서 제외되었으며(격년) 또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도 CD 또는 플로피 디스크로 가능하게 되었다. 함께 내는 목소리는 조금씩 조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 5. 경북교육행정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한마음체육대회

2000년 5월, 경북교육공무원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가 경주 화랑교육원에서 열렸다. 이전에는 매년 1회 '교육감배 축구대회'가 열렸으나 직협이 설립된 후



제2회 한마음체육대회 (2004. 5. 16.)

‘경북 교육행정 공무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자’고 결정해 ‘한마음체육대회’가 탄생했다.

‘경북이라는 넓은 장소에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북교육 가족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자는 의도로 시작한 한마음체육대회는 그 이름처럼 횡수가 거듭될수록 경북교육청공무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잔치로 자리매김했다. 처음에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체육대회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인원이 참여해 2004년 구미금오공고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서는 예상인원 1,500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1,800여 명의 교육공무원이 함께했다. 특히 제2회 한마음체육대회에는 경상북도교육감,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그간 직협과 반목의 대상으로 보이던 사용자측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여 축하했을 뿐만 아니라 KBS, MBC, TBC와 각 신문사 등 주요 언론에서도 취재와 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노사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대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만큼 임원들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금오공고에 도착하여 회장님 이하 임원과 부원들은 체육관에서 행사 준비를 마쳤다. 저녁까지 준비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와 일기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설상가상으로 남부지방엔 비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 5시 경에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의심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금오산 산허리를 흰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 천지신명께 감사라도 드리고 싶었다.”

- 김홍필 전 구미직협 회장

평소에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고 힘들게 일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의 어려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된 한마음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족의 구심점으로서 현재 매년 약 2,500~3,0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으며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서로를 이해하는 긴밀한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노조는 한마음체육대회를 단순히 놓고 즐기는 행사로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하기 위해 체육대회 기간에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전개해 성금을 매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있다.

경북교육노조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조합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경북교육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다. 또한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전하고 자연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제2절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법외노조) 창립 (2004~2006년)

### 1. 경북교육노조 출범

200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노조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2004년 공노조법은 이전의 공직협법보다 더 퇴행한 법률이었다. 직종, 직급, 직무에 걸쳐 삼중으로 노조가입 범위를 제한했으며 입법예고 시에는 없었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라는 조건까지 추가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한참이나 뒤처지는 법안이었다. 이 같은 법안의결에 공무원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27일 공노조법은 공포되었다. 비록 공노조법이 모든 공무원을 포용할 수 없는 절름발이 법안이었다 해도 노조의 합법화가 가능해졌으므로 중앙부처 직협들은 빠르게 노조로의 변화를 꾀했다.



노조 출범식 (2004. 11. 26.)

공노조법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 경북지역 직협 회장단들 역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경북교육노조)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7월 9일 안동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경교련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하지만 노조 출범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때만 해도 '공무원은 노동자이므로 단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할 때라 직협을 함께했던 조합원들조차도 노조 가입을 망설였다. 단체행동을 하면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 역시 노조의 걸음을 더디게 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노조로 출범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목소리 역시 뜨거웠다. 이들의 호응에 힘입어 직협은 노조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으므로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출범 자체가 불법인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북교육청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과다한 국정 감사 자료제출 요구, 도의회의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한 일인 시위, 그리고 몇몇 소수의 비리사건들이 전체 경북교육가족의 일인양 매도당하였을 때도 공무원들은 성명서 한 장 변변히 발표하지 못했다. 회원들이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출범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시련들이 노조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결국 2004년 9월 3일 청도교육청에서 열린 제3차 경교련 회의에서 이철연 본청 직협 회장을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일부 임원을 선임하고 노조 출범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11월 26일 오후 5시, 경북교육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임원들을 선출하고 대의원대회 규약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부에서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노조 현판식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연 회장은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선택을 하였습니다”라는 출범선언문을 읽어내려 갔다. 열기로 가득 찼던 장내는 숙연해졌다. 이어 이철연 회장은 “비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험난할지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희망의 이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이제, 대내외에 경



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하였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라고 노조성립을 선언했다. 자리에 함께한 조합원과 임원들은 우레와 같은 환호로 경북교육노조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후 경북교육노조는 경북교육청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에 버젓이 존재하던 비리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쉽 없이 뛰어왔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경북교육노조의 위대한 첫 걸음에 함께 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이철연
- 수석부위원장 : 정대림
- 부위원장 : 김정호, 김호영, 황정자
- 사무총장 : 안길운
- 회계감사위원장 : 이영욱
- 선거관리위원장 : 오건택
- 위원 : 최연성, 김순환, 이명구, 손정수
- 대변인 : 박홍기
- 시군 지부장 21명(영천, 군위 제외)

## 2.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2004년 12월 22일, 경북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공노총 박용식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부처, 시도청공무원노조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교육노조 이철연 위원장을 연맹위원장으로 하는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이 출범했다. 경북교육노조 박홍기 대변인은 교육연맹의 사무총장 및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이 시기는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이 활발하게 연맹 체제를 맺으며 통합하여 세를 불려나가는 시기였다. 노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힘이 커지므로 이러한 시도는 노조의 형성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교육연맹 역시 앞으로 시도교육청 노조의 현안사안을 통합하여 중앙부처와 교섭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행정노조의 연맹 체제를 완성해 갔다.

이때 경북교육노조 이철연 위원장과 청도직협 김종기 회장은 전국의 교육청을 찾아다니면서 노



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출범식 (2004. 12. 22.)

조의 연맹 참여를 설득했다. 그 결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전남, 경남, 경북, 충남, 충북교육청노조 등 9개 시·도교육청노조가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5월 16일 전국 최초로 합법적인 연합체노조 설립신고를 마침으로써 마침내 9개 시·도교육청노조, 조합원 14,043명의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이 탄생했다. 명실공히 전국의 6만 5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국단위노조가 출발한 것이다.

경북교육노조의 이철연 위원장은 이날 출범사에서 시·도의회 및 시·도육위원회 중복감사제도 개선, 시·도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청 지방관 파견, 지방분권화에 따른 5급 정원 책정권 이양, 기획관리국장의 지방직 임명, 감사 등 특정부서에 대한 직위공모를 4급까지 확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순환보직경로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직원위원 참여, 교직원수당신설,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채용, 상위직급 정원 확보, 위생원의 조리사 명칭 변경,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행정실 직원도 법령에 의해 근무할 수 있는 법안 마련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조합원의 처우 개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3. 전공노 파업에 반대하며 우리만의 길을 가다

2004년 8월,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단체교섭은 보장하되 쟁의 등 단체행동은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노조법)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2004년

국회를 통과하고 2005년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공노조법은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노조의 가입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었다. 시행된 법령에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이었다. 하지만 6급 이하라고 모두 가입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같은 예외조항이 있었다.

- ①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 ②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③ 교정, 수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④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 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가입 금지(공무원노조법 제6조2항)

이 법률에 의하면 노조에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숫자는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92만여 명의 1/3도 안 되는 29만여 명에 불과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사무관(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할 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러한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5급 이상의 공무원 가입을 불가능하게 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 이에 14만여 조합원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공무원의 파업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전공노는 총파업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부가 총파업 찬반투표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공무원법 위반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투표를 원천봉쇄하자 전공노 역시 2004년 11월 14일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전공노 총파업 전야제를 열며 강경 투쟁을 천명했다. 정부는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3,046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는 1988년 전교조 사태 이후 사상 최대의 공무원 해직사태였다.

교육연맹과 경북교육노조는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불법파업을 강행하며 강경노선을 걷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공무원 파업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공노와는 다른 경북교육노조의 성격을 알렸다.

경북교육노조는 5천여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부패,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파업행위를 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북교육노조가 국민들을 담보로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노동운동을 시작한 약속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공노의 파업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

조국 발전의 토대가 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게 한 존경하는 경북도민과 학부모님!

현대사회는 다양화와 자율화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로 급격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계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국민에 대한 봉사로 국가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 단체(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무원 노동운동에 대하여 선진 국가에서도 극소수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요구하며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불법행위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직장협의회는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이고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건전한 노동의식으로 국민이 사용자라는 대 전제하에서 노동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북도민 및 학부모 여러분!

우리 경북교육청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불법적인 노동운동을 배격하고 도민과 학부모가 믿고 사랑하는 공무원 단체가 될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또한, 이번의 공무원노동법과 관련하여 공무원 사회에 헌법에서 명시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또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공식사회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국민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단체에서는 불법적인 파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공무원으로서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도민과 학부모님의 교육행정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교육행정가족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깨끗하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4. 11. 15.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준)

#### 4. 기능직 사무직군 교육행정직 제한경쟁시험 도입

2005년 6월 17일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기능직 사무직군(사무보조, 전산직렬)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직 9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 포함되었다. 이는 경북교육노조가 경북교육청에 꾸준히 요청한 결과였다. 이 일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으며, 조직 내 학습분위기 조성으로 개인 역량이 크게 신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20명을 시작으로 2007년 21명, 2011년 7명 등 48명이 교육행정직 9급으로 전직되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동일 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응시할 수 있는 일반직 전환시험이 실시됐다. 일부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기능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직종개편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책이자 현실적인 대안임을 홍보하여 큰 무리 없이 추진됐다. 2011년 하반기 83명을 시작으로 2012년 199명, 2013년 7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등 직종개편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됐다.

#### 5. 봉사활동과 이웃사랑의 시작

2005년 4월 16일 본청 및 23개 시군교육청 직원은 ‘내 고장 자연환경 지키기’ 운동을 일제히 실시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김천 시내 하천, 구미 금오산도립공원, 군위 읍내 및 하천 주변, 예

천 예천과학발명교실(인포분교장), 영양 읍내 및 북개천, 영주 상수도보호구역 서천, 영덕 읍내 덕곡천변 등에서 직협 회원 2,000여 명이 대규모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행사는 지역민에게 경북교육청공무원직협을 직접 홍보하는 것은 물론 이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2004년 5월 18일 이철연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모금한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을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2004년 7월 16일에는 본청 복지관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 옥전초 행정실장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실시했다.

2005년 9월 13에는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울릉도에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했다. 10월 22일에는 안길운 사무총장이 영양지부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심장판막수술로 고생하는 황흥수 영양지부장의 쾌유를 빌며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후에도 활발하게 진행된 각종 모금 활동을 통해 경북교육노조는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어려운 동료에게 동지애를 전하고 있다.



직협 난치병 성금 전달 (2004. 5. 18.)



의성 옥전초 김진호 행정실장 돕기 성금 모금 (2004. 7. 16.)



직협 내 고장 자연환경 지키기 운동 (2005. 4. 16.)

## 6. 경북교육노조 임원 노동교육

출범 이후 교육행정가족의 적극적 가입으로 경북교육노조는 놀랄만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하지만 양적 팽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조직을 이루는 개개인의 역량강화였다. 노조라는 큰 조직이 하나의 목표 아래 단단하게 서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노조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아갈 바를

명확히 하는 일도 중요했다. 조직을 결속력을 다지고 조합원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북교육노조는 먼저 조직을 이끌어갈 임원들의 교육을 시작했다.

2005년에는 100여 명의 경북교육노조 임원이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봉화군 소천읍에서 제1회 임원 노동교육을 가졌다. 2006년에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역시 같은 곳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교육에는 경북교육노조 임원, 지부장, 지부 사무국장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참여해 공무원노동조합법시행령 따른 공무원의 역할,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교단지원방안, 단체교섭기법 등을 공부했다. 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매 프로그램마다 시간을 초과한 강의와 토론으로 당초 일정보다 늦은 시간에 마쳤다.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노조는 조합원과 임원들의 끊임없는 교육과 토론으로 그 수준을 높이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경북교육노조는 노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그 어떤 것보다 임원과 조합원의 노동교육에 힘을 쏟았다. 노동교육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은 노조의 필요성과 노조를 위해 갖춰야 할 개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깨닫게 된다. 경북교육노조의 조합원 교육은 이때부터 제6기인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임원 노동교육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노사합동 워크숍, 상·하반기 권역별 노동교육, 현장맞춤형 노사교육, 임원 역량강화연수 등으로 세분화되어 현재까지 노조의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1회 임원 노동교육 (2005. 9. 23.~24.)



## ○ 조원정 초대 경교련 회장

### ‘경상북도교육행정기관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안동은 2004년 4월 6일에 직협을 설립했다. 조합원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직협 가입을 권유한 결과 약 360명 정도가 가입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5월 16일에 경상북도교육행정기관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가 발족했고, 내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경교련은 학교 근무시간 중식시간 인정, 공무원 정년평등화, 행정사무감사 중복감사 폐지,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확보 등 학교현장의 가장 큰 문제들을 이슈화시키기 위해 전국단체들과 힘을 모았다. 자체적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교육, 독도의 날 제정 결의대회, 내 고장 자연환경 지키기 운동 등을 펼쳤다.

### 당시는 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니 가족의 반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 당시는 노동조합이 불법일 때라 “그러다가 잘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주변의 걱정이 많았다. 나도 딸린 식구가 있으니 그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자르면 잘리지 뭐”라는 각오로 일했다. 그만큼 현장이 절박했고, 노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 초창기 노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조합비를 걷기 전이라 노조에 재정이랄 게 없었다. 재정이 없으니 모두 개인 사비를 써가면서 일했다. 공무원이 월급이 많지도 않으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당시는 회장인 내가 안동에 있다 보니 회의를 거의 안동에서 했는데, 24개 지부장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퇴근 후에 안동에 모였다. 몇 시간씩 회의를 하고 나면 자기 돈으로 4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씩 먹고 헤어지게 다였다. 지금은 노조의 재정이 안정적이라 원하는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때는 돈이 없으니 그저 열정만으로 몸으로 부딪히며 일했다. 공직사회를 혁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때였다.



###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노조를 할 생각인지?

너무 힘들었던 일이 많아서 선뜻 다시 한다는 얘기는 못하겠다(웃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까지 힘들지는 몰랐다. 힘든데도 계속 해왔던 이유는 처음에 나와 한 약속, 우리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15년간 노조를 해오면서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후회는 없다. 뿌듯하고 보람되다.

### 노조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현장의 메아리 듣기’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이 행사는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 이때 얘기 나왔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된 상태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발족시킨 것,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정, 장기재직 휴가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뛰어다니는 일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철연 위원장과 김종기 위원장이 많은 일을 했다. 특히 김종기 위원장이 해결한 일들이 많다. 그들과 함께 경북노조발전을 위해 일했다는 것이 기쁘다.

### 반면 아쉬움이 남는 일이라면?

‘간부로서 조합원과 더 호흡할 것을...’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조합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다. 나에게 와서 힘든 점을 얘기했던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직협 설립부터 시작해서 15년을 노조와 함께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동안 노조의 변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다. 처음 노조를 생각하면 현재의 모습은 감개무량하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때는 노조가 뭔지도 모르고 돈도 없었고 그저 열정만 가지고 해온 일이니까 좌충우돌할 때도 있었고, 죽도록 노력했으나 실패한 일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후배 조합원들이 알아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제2장 | 2006~2013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  
노사관계의 시작

# 제1절 제1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06~2008년)

## 1. 공무원노동조합의 시대가 열린다

2006년 1월 28일, 드디어 공노조법이 시행되었다. 이제 공무원도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공무원의 단결권은 보장받을 수 없었지만 그간 법외에 존재하던 노조가 합법화 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다.

공노총은 2006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시급한 문제인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6급 이하 정년차별 철폐 ▲봉급 삭감 중단 ▲구조조정 등 직업공무원제 훼손 행위 중단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기능직 차별 철폐 ▲교육행정 공무원 차별 철폐 등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결의했다. 이날 경북교육노조는 이철연 위원장을 비롯하여 본조 임원, 시군지부장,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탰다.



노조 대의원대회 및 출정식 (2006. 4. 15.)

공노조법이 시행되었는데도 노조의 공무원 단결권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합법노조 설립을 중용했다.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주장하며 파업을 계속할 경우 공노조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단체로 규정하겠다’고 공언하며 합법노



노조 대의원대회 및 출정식 (2006. 4. 15.)

조로 돌아서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더욱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쪽과, 일단은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쪽으로 나뉘었다.

경북교육노조는 설립신고를 무작정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자고 의견을 모은 뒤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2월 17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를 접수시켰다. 경북교육노조는 지역 최대 규모의 ‘합법 공무원노조’가 출범된 것이다. 곧이어 경북교육노조는 노동조합 출정식을 개최했다.

2006년 4월 15일 15시,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앞마당에서 1, 2부로 나뉘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출정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교육감, 도의원, 교육위원, 교육장, 직속기관장,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출정식에서 노조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했다.

- 위원장 : 이철연
- 수석부위원장 : 김종기
- 부위원장 : 김정호, 최상조, 황정자
- 사무총장 : 김태균
- 회계감사위원장 : 임상길

- 선거관리위원장 : 오건택

제 1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연 위원장은 직협 설립에서 시작해 경북교육노조의 탄생을 주도했으며, 1기 임원들과 함께 경북교육노조를 전국 최대의 단일노조로 키워냈다.

“이 얼마나 큰 떨림인가! 이 얼마나 크나큰 외침인가!

이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행정사에 큰 획을 그으니 그 이름 영원할 것이다!

열악하고 차별적인 현재의 여건을 철폐하고 교육공동체구성원의 주도적인 역할로 4,500여 조합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교육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 박두익 고령지부 조합원

## 2 조합원 행동강령 제1호

학교는 교내의 업무가 증가할 때마다 인원 충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늘어난 업무를 행정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아 괴로움을 겪고 있는 행정실 직원들은 책임질 일이 늘어남에 따라 노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조합원의 행동지침을 노조가 직접 시달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경북교육노조는 2007년 6월 4일 「조합원 행동강령 제1호」를 시달하고 안내문을 전달했다.

### 조합원 행동강령 제1호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업무가 학교 행정실로 이관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

1. 학교환경위생관리 지정과 관련하여 경북교육노조 조합원 업무 행동강령을 시달하니 각급 학교에서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수요 변화로 행정실의 업무가 과중되어 학생과 학부모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특정단체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술수를 획책

하고 있는 바, 우리 조합원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 대응하기 위함

3.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대하여 전교조경북지부에서 학교장에게 보건교사에게 업무를 지정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음
4. 향후 계속하여 인력확보 없이 업무를 이관한다면 방학기간 급여 지급정지 건의(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자기연수제도 폐지, 근무시간 준수, 자기연수물 공개 요구, 교원 평가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임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하여는 전문가격을 취득한 자가 전문지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함에도 시설관리 업무라는 미명하에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학교환경위생·식품위생관리에 관한 조합원 업무 행동강령」을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보내 조합원들의 적극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업무가 학교 행정실로 이관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대해 전교조경북지부는 교사, 특히 보건교사가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한 반면, 경북교육노조는 2007년 3월 26일자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제1항 중 ‘소속 직원 이 ‘소속 교직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단체에서 주장하는 보건교사를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당연히 보건교사를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행정실장은 환경업무와 관련하여 예산·회계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학교별로 업무분장이 달라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조합원 행동강령과 같은 강력한 조치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행정실장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일률적으로 지정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조합원 업무 행동강령**

학교 현장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

합원들께서는 다음 업무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행동강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합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보건교사의 직무에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교 행정실장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함.

2. 학교 정수기 관리

각급 학교의 정수기 관리는 식품위생법, 먹는 물 관리법 학교 급식법에서 정한 관련 자격을 가진 자가 식품위생을 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 행정실장이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

3.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협조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예산·회계업무 등 제반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행정실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 확대

경북교육노조는 출범 이전부터 기능직 상위직급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6년 3월에는 교육부와의 협의 결과를 집행부에 설명하며 조직 및 인사부서에 기능직 상위직급 확보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이를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의 경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상기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기능직공무원 승진임용 권한을 교육감으로 바뀌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4월 13일에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2006년 7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가. 시·도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하위직급에 치우치게 책정되어 있어 승진 기회가 적어 사기 저하 및 일반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 나.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동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 교육지원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정

###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감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3중 제2호)

- (1) 시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8급을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기능10급을 53%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 (2) 도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8급을 9% 이내에서 14% 이내로, 기능10급을 54% 이상에서 42% 이상으로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이처럼 기능직 상위직급 확대가 가능해졌는데도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8월 29일 유보결정을 내렸다. 지역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2006년 11월 초에는 기능직이 타 시·군 전출로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어 조례 개정이 힘들다고 노조 측에 통보하였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11월 17일 24개 지부장 연맹으로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교육환경위원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12월 18일 교육환경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었다.

경북교육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12월 20일 한나라당 경북도당 및 최고의원에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더불어 2007년 1월부터는 조합원들을



도의회 항의 방문 (2006. 11. 17)

대상으로 관련 조례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기능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7년 2월 28일에 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2007년 3월 27일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007년 하반기에는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정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8년 1월 1일자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큰 폭의 승진임용이 있었다.

“제213회 제3차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권한 중 승진임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목적이 왜곡되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조합원 동지들의 협조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 집행부의 합리적 판단으로 교육위원과 도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로 뚫은 성과입니다.

경북교육노조는 교육기관 중에서 전국 최초로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3%를 확보해 지역별로 위임되어 있는 승진으로 지역·기관 간 승진소요연수 격차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였습니다. 모두 조합원의 열렬한 지원과 성원으로 이룬 성과이고 경북교육노조 조합원의 승리입니다.

- 이제복 고령지부장

#### 4. 단위노조 최초 단체교섭

경북교육노조는 2006년 7월 21일 단위노조 최초로 약 200여 개 조항의 단체교섭 안을 경북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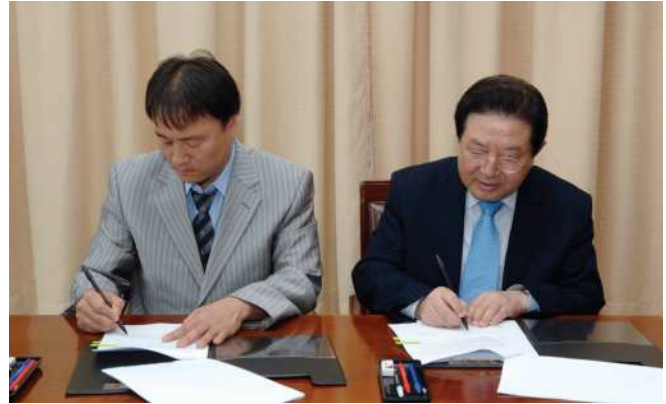
단체교섭 2차 본교섭 (2007. 1. 24)

육청에 제출했다. 단체교섭 안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교원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근무시간 개선,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 확보 및 승진 등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다.

경북교육노조는 성공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약 100여 명의 교섭위원들과 7월 25일 대전 경하호텔에서

단체교섭전략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앙부처 및 교육인적자원부 제출을 위해 교직원 수당 신설을 비롯하여 교원과의 차별적 대우 철폐 및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앙교섭안도 작성했다.

2006년 11월 15일, 드디어 경북교육노조는 역사적인 단체실무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첫 단체실무교섭



단체협약 조인식 (2007. 6. 28.)

인 만큼 서로간의 기세 싸움이 대단했다. 가장 큰 쟁점은 노조의 실무교섭 상대를 '경북교육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북교육감'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노조는 실무교섭 상대를 그저 건물을 지칭하는 '교육청'으로 할 수는 없으니 '교육감'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고, 교육청은 교섭대상을 '교육감'으로 지칭한 예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서로 팽팽한 주장만 거듭하다가 결론 없이 1차 실무교섭을 마쳤다.

2차 실무교섭에서 시측 대표는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경북교육감을 당사자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섭당사자에게 온전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노조의 주장이 한판승을 거두는 순간이었다.

이후 양측 대표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한 교섭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시중 진지하고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으로 긴장감 속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감과의 단체교섭은 실무교섭, 본교섭, 실무교섭, 다시 본교섭의 방식으로 경북교육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안 전부가 합의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3번의 실무교섭에는 과별로 소관의제를 정하여 노조 6명, 사용자 6명의 실무교섭위원이 참석하고, 사용자 측은 관리국장이, 노조 측은 수석부위원장이 실무교섭대표가 됐다. 그 후 총 7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을 진행했으며 드디어 2007년 6월 28일, 경북교육청과 경북교육노조 간 최초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단체협약 전문은 총칙, 조합 활동, 인사 및 조직,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단체교섭, 근로조건, 교육재정, 공무원 근로보장, 행정 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등 총 10장 59조로 구성됐다. 부칙에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전까지 효력은 지속된다고 명시했다.

경북교육노조는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인 만큼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충분히 보장받는

데 중점을 두었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능직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를 명문화하여 향후 교원 노조와의 갈등관계에 대비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5. 상급단체와 함께 대정부 단체교섭 참여

공무원연금, 정년평등화 등 노조의 단독교섭이 불가능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육노조는 공노총 등의 제 단체들과 함께 대정부교섭에 참여했다. 정부수립 59년 만에 처음 열리는 대정부 교섭에는 이철연 교육연맹 위원장이 본교섭위원으로, 김종기 교육연맹 사무총장이 실무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전국의 100만 공무원과 65,000 교육가족들의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전국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 노사 간 첫 단체교섭이 2007년 7월 5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첫 교섭에는 정부 측에서 박 장관을 비롯해 최양식 행자부 1차관,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등 10명이, 공무원노조 측에선 총연맹 박성철·김찬균 공노총 공동위원장, 조호동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연월·이인수 행공노 부위원장, 이철연 교육연맹 위원장 등 39개 참여노조를 대표하는 10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공무원 최대 노동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여서 교섭주체에서 배제됐다.

정부교섭 대표인 박 장관은 “이번 교섭은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노사관계



대정부 단체교섭 제8차 실무교섭 (2007. 11. 22)

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섭선례를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고, 노조 측 대표인 박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교섭을 통해 현행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차별화된 정년을 모두 60세로 단일화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연차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밖에 기본급 4.6% 인상, 공무원연금 개정논의 중단, 총액인건비제 실시 전면보류,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 노조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교섭을 벌였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단체는 단체 교섭 5개월 만인 2007년 12월 14일, 총 3회의 본교섭을 어렵게 마치고 역사적인 교섭 타결에 합의했다.

당시 경북교육노조는 단체교섭에서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요구안들이 수용되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경북교육노조 출신으로 본교섭위원과 실무교섭위 간사가 된 이철연 위원장, 김종기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기도 했다.

대정부교섭을 통해 타결된 주요의제 중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의제는 ▲6급 이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차별 해소 ▲유치원 병설학교 근무자 겸임수당 지급 ▲학교 행정실 설치 법제화 ▲학교 근무 직원의 분장사무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직원 참여 등이 있었다.

정책건의로 채택된 의제는 ▲6급 근속 승진제 실시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기능직 10급제 폐지 ▲기능직 6·7급 정원 상향 조정 ▲기능직 폐지 및 일반직에 통합 등이었다.

이후 노조의 노력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조정되었으나 유치원 병설학교 근무자 겸임수당 지급 의제는 아직도 협의 중에 있다.

## 6. 정치후원금 기탁과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경북교육노조는 깨끗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조합원과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모금을 실시하여 2007년 12월 21일에 3,600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였다. 또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행사'가 79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실시하여 2007년 12월 30일 모금액 1,682,900원을 구세군경북지부에 전달했다. 모금 이벤트는 12월 26일 하루 동안 5천여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 이벤트 코너를 방문해 클릭하면 1회 당 100원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11월 4일에는 우수 조합원 60명, 울릉지역 학생 10명 등과 함께 독도를 방문, 독도경비대에 100여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독도 국군 주둔, 독도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특별예산 지원, 입도 인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제1기 경북교육노조는 경북교육노조 간부 기본 교육, 합리적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공무원 노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북교육노조 가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썼으며 한마음체육대회, 정년 및 명예퇴임공무원 환송연을 개최하고 경북교육노조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조합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최선을 다했다.



독도 경비대 위문품 전달 (2006. 11. 4.)

대구시민일보

2007년 12월 31일 18면 (인물)

불우이웃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경북교육노조, ‘깜짝 이벤트’ 모금 구세군에 전달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조합은 28일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깜짝 이벤트’ 모금 행사를 실시한 모금액 168만2천900원을 구세군 경북지부에 전달했다.

경북교육노조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행사가 79년만에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모금 이벤트는 지난 26일까지 5편에 조합원 및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경북교육노

조 홈페이지(www.gbe.or.kr) 이벤트 행사 코너를 방문해 클릭하면 1회당 100원이 적립되는 것이다.

깜짝 모금 이벤트에 모두 1만6천829회의 방문과 클릭을 해 168만2천900원의 모금액이 적립됐다.

이철연 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해온 5편에 조합원과 후원회원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생각

해 보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구세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2007. 12. 31)

## 제2절 제2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08~2011년)

### 1. 제2기, 출범하다



2004년 11월 26일 창립을 선언하고, 공노조법의 통과와 함께 합법화 과정을 거쳐 2006년 4월 15일 제1기를 출범시킨 경북교육노조는 경북지역 학교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법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6급 정원 증원, 맞춤형 복지제, 당직비 현실화, 국정 및 행정사무감사 규정 준수 등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기능직 특별채용, 유치원 겸임수당, 연금개약 저지, 공무원 정년평등화 등 공무원의 권리를 찾는데 힘을 보탰다.



제2기 노조 출범식 (2008. 4. 11.)

어려운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한 1기 경북교육노조를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2기 노조가 출범했다. 제2기 경북교육노조는 총 투표수 4,137명, 총 투표율 93%, 득표수 72.2%로 이철연 위원장을 2기 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며 다음과 같이 임원을 추대했다.

- 위원장 : 이철연
- 수석부위원장 : 김태균
- 부위원장 : 김종기, 황정자
- 사무총장 : 박흥기
- 회계감사위원장 : 임상길

2008년 4월 11일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2기의 시작을 알린 제2기 경북교육노조는, 1기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각오하며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 우리의 요구

1. 대정부와 교섭한 학교동일 근무시간 준수 조례를 즉각 시행하라.
2. 교육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즉각 철폐하라.
3. 6급 이하에 대한 정년(고용)차별을 즉각 철폐하라.
4.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5. 기능직에 대한 각종 차별을 즉각 철폐하라.
6. 공무원연금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7. 공무원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2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 참여

2008년 4월 26일 광화문 열린 시민광장에서 “유일한 노후보장이다. 공무원연금 졸속개악 중단하라!”는 깃발 아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 공무



원연금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입법예고안에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무려 27%나 인상하고 연금급여도 삭감했다. 정부가 악화시킨 공무원연금 재정을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는 개악이었다.

공무원연금 적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무원을 10만 명 이상 구조조정 했다. 그때 정부가 당연히 내야 할 퇴직수당 4조 7,169억 원을 공무원이 적립한 연기금에서 지출했고, 1995년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사망 조의금, 재해 부조금 역시 연기금에서 1조 4,425억 원이 지출되었다. 또한 정부가 당연히 연기금에 납부해야 할 돈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남자 공무원은 첫 발령을 받으면 군대 복무기간만큼 소급해서 매월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으며(5,863억 원), 정부가 필요시 연기금에서 빌려간 금액에 대한 이자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4,700억 원).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정부는 책임준비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지만 2001년 이후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았다(7조 2,000억 원). 이 모든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이다. 정부가 위 금액만 성실히 납부했어도 지금의 적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써왔으면서도 마치 연금적자가 공무원 자체에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납부액과 납부기간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본인 4.5%+회사4.5%)를 납부하지만, 공무원은 14%(본인 7%+정부7%)를 납부한다. 또한 가입기간도 국민연금은 10년이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 납입이며 대부분 33년 만기까지 납부하고 있다. 퇴직금 역시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의 39% 수준이다. 길게 내고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언론에서는 단순 수령액만 비교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재산이다.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한 공무원들의 귀한 재산을 잘 굴리고 불려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경영적자를 늘려놓고는 마치 공무원연금이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원흉인 것처럼 언론플레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대회 (2008. 11. 22)

를 했다.

원래 공무원연금제도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청렴하게 봉사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10만 명 이상이 구조조정 당하고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지만 그것에 반발하는 공무원은 없었다. 국가 경제가 힘들 때 희생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가재난 때마다 가장 어렵고 힘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바로 공무원이다. 불이 났을 때, 수해나 지진의 폐허에, 범죄의 한 가운데, 구제역·AI로 인한 살처분의 현장까지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나중에 철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위험하고 다급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로나 사고로 쓰러지고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공무원이 상당하다. 이런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동네북처럼 국가 손실의 원흉으로 취급받아왔다. 그때마다 언론은 ‘세금 먹는 하마, 국민의 혈세, 수령액 국민연금의 2.6배’ 등 단편적이고 선정적인 용어를 쓰며 공무원연금 개정의 불가피성을 보도했다. 공무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압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부는 2008년 각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 일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교육현장은 그 무엇보다 교육의 논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이 때문에 공공성은 물론 자치와 규범성 등이 그 어떤 기관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교육의 논리를 배제하고 실용주의적 경쟁이 바탕이 된 경제 논리로 교육을 바라봤다.

이때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학생을 가르쳐야 할 시간에 공문처리를 하고 있으니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행정직 공무원들 역시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오히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공무원을 줄이려고 시도했다. 공무원을 감축하면 남은 사람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을 논하는 과정에 나타난 교육과학기술부의 비민주적 절차도 문제였다. 일괄 감축 5%도 문제지만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의 의견이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 교원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우리가 정했으니 너희는 따르라’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교원노동조합 등 제 단체들은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짓밟고 학교현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정부에 대항하기로 결의하고 2008년 11월 22일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단행했다.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이 궐기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만여 명의 공무원이 정부의 개악을 규탄하며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공무원·교원노조 제 단체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경북교육노조 역시 상급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공무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온갖 공권력을 사용해서 노조들의 단체행동을 무력화시켰다. 결국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적 합의안 지급률 1.9%, 소득상한제 1.8배를 유지한 채 한나라당 단독으로 공무원연금법 사회적합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 3. 경북교육노조 정책연구소 설립과 경북교육협의회 발족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교육현장의 효율성 있는 변화를 위해 경북교육노조는 2008년 7월 25일 봉화군 명호면에서 개최한 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책연구소 설치를 확정지었다. 정책연구소는 2년 임기의 초대 소장에 김종기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책임연구원에 김진기, 연구원에 박재훈, 서종철, 구봉민을 선발했다. 2009년 2월 16일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안을 완성했다.

경북교육노조 정책연구소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연구·개발하여 노동조합의 발전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현안사업 해결 및 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했다.

특히 2009년에는 '경북교육청공무원의 사무



경북교육협의회 발족 인터뷰 (2008. 11. 19.)

관 승진 방법에 관한 건 과 ‘소규모학교 인력 배치의 효율성에 관한 건’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정하여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관 승진방법 개선과 나 홀로 행정실장 문제를 쟁점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공무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했다.

더불어 경북교육노조는 교육협의제도 발족했다. 2008년 11월 대경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운구),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위원장 김점수),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심세보)과 함께 회원 7,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북교육협의체(경북교협)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생시켰다. 그동안 독립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던 교육공무원들이 경북교협에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북교협은 ‘교원과 교육청공무원이 대등하게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과,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을 선언했다. 출범에 맞춰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은 뒷전인 채 일부 교사가 이기적인 태도로 목소리를 높여온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설명하며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교직원 단체의탄생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교육노조 이철연 위원장은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교원과 행정공무원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이라며 “교육협의체는 이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경자유교원조합 이운구(구미여고 교사) 위원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소중한 가치인데도 그동안 일부 교원단체가 특정 정치이념에 지나치게 편향되지 않았는지 차분히 돌아봐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는 교직원단체로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경북교육노조는 협력과 상생을 통한 노조활동으로, 위기에 처한 학교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개진했다.

#### 4.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정책협의회

2009년 6월 3일 경북교육청 상황실에서는 ‘경북교육노조-경북교육청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교육청 측에서는 추재천 기획관리국장, 이동출 총무과장, 안희욱 예산담당, 운영태 단체담당이 참석하고, 노조 측에서는 이철연 위원장, 김종기 부위원장, 황정자 부위원장, 박귀훈 정책국장, 이



노조-교육청 간 정책협의회 (2009. 6. 3.)

명구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노사 간 허심탄회하게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기능직 상위직급 확대와 각급 학교 행정직의 직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현재 시·군간 일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승진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기에 출근하는 통학버스 차량 운전원들의 특근매식비 예산편성’을 요청한 노조의 의견에 대해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여기서 합의된 운전원 특근매식비는 2010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되었고, 기능직 승진 문제는 2011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되었다.

## 5. 현장의 메아리 듣기

경북교육노조는 직협 시절부터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지부 창립식이나 창립총회, 상임위원회, 대의원대회와 같은 대단위 행사를 통한 만남이 대부분이었다.

경북교육노조는 지부 조합원들의 생생한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지부별 현장 메아리 듣기 협의회를 기획했다. 가장 먼저 2009년 12월 2일 군위교육청 회의실에서 군위지부 조합원 현장 메아리 듣기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군위지부 각 직렬별 대표자들은 학교근무자의 교원과 동일 근무시간 적용, 소규모 학교의 1인 행정



안동지부 현장의 메아리 듣기 (2009. 12. 9.)

실 업무, 운전원·조리사 동하게 연수, 유치원 겸임수당,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 노동조합활동 제한,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인정 문제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중·고병설수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철연 위원장과 김종기 부위원장은 최근의 노사관계와 질의 내용에 대한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조합원들의 요청을 본청과 중앙교섭에 적극 반영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노조 측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김성광 관리과장, 김창열 총무담당자가 참여하여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부에서는 한갑수 지부장을 비롯한 각 직렬별 대표자들과 이제복 고령지부장이 함께 참석하여 협의회 진행사항을 지켜봤다.

2009년 12월 9일에는 안동교육청 회의실에서 안동지부 현장 메아리 듣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진행 경과, 학교행정실 법제화, 학교근무자의 교원과 동일 근무시간 적용, 소규모 학교의 1인 행정실 업무, 운전수당 폐지 관련, 유치원 겸임수당, 기능직 공무원상위직급 정원 확대, 조리실 내 탈의실·화장실 설치 관련 등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안동 출신 홍광중 경북교육위원회 의장이 격려차 방문했으며, 본조에서는 이철연 위원장, 김종기 부위원장, 박귀훈 사무총장, 이제복 고령지부장이 참석했다. 안동지부에서는 조원정 지부장, 조상래 행정협의회장, 김기수 사무원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직렬별 대표자 20여 명과 안동교육청의 조기정 관리과장, 금동준 총무담당자가 참석했다.

노조는 이후 2010년 1월말까지 10개 지부에서 '현장의 메아리 듣기 협의회'를 이어갔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렇게 논의된 내용을 대정부단체교섭 및 중앙부처 안건, 경북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안건, 각 급학교장 관련 안건으로 분류하여 단체교섭 시에 요구사항으로 추진했다.

## 6. 맞춤형복지 100포인트 상향 조정

‘맞춤형 복지제도’란 연공과 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를 말한다.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은 경북교육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예산을 수립하기도 전인 2005년부터 기준의 100%를 지급받아 왔다. 또한 2010년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전 교직원에게 기본 복지점수를 현행 300P에서 400P로, 100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인당 100,000원의 복지혜택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복지 포인트를 인상한 것이다. 이 결정도 경북교육노조의 요구를 경북교육청이 수용하고, 2009년 12월 16일 경상북도의회 예결위에서 통과됨으로써 확정된 것이다.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시행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교육노조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복지 포인트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합원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 7.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상 시상

경북교육노조는 하위직원의 권익·복지·근무환경 향상에 솔선수범한 5급 이상 관리자를 조합원들이 직접 뽑는 ‘제1회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상’을 신설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분야에서 총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10년 6월 9일 노조사무처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는 이철연 위원장 외 노조 임원 및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이들의 수상을 축하했다.

시상 후 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영우 교육감은 “노조 주최로 실시한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상’ 시상식 직급 간 갈등을 봉합하고 경북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며 노조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철연 위원장은 “교원들은 각 분야별로 교육상을 수상하는데 현재 「경상북도교육상 조례」에 열심히 일하는 5,000여 명의 교육행정가족에 대한 시상 분야가 없다. 우리 교육행정가족들이 잘한 것을 칭찬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교육상 조례 개정해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영우 교육감은 열심히 일하는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제1회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상 수상 명단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현장 메아리 으뜸관리자상	경상북도교육청	지방서기관	김태원	재무과장
	경상북도경산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박만태	관리과장
	경상북도청송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심영수	관리과장
청렴 으뜸관리자상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지방서기관	이승태	관장
	경상북도교육청	지방서기관	정오용	총무과장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웅수	감사1담당
업무 으뜸관리자상	"	지방서기관	고중열	학교지원과장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박선용	비서실장
인성 으뜸관리자상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지방서기관	권영건	총무부장
	경상북도울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장헌배	관리과장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구영숙	조직관리담당

## 8. 노조 임원 노동교육과 노시합동 워크숍

제2기 경북교육노조 역시 1기와 마찬가지로 노조 임원들의 교육에 힘을 쏟았다. 역량 있는 조직가를 발굴·육성하고, 노조의 전략적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 임원교육은 노조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2009년 8월 6일 청송에서 열린 경북교육노조 하계수련회에는 상임위원 전원과 각 지부 사무국장 전원(48명)이 참석해서 한국노동운동 변천사, 간부의 역할, 노조활동의 실제사례, 그리고 공무원 인사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고민과 역할을 되새겨 보고 지부활동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0년 1월 31에는 대구시 인근 팔공산 유스호스텔에서 조합간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노동조합의 이해, 한국노동운동 변천사, 조합간부의 역할과 자세, 경북교육노조의 발전방향에 대해 김종기 부위원장의 강의와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계속된 강행군에도 대부분의 간부들이 끝까지 참석하여 앞으로 간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2010년 11월 19일에는 ‘노사 상생발전을 위한 노조임원 워크숍’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이철연 위원장을 비롯하여 본조 임원, 각 지부장, 사무국장, 경북도교육청 총무과장, 공무원단체 담당자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은 TBC MC 이도현씨의 ‘배려화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양강좌와 김종기 부위원장의 ‘현 정부 노사정책 및 노조현안’ 설명, 본청 정오용 총무과장의 ‘노사 현안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사현안토론 시간에서는 학교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건의, 기능직 상위직급 확보, 총액인건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둘째 날은 노사가 함께 ‘상생을 위한 화합 동반’을 했다. 노사가 함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화합하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의 의미와 노사상생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후에도 경북교육청 노사는 함께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서로의 거리를 줄여나갔다.

## 9. 직렬별 대표자 토론회

2011년 2월 11일 경북교육노조는 포항에서 ‘직렬별 대표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교육청 정오용 총무과장은 조합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점을 수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이철연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고중열 행정예산과장, 윤승묵 조직관리담당계장, 김성희 공무원단체담당계장, 공무원단체담당 주경영·김현기 주무관에게 조합원 업무경감 및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각 12개 직렬대표자들은 약 두 시간 동안 근무 시 애로사항 및 건의할 내용을 설명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교육청이 해결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같은 직렬별 대표자 토론회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각 직렬의 입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청에 직접 전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노조에서 주도해 이루어진 이 토론회는 이후 열린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의 근간이 되었다.

## 10. 한마음체육대회와 사랑의 연탄 나눔

경북교육노조는 경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국의 노동조합과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교육행정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교육노조 임원진들은 2009년 11월 14일 대전 외삼초



사랑의 연탄 나눔 (2010. 10. 30.)

등학교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한마당체육대회’에 참가해 이날 함께한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대구, 전남,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남, 부산, 제주 노동조합 임원들과 앞으로 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철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철폐 대해서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여러 가지 어수선한 사회적 상황의 와중에도 경북교육노조의 봉사활동은 계속되었다. 2009년 10월 23일 화랑교육원에서 열린 제5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스카프, 맥주 판매 등을 통해 겨울을 앞둔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 연탄을 보내기 위한 모금행사가 진행되었다. 연탄 10장에 5,000원, 20장에 10,000원으로 산정해 모금된 성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쪽방거주자, 실직과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쓰였다. 교육노조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사단법인 ‘따뜻한한반도’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다.

## 11. 상급단체와 함께한 성과들

### ■ 정년평등화 실현

그간 정년제도는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신분제로 통용되고 있었다. 계급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직급이 높다는 것은 봉급과 연금, 그리고 명예를 가지는 것인데 이것에 더해 일하는 시간까지 길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또한 교원은 모두 62세, 외교통상부 공무원은 60세로 단일화된 상황에서 일반 공무원만 이를 구별한다는 것은

법률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미 선진국 등 외국에서는 ‘평등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만 불평등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공무원들은 누구나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일단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3년이나 더 일할 수 있으니 기필코 승진해서 정년을 늘리려는 사람들로 수많은 인사비리가 발생했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인사권을 남용해 이를 권력처럼 휘둘렀고, 그들에게 올바른 의견을 제시해야 할 6급 이하 현장 공무원들은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당연히 그들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공직사회는 이 문제로 심각한 분열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한 불평등한 정년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직 〉

- 5급 이상 : 60세    • 6급 이하 : 57세 (공안직 8, 9급 54세)

〈 기능직 〉

- 등대 · 방호직렬 : 59세    • 기타직렬 : 50~57세

〈 특정직 〉

- 경찰 : 경정 이상 60세, 경감 이하 57세    • 소방 : 소방령 이상 60세, 소방경 이하 57세

정년을 평등화시켜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에 정부는 ‘5급 이상은 직무의 종류가 다르므로 정년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 기관별 성격이 달라 직급으로 직무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특히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6급 이하 정년을 60세로 높이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정년평등화에 따른 재정수지분 석’에 따르면, 퇴직이 늦어지면 연금시행도 늦어져서 연간 2,800억 원(3년간 8,601억 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또다시 ‘6급 이하의 정년을 높이면 신규채용을 대폭 줄여야 해서 문제가 된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진다’ 등의 이유로 사실을 왜곡했다.



정년평등화를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2006. 4. 28.)

이 시기는 행정수요가 늘어나 신규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도 했지만, 노조가 원했던 것은 정년연장이 아니었다. 무작정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5급과 6급이 정년에 따라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정년을 평등화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정년이 평등화 되어야만 각종 인사비리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소외감이 해결되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주장대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면, 대신 5급 이상의 정년을 줄이면 되는 문제였다.

정년에 따라 차별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 당연한 요구를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년평등이 이루어지면 인격과 능력이 존중되는 수평적 공직문화가 열려 상·하간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어 국가 경쟁력에는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정부는 그런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200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년평등 투쟁은 더욱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공무원정년 단일화 정책을 내놓았다.

경북교육노조 역시 정년평등화를 이루기 위해 공노총과 함께 정책연구, 연대서명, 설문조사, 언론광고, 공청회를 주최하였고 정부종합청사 1인 시위, 인권위 제소까지 법 개정을 위한 모든 연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전국버스투어를 통한 서명운동을 시작해 공무원 정년평등문제를 공직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는 한편, 1인 시위도 진행했다. 1인 시위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살을 녹이는 불별더위와 뼈를 에는 찬바람을 이겨내며 총 300여 일간 계속됐다.

경북교육노조는 특히 '조합원 행동강령 2호'를 발령하고 정년평등화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조합원 행동강령 제2호

2008년 5월 20일 10시까지 대구 동구갑 주성영 국회의원 사무실 및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호소 글 게재

결국 2008년 5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

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북교육노조가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온 공무원 정년차별 폐지운동이 일단락되고, 공직사회는 화합과 협력, 민주적 조직 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

국회가 의결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0세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이였다. 다만 신규채용 급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도 2009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다.

### 정년평등화를 위한 노조활동 경과

- 2001. 08. 10. ~ 공무원 제단체 정년차별 철폐운동 전개
- 2003. 11. 23. 한나라당 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정책 발표
- 2004. 04. 열린우리당 공무원 정년 단일화정책 발표
- 2005. 03. 2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결정, 정부에 시정권고
- 2007. 12. 14. 참여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개선 협약 체결
- 16대 국회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외 41인 정년개정 법률안 발의(보류결정)
- 17대 국회 배일도, 김재홍, 서병수의 각각 정년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2008. 02. 26. 행정자치위 정년 개정 여야 합의 통과(2013년까지 60세로)
- 2008. 05. 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부
- 2008. 05. 22. 본회의 통과

#### ■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

당시 기능직공무원은 10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9계급 체계로 구성된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승진과 보수에서 차별을 받았다. '기능직공무원 10급제도'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최대 차별 요소였다.

2011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는 기능직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직 10급 공무원 폐지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2007년 대정부 단체협약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6월 2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고 현재 남아있는 기능직 10급은 모두 9급으로 승진 임용된다' 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을 의결했다. 기능 10급 폐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됐다. 다만 재직기간 2년 미만, 2~4년, 4년 이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 역시 실무직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실이었다. 이를 통해 10급 기능직공무원들은 일반직과의 불평등 없이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

###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 활동 경과

- 2006. 03. 22. 교육부 방문 : 전국의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제도개선 요구(민원접수)
- 2006. 12. 06.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면담 : 지방공무원 제도개선 건의문 전달
- 2007. 12. 14. 제3차 교섭 및 대정부 단체교섭 타결 및 정책건의서 제출
- 2008. 04. 01. 행안부 장관(원세훈) 면담 : 기능직공무원 차별철폐 정책건의
- 2008. 09. 18. 2008년 대정부 단체교섭 요구 : 10급제 폐지 및 5급직 신설 등
- 2009. 06. 22.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 면담 : 2006년 단체협약 성실이행 요구
- 2009. 10. 07~14.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 위한 설문조사
- 2010. 01. 21.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0. 01. 28. 교육청노조 10급제 폐지 환영 성명서 발표
- 2010. 02. 03~10.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 서명운동(약 1만여 명)
- 2010. 03. 10.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 요구 서명지 전달
- 2010. 03. 23. 조원진 의원 면담 중점추진사업 논의
- 2010. 03. 23~24. 영남권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토론회' 참석 :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 2010. 04. 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 심사에 참석해 법안통과 적극 요구
  - 심사결과 :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등에 관하여 현행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는데 합의

- 2010. 04. 22.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간담회 참석 : 기능직 10급제 폐지 요구
- 2010. 05. 11. '행안부 장관과 일선공무원과의 대화' 참석 : 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권익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 피력
- 2010. 06. 21.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면담 :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요청
- 2010. 07. 05.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오찬간담회 :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 등 요구
- 2010. 07. 28. 행안부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노사 상생·협력 위한 공동선언」 협약

### ■ 지방공무원 복무시간 불평등 해결

교사들은 지난 1985년 총무처의 지침으로 오후 5시 퇴근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조기 출근하는 교원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면서도 퇴근은 1시간 늦은 오후 6시에 해왔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도 근무시간은 다르다는 불평등한 처우에 경북교육행정가족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2005년 교육행정기관은 '주40시간 근무제' 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었다.

- 월 1회 토요일 휴무 운영(넷째 주 토요일)
- 나머지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주중 평일 대체휴무 가능
  - 예) 토요일(4시간) 근무에 대해 주중 1일 1시간씩 4일간 대체 휴무가능(주중 4일 1시간씩 조기퇴근 가능)
- 방학기간 중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토요일은 휴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직원 1명을 근무하게 하여 민원업무 처리 유지[근무한 직원은 평일에 대체 휴무(4시간) 부여]
- 각 급 학교장은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이 지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동절기 단축근무와 관련된 '각급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 폐지

문제의 발단은 교육공무원과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복무가 다르다는 것에 있었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이후 방학 중 자가 연수를 제외하면 교원과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복무는 동일했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즉, 교원들은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정식으로 인정받는 반면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교원들이 학생지도를 명분으로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듯이 행정직원도 점심시간에 직·간접적 급식지도를 하고 각종 교육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시간으로 해주어야 했지만 이 같은 상식이 학교 내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직무의 성격에 따라 보수체계가 다른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 누구는 일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성원간의 갈등원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복무는 교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문구만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스레 풀릴 수 있는데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었다. 교원이 아니니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압력에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공동체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단지원부서인 행정직공무원도 교육공동체의 당당한 주체다. 그런데 정부는 행정직공무원에게 소명의식을 심어주기엔커녕 애매한 복무규정으로 소외감만 느끼게 했다.

이때는 주5일 근무제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않았기 때문에 행정직원들이 '우리도 무조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 달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직원들은 학습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에 학교를 비운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가 당시 학교 내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었던 만큼 노조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무원들과 함께 조례 개정에 힘썼다. 노조의 다양한 노력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2월 4일 시·도교육감에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며 경북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사항을 이행했다. 경북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도내의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같아졌다. 다만 경북도의회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2006년 대정부 단체협약 제46조(학교근무자 근무시간)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



적으로 조정·실시한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 공무원들은 교원들과 같이 출근해서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의 각종 수납 업무 등 학교 행정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교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에는 행정실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다.

## 제3절 제3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1~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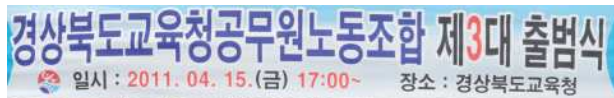
### 1. 제3기 경북교육노조 출범하다

제3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2011년 4월 15일 경상북도교육청 테니스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3월 19일 제18차 대의원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철연 위원장이 1, 2대에 이어 다시 당선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키워낸 그간의 공로와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대답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조 임원 및 사무처 국장, 본청을 포함한 24개 시군 지부장과 사무국장, 경북교육청 황인철 부교육감과 김종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예병운(전 경북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장현(전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3기 출범사에서 이철연 위원장은 도내 소규모학교의 1인 행정실장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교원 인사기록카드를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교무실로 이관하여 교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학교현장의 갈등 해소, 퇴직자를 활용한 소수 직렬의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임기동안 다시 한 번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3기 출범식은 기존 1, 2기 출범식과는 달리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절감된 행사비는 도내 초·



제3기 노조 출범식 (2011. 4. 15.)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금까지 1, 2기 노조가 노조의 몫집을 키우고 영향력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했다면, 3기 노조는 노조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적인 복지와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9월 20일 경북교육노조 회의실에서 이철연 위원장 외 임원 10여 명은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나 홀로 행정실장의 근무여건 개선 요구와 인사처우 개선 요구를 위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2 통신 3사 노조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돕기 협약체결

2011년 5월 19일 오전 11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대구·경북 통신3사(SK, KT, LG) 노동조합과 경북교육노조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돕기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교육노조 조합원이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때 개인이 받는 수당을 소규모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는 대신, 통신사는 참가자들에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이었다.



통신3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돕기 협약체결 (2011. 5. 19)

이날 행사에는 경북교육노조 이철연 위원장, SK브로드밴드노조 우혜경 경북지부장, KT노조 대구법인단 변우영 지부장, LG유플러스노조 한영식 대구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철연 위원장은 “소규모 학교의 학생이 줄어들면 폐교나 통폐합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약체결로 생긴 이익금은 전액은 경북에 있는 전교생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전달됐다. 이 행사는 여러 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경북교육노조가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좋은 계기가 됐다.

### 3.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확대

이 시기는 기능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지방공무원 간 승진차별 현상이 심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능직 직급별 정원(평균)은 7급(22.6%)과 8급(39.5%)에 주로 분포해 있었고, 상위직급인 6급(8.8%)과 하위직급인 9급(19.6%)·10급(16.9%)에도 고르게 분포해 있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7개 단체는 5급에도 각각 1%씩의 정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기능직들은 하위직급인 9급(평균 33.0%)과 10급(41.5%)에 과도하게 몰려 있었다. 6급 정원은 3%에 불과했고, 5급 정원은 아예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단체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받아 단체장이 총액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교과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 일괄적으로 통제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과도한 차별에 노동계는 교육청 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와의 승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책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라”는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 전국시·도교육감들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재검토를 건의했다. 결국 정부가 2011년 7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상위직급 비율을 확대했다. 이로서 경북교육청은 2011년도 9월 1일자로 기능직공무원 6급 82명, 7급 277명, 8급 206명 총 565명(전체 인원의 22.6%에 해당)의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이었다.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6급은 2% 이내에서 6% 이내로, 7급은 8% 이내에서 15% 이내로, 8급은 14% 이내에서 26% 이내로, 9급은 75% 이상에서 53%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도 4급 이상은 1.5%에서 2%로, 5급은 6.5%에서 8.5%로, 7급은 30%에서 33%로 소폭 상향되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경북교육노조는 경북도교육청 조직부서 및 인사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발맞춰 조정과 동시에 바로 인사를 단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제까지 적체된 기능직공무원의 승진관련 인사고충을 해소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 4. 노사합동 연수

2012년 4월 2일부터 3일까지 칠곡 평산아카데미에서 '2012년 경상북도교육청 노사합동 연수'를 개최했다. 경북교육노조와 경상북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노조 측에서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상임집행위원 등 44명, 집행부에서는 교육감, 본청 과장(담당관), 직속기관 부장(과장),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경북교육노조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노사상생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노사합동 연수 (2012. 4. 2.)

첫째 날에는 윤광희 공인노무사가 노사관계의 이해, 서성미 강사가 친절서비스 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리고 6개 분임으로 나누어서 진행된 분임토의에서는 노사 간의 열띤 토론으로 공통된 의견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 날에는 공무원단체담당 진행으로 '노사문화의 변화와 상생 발전'을 주제로 분임토의 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선주 강사의 '음악을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고중렬 총무과장의 강평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5. 정보업무, 행정실 이관을 막아내다

학교현장은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학교 내 갈등이 유발되고,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2012년에 또 다시 교원노조가 정보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당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문제로 행정실 시설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행정실장 교육'에서 특정 직급이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12년 4월 5일 경북교육노조는 '지방공무원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행위'임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 성명서

1. 교육감은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2. 교육감은 전국 시도평가 최우수 교육청을 이끌어낸 조합원들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상위직급비율 확보로 승진기회를 마련하라.
3.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시설업무경감을 위한 인력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4. 교육감은 주 5일제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대체인력, 대체휴무, 특별휴가, 휴일수당 등 대책을 마련하라.
5.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 정부 정책에 부응하라.
6.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여 처리할 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하라.
7. 교육감은 조합원들의 청렴성을 인정하고 지적위주의 감사를 지양하라.
8. 국정감사 및 도의회감사 외 6종 사무 감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6월 18일에는 경북교육청에서 이철연 위원장과 노조 임원들, 그리고 멀리서부터 연가를 내어 올라온 일반조합원들이 함께 청사 앞에서 교원업무이관 반대 시위를 했다. 이후 경북교육청은 정보 업무는 업무이관이 아닌 업무개선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런 강력한 단체행동을 통해 교원들의 업무 떠넘기기 행태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 6. 경북교육청과의 정책협약

2012년 8월 18일 경북교육노조는 도교육청 별관2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때 정책협약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협약이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책협의를 통해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함.

조합원들이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협의 요구 건은 ▲학교 자체 감사 폐지 ▲도교육청 근무자 기준 변경 ▲일반직 상위직급 확보 ▲기능직 상위직급 확보 ▲시설 전담인력 배치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인력 확보 ▲공공도서관 분관 근무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경감 ▲나 홀로 실장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업무경감에 따른 업무 떠넘기기 지양 ▲업무 매뉴얼 제작 및 행정 업무의 범위 법제화 ▲행정실 업무 경감 및 개선 ▲중·고병설학교의 행정실분리 ·공립유치원 근로여건 개선 등이었다.



제2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2. 8. 18.)

그러나 노사 간 정책협의 과정에서 나 홀로 실장 문제, 행정실 시설 업무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경북교육청 집행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고, 국정 감사, 행정사무 감사, 교과부 감사 등 각종 감사자료 준비로 정책협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경북교육노조에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4일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본청 앞뜰에서 실시하였다.

당시 피켓 문구는 “나 홀로 실장 죽어났다! 근무여건 개선하라!”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조속히 시행하라!” “국회입법 촉구한다! 국정 감사, 행정사무 감사, 감사원 감사, 교과부 감사, 의회결산 감사, 특별 감사, 시안 감사, 자체 감사 365일 감사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친다!” 등이었는데, 이는 행정직원의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11월 7일에는 이철연 위원장과 노조 임원들이 함께 조합원의 뜻을 담은 서명지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5일간의 짧은 시간동안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서명에 참여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명지 전달 후 국장 및 부교육감과의 간담회, 교육감 면담을 통해 조합원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후 실무협의를 원활히 진행되었고 경북교육청-경북교육노조는 다음과 같이 협의했다.

정책 실무협의회 결과 (7건)

번호	안건(요구사항)	수용여부	검토 의견	주관과
1	당직일 전일 휴무 및 휴일당직비 7만원 인상	부분수용	휴일 당직비는 2013년도부터 7만원으로 인상 확정되었으며, 당직일 전일 휴무를 위한 규칙 개정은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후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음	총무과
2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 지정된 5개 도서관에 전담인력 확보	부분수용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행정지원과
3	1인 행정실장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부분수용	소규모학교 적정규모 육성 및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기능직의 일반직전환과 연계하여 정원배정 원칙을 나 홀로 실장 고층해소에 우선적으로 두고, 사무원 정원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음	행정지원과
4	시·군교육청에 시설직을 배치하여 학교의 2,000만원 이상(또는 1,000만원 이상)공사를 전담	부분수용	시설직을 증원하여 공사를 전담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시설공사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감리비, 설계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아울러 필요시 행정적, 인적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지원하고자 함 향후 감사 시에 지방공무원이 처리한 시설전문분야의 업무로 인해 지방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한함> 조치하겠음	행정지원과
5	공공도서관 분관에 인력 충원	수용불가	정원 운영상 분관 증원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필요 기관에서 비정규직 활용	행정지원과
6	보건업무물 관리 등 행정실로 떠넘기기 지양	수용불가 (권한 외)	학교장의 업무분장 사항임	체육건강과
7	유치원(e-유치원시스템 등)업무 행정실로 떠넘기기 지양	수용불가 (권한 외)	학교장의 업무분장 사항임 ※ 교과부에서 유치원업무를 겸임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음	교육과정과

요구사항 중 수용 및 소관 외 사항 등 미협의 조정(27건)

번호	안건(요구사항)	수용여부	검토 의견	주관과
1	특정사안에 대해 학교자체 감사 폐지	수용	폐지 예정	감사담당관
2	토요방과후로 인해 토요일에 근무하는 운전원의 처우개선	수용	토요방과후학교 '대체인력 지원비'로 비정규직 운전원을 고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기능직 운전원의 불만 해소 (※ 휴일근무수당은 현업대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불가)	교육정책과
3	기능직공무원에게도 공로연수 실시	수용	2011년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	총무과
4	매년 정년퇴직자가 다수 발생함에도 일반직전환시험 등으로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기능 6급 등의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 어려워 사기 저하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수용	일반직 전환시험 등으로 기능직의 총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상위직급의 적체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총액인건비를 시행함에 따라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상향 추진	행정지원과



번호	안건요구사항	수용여부	검토 의견	주관과
5	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코너의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수용	각 과에 '묻고 답하기'코너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정책협의 기간 중 조치 완료)	총무과
6	급식실 냉온풍기 설치	수용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냉난방시설 확충을 연차적으로 추진(시설과와 연계하여 조기 보급 추진)	체육건강과
7	도교육청 근무자에 대한 근무연한 축소 및 학교경험이 있는자가 도교육청에 근무하도록 자격제한	부분수용	5급의 경우 1년 축소(2013. 7. 1 시행)6급 이하는 정년연장으로 근무연한을 확대하지는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필요하고, 도교육청 근무자는 현행 학교근무자 위주로 선발하고 있음	총무과
8	연구학교 등 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해 일반직도 교원과 동일하게 해외연수, 가점, 포상기회 등 부여	부분수용	연구학교의 우대조치는 교원으로 한정(교과부 지침상)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인사상 가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직관리규정 개정시 전보 가점 등 긍정적으로 검토 예정	교육과정과 총무과
9	조무원이 작은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부분수용	1인 행정실장교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에 조무원보다 사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과정에 조무원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향후 1인 행정실장교에 행정 인력이 보충되면 조무원을 소규모학교로 배치할 수 있을 것임	총무과
10	법령에 정한 일반직의 상위직급 정원 비율 확보	부분수용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상위직급 비율 확보에 노력하겠음	행정지원과
11	행정실의 업무가 폭주하므로 정원 기준을 변경하여 정규직을 증원	부분수용	일반직전환시험 후 통폐합학교 정원 활용 등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음	행정지원과
12	대체인력이 부족한 운전원들을 위해 예비기사제 부활	부분수용	지역교육청의 조무원을 일선학교로 배치하고 교육청에 퇴직 운전원을 고용하여 교육청의 조무 업무와 운전 업무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예비운전원 확보	행정지원과
13	단설유치원에 8급 1명, 조무원 1명만이 배치되어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	부분수용	2013년부터 8급을 7급으로 상향조정하여 경력자를 배치하고, 인력 증원은 기능직 사무원의 일반직전환시험 및 학교통폐합에 따른 정원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	행정지원과
1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의 절차의 간소화 필요	부분수용	교과부 회의시 건의하겠으며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검토 하여 시행할 예정	학교지원과
15	조무원 탈의실 및 샤워실 확보	부분수용	환경개선 사업시 학교장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교육시설과
16	정보화업무 행정실 이관 지양	부분수용	정보화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전산 인력 배치, 정보시스템 도입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간 보완대책을 협의 중에 있음	재무정보과
17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에 조리사를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	부분수용	T/F 팀을 운영하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체육건강과
18	공동조리교의 조리종사원 업무가 과중하므로 수당 등 인센티브 필요	부분수용	공동조리교의 경우 조리원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있고, 수당에 대해서는 2·3학교 및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음	체육건강과

번호	안건(요구사항)	수용여부	검토 의견	주관과
19	중·고병설학교의 경우 검입수당도 없이 검무를 하고 있으므로 분리 필요	부분수용	병설학교의 행정실 분리는 정원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검입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여 현재 법안 추진 중에 있음	행정지원과
20	맞춤형복지 점수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	부분수용	2013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총무과
21	성과급 지급시 출산휴가기간 산입	부분수용	교과부의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안내'의 의거 미산입하고 있으나 추후 회의시 산입 건의를 하겠음	총무과
22	각종 시설, 소방, 전기 등 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실장에게 수당 신설	수용불가 (중앙부처 소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경비에 관한훈령(교과부령)'의 개정 필요	기획조정담당관
23	호봉승급없이 정년까지 몇 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으므로 불합리한 호봉 상한제의 폐지가 필요	수용불가 (중앙부처 소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3'의 개정이 필요	기획조정담당관
24	행정실의 사무행정 범위와 업무에 관해 법제화 필요	수용불가 (중앙부처 소관)	교과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	행정지원과
25	개교기념일 가정체험일 등 재량 휴업일에 지방공무원도 실수 있도록 해 달라	수용불가 (법률위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거 학교휴업일에는 정상 근무하여야 함	총무과
26	•우유급식의 업무 중 기호도조사, 안내장 발송 등 영양교사의 본연의 업무 떠넘기기 지양 •비정규직 순회 영양교사에 게 수당을 현실화하여 순회학교 업무기피를 방지	수용불가 (권한 외 사항)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업무분장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비정규직 영양교사의 순회교사 수당은 교과부 훈령(제691호)상 지급이 불가함 (※ CCTV업무분장 사항도 학교장의 권한임)	체육건강과
27	행정보조원과 과학보조원의 민간 경력을 100% 인정	수용불가 (중앙부처 소관)	행안부예규(제411호)에 의하면 '동일한 분야'일 경우 100%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보조나 과학보조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의한 경력이 아니므로 동일분야로 볼 수 없어 50%만 인정	총무과

※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안건 철회

## 7. 상급단체와 함께 한 성과들

###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 특별임용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2011년 6월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하고 특별 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적으로 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또 6급 근속승진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간 노조의 끊임없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일이었다. 경북교육노조는 공노총 등 공무원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는 등 모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용령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지방 사무 직렬의 일반 행정직 전환시험이 시행되었고, 2012년 공무원직종개편 법률이 통과되면서 2013년부터는 기능직공무원들의 전직을 위한 특별채용시험이 3년 동안 시행되었다. 이 결과 약 1,000여 명의 대상자 중 700여 명이 행정직으로 전직했다.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 경과

- 2008. 12. 29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관련 행안부 인사실 실무담당 사무관과 간담회
- 2009. 01. 1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과부에 기능직 전환 건의 및 권한이양요청 공문 발송
- 2009. 06. 22 행안부 방문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관련
- 2009. 07. 15 행안부 및 교과부 방문 :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전환에 대한 조합 의견 전달
- 2009. 07. 29 지방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에 대한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동추진 위 회의
- 2010. 03. 23~24 행안부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토론회' 참석  
 - 경북(대구시청 회의실) · 경남권(부산시의회 대회의실)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조기결정 요구 등 현안 사항 의견 전달
- 2010. 04. 22. 공직선진화 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간담회 참석해 지방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조기실시 등 적극 주장

2010. 05. 11 '행정안전부 장관과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 참석

2010. 07. 05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찬간담회에서 지방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등  
적극 검토 요청

## ■ 초·중등 교육법 20조 5항 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 20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④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 중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문장은 그간 학교 현장의 대표적 악법으로 불려왔다. 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도록 만들어놓은 이 조항을 고치는 것은 6만 5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이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은 쉽지 않았다. 교총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학교 행정직들이 교장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교총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체들은 이를 개정하기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을 통해 학교 현장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불리어왔던 위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개정을 위해 조합원 총궐기투쟁, 서명작업, 기자회견, 교과부 항의방문, 이주호 장관 그림자 시위, 국회 방문, 한교청 면담 등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마침내 승리를 쟁취해냈다.

2011년 12월 28일 교과위 상임위 전체 회의 통과에 이어 이를 뒤인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를 거쳐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제5항은 기존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에서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로 변경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 개정관련 추진 경과

- 2005. 03. 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
- 2005. 09.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 통과
- 2005. 11. 대안법률로 법사위에서 교과위로 통보
- 2006. 03.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 2009. 06.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2010. 08. 25. 교과위 전체회의 상정
- 2011. 03. 08. 법안심사 소위상정(설동근 차관 반대) 보류
- 2011. 04. 20. 상정했으나 논의하지 못함
- 2011. 06. 17. 법안심사 소위상정(성삼제 미래인재 정책관 반대) 보류
- 2011. 06. 20. 법안 상정하였으나 논의하지 못함
- 2011. 12. 27. 법안심사 소위 통과
- 2011. 12. 28. 교과위 상임위 전체 회의 통과
- 2011. 12. 30. 국회 본회의 통과
- 2012. 01. 26. 법안공포

#### ■ 6급 근속승진제도 개선

2010년 행정안전부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류호근)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마치고 5월 11일 공무원노조 대표들로부터 최종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맹형규 장관도 참석했다.

3월 17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 경북, 강원, 수도권 등 7개 지역에서 연이어 열린 토론회에 선 일선 공무원의 가감 없는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은 것은 6급 근속승진. 당시 소수직렬·소속기관에선 상위직급이 없는 정원구조로 인해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일반직 7급 9만 7,999명 중 12년 이상 같은 계급에 머문 재직자가 7,368명으로 당시 7.5%에 이른 것만 봐도 6급 근속승진이 얼마나 목마른 과제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제도추진에 나섰다.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들에게 사기와 업무 의지를 북돋워주려는 맹 장관의 의지가 작용했다. 맹 장관은 토론회에서 “기능직 10급 폐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6급 근속승진 문제는 열린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2년 7월 맹행규 장관과 노조대표들의 노사간담회에서 6급 근속승진이 다시 논의되었는데 이때 맹 장관은 “6급 정원의 15% 제한을 전격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선언하고 6급 근속승진을 추진했다. 근속승진제도 개선 이후 12년이 경과한 7급 공무원 중 20%를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승진 시키던 것을 ‘12년 경과한 7급 공무원 중 20%를 6급 정원에 관계없이 매년 1회 승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었다.

## ■ 공무원 직종개편

공무원사회는 직종과 직급으로 분류되어 구성되어 있다. 그중 직종은 1949년 일반직과 별정직, 2개 직종으로 시작되어 1963년에 기능직공무원제가 도입되었다. 1981년 6개 직종체계(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가 확정된 이후 2011년 고용직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면 이 직종체계는 30여 년간 그대로 유지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보직이나 승진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던 기능직공무원들은 ‘기능직공무원 차별 철폐’와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2011년 4월, 직종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해 6월에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민간, 노조, 중앙부처 및 지방인사 담당자 등 18명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종개편을 논의했다.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넘게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직종개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한 결과, 공무원 직종을 4개 직종(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통합·간소화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012년 1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81년 이후 31년 만의 일이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하고 간소화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으로 세분화되어있던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간소

화 되었으며 폐지된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통합됐다. 기존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된 특수 경력직은 계약직을 없애고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개편했다. 기존 별정직도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와 비서관 등은 남고 나머지는 일반직에 통합되었다. 직종 개편에 따른 대상은 기능직 11만 명, 별정직 5천 명, 계약직 6천 명 등 약 12만 명에 달했다.

공무원직종개편은 일반법 개정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쟁취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정을 주도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정부가 공무원과 관련한 많은 법과 규정을 개정했지만, 공무원 당사자들과 노조 대표들이 공식적인 위원회에 참여하여 제도를 바꾼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있게 노조를 일구고 키워온 공무원노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로서 지난 30여 년간 ‘기능직’이라는 이름으로 서러움과 차별을 받던 기능직공무원들은 차별 없이 동등한 공무원 사회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 공무원직종개편 추진 경과

- 2011. 04. 20. 공무원 직종개편 기본방안 대통령 보고
- 2011. 04. 28.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당정 협의
- 2012. 02. 29.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 방안 공청회 개최
- 2012. 07. 16.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확정
- 2012. 08. 23~10. 03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12. 09. 21.~09. 25. 직종개편 권역별 설명회 개최(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 2012. 11. 22.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 2012. 12. 11. 지방공무원법 개정 공포

#### ■ 나 홀로 행정실장 대책 마련

나 홀로 행정실장이란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혼자서 학교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생기는 온갖 잡다한 업무까지 처리하는 행정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경북지역에 나 홀로 행정실장이 일하는 곳은 초등학교가 185개로 가장 많고 중학교 57개, 유치원 4개였다. 이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등록금 관리, 학교세금 관리, 교사와 직원들의 월급관리, 예산 편성 및 결산, 지출업무 등 학교 회계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와 교직원 인사관리, 비정규직 복무 관리 및 계약, 물품 관리 및 학교 재산 업무, 학교 소속 직원 민방위 업무까지 하는 일이 매우 방대했다. 그뿐 아니라 파손된 학교시설물 복구와 학교시설 유지, 관리 등 일명 교사가 담당하는 교수학습을 제외한 온갖 잡다한 일을 혼자 처리해야 했다.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당국은 예산타령만 하면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등한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과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맡아서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실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특히 휴가, 교육 참가 등 단기 결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 등 장기 결원 시 업무 대행자를 확보하지 못해 업무공백이 계속되는 문제도 심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행정직원은 휴게시간 동안에도 학생들 안전관리, 시설관리, 민원업무처리, 학교장의 지시사항 수행, 교사요구 처리, 수업이나 행사 사전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쉬는 시간이라고 행정실 문을 잠그고 휴식을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쉬는 시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이들이 맡은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현실이 이런데도 행정실 직원의 수당은 비정규직보다도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노조가 또다시 정보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업무 기증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행정실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무실 업무를 행정실에 계속 미뤄 행정직원, 특히 나 홀로 행정실장들이 허덕이는 상황을 노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

단체협약 제29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 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행정실 소관 업무 등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가 행정실에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를 명백한 탄압행위로 규정하고 교육청을 압박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썼다.

교육청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학교당 연간 324만 원의 업무보조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었다. 결국 계속된 노조의 문제 제기에 교육청은 추가비용이나 채용이 필요치 않은 인력배치와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해 기능직 조무 1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 꾸준히 협의의 중이며 경북교육청 역시 조직개편을 통해 비효율적 인력 운영인원을 감축해 나 홀로 행정실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제도개선 촉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을 2012년 8월에 개정하자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9월,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전까지 전국의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겸임발령 근거도 없이 유치원 업무를 보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 행정실 인력은 전혀 충원되지 않은 채 행정직원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교장과 교원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은 지방공무원은 운영위원 활동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지방 공무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업무만 전담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심한 차별이 분명했다. 특히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학교의 학교회계업무와 보안,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가 아닐 수 없었다.

그간 경북교육노조는 지방공무원들의 병설유치원 발령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겸임업무가 아니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고, 교과부는 소관법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안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불평등한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지방공무원이 배제된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발령근거를 즉각 마련하라.
2.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전담인력을 즉각 배치하라.
3. 교과부는 지방공무원이 배제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4. 교과부는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이 문제로 9월 26일 김종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과 면담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학교 행정실 법제화, 지방기능직공무원 사무직렬 전직, 학교 회계직 경력인정 등 지방공무원의 불평등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는데 특히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관련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태훈 지방자치과장과 담당사무관들과 경북교육청 외 13개 가맹조합 위원장들과 임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못지않게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노조에서 요청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 와 병설유치원 관련 안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교과부 소관사항이 아닌 지방기능직공무원 사무직렬 전직 문제와 학교 회계직 경력인정은 교과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배석한 김태훈 지방자치과장 역시 “유치원 행정인력 증원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Inter  
view

끝까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이철연 1~3기 위원장



## 노조를 처음 만들 때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경북교육청 직협이 막 구성될 때였는데, 직협이 노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하나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들어가 민간노조의 성격을 가지는 것, 다른 하나는 정치 중립적인 공무원 노조로 가는 두 갈래 길이였다.

모두 노조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라 민간노조로 가려는 움직임도 많았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공무원이 민간노조로 가게 되면 어떤 '색깔'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학교 현장을 바꾸려는 사람들이지 사상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 경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어용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전국 최대의 단일 노조를 만들었다. 이것은 다른 노조들이 부러워하는 대단한 성과다. 교육과 조합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결된 노조'를 만들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인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가 정말 힘들었다. 일반직 직원들의 탈퇴서가 노조로 매일 쏟아져 들어왔다. 일반직의 반발이 정말 심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들어오면 일반직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일반직원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기능직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당장은 승진이 늦을지 몰라도 인원대비 승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진이 더 빨라진다"고 설득했다. 그건 맞는 얘기였다. 나중에는 조합원들이 이해를 하고 다시 노조로 돌아왔다.

그밖에도 상위단체인 공무원노조총연맹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년 연장, 연금 개악 저지,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상위직급 확보, 교원과 동일근무시간 쟁취, 호칭 변경, 교무실과 행정실의 통합 저지, 지역교육청 센터 변경 저지, 체험학습비 지원 요구, 소규모학교 지원 등 진행한 사업들 중 힘들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많은 임원들과 조합원들의 도움으로 지치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한 힘은, 역시 보람 때문이었을까?

1회 체육대회를 할 때 교육청에 가서 체육대회 신고를 하니까 후원은커녕 교육청 명의로도 안 빌

려줬다. 교육청 명의를 없으면 체육대회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개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다. 체육대회를 하려면 반드시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해서 교육청에 끊임 없이 부탁했던 기억이 난다.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었다. 나는 체육대회를 잘 끝내고 싶어서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1회 대회에서 술 마시다가 사고가 나면 교육청이 협조해 주겠나? 제발 조심하자”며 신신당부를 했다. 다행히 무사히 체육대회가 끝나서 2회에도 협조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한마음체육대회는 전통 있는 대회로 유지되고 있다.

지금은 노조가 하는 일에 경북교육청이 협조적이고, 노사가 함께 교육을 받는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해결한다. 경북교육청이 경북교육노조와 상생하는 것은 노조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실력을 키워 인정받는 노조를 만드는 일에 기여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겠다.

## **노조뿐만 아니라 경북교육 전반에 기여한 바가 크다**

독도문제는 경북교육노조에서 이슈화 시킨 일이다. 당시에는 독도 입도인원이 7명밖에 안 됐다. 더 이상은 안 받아줬다. 우리가 처음으로 “독도 입도인원을 늘려달라!”는 운동을 선상에서 벌이고 “독도에 국군을 주둔하라! 독도 수학체험비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했다.

도지사를 방문해 이 같은 요구를 하고, 국회에 공문을 보내는 등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우리의 노력이 전국으로 전파됐고, 국민들이 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적인 활동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다.

## **다음 노조를 짊어질 사람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싶은지?**

공무원은 필요 이상으로 싸워서 안 된다. 물론 우리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고, 우리의 복지는 한 가지씩 천천히 해결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한다. 과격한 방법으로는 학교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초기 경북교육노조가 만들어질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협조와 상생을 통해 바람직한 노조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34명으로 시작한 경북교육노조가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뿌듯하다. 경북교육노조와 함께해준 조합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제3장 | 2013~2018년  
노동조합의  
새로운 길을 만들다

# 제1절 제4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3~2015년)

## 1. 제4기 경북교육노조 임원 선거

경북교육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동반 출마하는 방식으로 2013년 1월 31일 선거를 실시했다. 원래대로라면 4월 15일에 선거를 실시해야했지만, 이철연 위원장의 사퇴로 조기 임원선거가 치러졌다. 경북교육노조 제4대 임원 선거 후보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호	입후보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1	청도교육지원청	김종기	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박홍기	도교육청 교원지원과	정원상
2	경산고등학교	박순곤	경산 금락초등학교	이명구	경산교육지원청	이의원
3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김태균	울진 기성중학교	황재달	경산 용성초등학교	김종욱

선거가 시작됐고, 전체 조합원의 약 70%인 2,934명이 투표한 가운데 1,437표를 얻어 김종기 위원장 후보가 48.98%를 1위로 득표했지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이 결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재선거를 치렀다. 결선투표에서는 64%인 2,665명이 투표하고 그중 61.95%인 1,651표를 얻은 김종기 위원장이 제4기 경북교육노조를 이끌게 되었다.

## 2 제4기 경북교육노조 출범식

김종기 위원장은 경북교육노조가 처음 탄생할 때 이철연 위원장과 함께 노조를 견인했고, 이후에는 전국교육연맹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북교육노조가 전국적인 노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김종기 위원장의 당선으로 경북교육노조를 향한 조합원들의 기대는 한껏 높아졌다. 김종기 위원장은 당선 직후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노조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





제4기 출범식 (2013. 4. 26.)

력했다.

제4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은 2013년 4월 26일 경북도교육청 별관 대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우 교육감,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 최우섭·추재천 교육위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조진호 위원장,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오성택 위원장,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윤주용 위원장, 전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류영록 위원장,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 대구경북공공협의회 7개 단체 위원장,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30여 명의 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300여 명의 조합원 참석했다.

김중기 위원장은 이날 출범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중앙단위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수립 최초의 단체협약을 비롯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년평등화, 직종 개편, 연금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상위직급 확대, 근속승진 확대 등 공무원 근무환경변화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곳에서 배운 경험들을 밑거름 삼아 경북교육노조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를 모든 갈등과 직렬 이기주의를 넘어 경북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4기 노조는 투명한 회계처리에 힘쓰고 노조간부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천명하며, 전국 최대 단일노조인 경북교육노조의 위상에 걸맞은 ‘노조다운 노조’를 지향할 것을 다짐했다.

1~3기 노조가 노조의 양적 성장과 노조의 안정화에 힘썼다면, 4기는 이미 노조가 안정화에 들어섰다고 전제하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조합원복지 증진과 질적 성장에 온 힘을 쏟는 노조가 될 것을 다짐했다.

### 3. 경북교육노조 중점 추진 사업

#### 1) 학교행정실 근무환경 개선

- 행정실 확대 개편(학사 및 재정팀) 및 정원 추가
- 모든 학교 행정실장 6급 이상 배치
- 시 지역 교육지원청 과장 복수직급(4, 5급) 및 선임담당 복수직급(5, 6급)
- 학교공사 지역청에서 시공(기술직 추가 배치)
- 학교행정의 각종 통계 및 보고 최소화

#### 2) 조합원 복지사업

- 동아리 가입 보장 및 활동지원비 확대
- 가정의 날 준수
- 경북교육상 교직원 포함
- 6급 이하 공로연수 실시

#### 3) 공무원노총 및 교육청노조(중앙) 연대사업

- 학교 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개선
- 승진시 호봉 삭감 폐지 및 5, 6급 호봉 상한제 폐지
- 대학진학 자녀 학자금 지원 촉구
- 성과상여금 및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 공무원 직종개편 완성 (공무원임용령 개정시 적극 참여)
- 지방교육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 바로잡기
- 부교육감 임용방법 개선 및 중앙부처의 지시 통제 관행 개선

#### 4) 인사제도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일반직 불이익 배제
- 소수 직렬 승진 및 정원 확대
- 기능직공무원 승진 확대 지속 추진
- 업무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분장 및 인사교류 확대
- 6, 7급 승진 적체 해소
- 일반직 퇴직시 사무관 이상 보장, 기능직 6급 보장

### 4. 자명종 창간

노조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노조가 하고 있는 일이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노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고, 노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은 넓은 지역에 근무지가 흩어져 있는 지역적 특성상 조합원들 간의 만남이 어려웠다. 이런 노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급한 것이 바로 노조의 활동과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식지의 발간이었다.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자명종' 표지들

경북교육노조는 2004년 범의노조를 시작하면서 '경북교육노조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했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4기 노조는 노조의 홍보와 조합원 간의 단결을 위해 소식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해 소식지 발간을 결정했다.

먼저 상금을 걸고 조합원들에게 소식지 제호를 공모했다. 그 결과 '늘 때가 되면 올리는 자명종' 같이 노조도 공무원 사회에 울림을 주는 조직이 되자'는 의미의 '자명종'이라는 제호가 채택되었다.

2013년 8월 창간호를 발간한 자명종은 이후 경북교육노조의 활동사항과 전국교육노조의 활동방향 등 노조의 소식을 전하는 한편 동아리 소개, 문화소식, 조합원 칼럼 등 노조 구석구석의 다양

한 목소리를 담으며 조합원들의 소속 기관으로 발송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조의 행사와 성과를 전하는 것에 그치던 자명종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해 현재는 잡지 형태로 분기마다 발간되어 조합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은 산야에 성장의 푸른 기운이 활기찬 계절에 제4기 경북교육노조 조합원을 대변할 신문인 ‘자명종’을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 경북교육노조가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중심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눈과 귀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 열정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에게도 모범 사례를 전파하는 선도적인 노동조합으로 발전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북교육노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향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은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노조 신문 ‘자명종’의 창간이 경북교육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상호의 노사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경북교육노조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 5.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경북교육노조 제4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행정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2013년 5월 21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교육행정실 발전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는 4기 집행부가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만든 자리였다. 이전까지는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만큼 행정직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더불어 이 토론회는 ‘학교행정실의 법제화’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자리로서의 의미도 있었다.

본 토론회에 앞서 예비토론회를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위학교 경영시스템혁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예정이었던 400명을 훨씬 넘는 등록인원인 511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경북도교육청 문영규 기획관

리국장, 김일동 행정지원과장, 석중서 사무관, 박소울 주무관, 교육연수원의 김성희 부장 등 시군 교육지원청의 과장 및 담당계장들이 참석하여 4기 경북교육노조의 새로운 시도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은 경북교육청 행정지원과 김인숙 사무관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관의 이상돈 서기관이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단위학교 경영시스템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16명의 패널 신청자 가운데 예비토론회를 거쳐 선정된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정승표, 강상우(구미 옥성초), 강소영(경산 삼성현중), 최정입(경주 화랑초), 김장훈(포항 곡강초) 등 5명의 패널들이 지정토론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교육부 이상돈 서기관은 발제에 앞서 “오늘 이 행사는 전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교육행정직원들을 위한 토론회다. 이 토론회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학교 행정실 직원들과 교원과의 관계 설정, 교육지원청의 역할, 학교 회계직원과의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교 행정실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간의 유대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기 위원장은 “교육행정직원들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함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학교행정에 대한 정책 입안에서는 소외되고 무시되었다”면서 “이제부터는 당당한 정책 대안 제시로 스스로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학교행정실 직급 동일화(정승표), 교원과의 업무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업무기준 제시(최정입), 행정실업무 기능 강화와 수당신설(강상우), 창조경영을 통한 다락(多樂)학교 만들기(강소영), 교장의 업무 분산(김장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



제1회 · 제2회 행정실발전방안 토론회

을 벌였다.

토론회가 끝나자 참석자들 모두는 4기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학교에 30여 년 근무하는 동안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토론회는 처음이다. 감개무량하다. 행정직원은 학교라는 폐쇄된 장소에서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생님들로부터 차별받고,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들로부터 역차별 받는 외로운 사람들이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함께 모여 행정실의 발전을 고민하는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니 큰 힘이 난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 이연희 상주지부장

제2회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는 2014년 4월 8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회 토론회에서는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오세희 교수가 ‘단위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실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구미교육지원청의 송명화 주무관의 사회로 정승표(경북도교육청 감사관실), 백귀복(김천 감문중), 장병욱(구미 인의초), 천영선(울진 삼근초), 이정경(안동도립도서관) 등 5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인 오세희 교수는 “학교 행정실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유대와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학교 행정실 직원들과 교원과의 관계 설정, 학교 행정실과 교육지원청과의 역할, 학교 행정직원과 회계직원과의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정일용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도내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가운데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북교육의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를 2015년까지 3회에 걸쳐 대규모로 개최했으며, 이후에는 조합원 교육으로 대체했다.

## 6.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 타결

제4기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조합원이 바라는 역점추진 사업을 담아 2013년 5월에 ‘전문과 본문 62조 130항 및 부칙 4조 5항’의 단체교섭을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며 이후 1차례의 본교섭과 10



경북교육노조-경북교육청 단체교섭 타결 조인식

차에 걸친 실무교섭 및 예비교섭을 통해 10개월 만에 역사적인 교섭타결에 이르렀다. 2014년 3월 17일에는 경북도교육청 이영우 교육감과 협약식을 가졌다. 경북교육노조와 경북도교육청이 2007년 단 한차례 단체교섭을 한 뒤 7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였다.

2013년 단체교섭은 이전의 2007년 단체교섭과 비교해서 조합원 의견수렴 과정의 민주성, 요구 안건의 실질성, 실무교섭 과정의 투명성 등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단체교섭이었다. 일부에서 노조 측이 더 투쟁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4기 집행부가 ‘노사상생’을 강조해왔던 만큼 노사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토론할 것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오랜만에 재개되는 단체교섭인 만큼 일부 교섭위원들의 규정과 관행에 대한 주장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노사 모두 상생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무리했다.

‘2013 단체교섭’은 학교 행정실 업무표준 매뉴얼 제작, 행정실장 직급상향, 전문(소수)직렬 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 본교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 실무교섭

원 및 상위직급 형평성 확보, 경북교육상 교육행정분야 포함, 맞춤형 복지비 인상, 당직 후 익일 중 일휴무 실시 등 조합원에 대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서 공정한 노동 복지 실현에 한 발더 다가갔다.

## 2013 단체교섭 주요 내용

### ■ 처우 개선

- 1인 근무 행정실장 학교 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 공립학교 유치원 인력 배치
- 교육행정 및 소수 직렬 인력 총원 및 승진 확대
- 필수 요원 선발 확대
- 공로연수 확대
- 각급 학교 행정실장 직급 상향 조정
- 맞춤형 복지비 인상
- 사무관 2인 이상 지역교육지원청 과장 및 선임 담당 직급 상향 조정
- 소수 직렬 상위 직급 확충
- 동아리 활동 지원

### ■ 권리 보장

- 경북교육상 교육행정분야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행정 포함 추진
- 당직 후 종일 휴무
- 학교 행정실 업무 매뉴얼 작성
- 노사협의 분기별 개최

### ■ 행정제도 개선

- 효율적인 조직의 개편
- 승진 예측 자료 공개
- 연구시범학교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7. 경북교육노조 노동교육

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노조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노조에 동참한다. 하지만 단순히 조합원을 돕는 것이 노조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 노조는 단체가 가진 힘을 통해 조합원을 위해 일하고, 조합원은 다시 노조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만 노조와 조합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 함께 커나가기 위해 조합원들은 노조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조합원 교육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노조활동을 할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공무원도 노조가 있어?”라거나 “공무원이 무슨 노조야?”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하려면 ‘안정적인 직업이므로 노조가 필요 없다’는 타인의 편견 맞서야 하며 “정말 공무원에게 노조가 꼭 필요할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역시 일반 노조와 같이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어떤 직장노조나 가지고 있는 노조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일반 노조와 다르게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조직 내 비리에 대한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좋은 정부를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공무원노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이런 일을 담당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정부의 정책과 공무원노조의 역할에 대해 교육받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집에서는 생활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조합원들에게 시간을 내서 교육에 참석하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분청 근무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23개 시군으로 분산돼 1~5명씩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더구나 혼자 근무하는 1인 행정실장도 적지 않다.

근무지 역시 경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사업소, 지역 교육지원청, 지역 교육지원청 사업소, 초·중·고등학교 등 약 1,000여 개의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듯 조합원들이 넓은 경북에 점조직처럼 분산되어 있다 보니 이들을 한 데 모으는 것만도 큰일이다. 그러나 조건이 어렵다고 조합원 교육에 힘쓰지 않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첫 노조간부교육 (2013. 8. 10~13.)

는다면 이는 공무원노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소홀했던 조합원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2013년 8월 10~13일,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첫 노조간부교육을 시작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노사상생의 파트너십 제고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노동교육은 대의원 50명이 참여해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교육은 공무원 노사관계 현황과 쟁점사항에 대한 손동희 교수의 강의와 경북도교육청 강신기 인사담당사무관의 인사실무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이튿날 공무원노조법과 노사파트너십, 마지막 날에는 박태주 교수의 공무원노조의 과제와 역할에 대한 강의로 교육을 마쳤다.

2014년 7월 9~11일에는 노동조합의 식고취를 위해 제주도 켄싱턴리조트에서 본조 임원 및 지부장, 사무국장 60여 명이 참석해 임원 및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10월 30~31일에는 경상북도 해양수련원에서 김종기 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정일용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과장, 23개 시·군 행정지원과장 80여 명이 참석한 노사합동 워크숍도 개최했다. 4기가 노사상생을 강조한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노사가 함께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임원 및 상임위원 워크숍 (2014. 7. 9.~11.)

이뿐 아니라 시·군 지부별 노동교육도 실시했는데 포항 외 15개 지부에서 공무원노조의 이해와 공무원 연금법 특강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노사 간부들이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북교육청 노조는 이후 노동교육을 노사간부 대상, 전 조합원 대상, 노사합동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대의원 노동교육, 임원 및 상임위원 워크숍, 시·군 지부별 노동교육, 노사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교육은 경북교육노조를 타 노조에서 부러워하는 노조로 키우는데 가장 강력한 밑받침이 되고 있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노조 중 경북교육노조가 유일하다.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노조활동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을 통한 단결을 강화할 예정이다.

## 8. 교육행정직, 경북교육상 수상의 길을 열다

경북교육상은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경북교육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그런데 이 상의 수상대상자는 교사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북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교사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수상을 교사로 한정한다는 것은, 땀 흘리며 열심히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4만 교육행정가족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였다. 이에 노조는 교육상 포상 범위를 ‘현직 교육자’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확대해줄 것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교육상은 스승에게 주는 상인데 행정직원은 스승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매년 부결시켰다. 당시 교육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14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포상범위를 현직 교육자로만 한정하는 곳은 경상북도교육청 밖에 없었다.



경북교육상

4기 경북교육노조는 수상 대상자에 교육행정을 포함하여 차별을 없애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단체협약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구자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조례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수락한 구자근 의원의 입법발의로 2014년 4월 3일 경북교육상 개정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현직 교원 3명에게만 수여하던 경북교육상은 초등 2명, 중등 2명, 유아 및 특수 1명, 교육행정 1명 등 6명 이내로 수상 대상자를 확대했다. 경북교육상 수상자에 행정공무원도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노조와 조합원들의 구겨진 자존심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다.

“교육행정은 교원과 함께 공교육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함께해야 교육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 개정 통과에 힘을 보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구자근 경북도의원

## 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졸속적인 연금 개악 추진으로 전·현직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또한 ‘정부가 연금을 개정할 때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전공노, 민공노, 교총, 전교조는 함께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교원·공무원 5개 단체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공무원들의 대규모 반발에 놀란 정부는 2008년 5월 27일 노사 이해관계자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노총에 발송했다. 공노총의 공동대책위는 회의를 통해 ‘연금발전위원회’에 참여한다고 결정하고 ▲국가의 직업공무원에 대한 노후보장 책임 ▲공직사회의 특수성 보장 ▲국민연금의 바른 개혁을 제시했다.

이후 공노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 현안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국순회 홍보를 진행하면서 정부와 어렵게 노사합의안을 도출했다. 행안부는 개선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어렵게 봉합된 공무원연금법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또 ‘4대 개혁’이란 이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개악이 확실했다. 더군다나 정부는 ‘퇴직자들에게 주는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앞으로 1,000조’가 된다는, ‘국민연금의 2배가 넘는 연금을 받는다’느니 하면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갔다.

박근혜 정부는 연금의 당사자인 공무원들과는 어떤 협의도 없이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1.52%까지 내려 총 예상 연금의 20%를 덜 주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의 일방적인 연금개혁을 시도했다. 전국의 공무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함께 연대하여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을 이어나갔다.

공노총, 한국교총, 전교조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2014년 5월 29일 출범했다. 공투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할 것을 결의하며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교육노조는 본조, 지부임원들과 함께 6월 19일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단위노조와 함께 경북도청 및 경북도교육청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했다. 공무원

연금법 개악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버스투어’ 일정에 맞추어 경북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연금에 대한 출근 선전전도 시행했다. 오전 7시부터 본청 각과실에 직원 책상 위에 전단지지를 배포하고 본관 및 별관 출입구, 경북도청 삼거리 등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홍보 리플렛을 조합원에게 전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의 정당성을 알렸다.

이날 경북도교육청 앞 출근선전전에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박흥기 수석부위원장, 김태균·장용복 부위원장, 최연성 지부장, 성수용 지부장, 정원상 사무총장 및 각 국장, 본청 대의원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공노총 연금홍보 버스투어로 윤주용 광역연맹위원장, 김도형 대구시청노조위원장, 석현정 대구북구청노조위원장, 강창조 구미시청노조위원장, 정은향 기초연맹수석부위원장이 함께하였다. 조합원들은 경북교육노조, 공노총 소속 연맹 및 단위노조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악 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력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해산했다.

## 10.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이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투쟁은 계속 됐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가 9월에 계속되었고, 경북교육노조는 13일째인 9월 16일 청와대 인근 효자동 입구에서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은 경북교육노조, 대전교육노조, 서울교육노조가 참여했으며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원상 사무총장, 조원정 안동지부장, 이영욱 포항지부장, 권기일 예천지부장, 김만일 청송지부장이 자리를 지켰다.

9월 26일 1인 시위가 끝나고, 27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는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만여 명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신하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서울역광장을 가득 메웠다. 경북교육노조에서는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김종기 위원장은 연금개악 총력 저지의 의지를 담은 삭발식에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2014. 9. 27.)

70%를 보장하기로 한 도입 취지대로 공적연금을 복원하라!”, “정부는 연금을 반토막낸 지난 과오를 사죄하고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제1부 집회가 끝나고 참석자 전원은 서울역을 출발하여 승례문을 거쳐 청계천까지 약 1.6km의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후에도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2014년 11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158타도 총력 결의대회(2014년 12월 20일)’ 등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2010년 연금법개정보다 훨씬 후퇴한 ‘2020년까지 기여금 7.5%에서 10%로 상향, 기존 연금수급권자들은 5년간 연금동결, 2016년 임용자부터는 기존 공무원 봉급과는 다른 연금지급’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노조에 최후통첩 해왔다.

공무원노조의 가열찬 투쟁은 2015년까지 이어졌다. 2015년 3월 28일에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여의도광장에서, 4월 28일 국회정문 앞에서는 ‘공적연금강화 단식투쟁’을, 4월 25일에는 서울역광장과 시청광장에서 ‘국민노후복지 장례식 개최 및 4.25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를 거행하며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했다.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 (2014. 11. 1.)

경북교육노조는 이와 같은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한편 경북교육청 본관과 대구시청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1인 시위’, ‘공적연금 강화 전국동시 기자회견’ 등을 자체적으로 개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악의지 속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015년 5월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개악에 한탄을 금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기간 동안 공무원 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모습과 조직적 저항을 통해 정부에 대응했다.

## 연금개혁저지투쟁

2014년

0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투본 출범 기자회견(서울 정부청사)

- 06. 19.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전국 버스 투어 홍보 및 출근 선전전(경북교육청 및 경북도청)
- 09. 27.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 결의대회(서울역)
- 11. 01.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여의도)
- 11. 11. 안전행정부 주관 공무원연금 국민포럼 원천봉쇄(대구시청)
- 12. 20. 공무원연금 저지 158 타도 총력결의대회(서울 청계천 한빛 광장)

**2015년**

- 03. 20. 공무원연금개악저지 동대구역사 앞 대국민 홍보전
- 03. 26. 새누리당사 앞 연금 집회
- 03. 28. 328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여의도 광장)
- 04. 23.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출근 홍보전 및 1인 시위(경북교육청)
- 04. 25. 국민 노후복지 장례식 개최 및 425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서울역광장, 시 청앞)
- 04. 28.~05. 01. 공적연금 강화 단식 투쟁

**11. 단설 · 병설유치원 인력 증원**

노조는 설립 시부터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에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에서 겸임하는 것에 대해 수당을 요구하였다. 학교에 소속된 직원이 병설유치원의 일을 겸임하는 노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과에서는 병설유치원 문제는 ‘겸임’이 아닌 ‘배치’의 문제라고 답변을 하며 직원들의 노동착취를 방관하고 있었다. 이 문제가 배치의 문제라면 인력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력을 증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노조 역시 단설 · 병설유치원에 인력을 증원해서 행정직원이 더 이상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왔다. 모순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었다.

노조는 이를 방지할 수는 없었다. 현장의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요청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2014년 7월 1일자로 경북교육청에 단설유치원 10명, 병설유치원 10명의 지방교육행정직 정원이 늘어났다.

## 12.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표창

공무원에게 표창이란 평생 시민을 위해 일했음을 알아주는 상장이자, 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다. 공무원은 평소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만 특별히 승진할 때와 표창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노고가 치하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런 계기를 통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표창은 이밖에도 이동이 있을 때 가점을 받는다거나, 각종 감사에서 주의 및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역할도 한다. 이래저래 공무원에게 있어서 표창이 주는 의미는 특별하다. 하지만 지역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기관장 표창을 받기가 쉽지 않다. 각종 표창은 중앙이나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지역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도 교육감 표창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경북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사실 경상북도 곳곳의 작은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야 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표창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교육청은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육감 표창을 신설했다. 표창 내용을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로 하고 대상자는 노조 조합원 중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으로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2014년 12월 4일 첫 해에 총 11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는데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명씩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13. 학교 행정실 직무분석 연구용역 의뢰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교육의 한 축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형식적·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던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시켜 행정인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계속 되어오는 과중한 업무들은 행정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노조는 비효율적인 인적관리와 행정실 이원화 문제 등 행정실 직무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노동부 지원금과 단위노조 지원금을 모아 행정실 직무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경북교육노조에서 총 640만 원을 부담했고 전국 시·도교육청노조와 연대하여 연구를 추진했다. 행정실 직무분석 연구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되었으며 2015년 12월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 제시 및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사)정책제도연구원에서 발표했다.

박종관(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 전오진(호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종암(한국공정노동심리연구소 대표), 박경순(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김세원(백석문화대학교 경영학부)에 의해 실시된 이 연구는 건국 이래 최초로 학교 행정실에 대한 전문 연구였으며, 학교 행정실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 14. 교육현장의 소리를 듣다

2014년 9월 13일 조직문화 개선과 교육행정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노사합동 ‘교육행정현장의 소리 청취’가 개최되었다. 노조의 건의로 이루어진 이번 회의는 경북의 23개 시군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관행 및 제도, 조직 내의 갈등요인 등 학교의 전반적인 사안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경북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9월 13일, 구미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을 시작으로 9월 15일에는 안동 경상북도교육연구원, 9월 19일에는 포항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교육지원청 별로 2명씩 제안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통



교육현장의 소리를 듣다

학용 버스 교체 및 임차요건 완화 ▲ 행정실 검입발령 및 각종 수당지급 정상화 ▲정원배치기준 재  
 책정 ▲사무관승진시험 시 기획보고서 폐지 ▲정기 종합감사 개선 ▲인사 및 승진 관계에 따른 가시  
 화된 기준마련 및 공개 ▲학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화 ▲소액 시설공사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학교자체 공사설계용역 효율 변경 ▲통학버스 대체인력 방안 ▲행정 예비인력 충원 ▲병설유치원  
 인력 증원 등 40여 건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와 함께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학교 행정실장  
 보직발령과 사무관 승진대상자들의 소양고사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경북교육노  
 조는 발표된 제안사항들을 경북교육청과 함께 검토 분석하여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렇듯 4기 노조는 밖으로는 조합원들로부터 교육현장의 소리를 듣고, 안으로는 경북교육청과  
 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 등 교육현장을 바꾸나가기 위해 끊임이 노력  
 했다.

## 15.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경북교육노조는 6급 이하 조합원들이 평  
 소에는 전혀 만날 수 없는 교육감을 직접 만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육청은 이  
 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취지  
 하에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6급 이하 조합원  
 과의 '참 좋은 대화의 시간'이라는 행사를 기  
 획했다. 이 행사는 '노사가 허심탄화하게 만  
 나서 대화를 나눠야만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여 경북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김종기 위원장과 4기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일  
 이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2014. 12. 4)

기관장과 6급 이하 직원들이 만나 직접 대화하는 자리는 처음이다 보니 진행 담당자들이 진행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드디어 2014년 12월 4일 경북교육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대화에는 23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행정, 시설, 공업, 사서, 전산, 보건, 시설관리, 조리, 사  
 무 등 각 직렬별로 23명이 참석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영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김종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화시간에는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증원 등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경북교육청은 이날 제안된 안건들에 대해서 각 담당과의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권익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그리고 노사 합동으로 현장의 소리 청취회의를 가졌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노사가 다같이 고민하는 자리다. 이 기회를 통해 함께 경북교육발전을 향해 나아가자”는 뜻을 전했다.

교육감 역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경북교육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권익개선 사안들은 모두다 법령과 제도로써 이루어진 만큼 노조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낼 수는 없지만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상생의 의지를 밝혔다.

담당자들의 염려와는 달리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는 이영우 교육감은 “대화를 끝내고 나니 그간 현장에 대해 몰랐던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참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직만 하지 말고 교원도 했으면 좋겠다”라며 고생한 담당부서 직원들과 노조 간부들을 격려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교육감의 지시로 교사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는 현장의 소리를 듣기 힘든 기관장에게 직접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곧바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노조가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16. 한마음체육대회와 조합원 고충 상담

경북교육노조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는 2013년 11월 9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식전행사로 난타공연을 관람하고 윗놀이, 800m계주, 단체줄다리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총 4개 종목에서 우승팀을 가렸다.

제9회 한마음체육대회는 2014년 11월 8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흐린 날씨 때문에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임원들이 마음을 졸였으나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4기 노조가 안정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

화되어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체육대회에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함께 웃고 달리면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가족을 만난 듯 기쁜 마음으로 경북교육행정가족의 축제를 즐겼다.



제9회 한마음체육대회

특히 이날은 많은 조합원들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취지에 동참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성금이 모금되었다. 이 성금은 12월에 열린 '저소득자녀 돕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모두 기부되었다.

4기 경북교육노조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각 학교 행정실을 직접 방문해 조합원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기 위원장과 박흥기 수석부위원장은 각 학교를 순회하며 행정직원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조합원들은 노조 임원의 직접 방문에 놀라는 한편, 조합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노조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소통을 강조한 4기 임원진은 현장 고충상담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노사합의에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6개월간 조합원 고충 듣기

이밖에도 4기 노조는 '맞춤형 복지비 100포인트 향상', '단위학교 행정실 업무 매뉴얼 작성' 등 조합원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 17. 저소득층 자녀 돕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경북교육노조의 제안으로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이 함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려운 형편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소년소녀 가장 및 다문화가정의 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실천해 경북교육청이 추구하는 명품교육으로 승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도 담겨있는 행사라 하겠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노사합동 김장 담그기

경북학교조리사회와 농협 경북교육청지점이 후원한 '저소득층 자녀 돕기 노사합동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는 2013년 12월 5일 경북교육청 복지관에서 처음 진행되었다. 이날 김장 담그기 행사에는 김중기 위원장을 비롯해 23개 시군 지부장, 경북교육청의 이영우 교육감과 본청 국·과장,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 경북학교조리사회(회장 전위숙)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가 함께 담근 배추김치 1,800kg, 깍두기 200kg 등 총 2,000kg의 김장은 도내 소년소녀가장 및 다문화가정의 학생 등 200여 명의 소외계층 학생을 선정하여 10kg씩 각 가정으로 배달되었다.

2014년 12월 4일 역시 경북교육청 직원복지관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에서는 제9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모은 성금이 보태지고, 경북 학교조리사회의 재능기부, 농협중앙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2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김장김치 2,000kg는 소년소녀 가장 등 2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각각 10kg씩 전달되었다.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은 이후에도 매년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노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상생하는 노사'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 18.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첫 노사협의회 성과

‘노조는 단체교섭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조에 있어 단체교섭은 중요하다. 제도와 규정을 바로잡고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을 대신하여 노조가 사용자에 게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단체교섭이다.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년마다 단체교섭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단체교섭을 한 번 하려면 몇 달씩 그 업무에만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은 ‘분기별 1회, 연 4회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협의회

먼저 노조가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한 뒤 교육청 집행부에 해결책을 제안하면, 제안된 안을 각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수용과 불수용을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노사가 마주 앉아 논의한다. 이것이 바로 노사협의회회의의 내용이다. 이런 정기적이고 합리적인 만남의 창구가 있으면 노조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육청 역시 노조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

2014년 7월 17일부터 경북도교육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은 2014년 2/4분기 노사협의회회를 가졌다. 이날 총무과 소관 4개 안건, 행정지원과 소관 3개 안건, 학교지원과 소관 1개 안건으로 총 8개 안건에 대하여 협의했다. 협의회에는 김종기 위원장, 정월상 사무총장, 서종철 정책교섭국장, 신영찬 기획관리국장, 조원정 안동지부장이 참석했다.

경북교육노조는 2014년 2/4분기 노사협의회(7월 17일), 3/4분기 노사협의회(10월 16일), 4/4분기 노사협의회(12월 15일)를 통해 이전 노조가 해결하지 못했던 조합원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해결했다. 다음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된 내용들이다.

### ■ 장기재직 특별휴가 조례 제정

장기재직휴가란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다. 2006년까지 시행되다가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이후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

방의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는 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에 의거 다른 지자체들이 장기재직 휴가를 부활하고 있었다. 경북교육노조 역시 이 사안을 노사협의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제안 내용은 10년 이상 근무자 10일, 20년 이상 근무자 20일, 30년 이상 근무자 10일 등 총 40 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사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는 방학이 있지만 일반직은 방학이 없기 때문에 이는 처음부터 공평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교사보다 휴가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북교육노조는 교육감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경북도의회 의원간담회에서도 이를 건의하는 등 장기 근속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업무능률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국 2014년 12월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교육행정 가족들은 장기재직 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장기재직 휴가 추진 경과

- 2014. 01. 09. 장기재직 휴가 신설 복무 조례 개정 경북교육감 건의
- 2014. 07. 17. 2014.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논의
- 2014. 09. 18. 경북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입법 예고
- 2014. 12. 27.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조례 관련 도의회 의원간담회(안동) 참석,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2014. 11. 01.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조례 관련 도의회 의원간담회(상주) 참석,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2014. 11. 03.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조례 관련 도의회 의원간담회(포항) 참석,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2012. 11. 25. 경북도의회 제2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결 보류
- 2014. 12. 12. 경북도의회 제2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통과
- 2014. 12. 19. 경북도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2014. 12. 29. 공포, 시행

## ■ 행정실장 보직발령

경상북도립학교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 중에서 행정실장을 두도록 하고, 행정실장은 교육행정·전산·공업·시설·보건 직렬란 중 최상위 계급인 자로 명시하고 있다.

교원은 교장, 교감 등 해당 직위로 인사발령하면서, 지방공무원은 별도 직위 없이 학교로 인사발령을 내고 있었다. 이에 2014년 2/4분기 노사협의회에 서울 등 타시도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행정실장 보직발령을 안건으로 제기하였고,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행정실장 보직발령 건이 수용되어 2015년 1월 1일자부터 인사발령 시 행정실장 보직발령을 시행했다.

이로써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비공식적인 직위가 아니라 공식적인 직위로서 행정실장 직함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방공무원의 사기양양에 큰 기여를 했다.

##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 복지 대책

신도청 청사 건물만 완공되고 주변 정주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은 무리하다고 보고 2015년 5월 18일 도청노조 사무실에서 경북교육노조와 경북도청노조 간 신청사 이전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7월 29일 정주 여건 조성 후 이전 요구를 경북교육청, 경북도청, 경북도의회에 건의하여 기존 2015년 7월 이전에서 2016년 3월로 신청사 이전 시기를 조정했다.

2015년 11월 18일에는 안동 공무원 임대아파트 기준 전세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를 통해 신청사 이주 직원들은 이주 정착비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급, 직원 연립주택 56세대 제공, 1인당 1,500만 원 전세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경북도지사에게 신청사 이전 연기 건의



안동 공무원 임대 아파트 기준 전세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



### ■ 지역별, 기관별 근무 만기자 사전 예고제

지역별 기관별 근무 만기자는 1월과 7월 정기인사에 앞서 관내·외 내신서를 내야한다. 이때 타 시군의 근무 만기자 및 각 기관의 근무 만기자 현황을 알아야 내신서 작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알 길이 없어서 개개인이 여기저기 확인하는 불편한 관행이 있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사협의회에서 「지역별, 기관별 근무 만기자 사전 예고제」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를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수용하여 「2015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시기는 연 2회(4월 말, 10월 말)로 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직속 기관 근무 만기자 명단을 탑재하게 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소속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공공도서관) 근무 만기자 명단을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탑재했다. 이로써 지역 및 기관 만기자, 전보희망자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근무 만기자 명단을 확인, 내신서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 ■ 5개 지역 교육지원청 급식지원담당 증설

교육지원청의 건강증진담당 직원들은 보건 및 급식 업무를 함께 맡아 업무 과부하에 놓여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교육지원청의 건강증진담당을 보건담당과 급식담당으로 분리하여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마침 2014년 10월경 도교육청 조직담당에서는 「2018 경북교육 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때 5개 교육지원청(포항, 구미, 경주, 경산, 안동)의 건강증진담당을 보건담당과 급식담당으로 분리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이는 학생 보건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의 중요도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급식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였다.

2015년 1월에 정상적으로 조직개편이 실시됨에 따라 현장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 현장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마련을 통해 경북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 ■ 당직근무자 전일제 휴무

당직근무자의 피로감 해소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당직근무자 전일제 휴무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당직(숙직)근무자들의 전일 휴무제 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조는 당직근무자 휴무 시간을 변경해 줄 것을 2014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요구했다. 한

편 경상북도 심의위원회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 안건이 2014년 12월 29일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2015년 1월 1일부터 당일근무자 전일 휴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 행정실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행정실법제화 관련 입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행정실 업무 명확화 및 업무 혁신을 위해 단위학교 행정실 업무 매뉴얼 제작을 요구하게 되었다. 강원도교육청 등은 이미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직원간 업무 갈등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면, 경북교육청은 행정실 업무 매뉴얼 제작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단체협약(제48조2항) 사안으로 2014년 2사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이행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강력히 요구하여 해당 부서에서 상당한 기간 T/F팀을 운영했다. 학교 행정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표준 매뉴얼을 2014년 12월 제작 완료하고 2015년 3월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책자 및 CD로 배포했다. (문서번호 : 학교지원과-7563, 2014. 6. 13.)

경북교육청의 단위학교 업무 매뉴얼은 업무분장의 명확화뿐만 아니라 신규임용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작하여 업무 혁신에 큰 도움이 되었다.

### ■ 감사제도 개선

학교는 정기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시 또 다시 감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지원청 종합 감사 시 지역 소재 학교의 필요한 사항만 감사를 하고, 일선학교에 대해 특정 감사,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횟수를 줄여 학교 본연의 일에 집중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감사를 받을 때 감사장을 꾸미기 위해 예산을 들여 정보기기(노트북, 랜선 설치 등)를 렌탈하여야 함으로 수감기관의 편의 도모를 위해 감사관 개인용 노트북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여 도교육청 예산으로 감사관 전용 개인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이로서 피감기관이 감사장을 구성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했다.

### ■ 맞춤형 복지비 100포인트 상향

기본 점수 400점에서 50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 민간 유사 경력 호봉 인정

학교 육성회 직원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인원들에 대한 경력 인정을 기존 50%에서

100% 인정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2014년 9월부터 시행했다.

### ■ 필수요원 지정 확대

필수요원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실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한 사람으로 6급에 계속 머물기를 원할 경우 임용하는 요원을 말한다.

대우공무원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당해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필수실무요원과 대우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필수실무요원제·대우공무원제·복수직급제 등은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행 정원대비 7%인 필수요원 지정 비율이 직렬별로 배치됨에 따라 소수 직렬은 신청을 해도 지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직렬을 묶어서 필수요원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 사무관 승진심사 제도 개선

기존의 사무관 승진심사 시에는 근무기관 비율 조정 및 근평 제도 개선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하고, 소양고사, 문서작성, 면접 등 3개 영역으로 평가를 했다. 이리다보니 승진 심사 준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양고사는 '합발'로 하고, 문서작성 평가는 폐지하고, 면접과 근평 점수로만으로 평가하도록 승진 심사 제도를 개선했다.

## ○ 최정연 부위원장



### 여성들의 노조 참여, 지금 꼭 필요하다

맨 처음 노조를 시작할 때 여성은 나밖에 없었다. 혼자서 일하다보니 외롭고, '노조하는 센 여자'라는 시선에 힘들 때도 많았다. 다행히 지금은 여성 조합원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여성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노조를 통해 여성 조합원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안건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더욱 활발히 개선되면 좋겠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노조가 앞장서야 한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는 교육홍보부장을 하면서 자명종을 만들었던 일이 가장 생각이 난다. 자명종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약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격려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다. 사실 조합원들은 노조의 일에 대해 속속들이 잘 모른다. 공무원연금 개약도 각 조합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그들이 모르는 일에 대해 노조 간부가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명종과 조합원 교육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 역시 항상 '처음 노조를 시작하던 날처럼 조합원들을 만나자'고 각오한다.

경북교육노조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시기에 노조와 함께한 것이 영광스럽다.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만들고, 이를 사측에 전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주경영 서기관 (전 공무원단체 담당)



### 우리의 길이 역사가 될 것이다

노사문화대상 추진과정에 참여해서 노조와 함께 준비했다. 말 그대로 노사가 합심했다.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날의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는 자료를 준비하고 김종기 위원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서로 손발을 맞춰가며 만들었던 추억이 많다. 비록 노사문화대상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상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다 날아갔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노사문화가 인정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이다.

일 년에 노사협의회를 4번 정례화해서 개최하는 노사는 우리밖에 없다. 교육감님과 노조위원장님이 수시로 만나 서로 협의하는 것은 다른 노조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노사문화는 전국 최고라 자부한다. 이영우 교육감님은 노조를 존중하는 분이셨고, 김종기 위원장님은 협상의 의미를 아는 분이다. 이 두 분의 바른 생각과 뛰어난 활동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화와 소통은 이제 경북교육노조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오더라도 이 전통을 흔들 수는 없다. 우리의 노사문화는 계속 이어져나갈 것이고, 이것이 경북교육노조의 역사가 될 것이다.

지난 7월 부임하신 임종식 교육감님도 국장님을 오래 하셨고, 노조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분이시다. 앞으로 어떤 역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계는 다른 노조와 달리 튼튼하다. 경북교육은 노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더 많은 발전을 함께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 제2절 제5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5~2017년)

### 1. 제5기 김종기 위원장 취임식 및 노사 상생 협약식



제5기 출범식

2015년 4월 15일 평산아카데미에서 제5기 경북교육노조 임원단 취임식이 열렸다. 2015년 3월 18일 전자투표를 통해 제5기 경북교육노조를 이끌어갈 임원단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연금법 계약투쟁의 선봉에서 경북교육노조를 이끌었던 김종기 위원장의 재임이 결정되었다.

김종기 위원장은 “4기에 이어 5기 노조 역시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조, 사회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는 노조가 되겠다”며 “조합원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노력하여 모두의 희망을 담은 새로운 공직 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1주기, 공무원 연금개약 등 사회분위기를 고려하여 취임식을 간단히 마치고 축하회환 대신 쌀을 받아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 후원금으로 이영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취임식에 이어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10명에게 교육감 표창 수여가 있었다. 노사관계 유공자 표창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노사 상생 협약식

이어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상호 협력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협약식을 개최하

였다. 이날 노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령 준수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정치적 중립 및 선진 노조 문화 확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견 수렴 ▲명품 경북교육 완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생 선언문에 서명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16일까지 1박 2일 간 평산아카데미에서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워크숍에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우 교육감 등 노사 간부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고용노동연수원 배일도 교수의 특강과 노사상생 발전방안에 대하여 팀별 분임토의 및 발표가 있었다.

노사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다른 교육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라 타 지역 노조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저지

2015년 7월 16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 수 기준은 내리는 대신 학생 수 기준은 대폭 올리고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학교수 55%, 학급수 13%, 학생수 30.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저지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해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학교 수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의 비중을 30.7%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교육부의 안대로 학생 수 비율이 50%로 확대된다면 경북교육청의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약 490억 정도가 삭감될 예정이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교육청에 심각한 재정난이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노조는 8월 28일에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재형)과 함께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효율화 방안은 도 단위 교육청의 예산을 줄여서 광역시 교육청으로 주는 형태의 방안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육부에서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부금 배정방식을 도 단위와 광역시 단위로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누리에산 편성과 함께 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한다면 도 단위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예산 떠넘기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직원 축소 등으로 교육의 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기 위원장과 함께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과 김인석 사무총장, 충북교육노조 김광소 위원장, 경남교육노조 진영민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후 9월 22일에는 세종시 교육부 정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교육노조 본조임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지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충북교육노조, 경남교육노조, 세종교육노조, 부산교육노조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들은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교육 죽이기를 당장 멈추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 9명도 전원 참석해 교육부 앞에서 결의안을 발표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교육부 지방재정과의 담당관에게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예산편성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관은 “추후 결정 과정에서 노조와 반드시 상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부는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에서 밝힌



산정기준 변경에서 한발 물러섰으며 도 단위 교육청의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액의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

### 3. 행정인력·재정운영·업무효율화 방안모색을 위한 TF팀 운영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북교육노조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상급단체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인 대응태세 준비를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행정인력·재정운영·업무효율화 방안모색을 위한 TF팀’의 구성을 도교육청에 건의했다. 교육청의 예산



행정인력, 재정운영, 업무효율화 TF팀

삭감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으므로 교육청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TF팀을 발족시켰다.

TF팀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학교를 골고루 안배하여 총 18명의 팀원을 선발하였으며 약 4개월 동안 ▲장기적 교육 재정 악화에 대비 ▲인력 운용의 효율적 제고를 통한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 ▲조합원이 만들어가는 교육행정 풍토 조성을 모토로 활동했다.

TF팀의 각 분과별 주요과업으로는 ▲업무분석에 기초한 단위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인력 재배치 방안 모색(1분과) ▲교육수요 변화와 장기 교육재정 전망에 기초한 전략적 탄력적 인력운용 방안 모색(2분과) ▲불필요한 사업, 관행적 사업의 축소·폐지 및 업무 간소화를 통한 업무경감 및 재정·시간 절감방안 모색(3분과)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토록 했다.

2015년 7월 7일 The K경주호텔에서 행정인력 적정배치를 통하여 조합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기 위한 전체 회의가 있었다.

첫 회의에서 TF팀은 ▲경상북도 학교별 정원 자료 ▲2015~2019년 통폐합대상학교 현황 및 학교 신설계획 ▲소규모 학교 현황 및 기준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현황 ▲2016~2020년 학생 수용계획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현 원부 ▲교직원 업무경감방안과 일의 개선방안 ▲본청 조직진단 보고서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날 요구한 자료는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터 취합 받아 TF팀으로 전달되어 각 분과별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7월 24일 제2차 TF팀 전체회의를 화랑교육원에서 개최했고, 3차 전체회의는 8월 21~22일 칠곡 평산아카데미, 4차 전체회의는 9월 8일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서 열렸다. 그동안 분과별 토의내용을 전 팀원이 교류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다. TF팀은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만들어진 '행정인력의 재배치, 중기 인력수급방안 활동보고서'를 도교육청과 관련부서에 제안했다. 제안 결과 도교육청 감사과와 시설과 등에서 조직을 재편했고, 이듬해 직속기관 등 기구개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비록 도출된 결과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조가 주관하여 집행부의 행정인력과 재정 운영의 효율적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 노조의 연구결과가 집행부의 부서개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TF팀 구성은 큰 의미가 있었다. 예산절감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조가 직접 나서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타 노조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 4. 경북교육노조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대상' 선정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대상 수상

2016년 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건전노사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경북교육노조가 '대상' 수상과 함께 우수기관 인증패를 받는 영광을 안았다.

건전노사문화대상 시상식은 행정자치부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의 공무원 단체 중 매년 7~9개 기관을 선정하여 2

년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 중 가장 우수한 3개 기관을 선정해 대통령상(1개 기관), 국무총리상(2개 기관), 대상을 수여한다.

선정방법은 노동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심사위원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노사문화 실천과 정착에 대한 노력 등 4개 분야에 걸쳐 1차 서류심사, 2차 실질심사, 3차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서 최종 선발한다.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노사 간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소통채널 구축 및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모범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

게 평가받았다.

이 상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받는 상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 의미가 있는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과정도 까다로우며 작성해야할 서류도 많다. 또한 지자체 노조만도 100여 개 넘다보니 교육청노조로는 대전교육청이 첫째에 장관상, 이듬해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이 전부다. 그만큼 교육청노조가 받기는 쉽지 않은 상이다. 2010년 제정된 이래 약 44개 기관과 공무원 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으나 대상을 수상한 공무원 단체는 대부분이 자치단체 소속이었다. 교육기관으로 수상한 곳은 경북교육청과 대전교육청 등 2곳뿐이다.

노사는 수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의했으며, 최선을 다해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성과를 알리는데 힘썼다. 경북교육노조는 ‘공무원 노사문화 대상수상’을 계기로 조합원의 권익개선에 힘쓰며, 늘 상생하고 더욱 발전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경북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5. 일반직 5·6급 정원 확대

당시 경북교육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직원들의 승진적체였다. 특히 당시는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20년, 30년씩 기능직공무원을 하시던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직하고 있는 시기라서 ‘이러다 계속 승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며 승진 적체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무원들이 승진을 통해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직업적 만족감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이를 늘리지는커녕 담당부서에서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이 되어 일반직 정원이 확대되었으니 직급 간 정원비율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현재 직급 간 정원비율 대비 승진 인원수를 산정해서 승진시킬 것’을 요구했다.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승진 적체 문제를 일부 해소했지만 6급의 승진적체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6급의 승진을 위해서는 5급 자리를 확대해야 하는데, 5급 자리는 한정적이라는 게 문제였다. 각급 기관인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은 교육부가 만든 규정 때문에 5급 배치를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었다. 결국 5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시 고등학교에만 근무하고 있던 5급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초·중등학교는 아무리 학급수가 많고 학생이 많아도 행정직이 6급까지만 배치되고 5급은 배치되지 않았다. 사실 5급은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전북교육청은 3년 전부터 초등학교 10곳에 5

급을 배치하여 잘 운영하고 있었다.

노조는 5급 공무원의 초·중학교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3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담당자들과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 초·중학교 5급 배치방안 관련 지부 간담회 진행일자

2015. 10. 19. 영천  
2015. 10. 20. 예천  
2015. 20. 21. 경주  
2015. 10. 22. 구미, 상주  
2015. 10. 23. 울진  
2015. 10. 26. 영주, 봉화, 문경  
2015. 10. 28. 청송, 안동  
2015. 10. 29. 군위, 김천  
2015. 11. 02. 본청, 성주  
2015. 11. 03. 칠곡, 고령, 의성  
2015. 11. 04. 포항  
2015. 11. 05. 청도

노조는 넓은 경북 곳곳을 누비며 빠짐없이 조합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5·6급 정원 확대를 위해 쉼 없이 달렸다. 간담회 결과 5급이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것에 대부분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북의 5급 정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만큼 조합원들 역시 승진 적체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이후 제3회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와 노사협의를 통해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5급과 6급을 매년 10명씩, 총 80명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년 퇴직으로 발생하는 승진인원 이외에 추가 매년 10명의 사무관이 새롭게 승진했다.

5급으로 한 명이 승진되면 6급, 7급, 8급이 연쇄적으로 승진하게 되므로 정원 확대 이후 엄청난 승진 효과가 발생했다. 당시 131명이었던 5급을 40명 확대한 것은 전체 정원의 약 25%로의 증가

로, 이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이제까지 전국 어느 교육청에서도 이루지 못한 일을 경북교육노조가 해낸 것이다.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성과다.

## 6. 행정실 법제화 추진

현재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유치원·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이 없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 추진을 위한 투쟁

특히 행정실 지방공무원은 단위 학교의 회계·시설관리·교육 지원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소수 인력이 학교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과부하 현상이 계속되는 상태다.

현행법은 직무 내용과 범위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실 직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은 조직 내 갈등과 스트레스를 토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정실 법제화는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실 법제화 법안 쟁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특히 경북교육노조는 행정실 법제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끊임없이 협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기 위원장과 교육청노조 소속 단위노조 임원진 20여 명은 2015년 3월 27일, 4월 14일, 4월 20일, 4월 21일에 행정실 법제화 관련 대 국회 및 교육부와 협의를 가졌다. 4월 28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보류와 관련해 교육부를 항의방문 했으며 6월 17일과 18일, 6월 25일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비쟁점사안으로 재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7월 14일에는 영남권 교육노조 임원협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처럼 행정실 법제화 추진에 힘써온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행정실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7. 대경공공노조와 영남지역교육청노조를 주도하다

대구경북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대경공공노조)는 17개 단사(KBS, KT, KT&G,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 근로복지공단,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청, 대구은행, 경북지방우정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로 구성되었던 협의회를 25개 단사(KBS, KT, KT&G,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 경북지방우정청, 경북관광공사, 경북개발공사, 근로복지공단,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청, 대구은행, 대구의료원, 대구도시철도,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매일신문, 서부노인전문병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로 세를 확장해나가고 있는 노동조합협의회이다.

대구, 경북 관내 공공노조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발족됐다. 대경공공노조는 그동안 무료급식 봉사과 대구 북구의 동심지역아동센터의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협의회 소속사 간 젊은 미혼 남녀를 소개해주는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김중기 경북교육노조 위원장은 2014년 3대부터 2018년 7대까지 협의회장으로 연속 선출되어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노조의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과 공공기관 노조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대경공공노조는 2016년 12월 7일 대구 북구 관음동 동심지역아동센터에 '대구경북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작은도서관 1호점'을 열었다. 이 도서관에는 대경공공노조에서 조성한 사회 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책상과 책장을 비롯해 1천500여 권의 기증도서가 전달됐다. 작은도서관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독서지도 도서들로 비치돼,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경공공노조 작은도서관

이밖에도 경북교육노조는 영남지역교육청노조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남지역 교육청노조는 경북교육노조, 대구교육노조, 부산교육노조, 경남교육노조, 울산교육노조가 모여 영남지역 교육청노조 간 정보교류 및 단합을 위해 결성했다. 타 지역(호남, 충남, 수도권 등)은 지역별 연합을 구성하여 유대관계 및 연대 강화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영남권은 이러한 활동이 없어 경북교육노조에서 주도하여 영남지역교육청 노조활동을 전개했다. 제1회 모임을 2013년 8월 9일 시작한 이후 서로 간의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정책개발과 각 교육노조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이같이 경북교육노조는 단순히 경북교육청 안의 문제만 고민하지 않고, 영남지역 전체의 교육청과 협의하며 함께 학교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또한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노조들과 협의하며 교육노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교육노조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경북교육노조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노조의 다양한 사회기여 방법에 대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 8. 권역별 노동교육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을 위한 2015년도 경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노동교육이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경북의 23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월 20일 포항지역(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교육은 경북학생문화회관 대강당에서 5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안동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주, 예천, 봉화)은 2월 21일 경북교육연구원에서 조합원 4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1월 23일은 구미지역(구미, 김천, 성주, 칠곡, 군위) 조합원 55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렸다. 1월 27일 경산지역(경산, 영천, 청도, 고령)은 경산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조합원 2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마지막 1월 28일 문경지역(문경, 상주)은 180여 명의 조합원이 도립상주도서관 강당에 모여 행사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육청과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 제5조4항에 의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의 업무경감 등을 위해 본청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단체담당사무관의 2014년도 실적보고와 노조관련 행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경대학교 박종암 교수의 '공무원노조의 현실'에 대한 강의와 김종기 위원장의 단체협약서 내용과 공



권역별 노동교육

무원연금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 중에 '노조에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받아 그 자리에서 김종기 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했으며, 답변이 어렵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추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경북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어 7월 21일에는 포항, 안동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합원 약 900명,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노동교육을 실시했으며, 8월 5~7일에는 2박 3일간 풍기관광호텔에서 지부 신임당선자(지부장, 사무국장, 대의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임원 노동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생들은 3일간의 교육일정 동안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 ▲공무원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교육청 노사관계 쟁점 사례 해설 ▲노사 파트너십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복무규정의 이해 ▲갈등 관리와 리더십 개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자리를 가졌다.

2016년도 상반기 노사교육은 1월 18일부터 시작했다. 첫날인 제1권역(경산, 청도, 영천, 군위, 고령) 교육은 경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약 4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서 진행되었고, 둘째 날 제2권역(구미, 김천, 성주, 칠곡, 상주) 교육에는 약 650명의 조합원들 참여해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4기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남다른 기대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경북교육청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권정숙 행정지원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교육노조가 출범한지 10여 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고, 특히 최근 3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는 경북교육노조가 201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 상반기 노사교육에서는 유한양행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광진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가 노사관계에 대한 강의를 했고, 김종기 위원장이 2015년도 경북교육노조의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1월 21일 진행된 제3권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주, 예천, 봉화, 문경) 지역



교육에서는 약 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며, 1월 26일 제4권역(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에서도 약 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8월 5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노동교육은 안동권역을 시작으로 경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8월 12일 경주권역을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이 끝났다. 하반기 교육에는 휴가철과 폭염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4개 권역(안동권, 경산권, 구미권, 경주권)에서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하반기 노동교육은 행복충전발전소 이상국 소장의 웃음에 대한 유머 강의와 김종기 위원장의 공무원노조 발전과정과 경북교육노조의 활동사항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2017년도 상반기 노동교육은 1월 16일 포항권역, 1월 18일 구미권역, 1월 20일 안동권역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 9. 노사합동 워크숍

경북교육노조는 2016년 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이영우 교육감, 경북교육청 국·과장,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및 경북교육노조 임원을 포함한 노사간부 70여 명이 참석하는 노사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노사상생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유머로 소통하고 협력으로 상생하자’라는 주제의 웃음특강을 실시하고, 노사 간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노사합동 워크숍

김종기 위원장은 “노사간 발전적 소통문화 정착과 상호협력을 통해 경북교육 발전에 함께할 것을 희망하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고, 이영우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조직도 유머로 소통하는 즐거운 직장문화 형성과 노사의 하나 된 힘으로 명품 경북 교육 완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2017년에는 4월 13일과 14일 양일간 The K호텔 경주에서 경북교육노조 임원 및 본청 지부장을

비롯한 23개 시군지부장과 경북교육청 과장 이상 간부,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는 노사합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연수회에서는 노사가 함께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현안을 공유하면서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건전 노사문화구축 우수공무원 10명에 대해 교육감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 외에도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북 칠곡군 평산이카테미수련원에서 영남지역 5개 교육청노조(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간 친목도모와 연대력 강화로 노조활동의 성과 제고 및 투쟁의식을 고취한다’는 목적으로 제6회 영남지역 교육청노조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교육청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김유태 행정지원과장, 주경영 공무원단체 담당 등이 참석했다.

## 10.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

2015년 7월 2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교육감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는 교육감과 지방공무원 23명, 관계자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 경북교육 완성을 위한 교육행정인의 역할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듣고, 정책분야에 아이디어 제시, 지방공무원들의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영우 교육감은 토론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만들어진 참 좋은 대화는 교육감과 지방공무원들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게 평소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어 2016년 7월 26일에 역시 경북교육청 안동신청사 화백관에서 이영우 교육감과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된 각 직렬별 조합원 23명이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김종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격식의 구에 없이 허심탄회하게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교육감에 전달했고, 교육감도 마음을 열고 조합원들과 소통했다. 건의된 내용은 담당과의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교육청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호묵 행정과장, 정대림 담당사무관과 담당직원, 정원상 경북교육노조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 마주앉아 교육의 앞날을 토론하는 것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북교육청이 유일하다.

## 11. 한마음체육대회

2015년 11월 14일 오전 10시 제10회 경북교육노조 조합원 한마음체육대회가 구미시 민운동장에서 조합원 2,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체육대회는 이영우 교육감 외 경북교육청 임원, 경북도의원,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지역협의회장, 지역교육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제10회 한마음체육대회

제11회 한마음체육대회는 2016년 5월 21일 안동 시민운동장에서 조합원 약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종목은 400미터 계주,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윷놀이 등 4개 종목을 24개 지부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경기결과 종합우승은 포항, 2위는 상주, 3위는 경주교육지원청이 차지했으며, 매년 날씨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가 4년 만에



제11회 한마음체육대회

참석한 울릉교육지원청이 특별상을 받았고, 응원상은 성주와 경산교육지원청이 받았다. 제11회 한마음체육대회에는 경북교육청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김명훈 부교육감과 행정지원국장, 교육정책국장과 각 과장 전원이 참석했으며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 이영식 교육위원장, 김응규, 박경호, 김위한, 김지식, 김인중 도의원과 경북학교운영협의회장, 23개 시군 교육장, 행정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7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경북교육노조는 연말에 개최될 소년소녀가장

돕기 김장행사를 위한 모금운동으로 생맥주를 판매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 12. 경북교육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노사합동 봉사활동

2016년 5월 13일 경북 안동시 소재 경안 신육원(청소년복지시설)에서 노동조합 임원과 경북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들 30여 명이 함께 노사합동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북교육노조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대신, 소외되고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더불어 사는 건전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준비되었다. 이번 청소년 복지시설에 후원한 물품은 경북교육노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하회환 대신 기증받은 후원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하였다.



노조창립 10주년 봉사활동

11월 11일에는 경주시 구정동에 위치한 경주성애원(청소년복지시설)에서 노조 임원 및 시·군지부장, 공무원 단체 담당 등 40여 명이 함께 노사합동으로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였다. 평소 복지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내·외부 건물 대청소와 수목 전지작업, 도색 등 주변시설 환경정리를 실시했으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나눔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평소에 마음이 있어도 봉사활동을 실제로 실천할 기회가 없는데 이번 봉사활동으로 나누는 기쁨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노사가 함께 봉사를 하니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계속 실천하고 싶습니다.”

- 박달원 연대협력국장

### 13. 2015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2016년 사랑의 이불 나눔

2015년 12월 2일 김종기 위원장 외 본조 임원, 시·군지부 임원들은 경북교육청 이영우 교육감 및 국·과장 이상 간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학교급식조리사회 회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2015년 11월 7일에 열린 '제10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 돕기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과 경북학교조리사회 재능기부 및 농협 경북교육청출장소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김장김치 2톤을 직접 담갔고, 이를 경북 도내 불우한 학생 200명에게 각각 10kg씩 전달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2015)



사랑의 이불 나눔 (2016)

2016년에는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이 2013년부터 함께 진행해온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개최한 제11회 한마음체육대회 일일모금 수익금과, 그동안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합하여 재원을 마련했다. 연말을 앞두고 도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 행사를 통해 이불 200채(900만 원 상당)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겨울이 유독 추웠던 그해 겨울, 경북교육노조와 조합원들은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마음의 온기도 선물했다.

### 14.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노사협의회 성과

5기 노조에 이어 6기 노조 역시 교육청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노사협의회

2015년에 이뤄진 총 4회에 걸친 노사협의회에서는 ▲학교 통학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학교 기본운영비 적정 배분과 효율적 운용, 사무관 승진심사 차별 시정 ▲감사제도 개선 ▲장기재직휴가 실시에 따른 문제점 개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주 대책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 결과 조

치 ▲지방공무원 출납 수당 신설, 소규모 통학차량 재배치 후 잉여 인력 재배치 계획 ▲장기재직휴가 관련 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이 논의되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주대책도 논의되었는데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출퇴근 지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정주여건 조성 등 대대적인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노사협의의 성과를 입증했다.

2016년 역시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노사협회가 논의되었는데 ▲신청사 근무자 복지환경개선 ▲교육실무직 문제 ▲기록물 관리 ▲복무조례 개정 ▲학교시설공사 개선 ▲연수과정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 ■ 학교 통학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학생 수는 20명인데 45인승 버스가 운행되거나, 학생 수는 40명인데 25인승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등 학교의 각기 적정 인원과 상관없는 스쿨버스 운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두 학교의 버스를 상호 교체하면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지만, 이를 방지해서 25인승 버스를 가진 학교는 버스를 2회 운행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에서 각 학교별 승차인원에 맞는 차량을 운용하도록 제안하고 이를 전환했다.

### ■ 학교 기본운영비 적정 배분과 효율적 운용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교 급, 학급 수, 학생 수 및 학교별 여건에 따라 편성하는 순수운영비와 학교별 목적성 사업경비를 편성하는 추가지원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순수운영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마련한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편성된다. 반면 추가지원사업비는 기존 목적사업비를 추가지원사업비로 편성하여 학교별 소요액 총액에 따라 배분된다.

학교 기본운영비 중 불용액이 많은 학교가 있는 반면, 예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는 학교도 있는 등 운영비 적정 배분과 효율적인 운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노조는 세분화된 기본운영비 배분과 목적사업비 예산을 늘리도록 요청했다.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주 대책 마련

노조는 조합원의 이주지원비, 전세자금 지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정주여건 조성(어린이집, 체육시설, 도서관, 식당 등) 등 신청사 이전에 따른 조합원 복지를 위해 교육청과 끊임없이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했다.

■ 교육실무직 인사이동 후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업무절차 개선

교육실무직이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무처 변동 신고로 이동 가능하게 개선했다. 지역청을 모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관내 학교 간 이동은 근무처 변동으로 신고하게 하고, 통합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입학교에서 해당기관으로 각각 변동 신고하게 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어 근무처 변동 신고가 불가하므로 현 방식과 같이 전출학교에서 상실신고, 전입학교에서 취득신고를 하도록 했다.

## ○ 서종철 수석부위원장



### 진심이 전달될 때 조합원은 일어선다

직협 때부터 노조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었기에 노조가 결성될 때 힘을 보탤다. 노조를 통해 공직사회를 변화를 시키겠다는 생각에 그때는 힘든지도 몰랐다. 이후 조합원으로 머물다가 2013년에 김종기 위원장님의 뜻에 공감해서 다시 노조 임원으로 참여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직 5·6급 정원 확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15년부터 4년간 5·6급 정원을 해마다 각 10명씩 총 80명을 늘렸다. 이는 대단한 성과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기억이 난다. 이로서 일반직 공무원들도 노조의 여러 활동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노조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본조는 1년을 연간 스케줄대로 운영되도록 시스템이 완전하게 정책되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부는 잘 되는 지부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지부도 있다. 각 지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계속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지부들도 자연스럽게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처럼만 노사가 화합한다면 누가 말든 잘할 거라 믿지만, 다음 노조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사심 없이 노조를 해달라'는 것이다. 노조가 사심 없이 조합원들을 위하는 마음만 가지고 일한다면 조합원들이 결국은 그것을 알게 된다. 그 진심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될 때, 조합원들이 함께 일어서서 힘을 보탤다는 것을 오랜 노조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노조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과 진심이 조합원들에게 가서 닿기를 바란다.



## ○ 박흥기 사무관



### 다른 노조가 부러워하는 경북교육노조

직접 시기부터 노조와 함께 했다. 이철연 위원장님 때는 처음이라 체계가 덜 잡혀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이었다. 전국노조를 이끄는 선진 노조를 만들겠다는 불같은 의지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난다. 김종기 위원장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노동전문가다. 2013년부터 노조의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서 지금의 경북노조를 만들었다. 이철연 위원장님은 불도저고, 김종기 위원장님은 치밀하다. 대단하고 특별한 두 분이 계셨다는 게 경북교육노조의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경북교육노조는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자랑하는, 전국 최대 단일노조가 되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다. 교육연명, 공노총 쪽에서 부담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지역은 넓은데 행사가 많다보니 노조는 늘 쓸 돈이 부족하다. 그런데 노조비는 다른 시군보다 낮으니 집행부가 고생이 많다.

사실 우리끼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지만, 타 노조에서는 다들 우리를 부러워한다. 우리 노조의 단결력과 문제해결력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노조는 내게 삶, 그 자체다. 경북교육노조와 함께 했다는 게 내 인생의 자랑이다. 직접 노조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측과의 다리 역할을 통해서 경북교육노조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 제3절 제6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7~현재)

## 1. 제6기 경북교육노조 출범식



제6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은 2017년 5월 12일 경북교육청 응비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 전국광역연맹 노조 김현진 위원장, 전국시·군·구노조 석현정 위원장, KT노조 대구경북본부 김해관 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공공기관 10여 개



제6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출범 (2017. 5. 12.)

단위노조 위원장, 전국의 공무원단체 단위노조 위원장 그리고 경북교육청 이영우 교육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석 위원장 및 도의원 등 50여 명의 내·외빈과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국악교육원 ‘타모리 팀의 난타 축하공연으로 출범식의 문을 열었다.

김중기 위원장은 이날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참 봉사 실천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가, 지금은 국민들에게 제 밥그릇 챙기는 모습으로만 비쳐지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는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노동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노조로 거듭날 것이며, 현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묵묵히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 2.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투쟁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성과연봉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를 2017년까지 5급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우수한 공무원은 획기적으로 대우하고, 미흡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직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역량이 부족하거나 성과가나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근거를 담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들의 대대적인 집회와 농성 끝에 19대 국회에서 상정되지는 못했다.

공직사회는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니다. 민간 기업에서 하는 사업과 공무원들이 하는 공적업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빈곤과 사회적 차별,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들은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그 성과를 평가를 할 수 없다. 또한 목표가 단순하고 협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성과주의는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구성원 간의 불화, 직업적 자부심 저해, 출석기 등 많은 문제를 조장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1인시위



성과연봉제 폐지 대규모 집회

를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박근혜 정부의 가점과 패널티를 없애고,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제도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정하도록 입장을 바꿨지만 공직사회의 성과주의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없었다.

공무원노조들은 공직사회성과제를 이전 정부의 적폐로 규정하고, 제도의 전면 폐지

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 투쟁을 벌여왔다. 2017년 7월 24일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성과급 폐지 및 대정부교섭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북교육노조는 10월 18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노총, 전국 단위노조와 함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공무원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반대하기 위한 '24시간 철야 천막농성 투쟁'에 참석했다.

10월 30일 천막철야농성에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해 신영찬 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이제복 고령지부장이 투쟁에 참여해 성과주의 폐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2017년 11월 29일에는 공노총, 전국단위노조와 함께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노조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잘못 만들어진 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사적이익보다 공적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다. 공무원의 노고를 돈이 아닌 인정으로 보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북교육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3. 특수직무수당 신설

경북교육노조는 출범 초기부터 교직원수당 및 유치원 겸임수당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규정하고 2007년 대정부교섭에서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곧 이루어질 것 같던 유치원 겸임업무수당 신설이 차일피일 미루어지자, 2015년 5월 29일 특수직무수당 개정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교육행정활동비, 병설·통합학교 겸임수당, 학교안전관리수당, 수익자 회계 세입관리수당 신설과 사서수당 인상을 적시했다.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유·초·중·고 및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특수직무수당은 업무 형평성 특수성 측면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7년 1월 2일 특수직무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대책

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에 교육청노조와 경북교육노조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특수직무수당 신설 누락을 개탄한다’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 18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월 3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어 2018년 1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학교에 근무하며 처음으로 받는 업무관련 수당이다 보니 행정실 직원들의 반향은 매우 컸다. 하지만 지급대상에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공립고등학교 일반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기술정보수당을 받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행안부의 ‘특수업무수당 중복 지급 금지’를 사유로 제외한 것으로 인해 조직 내 상당한 반발도 불러왔다.

학교회계에서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을 지급받겠다고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면 동일한 학교회계에서 교육연구비 및 직책수당을 받는 교원에 대해서도 특수업무수당 내 교직수당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정보수당을 지급받겠다고 기술직 공무원을 제외한다면 특수직무수당 내 연구업무수당, 보전수당, 교직수당 등 3가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육전문직원도 한 가지 수당만 받아야 되는 것이다. 노조는 앞으로도 위와 같은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특수직무수당 신설을 위한 교육부장관 면담

#### 4. 권역별 노동교육

경북교육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상반기 노동교육을 1월 16일에 포항권역, 1월 18일에 구미권역, 1월 20일에 안동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했다.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이 동·하절기 방학 중에 노동교육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2013년 단체협약에 따라 2018년 5회째를



권역별 노동교육

맞았다. 교육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개 권역(포항권, 구미권, 경주권)에서 약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교육에 앞서 격려차 참석한 경북교육청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교육을 통해 노사관계를 더욱 새롭게 인식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기 위원장도 “노동교육을 통해서 노조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짚어보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교육에서는 김종기 위원장의 경북교육 노조 발전방안에 대한 설명과 한국고용노동연수원 박광진 교수의 ‘노사갈등 사례 및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2017년 하반기 교육은 9월 9일 경북대상주캠퍼스에서 시작해 10일 안동 경북도청, 11일 포항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마무리했다. 9일 교육에는 경북교육청 김동구 행정지원국장과 경북도의회 강영석 교육위원장, 이운식 문화환경위원이 격려차 참석했다.

노사교육은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의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해’ 강의와 정원상 사무총장의 ‘경북교육노조 상반기 실적보고’, 조기정 감사관의 ‘청렴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노사교육에는 경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약 2,000여 명이 참석했다.

2018년 상반기 노사교육은 1월 22일 구미권역(금오공대), 1월 24일 안동 권역(경북도청 동락관), 1월 26일 경주 권역(동국대 경주캠퍼스)으로 나누어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노조교육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었다.

## 5. 노사합동 워크숍과 노조 간부교육

2017년 4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주 The K호텔에서 경북교육노조 임원 및 본청 지부장을 비



노사합동워크숍



노조 간부 교육

롯한 23개 시군 지부장과 경북교육청 과장 이상 간부,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는 노사합동 연수회가 열렸다. 연수회에서는 노사가 함께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현안을 공유하면서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건전 노사문화구축 우수공무원 10명에게 교육감표창을 수여했다.

8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군위 백송스파비스호텔에서 노조 임원 및 23개 시군 지부장, 사무국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노조간부교육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고용노동연수원 안정화 교수의 ‘공무원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윤성택 노무사의 ‘공무원 노사관계 법적쟁점’, 박광진 교수의 ‘노사상생 우수사례’, 김종기 위원장의 ‘노조간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2일차 오전에는 지역문화 탐방시간으로 군위 제2석굴암, 한밤돌담마을, 생활체험 시설인 예주가 등에서 문화체험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6. 교육부장관 면담

2017년 9월 27일 서울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교육청노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교육청노조에서는 학교행정실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지방공무원포함, 직종개편 후속대책에 관한 TF팀 구성, 학교행정실 직원 특수직무수당과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건의하는 안건 중 대부분이 2006년 교육청노조 설립 당시부터 교육부에 요구한 사안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 직종개편이



교육부장관 면담

후 학교현장의 또 다른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직렬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TF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교육청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미 입법 예고 된 ‘특수직무수당’ 신설과 ‘학교운영위

원회 구성에 일반직 포함’, ‘직종개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등 13개 가맹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국장, 지방교육자치과장과 담당관들이 배석했다.

## 7.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경북교육노조는 2017년 7월 26일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조합원 23명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영우 교육감은 “매년 갖는 경북교육청과 노조의 대표적인 행사지만 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 교육현장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게 된다. 이 귀한 시간은 경북교육행정의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며 4회째 이어져

오는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 노조에서 건의된 내용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사항으로 추진된다.

이날 행사에는 노조 측에서는 서종철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집행부에서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



는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호묵 총무과장, 임홍식 행정과장이 함께했다.

## 8. 한마음체육대회

제12회 경북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가 2017년 5월 20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조합원 약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이철우 국회의원, 경북도의회 김응규 의장, 강석 교육위원장 등 도의원들과 경북 학교운영협의회장, 23개군 교육장, 행정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7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체육대회는 총 24 팀으로 편성되어 4종목인 윷놀이, 400m계주, 단체줄넘기, 단체줄다리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더불어 참가 지역별로 풍물놀이, 전통의상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응원이 더해져 한층 더 큰 즐거움을 주었다. 경기 결과 종합우승은 의성, 2위 예천, 3위는 영주교육지원청이 차지했으며, 응원상에는 1위 영천, 2위 경주, 3위 성주교육지원청이 받았다. 연말에 개최될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를 위한 성금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생맥주를 판매하기로 했다.

2018년 5월 12일에는 제13회 한마음체육대회가 금오공고 운동장에서 조합원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비가 와서 준비한 모든 종목을 하지는 못하고 윷놀이, 단체줄넘기 등 2개 종목을 24개 시군교육지원청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기 결과 종합 1위는 울릉교육지원청, 종합 2위는 영덕교육지원청, 종합 3위는 성주교육지원청이 차지했다.

체육대회에는 경북교육청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해 전우홍 부교육감과 행정지원국장, 교육정책



제12회 한마음체육대회



제13회 한마음체육대회

국장과 과장 전원이 참석했으며 백승주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직무 대리, 23개 시·군교육장, 행정지원과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70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역시 연말에 개최될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를 위한 모금운동을 펼쳤다.

## 9. 노사합동 사회봉사활동 및 지진피해 성금 전달

7월 14일 노인복지시설인 SMS 그린힐 군위요양원에서 노조 임원과 경북교육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합동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한 물품은 제6기 경북교육노조 출범식 때 축하회환을 대신하여 받은 성금으로 마련하였으며 이 봉사활동은 2017년 5월 26일 ‘소년소녀가장 돕기 쌀 1,000kg 기증’에 이은 노조의 사회적 상생활동이었다.



봉사활동

이뿐 아니라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은 2013년도부터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해왔는데, 2017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지진피해 성금

2017년 12월 11일에 개최된 행사에서 노조는 이불 130채를 구입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학생들의 가정으로 보냈다. 이 행사는 5월 한마음체육대회 일일모금행사 수익금으로 진행됐다. 또한 11월 15일에는 지진 피해성금을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도민안전 이원열 실장에게 전달했다.

## 10.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노사협의회 성과

2017년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는 ▲공로연수 대상자 직급 확대 ▲필수실무요원 지정비율 확대 ▲나 홀로 행정실장 해소 및 처우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 규칙 개정 ▲시설관리직렬 업무 효율화 방안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사용 적정성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계속했다.



노사협의회

추가 안건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인사제도 도입' 검토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논의 결과는 적극 검토하여 최종 확정 후 노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노조 측에는 김종기 위원장, 서종철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박달원 연대협력국장, 배용호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하였다. 시설관리직렬 현안 청취 및 의견제시를 위해서 호서남초등학교 윤병선 주무관도 배석했다. 집행부에서는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김호묵 총무과장, 임홍식 행정과장, 권정숙 학교지원과장, 김창규 재무정보과장이 참석했다.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는 ▲당직 근무제도 ▲소수직렬 8, 9급 정원 통합관리를 논의했으며, 4/4분기 노사협의회에는 경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유연근무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별히 6기 노사협의회에서는 경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었다.

경북교육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간절히 원하던 많은 실질적 문제를 해결했으며 특히 지금까지 학교 내의 참예한 갈등으로 지적되어 오던 '교사와동일한 퇴근시간 보장'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교원과의 복무차별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간직하고 있던 경북교육가족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 ■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규정 개정

경북교육노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대부분이 학교회계 예·결산과 같은 행정 업무가 아닌 학사일정을 비롯한 교무업무임을 주장하며 개별 학교 여건에 따라 교원들도 간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행정실장의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 규정을 교직원으로 개정해 달라고 경북교육청에 누차 요구하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역할의 중요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일선 학교에서는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간사가 되어 젊은

교사 및 학부모들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어색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경북교육노조에서는 차선책으로 행정실장의 당연직 간사 규정을 행정실 직원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7년 9월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사무관 대신 실무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로 임명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규정(제16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행정실 직원으로 하며,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 직원이 없는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 21.>

#### ■ 복무조례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개정

2017년 노사협의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근무시간 교원과 동일하게 변경
2. 경조사 특별 휴가 신설 및 일수 상향 조정확대
3.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휴가 2회 이상 사용
3.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은 개교기념일을 비롯한 연 3일 이내 재량휴업일 부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2010년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1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

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개정 2010. 1. 7.>

위의 내용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으나, 일부 학교의 장은 관련 조례에 ‘교원과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교직원들이 퇴근한 학교에 지방공무원을 근무케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부당한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다. 노조는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자 경북교육청에 이 문제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한편 시도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학교 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경상북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 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이로서 학교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퇴근 시간이 같아지게 되었다. 학교 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인 쾌거라 하겠다.

■ 복무조례 제18조(특별휴가) 제1항(경조사휴가) 확대

구분	대 상	특별휴가일수	
		현행	개정
결혼	본인	5	
	자녀	1	

구분	대 상	특별휴가일수	
		현행	개정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X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X	1
기타	자녀 군입대	X	1

### ■ 복무조례 제18조 제6항(장기재직휴가) 개정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장기재직휴가 조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

이 시행규칙에 ‘15일 이상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한다’는 지침 때문에 2회에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조는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2017년 4월 23일 현행 ‘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2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 ■ 개교기념일을 비롯한 연 3일 이내 재량휴업일 신설

노조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 사무관 승진 심사제도 개선

경북교육청은 2012년 이전 사무관 승진임용을 시험에 의해서만 선발했다. 이러한 시험제는 투명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모르나 대상자들이 시험에만 몰두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잦은 자리 이석 등 갖가지 병폐를 낳고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사무관 승진임용제도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교육감은 2012년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으로의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여 시험과 심사에 각 50%의 인원을 배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2013년부터는 100% 심사승진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 도입된 기획력평가와 2015년에 도입된 소양평가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즉 이 또한 시험제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이에 경북교육노조에서는 심사승진제의 간소화를 요구하였다. 공무원이 평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승진 심사에 대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노조의 요구는 2016년 기획력평가 폐지, 2017년 소양평가 집합교육 전환으로 받아들여졌다. 2018년 현재 경북교육청의 5급 심사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70%, 소양평가 적격/부적격, 청렴도평가 적격/부적격, 면접 30%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의 고심의 산물인 사무관 승진심사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 사무관 승진 심사제도 변천과정

- 2012. 08. 10.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으로의 승진임용방법 변경 통보
  - 전 직렬 100% 인사위원회 승진의결(공고 제2012-215호)
  - 5급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 13명  
(교육행정 7명, 시설 2명, 공업·사서·시설·전산 각 1명)
- 2012. 11. 20.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용 방안 수립
  - 5급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 18명  
(교육행정 15명, 사서·시설·보건 각 1명)
- 2013. 12. 1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용 개선방안 수립
  - 평가영역별 반영 비율 조정, 기획력평가 시간 및 분량 변경, 자료 미 제공
  - 5급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 20명  
(교육행정 18명, 사서·시설 각 1명)

2014. 12. 1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용 기본계획 수립  
(승진후보자 명부 70%, 기획력 15%, 면접 10%, 소양 5%)  
- 5급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 37명  
(교육행정 32명, 시설 2명, 사서·전산·보건 각 1명)
2015. 12. 2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용 기본계획 수립(승진후보자 명부 70%, 면접 25%, 소양 5%)  
- 5급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 35명  
(교육행정 31명, 시설·공업·전산·보건 각 1명)
2016. 12. 0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용 기본계획 수립(승진후보자 명부 70%, 소양평가 적격/부적격, 청렴도 평가 적격/부적격, 면접 30%)  
- 5급 승진심사 대상자 결정 30명  
(교육행정 27명, 시설·전산·보건 각 1명)

### ■ 맞춤형 복지비 100포인트 상향

기본 500포인트에 100포인트를 상향하여 600포인트로 조정(2019년 예산 반영 예정)됨으로써 1인당 10만 원의 복지비가 더 늘어나게 됐다.

### ■ 나 홀로 행정실장 해소 및 처우 개선

경북은 광범위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2017년 7월 1일 현재 나 홀로 행정실장 학교 수(136교)는 공립 학교 수(766교)의 17.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생 수 감소로 계속 증가할 나 홀로 행정실장의 완전 해소는 어렵지만 노조는 각급 학교 배치기준 조정 및 행정실무원 인력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갔다. 노조의 노력으로 초등학교 7학급(초등 6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 2명(7급 1, 8급 1)을 배치하여 나 홀로 행정실장 136개교 중 16개교를 해소했다.

### ■ 당직근무제도 개선

기관별 당직 운영 자체 내부계획 또는 지침에 따라 면제 대상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임신한 여



성 공무원 및 여성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 ■ 소수직렬 근무환경 개선

운전직렬은 학교별로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가 다르므로 모든 기관 운전직렬에 대한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하고, 학기 중에는 매일 운행으로 인한 연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운전직을 배치했다.

조리원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조리원 정원이 조정되어 급식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급식소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여 배식업무 보조로 일하도록 했다.

또한 대부분의 직렬은 8·9급 통합 관리가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직렬(운전, 시설관리, 조리 등)은 통합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노조는 8·9급 정원 통합 관리로 최저승진소요연수가 지나면 최소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 윤병선 구미지부 대의원



###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주는 노조가 되길

작년에 시설관리직렬 공채로 들어왔다. 근무를 시작하자 현장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보였다. 내가 이 문제를 노조에 건의하자 위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만나자고 하셨다. 위원장님이 신입조합원의 얘기를 2시간 넘게 들어주셔서 놀랐고, 그때 노조에 대한 신뢰가 생겨 노조를 시작했다. 내 의견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노사협의회도 참석했다. 나는 내 생각을 소신 있게 말씀드렸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다른 노조는 잘 모르지만, 조합원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경북교육노조가 월등히 좋은 노조라고 확신한다.

신입조합원으로서 건의사항이 있다면 각 개인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본조에서는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부에서 각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창구가 부족한 것 같다. 지부마다 정례화 된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각 지역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지부장님께 전달 되고, 24개 지부장님들이 모여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면, 학교 현장의 작은 소리도 반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만남이 있어야 문제점을 얘기할 기회가 생기니까 각 지부 자체의 활동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아직 학교현장에는 차별이 남아있지만 노조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싶다.

## ○ 정원상 사무총장



### 노조의 단맛과 노조의 쓴맛

노조 임원이 되어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봤다. 단맛이라면 법 개정을 해내거나 노사협의 회를 통해 원하는 성과를 이뤘을 때의 보람을 들 수 있다. 이때의 기쁨은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일반 조합원으로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쓴맛은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을 들 수 있다. 욕을 먹을 때도 많다. 하루는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조합원이 전화가 와서 욕설을 했다. 가족들이 이 소리를 다 들었다. 너무 속이 상했다. 사실 노조를 한다고 해서 나에게 실질적 이득이 오는 것은 없다. 노조를 위해서 개인적인 연가도 다 써야한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노조에 매달렸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때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보람이 더 많으니 이 일을 계속 한 것 아닐까? 앞으로 집행부도 노력해야겠지만, 조합원들이 조금만 더 응원해준다면 집행부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돌아보면 '행정인력적정배치를 위한 TF팀 조직운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공무원들의 일이라는 것이 보통 정책을 전달받아 집행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입안을 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놀라운 경험이었다. 다른 노조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자부심으로 남는다.

각 지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지부 임원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면 좋겠다. 불만을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노조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 앞에 침묵하는 자,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Inter  
view

상생과  
협력,  
경북교육노조를  
꽃피우다

○ 위원장 김종기



## 노조가 없었던 시기에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다

나는 1984년에 공무원이 됐고, 처음 발령지는 청도교육청 소속 청도도서관이었다. 내가 처음 경험한 공무원 사회는 능력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다. 조직 전체가 경직되어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그때는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분노와 '불평등과 부패가 만연한 조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997년에 IMF가 터진 후에 정부가 노동조합과 힘을 합쳐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때 노동조합의 전단계인 '직장인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우리도 힘을 모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나같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 그때 노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듯,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합리한 것을 못 참는 성격이었던 것 같다. 높은 사람들이 보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비합리적인 결정, 부정부패,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접 못 받고 이부 잘 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했다. 법외노조 창립을 앞두고 집사람에게 "노조 하다가 잘릴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냐?"고 물은 적이 있다. 집사람이 "잘리면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말해 줘서 그 뒤부터는 두려움 없이 노조 활동에 뛰어들었다. 노조를 하면서 끊임없이 내 한계를 만났다. 쉬운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한계를 극복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 오랜 시간 몸담으며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아무래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근무한다」는 조항의 초중등교육법은 학교현장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불려왔다. 이를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근무한다」로 고치려고 전국의 노조가 협력해 7년간 싸웠다. 법안 개정을 기다리며 추운 국회 복도를 서성이던 기억이 선명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그때까지 교장의 명에 그대로 따라야했던 학교 행정직의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역사적인 성과에 함께 한 것에 기쁘고 영광스럽다.

## 노조가 항상 성과만 낸 것은 아닐 텐데

내가 노조를 시작한 것은 '머리에 띠 두르고 집단행동 하는 것'이 노조가 이념을 보여주겠다는 결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신념을 바꾼 것이 딱 한 번 있는데 바로 '공무원연금법개정' 때였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납부액과 납부기간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납부하지만, 공무원은 14%를 납부한다. 또한 가입기간도 국민연금은 10년이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 납입이며 대부분 33년 만기까지 납부한다. 길게 내고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평생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나라를 위해 봉사한 공무원들의 재산이다. 이 귀한 재산을 잘 굴리고 불려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경영적자를 늘려놓고는, 마치 공무원연금이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원흉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뒤 공무원연금개약을 자행했다. 전국의 공무원단체가 똘똘 뭉쳐 투쟁을 벌였지만 끝내 이를 다 막아내지는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 경북교육노조는 '상생하는 노조'로 명성이 높다

협상을 하려면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쓰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재량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재량이다. 쥐도 되고 안 쥐도 되는 것이다. 만일 상대가 "저 요구는 들어주기 싫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재량권은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방향으로 발동된다. 그러니 결국 협상을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나는 무턱대고 떼쓰지 않았고 사측의 약점을 잡는 일 같은 것 역시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는 큰 것을 얻어낼 수 없다고 믿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관된 정직성과 정성을 보여줬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누구는 내게 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사람들에게 "누가 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 경북교육노조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나?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일한다'는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이념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올바르게 못한 일터를 바꾸고, 불평등이 가득했던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려 걸어왔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사측과 상생하고 협력했으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 앞장섰다. 그게 노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내 인생의 자랑이다. 후대의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측과 상생하며 올바른 일터를 만든 노조'라고 기억해 준다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 이번을 끝으로 노조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다음 노조에 대한 염려와 기대가 함께 할 텐데

이미 경북교육노조는 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지금처럼 노사가 협의한다면 앞으로도 잘될 거라 생각한다. 다만 노조를 하려면 강단이 있어야 한다. 옆에서 뭐라고 하든 사소한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밀고 나갈 사람들이 노조를 맡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더라도 그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다음 성과를 생각하며 다시 뛰어야 한다.

간혹 노조 간부가 노조의 성과를 개인의 치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노조의 성과는 마음속의 자부심으로만 간직해야 한다. 공명심 없이, 공무원 사회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열망과 조합원들을 위하겠다는 마음만 굳건해야만 한다.

지금의 경북교육노조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노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제4장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지부 소개

# 1. 포항지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시작하여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출범하기까지 경북교육 노조의 엄청난 혁신과 노력이 감개무량합니다. 노조 출범 15년을 맞아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노조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포항지부는 매년 두 차례 산행대회, 한마음체육대회, 워크숍, 수련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합원간 단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자 환영식 및 퇴직자 환송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친화적 노조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한사랑의 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등의 봉사활동 전개하여 지역민에서 사랑받는 이미지를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조합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중호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정순재	이영욱	2003. 07. 01. ~ 2004. 06. 30.	
	2대 정순재	이영욱	2004. 07. 01. ~ 2006. 06. 30.	
노 조	1대 정순재	이영욱	2006. 07. 01. ~ 2008. 06. 30.	
	2대 정순재	이영욱	2008. 07. 01. ~ 2010. 06. 30.	
	3대 이영욱	천영선	2010. 07. 01. ~ 2012. 06. 30.	
	4대 이영욱	변상진	2012. 07. 01. ~ 2014. 06. 30.	
	5대 이영욱	안영민	2014. 07. 01. ~ 2016. 06. 30.	
	6대 추중호	국미숙	2016. 07. 01. ~ 2018. 06. 30.	
	7대 추중호	국미숙	2018. 07. 01 ~ 현재	

## 2. 경주지부



### 지부장 발언대

경주지부 선배님들의 희생과 봉사로 일구어놓은 수많은 업적을 일일이 나열하려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처음 직장협의회를 이끌어주신 김병준 회장님과 김두열 총무님, 두 분께서 퇴직하신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분들의 노고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경주지부는 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함께 1대 전삼용 지부장을 비롯하여 5대 신영찬 지부장까지 수많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화합은 물론 경북교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6대 지부장을 맡은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경북교육노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가끔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만 우리 조합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항상 힘을 주시는 조합원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노동조합은 어느 누구 한사람의 힘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체를 믿고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만이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경북교육노조가 서로 더욱 신뢰하고 힘을 모으는 노조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북교육노조 경주지부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성환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김병준	김두열	1999. 01. 01. ~ 2003. 12. 31.		
	2대 전삼용	김박철조	2004. 01. 01. ~ 2005. 12. 31.		
노 조	1대 전삼용	설성환	2006. 04. 15. ~ 2008. 03. 31.		
	2대 전삼용	설성환	2008. 04. 01. ~ 2010. 03. 31.		
	3대 전삼용	설성환	2010. 04. 01. ~ 2012. 03. 31.		
	4대 전삼용	설성환	2012. 04. 01. ~ 2014. 03. 31.		
	5대	신영찬	엄재일	2014. 04. 01. ~ 2016. 06. 31.	
		설성환	엄재일	2016. 07. 01. ~ 2017. 03. 31.	
6대	설성환	엄재일	2017. 04. 01. ~ 현재		

### 3. 김천지부



#### 지부장 발언대

그동안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투쟁을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공무원이 마치 부당하게 연금과 봉급을 가져가는 존재인 것처럼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교육노조는 교육청노동조합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노동조합 발전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지도자도 배출해왔으며 자체적으로도 꾸준한 성과를 이룩해왔습니다. 김종기 위원장은 전국에서 단일 최대노조인 경북교육노조의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전국교육노조 통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창립에 기여했고, 뛰어난 인화력과 전문지식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끈기 있고 명분 있는 투쟁을 이끌어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향상시켰고, 아울러 공무원의 위상을 한층 더 올려놓는데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묵묵히 함께해온 조합원동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문화를 선도해나가기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의 수고와 조합원동지여러분의 가열찬 동참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정래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이종윤	권영단	2003. 03. 11. ~ 2005. 03. 10.	
	2대	이종윤	권영단	2005. 03. 11. ~ 2007. 03. 10.	
노 조	1대	김영우	이진구, 정진우	2007. 03. 11. ~ 2009. 03. 10.	
	2대	박영동	정진우	2009. 03. 11. ~ 2011. 03. 31.	
	3대	김정래	이대원	2011. 04. 01. ~ 2013. 03. 31.	
	4대	김정래	이대원	2013. 04. 01. ~ 2015. 03. 31.	
	5대	김정래	최정미	2015. 04. 01. ~ 2017. 03. 31.	
	6대	김정래	손지혜	2017. 04. 01. ~ 현재	

## 4. 안동지부



### 지부장 발언대

공무원 대다수가 말없이 묵묵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책임만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켜내고자 노동조합은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북교육노조가 15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처럼 안동지부 역시 조합원과 함께하면서 현장에 답을 찾는 지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안동지부는 2004년 4월 6일 경상북도안동교육청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조원정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360여 명의 회원이 전원 가입하여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함께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6일 경상북도교육청정기발전재단연구회(초대 회장 조원정)를 발족했고, 7월 10일에는 안동교육청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5일 마침내 안동지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초대부터 5대까지 중책을 맡으셨던 조원정 전 지부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매년 전입자 환영회 및 간담회, 정년퇴직자 환송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총회도 빠짐없이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기관 업무협의회 및 직렬별간담회를 개최하고, 본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소통하고 실천하는 안동지부가 되겠습니다.



권영국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기	비고
직협	1대 조원정	강종현	2004. 04. 06. ~ 2006. 03. 24.	
노조	1대 조원정	강종현	2006. 03. 25. ~ 2008. 03. 24.	
	2대 조원정	김태구	2008. 03. 25. ~ 2011. 03. 24.	
	3대 조원정	권혁한	2011. 03. 25. ~ 2014. 03. 24.	
	4대 조원정	하영신, 김철호	2014. 03. 25. ~ 2016. 03. 24.	
	5대 조원정	박태용, 금대현	2016. 03. 25. ~ 2018. 03. 15.	
	6대 권영국	금대현	2018. 03. 16. ~ 현재	

## 5. 구미지부



### 지부장 발언대

구미지부는 2004년 직장협의회를 김홍필 지부장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2006년 법내 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구미지부의 초석을 다져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시위, 2006년 연금개혁 저지 투쟁 등 우리 조합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또한 공직을 마감하시는 선배님들을 배웅하기 위하여 환송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전 기능직사무원들의 교육행정전직시험의 성공을 위해 필승의 응원을 하는 등 조합원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구미지부는 구미교육지원청, 경북교육청 연수원, 경북교육청 구미도서관, 공립학교 92개에 43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많지만 인사교류가 빈번하다보니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미지부는 소통과 화합을 목표로 조합원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필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기	비고
직 협	1대 김홍필	지은희	2004. 01. 01. ~ 2004. 12. 31.	
	2대 김홍필	지은희	2005. 01. 01. ~ 2006. 03. 31.	
노 조	1대 조강현	전종필	2006. 04. 01. ~ 2008. 12. 31.	
	2대 조강현	김기형	2009. 01. 01. ~ 2011. 12. 31.	
	3대 전종필	최윤곤	2012. 01. 01. ~ 2013. 12. 31.	
	4대 전종필	최윤곤	2014. 01. 01. ~ 2015. 12. 31.	
	5대 전종필	김일태	2016. 01. 01. ~ 현재	

## 6. 영주지부



### 지부장 발언대

우리 경북교육노조 영주지부는 2004년 4월 1일 김진철 지부장님, 박재훈 사무국장님과 함께 직협으로 시작하여 2006년 제대 박재훈 지부장님, 2008년 제2대 전재역 지부장님 등 여러 노조임원들의 노고 속에 성장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15년이라는 시간동안 경북교육가족들의 복지가 많이 증진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영주지부는 2006년 12월 연금개약 규탄대회, 2008년 4월 연금 개악저지 쟁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에 참석하고 직접 일선 공무원들을 만나는 '현장의 목소리 듣기'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영주지부는 경북교육노조 본조와 함께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복지에 힘쓰고 특히 행정실 법제화 등 현장의 목소리가 각자의 일자리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김진철	박재훈	2004. 04. 01. ~ 2005. 03. 31.	
	2대	전재역	박재훈	2005. 04. 01. ~ 2006. 03. 31.	
노 조	1대	박재훈	전하진	2006. 04. 01. ~ 2008. 03. 31.	
	2대	전재역	박재형	2008. 04. 01. ~ 2009. 03. 31.	
	3대	강대철	김삼현	2009. 04. 01. ~ 2011. 03. 31.	
	4대	권병동	이은영	2011. 04. 01. ~ 2013. 03. 31.	
	5대	권병동	전희진	2013. 04. 01. ~ 2015. 06. 30.	
	6대	김보경	이신자	2015. 07. 01. ~ 2017. 03. 31.	
	7대	김보경	김정희	2017. 04. 01. ~ 현재	

## 7. 영천지부



오늘이 있기까지 조합원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쓰신 김종기 위원장님과 노조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영천지부를 이끌어주신 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영천지부의 발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영천지부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더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상준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천병화	홍종식	2004. 03. 01. ~ 2006. 02. 28.	
노 조	1대 천병화	홍종식	2006. 03. 01. ~ 2009. 02. 28.	
	2대 이돈윤	최병윤	2009. 03. 01. ~ 2010. 02. 28.	
	3대 이병동	이동호	2010. 03. 01. ~ 2013. 02. 28.	
	4대 김상준	황전수	2013. 03. 01. ~ 2016. 02. 28.	
	5대 김상준	이동호	2017. 03. 01. ~ 현재	



## 8. 상주지부



누군가는 묵묵히 남들이 걷지 않는 이 길을 걸어 왔기에, 지난 15년 간 대다수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노조 15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 대하여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밤낮없이 고생이 많으신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한편의 책이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 노조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상주지부는 타 시·군지부와 함께 출발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1대에는 총북단양 옥순봉 현장체험, 제2대에는 경남동영 사랑도 현장체험, 제3대에는 경남보성 녹차밭 현장체험을 다녀오는 등 조합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본인의 역량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연희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박영배	임만영	2002. 01. 01. ~ 2003. 12. 31.	
	2대	박영배	김동철	2004. 01. 01. ~ 2005. 12. 31.	
노 조	1대	박영배	임정대	2006. 01. 01. ~ 2008. 03. 20.	
	2대	권택근	임정대	2008. 03. 21. ~ 2011. 03. 20.	
	3대	권택근	임정대	2011. 03. 21. ~ 2013. 03. 20.	
	4대	이연희	임범수	2013. 03. 21. ~ 2015. 03. 20.	
	5대	이연희	임범수	2015. 03. 21. ~ 2017. 03. 20.	
	6대	이연희	-	2017. 3. 21. ~ 현재	

## 9. 문경지부



### 지부장 발언대

문경지부는 경북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지역이라고 하지만 인구 팔만 정도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조합원이지만 서로 단합하고 가족같이 아끼는 지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15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경북교육노조는 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거쳐 왔습니다. 그동안 헌신하시고 고생하신 위원장님 이하 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을 위해 더 뛰고 더 고민하는 노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며, 문경지부 역시 그 길에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손봉원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황정규	여원규	2001. 03. 10. ~ 2006. 01. 25	
	1대	황정규	임영덕	2006. 01. 26. ~ 2008. 03. 31.	
노 조	2대	김석제	손봉원	2008. 04. 01. ~ 2011. 03. 31.	
	3대	김석제	손봉원	2011. 04. 01. ~ 2014. 03. 31.	
	4대	김석제	손봉원	2014. 04. 01. ~ 2017. 03. 31.	
	5대	손봉원	홍종국	2017. 04. 01. ~ 현재	

## 10. 경산지부



2003년 직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탄생한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는 2006년 1월 28일 노동조합 설립법률이 통과되자 노조의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선배님들이 기꺼이 노고와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간 조합원들 간의 갈등과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노력했던 시간이 노조 15년사 발간이라는 결과물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지부는 2003년 최상조 직장협의회회장을 시작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최상조 지부장님은 2005년 경북교육노조 경산지부 지부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임원 및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경산지부의 초석을 다졌으며, 지부의 단합과 홍보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2006년 노조설립법률이 통과되며 제2대 지부장으로 이명구 지부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명구 지부장님은 조합원의 단결을 중시하여 공무원연금개악철폐에 지부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5대까지 역임하면서 경산지부가 경북교육노조의 한 축을 견인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셨습니다. 6대에 이어 7대에 걸쳐 경산지부를 맡고 있는 저는 지부 조합원들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노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고향의 품이 되어야합니다. 그 고향의 품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 더 발전하는 개인이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고향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경산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락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최상조	권순용	2003. 03. 11. ~ 2005. 03. 10.	
	1대	최상조	권순용	2005. 03. 11. ~ 2006. 03. 10.	
노 조	2대	이명구	권순용	2006. 04. 01. ~ 2008. 02. 24.	
	3대	이명구	박달원	2008. 02. 25. ~ 2010. 02. 24.	
	4대	이명구	박달원	2010. 02. 25. ~ 2013. 02. 24.	
	5대	이명구	박달원	2013. 02. 25. ~ 2015. 02. 24.	
	6대	박영락	정민현	2015. 02. 25. ~ 2017. 02. 24.	
	7대	박영락	박달원	2017. 02. 25. ~ 현재	

# 11. 군위지부



지금의 노동조합이 있기까지 애써 주신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과 복지를 위해 투쟁하며, 우리 노동조합을 위해 열심히 뛰어보시고 다짐한지도 어느 듯 1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합원들의 격려 한마디에 힘을 내곤 했습니다.

군위지부는 2006년 제대 김재석 지부장님을 시작으로 한갑수, 성수용 지부장님을 거치면서 지부의 초석이 다져졌습니다. 선배 지부장님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위지부는 항상 열린 노조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누구의 일이든, 언제 어떤 일이든, 조합원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업자 환영회, 노조원 워크숍, 한마음체육대회, 조합원 견학, 직렬별 간담회 등을 통해 노조원들의 단합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총회 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조합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지부가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의 믿음직한 지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김용수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장태동	-	2004. 01. 01. ~ 2004. 12. 31.	
	2대	안중원	-	2005. 01. 01. ~ 2016. 03. 31.	
노 조	1대	김재석	-	2006. 04. 01. ~ 2007. 06. 30.	
	2대	한갑수	김용수	2007. 07. 01. ~ 2011. 03. 31.	
	3대	성수용	김용수	2011. 04. 01. ~ 2013. 03. 31.	
	4대	성수용	김용수	2013. 04. 01. ~ 2015. 03. 31.	
	5대	김용수	신형원	2015. 04. 01. ~ 2017. 03. 31.	
	6대	김용수	신형원	2017. 04. 01. ~ 현재	

## 12. 의성지부



의성지부가 직협으로 창립하여 현재의 노동조합이 되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의성지부 대의원님들과 지부회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성지부 초대지부장을 지내신 정광덕 지부장님, 박승택 대의원님, 김현자 대의원님은 아직도 현직에서 노조대원으로 또한 전임지부장으로 열심히 노조를 지원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직협을 이렇게 탄탄한 노조로 만들어주신 분들은 아마도 전임지부장님과 현직에 아직 활동하고 계시는 대의원님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의성지부를 위해 일해주신 덕분에 의성지부가 지금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한한 신뢰로 지부를 지지하고 협조해주신 의성지부 회원님들의 공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 지부장

이제까지 노동조합이란 뼈대를 세워왔다면, 앞으로는 노동조합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상상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역사를 만들어 가는 노동조합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성지부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경북교육청노동조합의 김종기 위원장님과 경북교육청노동조합 임원진들에게도 항상 행운과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빌어봅니다.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기	비고	
직협	1대	이원동	이만희	2003. 03. 01. ~ 2004. 02. 28.	
	2대	정광덕	김철	2004. 03. 01. ~ 2006. 02. 28.	
노조	1대	정광덕	김성진	2006. 03. 01. ~ 2011. 02. 28.	
	2대	정광덕	김철	2008. 03. 01. ~ 2011. 02. 28.	
	3대	정광덕	노현석	2011. 03. 01. ~ 2013. 02. 28.	
	4대	정광덕	김철	2013. 03. 01. ~ 2015. 02. 28.	
	5대	김종필	김철	2015. 03. 01. ~ 2017. 02. 28.	
	6대	김종필	김철	2017. 03. 01. ~ 현재	

# 13. 청송지부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청송에서도 2004년 경상북도청송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고, 이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청송지부에서는 노조원 워크숍, 한마음체육대회 및 선진지 시찰행사에 참여하였으며, 2010년 경주화랑교육원에서 실시한 한마음체육대회에서는 우승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돕기, 신규 임용자 환영식 및 퇴직자 환송연, 분기별 지부 임원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에 함께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청송지부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업무협의회 및 직렬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노조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청송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일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서성락	신은식	2004. 04. 22. ~ 2004. 10. 31.	
	2대	이정주	신은식	2004. 11. 01. ~ 2005. 12. 31.	
노 조	1대	이정주	신은식	2006. 01. 05. ~ 2007. 08. 31.	
		신은식	신은식	2007. 09. 01. ~ 2007. 12. 31.	
	2대	김만일	권오광	2008. 01. 01. ~ 2009. 12. 31.	
	3대	김만일	권오광	2010. 01. 01. ~ 2011. 12. 31.	
	4대	김만일	김영효	2012. 01. 01. ~ 2013. 12. 31.	
	5대	김만일	윤미선	2014. 01. 01. ~ 2015. 12. 31.	
	6대	김만일	천우태	2016. 01. 01. ~ 2017. 12. 31.	
7대	김만일	천우태	2018. 01. 01. ~ 현재		

## 14. 영양지부



2003년 직협의 시작과 함께 출범한 영양지부는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봉사자로서 조합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매년 2월에는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건의사항과 애로점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5월에는 한마음체육대회 참가하여 조합원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과 12월에는 지부임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기관별 조합원 건의사항을 수합하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양지부는 조합원들과 더욱 소통하고, 조합원들의 어려움에 더 많이 귀 기울이는 지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고
직 협	1대	홍장표	정찬희	2003. 04. 01. ~ 2005. 03. 31.	
	1대	황흥수	정찬희	2005. 04. 01. ~ 2007. 03. 31.	
노 조	2대	김진수	오상호	2007. 04. 01. ~ 2009. 07. 31.	
	3대	서영애	박향숙	2009. 08. 01. ~ 2012. 06. 30.	
	4대	황정모	김태숙	2012. 07. 01. ~ 2014. 03. 31.	
	5대	정찬희	김희숙	2014. 04. 01. ~ 2016. 03. 31.	
	6대	최성호	김태숙	2016. 04. 01. ~ 2017. 06. 30.	
	7대	배승대	임영경	2018. 04. 01. ~ 현재	

# 15. 영덕지부



## 지부장 발언대

그동안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투쟁해오시고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힘쓰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노조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덕지부 역시 앞으로 조합원들의 더 좋은 근무 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영덕지부는 그동안 퇴직자 환송회 및 교육가족 체육대회 등 조합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영덕지부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렬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박성렬	장헌기	2005. 02. 01. ~ 2006. 03. 31.	
	1대	박성렬	장헌기	2006. 04. 01. ~ 2008. 03. 31.	
노 조	2대	권영두	조현해	2008. 04. 01. ~ 2010. 03. 31.	
	3대	권영두	조현해	2010. 04. 01. ~ 2013. 03. 31.	
	4대	김중섭	최보규	2013. 04. 01. ~ 2015. 03. 31.	
	5대	김중섭	최보규	2015. 04. 01. ~ 2016. 06. 30.	
	6대	박성렬	최보규	2017. 04. 01. ~ 현재	



## 16. 청도지부



### 지부장 발언대

근무환경 개선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직장협의회로 시작된 경북교육노조가 벌써 15년이란 시간을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부족함도 있지만 여러 선·후배 동료 조합원들의 격려에 다시금 용기 내어 전진하는 경북교육노조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청도지부는 본조 위원장을 배출한 지부로서 가장 먼저 지부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퇴직자 환송회, 체력단련 겸 소통을 위한 비슬산 종주산행 등을 개최하여 청도교육행정인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청도지부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전국 집회에도 참석하였으며, 인근 지부행사에 지원 및 참석하여 유대 강화를 하였고 기타 수많은 행사와 조합원의 권익 쟁취를 위하여 활동한 지부입니다.

지나온 과정들에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군가는 불만족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경북교육노조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여 일부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본조와 각 지부에서 노력하여 쟁취한 많은 실적들이 홍보 부족과 관심 부족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경북교육노동조합 15년사를 계기로 각 지부의 조합원들이 단단히 뭉쳐, 더욱 힘 있고 단결된 경북교육노동조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무한한 영광과 조합원들의 안녕을 빕니다.



김광현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김종기	김광현	2004. 01. 01. ~ 2005. 12. 31.	
	2대	김종기	문종길	2006. 01. 01. ~ 2007. 12. 31.	
노 조	1대	김종기	문종길	2004. 01. 01. ~ 2008. 03. 13.	
	2대	김종기	문종길	2008. 04. 15. ~ 2009. 02. 10.	
	3대	이은미	김종욱	2009. 06. 26. ~ 2013. 04. 30.	
	4대	이철태	김규배	2013. 05. 01. ~ 2015. 05. 20.	
	5대	문종길	정우호	2015. 05. 21. ~ 2016. 07. 01.	
	6대	김광현	정우호	2018. 05. 03. ~ 현재	

# 17. 고령지부



경북교육노조가 어느덧 15년의 세월을 지나 6기 경북교육노조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경북교육노조는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노동문화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심 없이 달려 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저희 고령지부는 매년 조합원들의 소통과 문화 활성화, 노사가 함께하는 지부를 구현하고자 노사합동 연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지부는 항상 경북교육노조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복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이준재	노현석	2004. 04. 22. ~ 2004. 12. 31.	
	2대	이준재	노현석	2005. 01. 01. ~ 2005. 12. 31.	
노 조	1대	이준재	권창환	2006. 01. 01. ~ 2007. 12. 31.	
	2대	이제복	김성기	2008. 01. 01. ~ 2009. 12. 31.	
	3대	이준재	권창환	2010. 01. 01. ~ 2011. 12. 31.	
	4대	이준재	이정용	2012. 01. 01. ~ 2013. 12. 31.	
	5대	이준재	이정용	2014. 01. 01. ~ 2015. 12. 31.	
	6대	이준재	이정용	2016. 01. 01. ~ 2017. 12. 31.	
	7대	이제복	최보라	2018. 01. 01. ~ 현재	

## 18. 성주지부



예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환경과 조합원의 복지는 경북교육노조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이며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2016년 2만에서 시작된 촛불이 들불처럼 번져나가 연인원 천만의 거대한 횃불이 되어 근대사에 한 획을 긋는 촛불시민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경북교육노동조합 역시 출범 15년을 맞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한걸음 더 발전하는 노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경북교육노조는 단합된 조직력으로 한층 발전하는 노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주지부는 2014년 8월에 첫 발을 내디뎈 타지부에 비해 늦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전신인 직장협의회는 2002년 7월에 설립되어 어느 지역보다 투쟁의 불씨가 먼저 타오른 곳이기도 합니다. 성주지부 임원들은 이러한 지부 조합원들의 열정과 의지에 힘껏 풀무질하며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불이 되겠습니다.



한말수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기	비고	
직협	1대	한말수	김정희	2005. 12. 01. ~ 2007. 11. 30.	
	2대	한말수	김정희	2007. 12. 01. ~ 2009. 11. 30.	
	3대	한말수	김정희	2009. 12. 01. ~ 2010. 11. 30.	
노조	1대	이상길	윤경미	2014. 03. 01. ~ 2016. 02. 29.	
	2대	한말수	정성진	2016. 03. 01. ~ 2017. 02. 28.	
	3대	한말수	정성진	2018. 03. 01. ~ 현재	

# 19. 칠곡지부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초대 이철연 위원장님, 김종기 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많은 성과를 만들며 발전해왔습니다. 그 공로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칠곡지부가 있기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칠곡지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행정실 법제화 등 경북교육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큰 성과로 꽃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연성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입 기	비 고
직 협	1대 성희천	송홍식	2003. 09. 01. ~ 2004. 03. 31.	
노 조	1대 최연성	송홍식	2004. 04. 01. ~ 2006. 03. 31.	
	2대 최연성	송홍식	2006. 04. 01. ~ 2008. 03. 31.	
	3대 최연성	조영현	2008. 04. 01. ~ 2011. 03. 31.	
	4대 조영현	장선미	2011. 04. 01. ~ 2014. 03. 31.	
	5대 최연성	김기형	2015. 04. 01. ~ 2017. 03. 31.	
	6대 최연성	김기형	2017. 04. 01. ~ 현재	

## 20. 예천지부



### 지부장 발언대

2003년 직장협의회로 시작된 경북교육노조가 어느덧 15년이라는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에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앞에서 수고하신 위원장님 이하 각 시·군 지부장, 사무국장, 대의원 및 전 조합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공무원 정년연장, 기능직 폐지, 일반직 상위직급 확대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의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노조의 많은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예천지부는 2003년 4월 직협이 구성되었고 2006년 4월 노조로 출범했습니다. 노조 출범 이후 경북교육노조와 함께 노조의 성과에 힘을 보태온 예천지부는 지금까지 해마다 단합대회 및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매분기 마지막 주 목요일에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업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다시 합심하여 앞으로의 10년 역사를 써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갑시다.”



권기일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김진기	권기일	2003. 04. 01. ~ 2005. 03. 31.	
	2대	김진기	권기일	2005. 04. 01. ~ 2007. 03. 31.	
노 조	1대	권기일	한상문	2007. 04. 01. ~ 2009. 03. 31.	
	2대	권기일	장명애	2009. 04. 01. ~ 2011. 03. 31.	
	3대	권기일	장명애	2011. 04. 01. ~ 2013. 03. 31.	
	4대	권기일	최재원	2013. 04. 01. ~ 2015. 03. 31.	
	5대	권기일	안희권	2015. 04. 01. ~ 2017. 03. 31.	
	6대	권기일	김현미	2017. 04. 01. ~ 현재	

# 21. 봉화지부



오늘날 급격한 사회적 의식구조의 변화로 공무원 사회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시대의 흐름 속에 어느덧 봉화지부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화지부 직장협의회를 시작으로 노조로 이어지기까지 봉화지부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없었다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목표로 더 발전하는 봉화지부가 되고자 합니다.



최호연 지부장

- 첫째, 조합원이 소통하는 봉화지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둘째, 투명하고 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지부가 되겠습니다.
- 셋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주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울러, 미흡하나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퇴직조합원 환송회, 정기총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조합원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봉화지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봉화지부가 조합원 여러분의 삶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 사랑과 신뢰받는 지부, 나아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지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김형한	권영국	2003. 04. 25. ~ 2004. 04. 24.	
	2대 김형한	권영국	2004. 04. 25. ~ 2005. 04. 24.	
노 조	1대 김형한	권영국	2005. 04. 25. ~ 2007. 04. 24.	
	2대 김형한	강경석	2007. 04. 25. ~ 2010. 04. 24.	
	3대 김형한	오재영	2011. 04. 25. ~ 2014. 04. 24.	
	4대 최호연	김광훈	2014. 06. 26. ~ 2016. 06. 25.	
	5대 최호연	김진우	2016. 06. 26. ~ 현재	

## 22. 울진지부



### 지부장 발언대

암울했던 과거에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여기까지 함께 달려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경북교육청노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했으므로 우리는 지금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노조란 함께 하는 것이기에 '나 아닌 우리'라는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투쟁하고 혁파해서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동안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 후배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울진지부와 경북교육청노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성춘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김덕기	이동학	2004. 12. 26. ~ 2006. 02. 26.	
	1대	김덕기	이동학	2006. 02. 27. ~ 2009. 04. 13.	
노 조	2대	(故)장덕중	방기일	2009. 04. 14. ~ 2010. 04. 08.	
		우중광	남성춘	2010. 04. 09. ~ 2011. 06. 30.	
	3대	우중광	남성춘	2011. 07. 01. ~ 2013. 06. 30.	
	4대	남성춘	윤창순	2013. 07. 01. ~ 2015. 06. 30.	
	5대	남성춘	이상아	2015. 07. 01. ~ 2017. 06. 30.	
6대	남성춘	김정희	2017. 07. 01. ~ 현재		

## 23. 울릉지부



싶습니다.

‘우리 노조가 벌써 15년이나 되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짚어봅니다. 비록 어렵고 수고스러운 자리지만 앞장서서 우리 노조를 지키고 이끌어주시는 모든 선배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울릉지부는 직협 설립 시에는 어려움과 난관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작지만 강한 지부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 한마음체육대회에서는 우승까지 차지하는 단결력이 좋은 지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대를 빌어 부족한 지부장을 만나 고생 중인 신종윤 사무국장님 및 모든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릉지부는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별 없는 직장, 신명나서 일하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한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 고	
직 협	1대	이무형	차영주	2002. 06. 11. ~ 2004. 06. 10.	
	2대	김연숙	차영주	2004. 06. 11. ~ 2006. 06. 10.	
노 조	1대	김연숙	변상진	2006. 06. 11. ~ 2008. 06. 10.	
	2대	변상진	김정목	2008. 06. 11. ~ 2009. 09. 20.	
	3대	김정목	허근미	2009. 09. 21. ~ 2013. 11. 15.	
	4대	이성수	허근미	2013. 11. 16. ~ 2016. 08. 17.	
	5대	권혁한	신종윤	2016. 08. 18. ~ 현재	



## 24. 본청지부



### 지부장 발언대

지난 15년 동안 선배님들의 헌신과 송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저를 비롯한 후배들이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공직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훗날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매순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제가 본청 지부장을 맡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노조원들을 위해 노조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로 본청지부 족구대회를 개최해 업무에 지친 노조원들에게 잠깐이지만 웃음과 활력을 더해주었으며, 지난 6월에는 안동 CGV와 MOU를 맺어 영화관람료를 할인받는 등 노조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노조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듣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종기 위원장님 이하 노조간부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원태 지부장

### 주요활동



### 역대 임원진 명단

구 분	지부장	사무국장	임 기	비고	
노 조	1대	김정호	배기현	2006. 04. 01. ~ 2008. 03. 31.	
	2대	안영주	-	2008. 04. 01. ~ 2009. 02. 12.	
	3대	박귀훈	-	2009. 02. 13. ~ 2010. 04. 22.	
	4대	김대중	이만호, 명재운	2010. 04. 23. ~ 2012. 12. 13.	
	5대	강기태	추준욱, 이면승	2012. 12. 14. ~ 2015. 04. 02.	
	6대	김광현	이상열	2015. 04. 03. ~ 2017. 09. 20.	
	7대	정원태	정승열	2017. 09. 21. ~ 현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 부록

---

- 연표
- 조직도 · 역대임원
- 강령 · 규약
- 단체협약서
- 노사협의회 내용
- 성명서 · 논평 · 보도자료

| 부 록 |

# 연 표



## 1999년

- 1999. 01. 01.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1999. 09.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모임(28명)
- 1999. 11. 1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창립  
- 초대회장 김광곤

## 2004년

- 2004. 04. 0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제2대 출범  
- 제2대 회장 이철연
- 2004. 07.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 결성
- 2004. 09. 03. 설립준비위원회 1차 모임(준비위원장, 사무총장, 대변인/안동교육청)
- 2004. 09. 15.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구매 및 공사 집행 개선방안 성명서 발표
- 2004. 10. 21.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1인시위 시작
- 2004. 10. 26. 설립준비위원회 2차 모임(노동조합규약 및 강령제정)
- 2004. 11. 05.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차장 간담회
- 2004. 11. 12. 설립준비위원회 3차 모임(창립대의원대회 일정 및 행사계획 확정)
- 2004. 11. 15. 공무원 총파업에 따른 성명서 발표
- 2004. 11. 20. 설립준비위원회 4차 모임(창립대의원 워크숍)
- 20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선언
- 2004. 12. 22.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출범식(본청 4층회의실)

## 2005년

- 2005. 03. 02. 최순영 복기왕 의원 국감자료 요구 항의 성명서 발표
- 2005. 03. 09.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자료 요구 항의공문 발송
- 2005. 03. 25. 대의원대회
- 2005. 03. 25.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 망동 규탄 결의대회
- 2005. 04. 16. 내고장 자연환경지키기 운동(23개 지역총별)
- 2005. 04. 18. 공무원정년평등화쟁취투쟁 전국버스투어 100만인 서명운동 실시
- 2005. 06. 09. 공직사회 정년평등화에 대한 공청회 및 가두행진 참석(한국언론재단)
- 2005. 07. 08. 국회 행정자치회 권오을 위원장 면담(한나라당 경북도당)
- 2005. 08. 18.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참석(교육부 직협사무실)
- 2005. 08. 29. 상임위원회(본관 4층 회의실)
- 2005. 09. 13. 태풍 나비 피해 울릉도 방문 위문금 전달
- 2005. 09. 23~ 24. 경교노 임원 노동교육(명산랜드)
- 2005. 10. 10. 국회 환노위 방문(학교행정실장 단결권 제한에 따른 반대의견서 제출 이목희, 김영숙, 배일도 의원)

- 2005. 10. 21. 대구 mbc 향의 방문( '사람과세상 프로그램에서 일반직공무원 비하 발언  
10월 26일 자막으로 사과방송
- 2005. 10. 26. 행자부 방문(학교 행정실 직원의 복무를 교원 복무에 준용 요청)
- 2005. 10. 27. 학교근무자에 대한 복무조례 개정을 위한 시도교육감 협조 요청
- 2005. 11. 18. 공무원노사관계 발전 방향 토론회(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악 저지 운동 강력 투쟁)
- 2005. 11. 22.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참석
- 2005. 11. 30. (가칭)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 2006년

- 2006. 01. 18. 공무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공청회 참석(단결권 보장 요구)
- 2006. 02. 17.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 2006. 02. 25. 서울 어린이대공원 문화행사 정부규탄대회 참석 7대요구사항 전달
- 2006. 03. 04. 제1차 대의원대회본청 4층 회의실
- 2006. 03. 16. 교육인적자원부 방문(교직원 수당,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 확보, 교육기관 공무원 제도개선 등 10개항 민원서류 접수)
- 2006. 04.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정식 및 제2차 대의원대회
- 2006. 05. 18. 교육인적자원부 방문(디지털 매뉴얼작성 향의방문)
- 2006. 05. 19. 전국의 각급학교 행정실장 단결권 완화
- 2006. 06. 09 ~ 14. 2006년도 상반기 경북교육노조 임원수련회
- 2006. 06. 28.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연석회의
- 2006. 07. 13. 교육감과의 간담회
- 2006. 07. 13. 제6차 대의원대회(대구시 문화워킹홀)
- 2006. 07. 24. 2006 단체교섭안 제출
- 2006. 07. 26. 서울정부중앙청사 공무원연금 규탄 대회 참석
- 2006. 08. 12. 교육부 향의 방문(김홍섭 학교정책국장 면담, 교무행정 지원인력배치계획의 부당성)
- 2006. 08. 30. 제1차 단체본교섭
- 2006. 09. 05.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발족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신노동보직지회, 지방행정동우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한국교육노동조합, 일반공무원단체 등 155기관 및 협의회 참여)
- 2006. 09. 11. 경북교육노조 본청자부 모금운동
- 2006. 10. 17.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1인시위 시작공동성명서 발표)
- 2006. 10. 20. 교육위원회 향의 방문(제183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흥관중 위원 조합원 비하 발언)
- 2006. 10. 23. 흥관중 교육위원 사과
- 2006. 11. 03 ~ 05. 독도경비대 위로 방문우수 조합원 및 학생 70명)
- 2006. 11. 15. 제1차 단체실무교섭
- 2006. 11. 17. 상위직급 정원확대 조례 개정관련 도의회 향의방문
- 2006. 11. 29. 제2차 단체실무교섭

- 2006. 12. 09.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규탄 전국 쫓기대회
- 2006. 12. 20. 제3차 단체실무교섭

## 2007년

- 2007. 01. 24. 제2차 단체본교섭
- 2007. 01. 29 ~ 31. 간부기본교육(노동교육원)
- 2007. 02. 10. 제7차 대의원대회(성주 가야산관광호텔)
- 2007. 05. 30. 제7차 단체실무교섭
- 2007. 06. 04. 조합원 행동강령 1호 시달
- 2007. 06. 08 ~ 09. 제17차 상임위원회 및 임원워크숍(문경관광호텔)
- 2007. 06. 27. 제3차 단체본교섭
- 2007. 06. 28.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체결
- 2007. 07. 05. 건국이후 최초 대정부 공동교섭참여(이철연 위원장 김종기 수석)
- 2007. 07. 27. 제8차 대의원대회(문화웨딩홀)
- 2007. 08. 29.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 방문  
(국정감사자료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자제 요청 및 건의문 전달)
- 2007. 08. 30. 교육감 간담회(가능직 인사에 관한 의견 건의)
- 2007. 09. 13. 교무행정지원인력배치 확대계획 거부 방안 발표
- 2007. 09. 14. 정부·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홍보용 전단지) 배포
- 2007. 09. 17.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3호 발간
- 2007. 10. 04. 단체교섭 불성실 참여 및 인사정책 규탄 기자회견 참여(중앙인사위)
- 2007. 10. 05. 단체교섭 불성실 참여 및 예산정책 규탄 기자회견 참여(기획예산처)
- 2007. 10. 07 ~ 11. 16. 교육연맹 노조 조합원 교육 참여(5기~9기/한국노동교육원)
- 2007. 10. 10 ~ 12. 교육연맹 노조 간부교육 참여(지리산 가족호텔)
- 2007. 10. 11. 통합추진협의회 기자회견(성실한 단체교섭요구, 공무원 노조 통합)
- 2007. 10. 16. 국회 배일도 의원 방문  
(대정부단체교섭적극지원, 공무원단결권원화, 교육기관공무원 처우개선 요청)
- 2007. 11. 16. 국회 방문 이주호 의원 발의 초중등법 개정안 유보(학교운영위 구성에 관한 안)
- 2007. 11. 22. 교육부 낙하산인사 금지 성명서 발표(기획관리국장 지방직 요구)
- 2007. 11. 28. 국회 방문(임해규 교육위간사 면담 : 교육현안 협조 요구)
- 2007. 11. 29. 지방기획국장 지방직 요구, 조리사업무 분장 요구
- 2007. 12. 03.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차별 철폐 1인 시위 참여
- 2007. 12. 06. 국회방문 교육기관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요구  
- 이재오 최고위원, 교육위(유기홍, 임해규, 이주호), 여결위(배일도, 이병석) 면담
- 2007. 12. 14. 정치후원금 기탁(금액 36,190,000원)
- 2007. 12. 26. 노조 홈페이지 방문 횟수에 의한 구세군 자선냄비 돕기 이벤트  
- 총 1만6천829회 방문1 회당 100원, 1,682,900원 전달

## 2008년

2008. 02. 15. 제9차 대의원대회(필공산 유스호스텔)  
2008. 03. 14. 제2기 경북교육노조 이철연 위원장 선출  
2008. 03. 27. 제10차 대의원대회  
- 제2기 임원 선출(김태균 수석부위원장, 김종기 부위원장, 황정자 부위원장, 임상길 회계  
감사위원장, 박흥기 사무총장)  
2008. 04. 08. 제2기 경북교육노조 회계감사위원 공모  
2008. 04. 11. 제2기 경북교육노조 출범식(다부동 전적기념관)  
2008. 04. 24. 단체교섭위원 공모  
2008. 04. 26. 공무원연금개약공무원 강제퇴출 저지 총궐기 대회 참석  
2008. 05. 08. 경북교육노조활성화를 위한 사이트(gonglove.com) 개설  
2008. 05. 09.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5호 발간  
2008. 05. 20. 공무원정년개정법률안 17대 국회 통과 건의문 제출  
2008. 05. 21. 국회법사위 정년평등법안 통과  
2008. 05. 22.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제6호 발간  
2008. 07. 25. 제11차 대의원대회(봉화 명호면)

## 2009년

2009. 01. 10. 제12차 대의원대회  
2009. 01. 30. 전국교육연맹 제8차 중앙위원회의 참석(대전)  
2009. 02. 16. 제1차 경북교육노조 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의  
2009. 02. 19. 제1차 경북교육청-경북교육노조 정책협의회  
- 2006년도 경북단체협약사항 이행 촉구  
2009. 02. 21.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제9차 대의원대회 참석(대전)  
2009. 02. 24. 경북교육위원회 의장 간담회 참석  
2009. 03. 04.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제9차 중앙위원회의 참석(대전)  
2009. 03. 06.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서울)  
2009. 03. 26.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제10차 중앙위원회의 참석(대전)  
2009. 04. 06.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대전)  
2009. 04. 11. 전국교육청노조(교육연맹) 제10차 대의원대회 참석  
- 이철연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교육연맹 제2기 제3대 위원장 당선  
2009. 04. 17. 제28차 상임위원회의  
2009. 05. 09. 제13차 대의원대회  
2009. 05. 12. 전국 시·도교육청노조위원장(이철연) 한국교총을 방문  
- 지방교육발전방안 협조 요청  
2009. 05. 15. 전국 시·도교육청노조위원장의 참석(대전)  
2009. 06. 03. 경북교육청과 제2차 정책협의회



- 단체협약사항 이행 촉구(운전직 특근매식비 지급, 정원책정권 이양 요청 등)
- 2009. 06. 10. 경남교육노조 레드카드제 철회 기자회견 참석(창원)
- 2009. 06. 12 ~ 13. 전국 시·도교육청노조 임원 및 간사 워크숍 참석(성주)
- 2009. 06. 18. 학교 자율화 방안 추진 반대 항의 방문(교육과학기술부)
- 2009. 06. 22. 학교 자율화 방안 교육부 이주 호 제1차관 면담(이철연, 김종기)
- 2009. 06. 23. 6월 임원회의
- 2009. 06. 23. 초등학교 교사의 행정실장 폭행에 대한 성명서 발표
- 2009. 06. 24. 초등학교 교사의 행정실장 폭행 해당 학교, 교육청 항의 방문
- 2009. 07. 0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비스(주)와 협약 체결
- 2009. 07. 03. 7월 1주차 임원회의
- 2009. 07. 10. 정책연구소 제2차 운영위원회(구미)
- 2009. 07. 13. 국회연금개악 법사위 항의 방문(서울)
- 2009. 07. 15. 경북교육청 실시 “일반직 승진임용방법 개선 토론회” 참석(김종기, 이명구)
- 2009. 08. 06 ~ 07. 하계수련회(청송)
- 2009. 08. 22. 제14차 대의원대회
- 2009. 10. 09. 문경지부 현장의 메아리 듣기 협의회
- 2009. 10. 10. 경북교육노조 족구대회(입상 : 문경, 영덕, 경주)
- 2009. 11. 23. 경산지부장 선거 [전자투표제 최초 도입]  
- 이명구 지부장, 박달원 사무국장 당선
- 2009. 11. 23. 청송지부장 선거  
- 김만일 지부장, 권오광 사무국장 당선
- 2009. 12. 02. 군위지부 현장의 메아리 듣기 협의회
- 2009. 12. 08. 김천지부 반부패 청렴 및 노동교육
- 2009. 12. 09. 안동지부 현장의 메아리 듣기 협의회
- 2009. 12. 09. 고령지부장 선거 [전자투표 실시]  
- 이준재 지부장, 김영규 사무국장 당선
- 2009. 12. 13. 맞춤형복지제도 전국16개 시·도교육청 최초 기본포인트 100P 상향 결정
- 2009. 12. 23.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교원과 동일 근무시간 적용 조례 통과  
- 2006년 대정부 단체협약 제46조(학교근무자 근무시간) 이행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적용
- 2009. 12. 29. 고령지부 반부패청렴 및 노동교육
- 2009. 12. 30. 청도지부 노동교육 및 지부총회

## 2010년

- 2010. 01. 22 ~ 23. 제32차 상임위원회 겸 신년교례회
- 2010. 01. 30. 조합간부 워크숍
- 2010. 02. 09. 제5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0. 02. 19. 제33차 상임위원회

2010. 02. 24. 정책연구소 제5차 운영위원회의
2010. 02. 24. 영주지부장 보궐선거  
- 강대철 지부장 당선
2010. 02. 27. 제15차 대의원대회(경북교육청 별관 대회의실)
2010. 03. 15. 경북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성명서 발표
2010. 03. 22. 대외 직명제 건의(주무관)
2010. 04. 22. 울진지부장 보궐선거(전자투표 실시) 우광중 지부장 당선
2010. 04. 22. 본청지부장 선거(전자투표 실시) 김대중 지부장 이민호 사무국장 당선
2010. 04. 24. 교육행정직 시험자 노조임원 방문 격려 및 지부활동 실시
2010. 04. 30. 제34차 상임위원회
2010. 05. 06. 운전 직렬 토론회
2010. 05. 13 ~ 28. 2010 경북교육노조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 찾기」 이벤트 실시
2010. 05. 17. 정책교육국장 간담회
2010. 05. 17. 조리사 직렬 간담회
2010. 05. 19 ~ 20.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증진을 위한 워크숍 참석
2010. 05. 25. 운전 직렬 토론회
2010. 06. 09. 제1 회 함께 하고 싶은 관리자상 시상 행사
2010. 06. 09. 영양지부장 보궐선거, 서영애 지부장 당선
2010. 06. 14. 구미연수원 신규자 교육 시 위원장 노조 홍보
2010. 06. 16. 보건 직렬 간담회
2010. 06. 24. 집행부와 정책협의회
2010. 06. 24. 포항지부장 선거(전자투표 실시) 이영욱 지부장 천영선 사무국장 당선
2010. 06. 26. 시도교육청노조 체육대회 참석
2010. 06. 30. 퇴직자 환송연
2010. 07. 01.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시행훈령 제150호)
2010. 07. 21. 제35차 상임위원회
2010. 07. 24. 제16차 대의원대회(경북교육청 별관 대회의실)
2010. 07. 29. 제6차 상임집행위원회
2010. 08. 19. 외근직 사무원 고충해결을 위한 간담회
2010. 08. 26.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2010. 09. 01. 제8차 상임집행위원회
2010. 09. 03. 제36차 상임위원회
2010. 09. 10. 제17차 대의원대회(경북교육청 별관 대회의실)
2010. 09. 29. 제9차 상임집행위원회
2010. 10. 22. 사랑의 연탄나눔 모금운동 전개
2010. 10. 30.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실시
2010. 11. 19 ~ 20. 노사상생발전을 위한 노조임원 워크숍
2010. 12. 10 ~ 11. 교육청 노조 가맹조합 임원 수련회 참석
2010. 12. 22. 제10차 상임집행위원회

2011년

- 2011. 01. 19. 제11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1. 02. 11. 제37차 상임위원회 및 직렬별 대표자 간담회
- 2011. 02. 28. 의성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3. 03. 안동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3. 11. 군위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3. 14. 경주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3. 15. 칠곡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3. 19. 제18차 대의원대회(경북교육청 별관2 대회의실)
- 2011. 03. 19. 제3기 위원장 선거(이철연 위원장 당선)
- 2011. 03. 25. 문경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3. 28. 영주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3. 29. 상주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4. 08. 예천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4. 11. 이철연 위원장 교육기록카드 이관을 위한 작업현장 방문 격려
- 2011. 04. 15. 제3기 경북교육노조 출범식
- 2011. 04. 15. 제39차 상임위원회
- 2011. 04. 26. 제12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1. 04. 27. 청도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5. 03.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소수직렬 포함) 상위 직급 확보 건의
- 2011. 05. 14. 시도교육청노조 체육대회 참석
- 2011. 05. 16. ~ 17.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시도교육청·교육청노조 합동 워크숍 참석
- 2011. 05. 20. 소규모학교통기 통신 3사 노조와 협약 체결(SK, LG U+, KT)
- 2011. 05. 25. 위원장 칠곡지부 찾아가는 협의회 참석
- 2011. 06. 01. 위원장 경산지부 찾아가는 협의회 참석
- 2011. 06. 11.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 홍보요원 위촉(운전직 435명)
- 2011. 06. 13. 위원장 교육청노조 중앙위원 참석
- 2011. 06. 14. 위원장 청도지부 찾아가는 협의회 참석
- 2011. 06. 27. 울진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07. 05. 제13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1. 07. 06. 2011년 5급 사무관 '현장 메아리 상' 및 우수조합원 상' 시상계획 통보
- 2011. 07. 06. ~ 08. 노조간부 교육경남 창녕)
- 2011. 07. 09. 2011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및 시험감독 조합원 격려  
(경산여자중고등학교, 안동북주여자중학교)
- 2011. 07. 14. 노조임원 회의
- 2011. 07. 15. 위원장 포항지부 찾아가는 협의회 참석
- 2011. 07. 19. 제40차 상임위원회
- 2011. 07. 19. 영주지부 한마음체육대회

- 2011. 07. 21. 안동지부 대의원대회 및 임원회의
- 2011. 07. 21. 사무국 임원회의
- 2011. 07. 25. 위원장 울진지부 찾아가는 협의회 참석
- 2011. 07. 25. 위원장 울진지부 제3대 지부장 출범식 참석
- 2011. 07. 26. 위원장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1. 07. 27. 위원장 영주지부 찾아가는 협의회 참석
- 2011. 07. 28. 안동지부 일반직 7·8·9급 간담회
- 2011. 07. 30. 제19차 대의원대회 및 역량강화 연수(경북교육청 별관2 대회의실)
- 2011. 08. 29. 2011년 신규임용예정자 격려 및 노조 홍보
- 2011. 08. 31. 전직관련 집행부 면담 및 공무원 직종개편 의견수렴 토론회
- 2011. 09. 16. 울릉 조합원 의견수렴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 2011. 09. 20.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본조 임원회의
- 2011. 09. 20. 일반직 정원 관련 실무자 협의회
- 2011. 10. 05. 위원장 외 본조임원과 본청예산 담당자 회의
- 2011. 10. 06. 본조 국장 회의
- 2011. 10. 13. 경산지부 한마음 등반대회
- 2011. 10. 17. “교육상 포상범위 확대 촉구” 성명서 발표
- 2011. 10. 18.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대책 협의회 및 상임집행위원회
- 2011. 10. 22. 안동·영양지부 한마음 등반대회
- 2011. 10. 27. 제41차 상임위원회
- 2011. 11. 05. 경주지부 한마음체육대회
- 2011. 11. 07. 구미연수원 일반직 노조 홍보
- 2011. 11. 08. 경북교육상 조례 졸속 처리 철회 및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 2011. 11. 12. 포항·영덕지부 한마음 등반대회
- 2011. 11. 22. 일반직 7·8급 조합원과 인사담당자 면담
- 2011. 11. 24.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1. 12. 08. 불우이웃돕기 및 인터넷 영어 화상 운영팀 격려
- 2011. 12. 10. 청도지부 한마음체육대회
- 2011. 12. 20. 구미지부 지부장 선거
- 2011. 12. 28. 청송지부 지부장 선거

## 2012년

- 2012. 01. 30. 구미지부 지부장 선거
- 2012. 01. 31. 제42차 상임위원회
- 2012. 01. 31. 청송지부 지부장 선거
- 2012. 02. 18. 제20차 대의원대회(경북교육청 별관2 대회의실)
- 2012. 04. 02. ~ 03.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노사합동 연수
- 2012. 04. 14. 2012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필기시험 합격 기원 및 경북교육노조 홍보(구미)

- 2012. 05. 04. 제43차 상임위원회
- 2012. 05. 09. 상임집행회의
- 2012. 06. 20. 교육청노조 대의원대회 참석
- 2012. 06. 26. 위원장 공공협의회 대구 경제 부시장 간담회 참석
- 2012. 07. 13. ~ 14. 교육청노조 교육연맹 워크숍 참석
- 2012. 07. 30. 제44차 상임위원회
- 2012. 08. 13. 정책협의를 위한 단체교섭교육
- 2012. 08. 18. 제21차 대의원대회(경북교육청 별관2 대회의실)
- 2012. 08. 22. 상임집행위원회
- 2012. 08. 25. 영주자부 총회 및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
- 2012. 09. 25. 2012년 경북교육노조 정책 실무협의회(1차, 2차)
- 2012. 09. 27. 2012년 경북교육노조 정책 실무협의회(3차, 4차)
- 2012. 10. 10. ~ 15. 경북교육노조 근무개선을 위한 1인 시위
- 2012. 10. 14. 경북교육노조 간부교육
- 2012. 11. 29. 경산자부 임원회의
- 2012. 10. 31. 제45차 상임위원회
- 2012. 11. 07. '조합원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서' 본청 집행부 제출
- 2012. 12. 07. 안동자부 대의원 및 임원회의
- 2012. 12. 13. 고령자부 임원 및 대의원 회의
- 2012. 12. 17. 경산자부 제5대 지부장 선거
- 2012. 12. 17. 영덕자부 임원협의회
- 2012. 12. 26. 제46차 상임위원회
- 2012. 12. 29. 제22차 대의원대회(경북교육청 별관2 대회의실)

## 2013년

- 2013. 01. 24. 제47차 상임위원회
- 2013. 01. 29. 고령자부 임원선거(지부장 이준재 당선)
- 2013. 01. 31. 제4기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선거
- 2013. 02. 01. 제4기 경북교육노조 임원선거 결선투표  
- 위원장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박흥기, 사무총장 정원상 당선
- 2013. 02. 12. 김천자부 임원선거(지부장 김정래 당선)
- 2013. 02. 18. 제23차 대의원대회 및 임원선거  
- 부위원장 김태균, 안승완, 조영현 전미경, 회계감사위원장 김종웅 당선
- 2013. 02. 20. 군위자부 임원선거(지부장 성수용 당선)
- 2013. 03. 07. 제4기 임원 상견례(본조 회의실)
- 2013. 03. 22. 제4기 임원과 23개 시군지부장 간담회(안동교육지원청)
- 2013. 04. 09. 상주자부 제4대 출범식 참석(지부장 이연희 당선)
- 2013. 04. 15. 제4기 경북교육노조 출범

2013. 04. 15. 경북교육노조 사무처 국장 임명  
 2013. 04. 15. 제1차 상임집행위원회(경북교육노조 회의실)  
 2013. 04. 17. 제48차 상임위원회(의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  
 2013. 04. 26. 제4기 경북교육노조 출범식(본청 별관 대회의실)  
 2013. 04. 26. 제24차 대의원대회  
 2013. 05. 06. 소수직렬 간담회(조리직렬)  
 2013. 05. 10. 제2차 상임집행위원회  
 2013. 05. 13. 행정실 발전방안 예비토론회(경북대학교)  
 2013. 05. 15. ~ 05. 25. (06. 05. ~ 06. 14.)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제호 공모(금오초 황명근 자명중)  
 2013. 05. 21. 행정실 발전방안 대토론회(경북교육연수원)  
 2013. 05. 22.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소위원회의 참석  
 2013. 05. 28. 경북교육청 단체교섭 요구  
 2013. 06. 01. 간부 워크숍  
 2013. 06. 01. 제3차 상임집행위원회  
 2013. 06. 03. 집행부(기획조정담당관) 간담회  
 2013. 06. 07. 지부 순회(고령지부)  
 2013. 06. 10. 소수직렬 간담회(시설직렬)  
 2013. 06. 10. ~ 25. (6. 26. ~ 07. 05.)  
 학교행정실 업무경감 설문조사  
 2013. 06. 12. 지부 순회(청도지부)  
 2013. 06. 14. 소수직렬 간담회(열관리, 전기직렬)  
 2013. 06. 17. 소수직렬 간담회(전산직렬)  
 2013. 06. 17. 행정지원과장 간담회  
 2013. 06. 22.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워크숍 참석(성주담)  
 2013. 06. 24. 부교육감 간담회  
 2013. 06. 24. 울진지부 제4대 취임 참석(남성춘 지부장)  
 2013. 06. 24. 지부 순회(봉화지부, 울진지부)  
 2013. 06. 25. 행정지원과장 간담회  
 2013. 06. 25. 제4차 상임집행위원회  
 2013. 06. 26. 영남지역 교육노조 협의회 참석  
 2013. 06. 27. 소수직렬 간담회(사서직렬)  
 2013. 07. 01. 부교육감 간담회  
 2013. 07. 02. 제49차 상임위원회(경북교육노조 회의실)  
 2013. 07. 10. 공무원직종개편 소위원회의 참석  
 2013. 07. 11.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간담회 참석  
 2013. 07. 12. ~ 13. 제25차 대의원대회 및 하계수련회(경북학생해양수련원)  
 2013. 07. 29.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2013. 07. 30. 교육부 항의 규탄대회 참석(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조치 철회 정부서울청사)

- 2013. 07. 30. 청도지부 제4대 출범식 참석
- 2013. 07. 31. 포항지부 노사교육 참석(경북학생문화회관)
- 2013. 08. 07.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위원회 회의(경북교육청)
- 2013. 08. 09. ~ 10. 제1회 영남지역교육청노조 임원 워크숍 참석(팔공산 맥섬석유스호텔)
- 2013. 08. 12. ~ 14. 대의원 제1차 노동교육(양평 한화콘도)
- 2013. 08. 26. '자명종' 창간호 발간
- 2013. 08. 28. 단체교섭위원 역량강화 협의회
- 2013. 08. 28. 단체교섭 제1차 실무교섭(기획조정관)
- 2013. 08. 29. 공무원직종개편 소위원회의 참석
- 2013. 08. 30. 2013년 상반기 회계감사
- 2013. 08. 30. 제5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3. 09. 04. 단체교섭 제2차 실무교섭(총무과)
- 2013. 09. 09. 칠곡지부 행정실장 협의회
- 2013. 09. 12. 지부 순회(경주지부)
- 2013. 09. 13. 지부 순회(영천지부)
- 2013. 09. 16. 행정지원국장 간담회(복무조례 관련)
- 2013. 09. 25. 단체교섭 제3차 실무교섭(행정지원과)
- 2013. 09. 27. 제6차 상임집행위원회(경북교육노조 회의실)
- 2013. 10. 01. 지부 순회(포항지부)
- 2013. 10. 10. 제50차 상임위원회(김천교육지원청)
- 2013. 10. 16. 영양지부 소속 학교 방문
- 2013. 10. 19. 2013년 제2차 일반직전환시험 격려(구미중학교)
- 2013. 10. 24. 2013년 국정감사장 방문
- 2013. 10. 24. 상주지부 현장방문 및 문경지부 행정실장협의회 간담회
- 2013. 10. 28.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향의 방문
- 2013. 10. 30. 단체교섭 제4차 실무교섭(학교지원과, 재무정보과, 교육시설과)
- 2013. 11. 01.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면담
- 2013. 11. 04. ~ 06. 경북교육노조 대의원 제2차 노동교육(경기도 오포 노동행정연수원)
- 2013. 11. 07.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3. 11. 08. '자명종' 2호 발간
- 2013. 11. 09. 제8회 경북교육청 한마음체육대회 및 불우이웃 돕기 행사(경산시민운동장)
- 2013. 11. 11. 포항지부 청소년 음악회(제1회 젊은이들의 한마당) 참석
- 2013. 11. 12. 전산직렬 직무연수 참석(경북학생해양수련원)
- 2013. 11. 14. 단체교섭 제5차 실무교섭(감사관)
- 2013. 11. 14. 신규 임용 예정자 연수 격려(경북교육연수원)
- 2013. 11. 15. 구미지부 2013 총회 및 송년의 밤 참석
- 2013. 11. 27. 제8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3. 11. 29. ~ 30. 제1회 영남지역교육청노조 임원 워크숍 참석(경남교육청종합복지관)
- 2013. 12. 05. 제51차 상임위원회, 소년소녀돕기 노사합동 김장 담그기 행사

- 2013. 12. 13. 안동지부 현장조합원 간담회(안동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2013. 12. 18. 단체교섭 제6차 실무교섭(기획조정관)
- 2013. 12. 21. 제26차 대의원대회(경북교육청 별관 대회의실)  
- 부위원장 보궐 선거(박재훈, 장용복 당선)

## 2014년

- 2014. 01. 07. 경상북도교육상조례개정 관련 도의회 교육위 박태환 의원 면담
- 2014. 01. 07. 단체교섭 제7차 실무교섭(교원지원과, 교육과정과, 체육건강과)
- 2014. 01. 08. 경상북도교육상조례개정 관련 도의회 교육위 구자근 의원 면담
- 2014. 01. 08. 공무원노총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참석
- 2014. 01. 09. 경상북도교육상조례개정 관련 도의회 교육위 홍광중 의원 면담
- 2014. 01. 09. 교육청노조 제26차 중앙위원회의 참석
- 2014. 01. 10. 제9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4. 01. 14. 경상북도교육상조례개정 관련 도의회 교육위 구자근 의원 면담(개정조례안 설명)
- 2014. 01. 15. 경상북도교육상조례개정 관련 도의회 교육위 박성만 의원 면담
- 2014. 01. 16. 경상북도교육상조례개정 관련 도의회 교육위 김원석 의원 면담
- 2014. 01. 17. 경상북도교육상조례개정 관련 도의회 전문위원 방문
- 2014. 01. 20. 경상북도교육상조례개정 관련 도의회 교육위 최우섭 의원 면담
- 2014. 01. 21. 2014년도 경산지부 총회 참석
- 2014. 01. 22. 경상북도교육상조례개정 관련 도의회 교육위 추재천 의원 면담
- 2014. 01. 22. 공무원노총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참석
- 2014. 01. 22. '자명종' 3호 발간
- 2014. 01. 27. 단체교섭 제8차 실무교섭위원회(행정지원과)
- 2014. 02. 05. 고령지부 각급학교 순회방문
- 2014. 02. 07. 제12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4. 02. 11. 공무원노총 제6차 중앙위원회의 참석(호텔금오산)
- 2014. 02. 12. 단체교섭 제9차 실무교섭위원회(총무과)
- 2014. 02. 15. 교육청노조 제23차 대의원대회 참석
- 2014. 02. 19. 공무원노총 제26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참석
- 2014. 02. 21. ~ 22. 2014년도 경북교육노조 간부 워크숍
- 2014. 02. 25. 단체교섭 제10차 실무교섭위원회
- 2014. 03. 06.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국장 면담
- 2014. 03. 14. 2013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 2014. 03. 17. 단체교섭 본교섭 및 협약 체결(경북교육청 4층 대회의실)
- 2014. 03. 17. 제52차 상임위원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4. 03. 19. 예천지부 순회
- 2014. 03. 24. ~ 25. 안행부 주관 노사 합동 워크숍 참석
- 2014. 03. 27. 2014년도 안동지부 총회 및 제4대 출범식 참석



- 2014. 03. 28. 제12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4. 03. 28. '자명중' 4호 발간
- 2014. 03. 31. 청도지부 순회
- 2014. 04. 07. 연금위원회 참석(공무원노총 사무실)
- 2014. 04. 08. 제2회 교육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경북교육연수원)
- 2014. 04. 08. 제27차 대의원대회(구미)
- 2014. 04. 10. 영천지부 출범식 참석
- 2014. 04. 16. 2008 대정부교섭 참관(공무원노총 사무실)
- 2014. 04. 18. ~ 19. 제3회 영남지역교육청노조 임원 워크숍(부산학생교육원)
- 2014. 04. 30. 제53차 상임위원회(군위교육지원청)
- 2014. 05. 07. 공무원노총 제28차 중앙집행위원회 참석
- 2014. 05. 17. 교육청연맹 제24차 대의원대회 참석(울산교육청)
- 2014. 05. 14. 연금 공동투쟁본부 구성 및 연금위원회 참석(전공노 사무실)
- 2014. 05. 19. 초등학교 18~23학년 정원 관련 포항지부 초등교육행정 조합원 면담
- 2014. 05. 19. 학교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협의
- 2014. 05. 27. 연금위원회 참석
- 2014. 05. 28. 학교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협의
- 2014. 05. 29. 공노총 제30차 중앙집행위원회 참석
- 2014. 0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참석(안행부 정문)
- 2014. 06. 10. 연금위원회 참석
- 2014. 06. 11. 공노총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참석
- 2014. 06. 16.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버스 투어(서울 안행부)
- 2014. 06. 17.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버스 투어(울산 부산)
- 2014. 06. 1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버스 투어(경남 대구)
- 2014. 06. 19.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버스 투어(경북 대구)
- 2014. 06. 19.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출근 홍보전(경북교육청)
- 2014. 06. 20.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버스 투어(구미)
- 2014. 06. 24. 제13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4. 06. 25. 포항지부장 취임식 및 퇴직자 환송회 참석
- 2014. 06. 26.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경북교육청 제1 회의실)
- 2014. 06. 26. 봉화지부장 취임식 참석
- 2014. 06. 27. 7월 1일자 승진 관련 업무 협의(행정지원국장실 부교육감실)
- 2014. 06. 30. 공노총 제5차 대의원대회 참석(대전 동구청)
- 2014. 07. 01. 7월 1일자 전보 관련 행정지원국장 면담
- 2014. 07. 02. 연금위원회 참석
- 2014. 07. 04. 교육전문위원실 존치 방안 협의(교육감실)
- 2014. 07. 04. 교육전문위원실 존치 방안 등 업무협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2014. 07. 07. 7월 정기 인사 및 노사협의회 안건 사전 협의(총무과장)
- 2014. 07. 08. 본청 근무자 대상 연금법 설명회

- 2014. 07. 09. 제54차 상임위원회(제주 컨싱턴리조트)
- 2014. 07. 09. ~ 11.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제주 컨싱턴리조트)
- 2014. 07. 14. 청렴거버넌스 협의회(경주교육지원청)
- 2014. 07. 15. 자명종 5호 발간
- 2014. 07. 17. 2/4분기 노사협의회(본관 4층 대회의실)
- 2014. 07. 21. 고위공직자 연금법 설명회
- 2014. 07. 25. 교육 정책수립 단계에서 사전 노조와 협의 요구(교육감실)
- 2014. 07. 25. 고령지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07. 28.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 문제 협의(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 2014. 07. 29. 구미지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07. 30. 포항지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07. 30.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대구시청 노조사무실)
- 2014. 08. 01. 안동지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08. 04. 청송지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08. 04. 연금특별위원회 참석
- 2014. 08. 06. 연금 개악 저지 기금 원천징수 협의(재무정보과장)
- 2014. 08. 06 ~ 29. 3/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수렴
- 2014. 08. 07. 경북교육발전추진단에 노조 의견인사, 조직, 예산 수렴 요구(부교육감실)
- 2014. 08. 08. 군위지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08. 11. 소수직렬 간담회(전산직렬)
- 2014. 08. 11. 조직개편 T/F팀 협의회 참석
- 2014. 08. 12. 성주지부 노동교육 및 성주지부장 취임식 참석
- 2014. 08. 12. 정책연구 착수 보고회 참석
- 2014. 08. 12. ~ 13.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촉구 항의방문(새누리당 당사)
- 2014. 08. 13.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및 새누리당 규탄' 공투본 기자회견 참석(새누리당 당사)
- 2014. 08. 13. 칠곡지부, 영양지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08. 14. 의성지부, 문경지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08. 18. 연금개악 저지 영남권 노조 대책 협의회(경북도청 노조사무실)
- 2014. 08. 19. 연금개악 저지 새누리당 대구시당 방문
- 2014. 08. 20. 공노총 제36차 중앙집행위원회 참석
- 2014. 08. 22. 김천지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08. 22. 공노총 간부 결의대회(대전 레전드호텔)
- 2014. 08. 22. ~ 23. 단위노조 위원장 사무총장 회의 및 공노총 간부 결의대회(대전 레전드호텔)
- 2014. 08. 25. 제14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4. 08. 28. 201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 2014. 09. 01. 연금개악저지 1인 시위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 2014. 09. 03. 연금개악 저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면담(국회)
- 2014. 09. 03. 공노총 제36차 중앙집행위원회 참석

- 2014. 09. 11. 연금위원회 참석
- 2014. 09. 11. 「학교행정실 업무분장 직무분석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참석
- 2014. 09. 12. 사무관 승진 대상자 격려(경북교육연수원)
- 2014. 09. 12. 구미권역 노사합동 교육행정 현장의 소리 청취
- 2014. 09. 12. ~ 13. 영남지역 교육청노조 간부 워크숍 참석
- 2014. 09. 13. 영주자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09. 15. 안동권역 노사합동 교육행정 현장의 소리 청취
- 2014. 09. 16. 연금개약저지 1인 시위(경북공 옆 청와대 진입로)
- 2014. 09. 18. 지역교육청 보건 및 급식담당 분리 요구(조직관리담당)
- 2014. 09. 19. 포항권역 노사합동 교육행정 현장의 소리 청취
- 2014. 09. 19. 제55차 상임위원회(경북학생문화회관)
- 2014. 09. 20. 기술직군 전직시험 대상자 격려(경북교육청)
- 2014. 09. 22. 연금위원회 및 제38차 중앙집행위원회 참석
- 2014. 09. 27. 연금개약 저지 공노총 총력 결의대회 참석(서울역 광장)
- 2014. 09. 29. 신규임용대상자 노동조합 홍보(경북교육연수원)
- 2014. 10. 02. 한마음체육대회 사전 협의회(경북교육연수원)
- 2014. 10. 06. ~ 08. 교육청 연맹 노조 간부 집합교육(ES 충주호 리조트)
- 2014. 10. 11. 사무관 승진 대상자 격려(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 2014. 10. 14. 연금위원회 참석
- 2014. 10. 15. 제15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4. 10. 16. 3/4분기 노사협의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4. 10. 20. 공노총 대구경북연합 연금홍보 관련 협의(경북도청노조 사무실)
- 2014. 10. 21. 연금 홍보 관련 매일신문사 협조 방문
- 2014. 10. 22. 공노총 임원 선거 및 복지국가 선포식 참석(서울시청 및 서울정부청사)
- 2014. 10. 23. ~ 24. 울릉자부 노동교육 참석
- 2014. 10. 25. 행정직군 전직시험 대상자 격려(금오공업고등학교)
- 2014. 10. 25. 2014년 학교급식 조리사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안동고학대학교)
- 2014. 10. 27. 장기자직 특별휴가 조례 관련 도의원 협의
- 2014. 10. 27. '자명종 6호 발간
- 2014. 10. 28. 연금위원회 및 제39차 중앙집행위원회 참석
- 2014. 10. 27. 제56차 상임위원회(경북학생해양수련원)
- 2014. 10. 30. ~ 31. 노사합동 워크숍(경북학생해양수련원)
- 2014. 11. 01. 연금개약 저지 공투본 총력결의 대회 참석(여의도광장)
- 2014. 11. 03. 장기자직 특별휴가 조례 관련 도의원 협의
- 2014. 11. 05. 제28차 대의원대회(경주 KT수련관)
- 2014. 12. 04. 6급 이하 교육감과의 대화본관 4층 대회의실)
- 2014. 12. 04. 제16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4. 12. 04. 소년소년 가장 돕기 김장 행사(본청 직원 복지관)
- 2014. 12. 05. 공노총 대구경북연합회 협의회(경북도청 노조사무실)

- 2014. 12. 09. 공노총 연금위원회(공노총 회의실)
- 2014. 12. 10. 경주지부 노동교육
- 2014. 12. 11. 공노총 대구경북연합회 협의회(경북도청 노조사무실)
- 2014. 12. 12.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기자회견(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 2014. 12. 15. 4/4분기 노사협의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4. 12. 15. 노사협의회 성과분석(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4. 12. 16. 공노총 대의원대회 및 교육청연맹 중앙위원회(대전 동구청)
- 2014. 12. 18. 경북 지방노동위원장 면담(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4. 12. 20. 공노총 출범식 및 158타도 결의대회(청계천 한빛광장)
- 2014. 12. 22. 고용노동부 협의회 참석(고용노동부 대구사무실)
- 2014. 12. 22. ~ 23. 2014년 노조 임원 워크숍(포항 파인비치호텔)

## 2015년

- 2015. 01. 02. 2015년 노사 상생 관련 협의회
- 2015. 01. 05. ~ 15. 2015년 노동교육 관련 업무 지부 협의(각 지부)
- 2015. 01. 09. 공노총 대구경북연합회 협의회(대구 북구청 노조사무실)
- 2015. 01. 10. 교육청 연맹 대의원대회 및 임원 선거(대전교육청)
- 2015. 01. 14. 2013~2014 활동보고서 발간
- 2015. 01. 14. 제17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5. 01. 15. 제57차 상임위원회(금오공과대학교)  
- 선거관리위원장 박귀훈 선출
- 2015. 01. 16. 2014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 2015. 01. 19.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면담(교육부)
- 2015. 01. 20. 1권역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부 노동교육 참석(경북학생문화회관)
- 2015. 01. 21. 2권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주, 예천, 봉화) 지부 노동교육 참석(경북교육연구원)
- 2015. 01. 23. 3권역구미, 김천, 군위, 성주, 칠곡) 지부 노동교육 참석(금오공과대학교)
- 2015. 01. 27. 4권역경산, 영천, 청도, 고령) 지부 노동교육 참석(경산교육지원청)
- 2015. 01. 25. 새정치민주연합 정당대회 연금 집회(대구 엑스코)
- 2015. 01. 28. 5권역상주, 문경) 지부 노동교육 참석(상주도서관)
- 2015. 02. 03. 부교육감 업무 협의회(부교육감실)
- 2015. 02. 03. 영천지부 순회
- 2015. 02. 09. 교육감 업무 협의회(교육감실)
- 2015. 02. 09. 경산지부장 선거 지부장 박영락 당선
- 2015. 02. 12. 1/4분기 노사협의회(경북교육노조 회의실)
- 2015. 02. 12. 의성지부장 선거 지부장 김종필 당선
- 2015. 02. 13. 신청사 건립현장 방문(안동시 호명면)
- 2015. 02. 13. 청렴거버넌스 협의회 참석
- 2015. 02. 16.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의성 안계시장)

- 2015. 02. 16. 고령지부장 선거(지부장 이준재 당선)
- 2015. 02. 24. 공노총 홍보 교육 및 온라인업무 활성화 워크숍 참석(대전 동구청)
- 2015. 02. 25. 경산지부장 이·취임식 참석
- 2015. 02. 26.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평가공청회 참석(국회 본관 245회의실(청문회의장))
- 2015. 02. 26. 경주지부장 선거(지부장 신영찬 당선)
- 2015. 03. 04. 본청 6급 간담회(경북교육노조 회의실)
- 2015. 03. 10. 군위지부장 선거(지부장 김용수 당선)
- 2015. 03. 16. 영덕지부장 선거(지부장 김종섭 당선)
- 2015. 03. 18. 제5기 경북교육노조 임원선거  
- 위원장 김중기, 수석부위원장 박흥기, 사무총장 정원상 당선
- 2015. 03. 19. 김천지부장 선거(지부장 김정래 당선)
- 2015. 03. 20. 동대구역사 앞 대국민 연금 홍보전
- 2015. 03. 21. 제29차 대의원대회(경북교육청 별관2 대회의실)  
- 부위원장 김태균·이명구·장용복·최정연 회계감사위원장 김종웅 당선
- 2015. 03. 23. 예천지부장 선거(지부장 권기일 당선)
- 2015. 03. 24. 영주지부장 선거(재선거)
- 2015. 03. 25. 공무원연금 관련 헌법 소원 및 기자 회견(헌법재판소)
- 2015. 03. 25. 군위지부장 이취임식 참석(군위교육지원청)
- 2015. 03. 26. 새누리당사 앞 연금 집회
- 2015. 03. 26. 상주지부장 선거(지부장 이연희 당선)
- 2015. 03. 27. 행정실 법제화 관련 활동 추진(대 국회 및 교육부 협의)
- 2015. 03. 28. 328 연금 투쟁 공적연금강화공투본 총결기 대회 여의도광장
- 2015. 03. 30. 교육감과 경북교육노조 5대 집행부 간담회(교육감실)
- 2015. 03. 31.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대구시청 노조회의실)
- 2015. 04. 01. 칠곡지부 방탄칠곡 가천초 등)
- 2015. 04. 01. '자명종' 7호 발간
- 2015. 04. 02. 본청지부 6급 협의회
- 2015. 04. 03. 본청지부장 선거(지부장 김광현 당선)
- 2015. 04. 07. 기획조정관 예산 분야 관련 업무협의(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5. 04. 07. 인사담당 2015년 주요 인사분야 협의(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5. 04. 07. 공노총 대구경북연합회 협의회(대구교육청 노조사무실)
- 2015. 04. 04. 2015년 상반기 노조 간부 노동 교육(평산아카데미)
- 2015. 04. 08. 공노총 제8차 전국 대의원대회 참석(정부대전청사 후생관 대회의실)
- 2015. 04. 09. 본청지부 6급 협의회
- 2015. 04. 09. 출입기자 간담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5. 04. 10. ~ 11. 영남지역 교육청노조 워크숍(울산교육수련원)
- 2015. 04. 14. 행정실 법제화 관련 활동 추진(대 국회 및 교육부 협의)
- 2015. 04. 15. 노사 상생 선언
- 2015. 04. 15. 제5기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취임식(평산아카데미)

2015. 04. 15. 사무처 국장 임용  
 2015. 04. 15. 노사관계 유공자 교육감 표창(평산아카데미)  
 2015. 04. 15. 제58차 상임위원회(평산아카데미)  
 2015. 04. 15. ~ 16. 노사합동 워크숍(평산아카데미)  
 2015. 04. 20. ~ 21. 행정실 법제화 관련 활동 추진(대 국회 및 교육부 협의)  
 2015. 04. 21. 청도지부장 선거 지부장 문종길 당선  
 2015. 04. 23. 제59차 상임위원회(경북교육노조 회의실)  
 2015. 04. 23. 공적연금 개악저지 투쟁 활동(경북교육청)  
 2015. 04. 23. 공적연금 강화 출근 홍보전 및 1인 시위(본청 본관 앞뜰)  
 2015. 04. 25. 공적연금 개악저지 투쟁 활동(서울역광장)  
 2015. 04. 23. 2015년 상반기 정원 관련 협의위원장 조직관리담당  
 2015. 04. 24. 각종 수당 관련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 면담  
 2015. 04. 24. 공노총 대경연합 협의회  
 2015. 04. 25. 425 연금 투쟁(서울역광장, 시청광장)  
 2015. 04. 27. 공적연금 강화 전국 동시 기자회견(대구시청 앞뜰)  
 2015. 04. 27. 본청지부 6급 협의회  
 2015. 04. 27. 공적연금 개악저지 투쟁 활동(대구시청)  
 2015. 04. 28. ~ 05. 01.  
 공적연금 강화 단식 투쟁(국회 정문 앞)  
 2015. 04. 28. 행정실 법제화 관련 활동(교육부 항의 방문)  
 2015. 04. 28. ~ 05. 01.  
 공적연금 개악저지 투쟁 활동(국회)  
 2015. 04. 30. 교육청노조 제28차 중앙위원회 참석(충북교육정보원)  
 2015. 05. 06. 청사 이전 관련 협의(위원장, 총무담당)  
 2015. 05. 06. 신청사 건립현장 방문  
 2015. 05. 07. 소년소녀 가장돕기 쌀 1,000Kg 기증(교육감실)  
 2015. 05. 09. 제12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행사 참석(경산살내체육관)  
 2015. 05. 12. 제18차 상임집행위원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2015. 05. 12. 노사합동 청소년 복지시설 봉사활동(의성 자혜원)  
 2015. 05. 13. 공노총 대경연합 협의회(대구교육청노조 사무실)  
 2015. 05. 14. 제3회 교육행정 발전방안 토론회(1차, 더케이경주호텔)  
 2015. 05. 18. 신청사 이전시기 관련 협의(경북도청노조 사무실)  
 2015. 05. 21. 조직 개편 관련 부교육감 및 국장 협의(부교육감실 행정지원국장실)  
 2015. 05. 26. 조직 개편 관련 교육감 협의(교육감실)  
 2015. 05. 27. 신청사 건립현장 방문 및 북부지역 지부장 협의회(안동시 호명면)  
 2015. 05. 27. 교육청노조 제도개선위원회(공노총 회의실)  
 2015. 06. 01. 자명종 8호 발간  
 2015. 06. 02. 울진지부장 선거 지부장 남성춘 당선  
 2015. 06. 08. 교육부 신임 지방교육자치과장 면담

- 2015. 06. 10. 공노총 연금위원회
- 2015. 06. 12. 제19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5. 06. 15. 교육청노조 중앙집행위원회
- 2015. 06. 17. ~ 18. 행정실 법제화 관련 활동 추진(여야 국회의원 면담)
- 2015. 06. 18. 2/4분기노사협의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5. 06. 23. 영주지부장 선거(지부장 김보경 당선)
- 2015. 06. 25. 행정실 법제화 관련 활동 추진(여야 국회의원 면담)
- 2015. 06. 26.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본청 1층 소회의실)
- 2015. 07. 02. 공노총 대구경북연합회(경북도청노조 사무실)
- 2015. 07. 07. 노조 T/F팀 1차 전체 회의(경주 더케이호텔)
- 2015. 07. 08. 제도개선위원회(공노총 회의실)
- 2015. 07. 08. ~ 10. 교육청노조 간부 노동교육(ES리조트)
- 2015. 07. 09. 본청지부 조합원 간담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5. 07. 09. 행정실 법제화 홍보(대구과학교육원)
- 2015. 07. 14. 행정실 법제화 관련 활동 추진(영남권 교육노조 임원 협의)
- 2015. 07. 15. 공노총 중앙위원회(대전 동구청)
- 2015. 07. 16. 201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 2015. 07. 21. 제60차 상임위원회(경북학생문화회관)
- 2015. 07. 21. ~ 22. 경북교육노조 하반기 노동교육(경북학생문화회관, 경북교육연구원)
- 2015. 07. 22.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대구시청 노조사무실)
- 2015. 07. 22. 공노총 인사정책 개선 과제 선정을 위한 3차 워크숍(공노총 회의실)
- 2015. 07. 24. 노조 T/F팀 2차 전체 회의(화랑교육원)
- 2015. 07. 27. 경북도청 노조와 신청사 이전 시기 연기 관련 협의(경북도청, 도의회, 경북교육청)
- 2015. 07. 28. 청도지부 제5대 출범식 및 지방공무원 청렴교육 · 노사관계 교육(청도교육지원청)
- 2015. 07. 28. 2015년 경주지부 조합원 현장 체험 연수(경주 월성원자력 발전소 및 방폐장 일대)
- 2015. 07. 29. 신청사 이전 시기 연기 건의(경북도청, 도의회, 경북교육청)
- 2015. 07. 29. 6급이하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본청 4층 대회의실)
- 2015. 08. 01. '자명종' 9호 발간
- 2015. 08. 03. 포항지부 초등학교 행정실장 협의회
- 2015. 08. 04. 신청사 이전 반대 집회(도의회 신청사)
- 2015. 08. 05. ~ 07. 경북교육노조 임원 노동 교육(영주 풍기관광호텔)
- 2015. 08. 06. 공노총 대구경북연합 협의회 참석(대구시청 노조회의실)
- 2015. 08. 07. 행정실 법제화 관련 단위노조 위원장 협의회 참석(공노총 회의실)
- 2015. 08. 11.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참석
- 2015. 08. 19. 경주지부 순회
- 2015. 08. 21. 교육청노조 대표자 회의 참석(경남교육청 별관 미래교육재단 1층 회의실)
- 2015. 08. 21. ~ 22. 노조 T/F팀 3차 전체 회의(평산아카데미)
- 2015. 08. 25.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KT 대구본부 노조회의실)
- 2015. 08. 28.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관련 교육부 협의회 참석(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2015. 08. 28. 공노총 대구경북연합 협의회 참석(대구시청 노조회의실)
- 2015. 08. 29. 운전직 교통안전 연수 및 체육대회(의성군 문화회관)
- 2015. 09. 02. ~ 03. 신규 임용자 서류 접수 간 노조 홍보(본청 별관 대회의실)
- 2015. 09. 03. 공무원 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2015. 09. 07. 인사혁신처 국장 협의처(서울 정부청사)
- 2015. 09. 07. 조합원 처우 개선 관련 총무과 협의
- 2015. 09. 07. 교육행정 적정 인력 배치 관련 행정지원과 협의
- 2015. 09. 08. 노조 T/F팀 4차 전체 회의(경북교육연구원)
- 2015. 09. 08. 본청지부 임원 협의회
- 2015. 09. 12. 기술직군 전직자 필기시험 격려(본청 1층 소회의실)
- 2015. 09. 17. 제20차 상임집행위원회(칠곡교육지원청)
- 2015. 09. 18. 교육청노조 대표자 회의(대전교육노조 사무실)
- 2015. 09. 18. 제61차 상임위원회(경북교육연수원)
- 2015. 09.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기자회견 참석(교육부)
- 2015. 10. 02. 사무관 소양평가 대상자 격려(경북교육연수원)
- 2015. 10. 03. 사서직렬 체육대회(경산중학교 체육관)
- 2015. 10. 05. 행정인력 적정 배치를 위한 교육감 협의(교육감실)
- 2015. 10. 06. 공노총 대구경북연합 협의회 참석(경주 일원)
- 2015. 10. 06. 교육청노조 대표자 회의 참석(천안아산역 회의실)
- 2015. 10. 07. 행정인력 적정 배치를 위한 부교육감 협의(부교육감실)
- 2015. 10. 15. 공노총-인사혁신처 노사합동 워크숍 참석(전북 고창)
- 2015. 10. 17. 조리직렬 연수(안동대학교)
- 2015. 10. 19. ~ 11. 05. 사무관 승진심사제도 및 인력배치 관련 조합원 의견 수렴(20개 지부)
- 2015. 10. 20. 방과후학교 수당 관련 교육정책과 협의
- 2015. 10. 21.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한전 대구경북본부 노조회의실)
- 2015. 10. 22. 3/4분기 노사협의회(경북교육노조 회의실)
- 2015. 10. 22. 신규 임용자 노조 홍보(경북교육연수원)
- 2015. 10. 23. 제21차 상임집행위원회(평산아카데미)
- 2015. 10. 23. ~ 24. 영남지역 교육청노조 임원 워크숍(평산아카데미)
- 2015. 10. 24. 사무관 승진시험 대상자 격려(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 2015. 10. 27. ~ 28. 신청사 공무원 임대주택 전세금과다 책정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향의 방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제주도 서귀포시)]
- 2015. 10. 30. 공무원 노사협력 우수기관 현장 실사(경북교육노조 사무실 교육감실 등)
- 2015. 10. 31.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대상자 격려
- 2015. 11. 04. 행정인력 적정 배치를 위한 T/F팀 결과 교육감 협의(교육감실)
- 2015. 11. 11. 공무원 노사협력 우수기관 사례 발표회(서울 정부청사)
- 2015. 11. 13. 신청사 공무원 임대주택 전세금 과다 책정 관련 조합원 의견수렴(경북도청 대강당)
- 2015. 11. 14. 제10회 한마음체육대회



- 2015. 11. 18. 신청사 공무원 임대주택 전세금 과다 책정 관련 기자회견(경북도청 프레스룸)
- 2015. 11. 20. 신청사 공무원 임대주택 전세금 과다 책정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면담 (더케이경주호텔)
- 2015. 11. 23. 신청사 공무원 임대주택 전세금 과다 책정 관련 조합원 설명회(본청 별관 회의실)
- 2015. 11. 24. 신청사 공무원 임대주택 전세금 과다 책정 관련 국회의원 면담(국회)
- 2015. 11. 27. 제22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5. 12. 01. 신청사 공무원 임대주택 전세금 과다 책정 관련 입주거부서 제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제주도 서귀포시)]
- 2015. 12. 01. '차명종' 10호 발간
- 2015. 12. 02. 제62차 상임위원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5. 12. 02. 소년소녀 가장돕기 김장 담그기(본청 복지관)
- 2015. 12. 03.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호텔 수성)
- 2015. 12. 04. 공노총 대구경북연합 협의회 참석
- 2015. 12. 07. 안동 신청사 노조사무실 배치관련 협의(신청사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5. 12. 09. ~ 10. 임원 연수회(포항 칠포 파인비치호텔)
- 2015. 12. 12. 제30차 대의원대회(본청 별관 대회요일)
- 2015. 12. 18. 구미지부장 선거(지부장 전종필 당선)
- 2015. 12. 21. 4/4분기 노사협의회(경북교육노조 회의실)
- 2015. 12. 22. 청송지부장 선거(지부장 김만일 당선)
- 2015. 12. 22.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 한국노총 업무 협의(한국노총 경북본부)
- 2015. 12. 23. 교육복지기금 관련 재무정보과 업무 협의
- 2015. 12. 24. 2015년 노사실적 보고회
- 2015. 12. 30. 대구경북 공공부분 노사관계 협의회 참석(고용노동부)
- 2015. 12. 30.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반대 1인 시위(서울정부청사)

## 2016년

- 2016. 01. 04. 2015년 활동보고서 발간
- 2016. 01. 05. 구미지부 학교 행정실 방문(구미지부 관내 5개 학교)
- 2016. 01. 08. 권역별 지부장 업무 협의회(안동)
- 2016. 01. 09. 행정실 법제화 관련 국회의원 업무 협의(국회)
- 2016. 01. 11. 본청지부 조합원 간담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6. 01. 12. 권역별 지부장 업무 협의회(구미)
- 2016. 01. 13. 권역별 지부장 업무 협의회(경주)
- 2016. 01. 15.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 협의(교육전문위원실 인력배치 및 장기재직휴가 조례 개정)
- 2016. 01. 18. 경산지부 총회 참석
- 2016. 01. 18.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 협의
- 2016. 01. 18. 2016년 전반기 권역별 노사교육(경산교육지원청)
- 2016. 01. 19. 2016년 전반기 권역별 노사교육(구미교)

- 2016. 01. 19. 교육감 업무 협의(조직개편 및 현안 업무 협의)
- 2016. 01. 20. 건전노사문화 대상 수상(서울정부청사)
- 2016. 01. 21. 건전노사문화 대상 전수식(교육감실)
- 2016. 01. 21.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한국수자력공사)
- 2016. 01. 21. 2016년 전반기 권역별 노사교육(경북교육연구원)
- 2016. 01. 22.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 협의(철곡)
- 2016. 01. 22. 교육정책국장 업무 협의(교원 및 행정실 퇴근시간 관련 논의)
- 2016. 01. 23. 교육청노조 대표자 회의 참석(부산교육노조 회의실)
- 2016. 01. 26. 2016년 전반기 권역별 노사교육(경북학생문화회관)
- 2016. 01. 26. 청송지부 지부장 취임식 참석(청송교육지원청)
- 2016. 01. 27. 공노총 대경연합 협의회 참석(구미시청)
- 2016. 01. 28. 교육감 업무 협의(조직개편 및 현안 업무 협의)
- 2016. 01. 29. 교육정책국장 업무 협의(교원 및 행정실 퇴근시간 관련 논의)
- 2016. 02. 03. 공노총 대경연합 협의회 참석(경북도청)
- 2016. 02. 17. 제23차 상임집행위원회(신청사 이전 관련 협의)
- 2016. 02. 18. 경북교육노조 사무실 신청사 이전
- 2016. 02. 20. 교육청노조 제27차 대의원대회 참석(대전교육청)
- 2016. 02. 22. ~ 23.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반대 1인 시위(국회)
- 2016. 02. 23.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한국도로공사)
- 2016. 02. 25. 부교육감 업무 협의(조직개편 및 현안 업무 협의)
- 2016. 02. 26. 공노총 대경연합 협의회 참석(구미시청 노조회의실)
- 2016. 02. 26. 교육부 지방자치국장 협의회 참석(정부서울청사)
- 2016. 02. 29. 성주지부장 선거지부장 한말수 당선
- 2016. 03. 04. 신청사 이전 본청지부 조합원 격려(본청 각 사무실)
- 2016. 03. 07. 학교안전단 운영 관련 기획조정관 업무 협의
- 2016. 03. 08. ~ 09.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반대 1인 시위(국회)
- 2016. 03. 11. 2015년 경북교육노조 하반기 회계 및 결산 감사
- 2016. 03. 15.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 협의(교육위원회)
- 2016. 03. 15. 안동지부장 선거지부장 조원정 당선
- 2016. 03. 17. 성과상여금 관련 총무과 업무 협의
- 2016. 03. 17.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경북교육노조 회의실)
- 2016. 03. 21. 청도지부 순회(청도지부 관내 학교 및 교육청)
- 2016. 03. 22. 조직개편 관련 행정지원과 업무 협의
- 2016. 03. 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 선정 요구)
- 2016. 03. 25. 교육청노조 대표자 및 사무총장 회의 참석(충북정보원 회의실)
- 2016. 03. 28. 성과상여금 관련 총무과 업무 협의
- 2016. 03. 28. 1/4분기 노사협의회(본관 402 회의실)
- 2016. 03. 29. 제5기(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참석(서울역 프리미엄라운지)
- 2016. 03. 30. 안동지부 정기 총회 및 지부장 취임식 참석(안동교육지원청)

- 2016. 03. 31. 제24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6. 04. 01. '자명종' 11호 발간
- 2016. 04. 06. 제63차 상임위원회(경북교육연수원)
- 2016. 04. 07. 조직개편 관련 교육감 협의
- 2016. 04. 07. 영양자부 순회
- 2016. 04. 08. 김천자부 순회
- 2016. 04. 12. 조직개편 관련 행정지원과 협의
- 2016. 04. 15. 교육청노조 대표자 및 사무총장 회의(공노총 회의실)
- 2016. 04. 18. 교육청노조 대표자 회의 및 경남교육노조 창립 10주년 행사 참석(창원컨벤션센터)
- 2016. 04. 19. 출입기자 간담회
- 2016. 04. 20. 영천자부 순회
- 2016. 04. 21. 공노총 대경연합 협의회 참석(구미시청 노조회의실)
- 2016. 04. 22.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 인사혁신처 항의 방문
- 2016. 04. 29. 제31차 대의원대회(본청 응비관)
- 2016. 05. 04.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방문특수직무수당, 상위직급재배정 병설유치원전담행정인력
- 2016. 05. 10. 성주자부장 이취임식 참석(성주공공도서관)
- 2016. 05. 12. 봉화자부장 선거(지부장 최호연 당선)
- 2016. 05. 13. 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노사합동 봉사활동(경안산육원)
- 2016. 05. 13. 제25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6. 05. 21. 제11회 한마음체육대회(안동시민운동장)
- 2016. 05. 25. ~ 27. 공무원노사관계 핵심 관리자 과정 연수(전주 영화호텔)
- 2016. 06. 02. ~ 03. 공무원노사관계 핵심 관리자 과정 연수(전남도청)
- 2016. 06. 03. ~ 04. 영남지역 교육청노조 임원 워크숍 참석(경남학생연수원)
- 2016. 06. 08. 포항자부장 선거(지부장 추중호 당선)
- 2016. 06. 08. 교육부장관 면담(행정실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 등, 정부세종청사)
- 2016. 06. 11. ~ 12. 제36회 운전직 교통교육 및 체육대회 참석(본청 응비관)
- 2016. 06. 14. 공노총 중앙위원회 참석
- 2016. 06. 15. 2/4분기노사협의회(본관 101 회의실)
- 2016. 06. 15.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대구시청)
- 2016. 06. 21. 안동자부 신규 임용자 간담회(안동 시내)
- 2016. 06. 23. 경주자부 신규 임용자 간담회(경주 시내)
- 2016. 06. 24. 제34차 교육청노조 가맹조합 대표자 회의 참석(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6. 06. 27. 제26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6. 06. 28. 구미자부 신규 임용자 간담회(구미 시내)
- 2016. 06. 29. 제10차 공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참석(대전동구청 12층 공연장)
- 2016. 07. 01. '자명종' 12호 발간
- 2016. 07. 15. 경산자부 신규 임용자 간담회
- 2016. 07. 19. 포항자부장 이취임식 참석(포항교육지원청)
- 2016. 07. 20.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NH농협은행 대구지점 대회이실)

2016. 07. 21. 제64차 상임위원회(더케이경주호텔)  
 2016. 07. 21. ~ 22. 2016년 경북교육노조-경북교육청 노사합동워크숍(더케이경주호텔)  
 2016. 07. 26. 6급이하 조합원과 교육감과의 대화(본청 화백관)  
 2016. 07. 27. 공노총 대경연합 협의회 참석(대구시청 노조사무실)  
 2016. 08. 01. 공노총 성과급 결의대회 관련 영남권 노조 협의회 참석(대구시청 노조사무실)  
 2016. 08. 03. 권역별 조합원 노동교육 관련 행정지원국장 협의  
 2015. 08. 05. ~ 12. 권역별 지부장 협의회  
 2016. 08. 05. 2016년 하반기 조합원 노동교육(안동권역, 경북교육연구원)  
 2016. 08. 08. 2016년 하반기 조합원 노동교육(경산권역, 경산교육지원청)  
 2016. 08. 10. 2016년 하반기 조합원 노동교육(구미권역, 구미교통문화연수원)  
 2016. 08. 12. 2016년 하반기 조합원 노동교육(경주권역, 동국대 경주캠퍼스)  
 2016. 08. 16. 신규 시설관리직렬과의 대화(경북교육노조 사무실)  
 2016. 08. 17. ~ 19.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사관계 현장맞춤 연수(경주 코모도호텔)  
 2016. 08. 23. 신규 시설관리직렬 업무 효율화 관련 총무과장 협의  
 2016. 08. 24.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매일신문사 대회의실)  
 2016. 08. 24. ~ 25. 신규 시설관리직렬과의 대화 참석 학교 방문(영천, 성주, 칠곡, 문경)  
 2016. 08. 26. 2016년 전반기 회계감사  
 2016. 08. 29. 공무원 성과평가제 및 퇴출제 폐지 국회 앞 1인 시위(국회)  
 2016. 08. 30. 공공부분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 토론회 참석(국회)  
 2016. 09. 01. '지명종 13호 발간  
 2016. 09. 06. 3/4분기 노사협의회 일정 관련 행정과 협의  
 2016. 09. 12. 제27차 상임집행위원회  
 2016. 09. 21. 3/4분기 노사협의회(본청 본관 501 회의실)  
 2016. 09. 27.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우정노조 대구경북본부 회의실)  
 2016. 09. 30. 제65차 상임위원회(경북교육정보센터)  
 2016. 10. 05. 봉화지부 순회  
 2016. 10. 07. 영남권 노조 협의회 참석(대구시청)  
 2016. 10. 08. 사무관 면접 대상자 격려(경북교육연수원)  
 2016. 10. 08. 조리직렬 연수 참석(본청 응비관)  
 2016. 10. 10. 울릉지부장 이취임식(권혁한 지부장 취임)  
 2016. 10. 13. 시설직렬 간담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2016. 10. 15. 제28차 상임집행위원회(구미지부)  
 2016. 10. 15. 전직 시험 대상자 격려(금오공업고등학교)  
 2016. 10. 17. 신규 임용자 노동조합 홍보(경북교육연수원)  
 2016. 10. 21. 공노총 대경연합 협의회 참석(대구북구청노조 사무실)  
 2016. 10. 25.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경북교육노조 사무실)  
 2016. 11. 10. 제11차 공노총 대의원대회 참석(대전동구청)  
 2016. 11. 07. 교육감 간담회  
 2016. 11. 07. 부교육감 간담회

- 2016. 11. 07. 제29차 상임집행위원회(경북외국어고등학교 회의실)
- 2016. 11. 11. 제66차 상임위원회(경주교육지원청)
- 2016. 11. 11. 2016년 하반기 노사합동 봉사활동(경주 성애원)
- 2016. 11. 18.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영주)
- 2016. 11. 22.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청송)
- 2016. 11. 29.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영양, 예천)
- 2016. 11. 30. 제32차 대의원대회(본청 화백관)
- 2016. 12. 01.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경산)
- 2016. 12. 02.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칠곡)
- 2016. 12. 02. 영남지역 공무원노조 대표자 협의회 참석(창원)
- 2016. 12. 05.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문경)
- 2016. 12. 06.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봉화, 의성, 군위)
- 2016. 12. 07.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영천)
- 2016. 12. 07.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6. 12. 08.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경주, 청도)
- 2016. 12. 12.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구미)
- 2016. 12. 12.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
- 2016. 12. 13.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고령)
- 2016. 12. 14. 4/4분기노사협의회(본관 101 회의실)
- 2016. 12. 15.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김천)
- 2016. 12. 16. 2016년 하반기 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상주, 포항)
- 2016. 12. 19. ~ 21. 공노총 임원 연수회 참석
- 2016. 12. 22. 2016년 노사 실적보고회(교육감 참석, 경주)
- 2016. 12. 22. ~ 23. 2016년 하반기 노조 임원 워크숍(경주)
- 2016. 12. 30. LG BEST SHOP(안동 중앙점 안동 옥동점) MOU 체결

## 2017년

- 2017. 01. 02. 특수직무수당 관련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향의 방문(세종시)
- 2017. 01. 02. 2016년 활동보고서 발간
- 2017. 01. 12. 제19대 대통령 정부조직개편 국회토론회 참석(국회)
- 2017. 01. 13.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관련 총무과 협의
- 2017. 01. 14. 전국 시·도교육청연맹 대의원대회 참석(대전)
- 2017. 01. 16. 2017년 전반기 노사교육(포항 학생문화회관)
- 2017. 01. 17. 2016년 하반기 회계 및 결산 감사
- 2017. 01. 17. 안동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
- 2017. 01. 18. 2017년 전반기 노사교육(구미 교통문화연수원)
- 2017. 01. 18. 제30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7. 01. 19. 공노총 중앙위원회 참석

2017. 01. 20. 2017년 전반기 노사교육(경북도청)
2017. 01. 20. 제67차 상임위원회(경북교육노조 회의실)  
- 선거관리위원장 강기태 선출
2017. 01. 23. 성주지부 임원 및 대의원 간담회
2017. 01. 24. 경주지부 총회 참석
2017. 01. 24. 경산지부장 선거박영락 당선
2017. 01. 25. 전통시장보기 행사 참석
2017. 01. 25. 교육부 지방자치국장 면담(행정실 법제화, 유치원 검임 문제 등)
2017. 02. 03. 행정자치부장관 면담(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관련)
2017. 02. 15. 전국 시·도교육청연맹 대표자회의 참석
2017. 02. 17. 경북교육노조 임원과 교육위원회 위원 상견례 및 간담회
2017. 02. 20. 군위지부장 선거 김용수 당선
2017. 02. 21. 군위지부 총회 및 지부장 취임식 참석
2017. 02. 21. 경주지부장 선거 설성환 당선
2017. 02. 21. 영천지부장 선거 김상준 당선
2017. 02. 22.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2017. 02. 22. 의성지부장 선거 김종필 당선
2017. 02. 23. 고령지부장 이·취임식 참석
2017. 02. 24. 경산지부 총회 참석
2017. 02. 24. ~ 03. 07.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면담(복무조례 개정 관련)
2017. 03. 09. 김천지부장 선거 김정래 당선
2017. 03. 10. 제37차 가맹조합 대표자 회의 참석
2017. 03. 15. 제6기 경북교육노조 임원 선거  
- 김종기 위원장, 서종철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당선
2017. 03. 16. 영덕지부장 선거 박성렬 당선
2017. 03. 16. 경상북도의회 제291 임시회 개최에 따른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면담(복무조례 개정 관련)
2017. 03. 18. 제33차 대의원대회(본청 응비관)  
- 부위원장 최정연·신영찬·김태균·김진수 당선, 회계감사위원장 강종현 당선
2017. 03. 20. 방과후 교장제 관련 국회의원 항의 방문
2017. 03. 21. 문경지부장 선거 손봉원 당선
2017. 03. 22. 1/4분기 노사협의회(접견실)
2017. 03. 22. 제6기 임원 당선자와 교육감 면담
2017. 03. 22.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2017. 03. 23. 예천지부장 선거 권기일 당선
2017. 03. 24. 영주지부장 선거 김보경 당선
2017. 03. 27. 공무원노조법 개정관련 국회의원 면담
2017. 03. 28. 상주지부장 선거 이연희 당선
2017. 03. 28. 칠곡지부장 선거 최연성 당선

- 2017. 03. 29. 교육청연맹 임시 대표자 회의 참석
- 2017. 04. 04. 교육위원회 위원 면담
- 2017. 04. 07. 제68차 상임위원회(경산교육지원청)
- 2017. 04. 07. 김천자부 총회
- 2017. 04. 13. ~ 14. 노사합동워크숍
- 2017. 04. 17. 부교육감 간담회
- 2017. 04. 20. 교육위원회 의원 면담
- 2017. 04. 25. 제31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7. 04. 26.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7. 05. 12. 제6기 경북교육노조 집행부 출범식
- 2017. 05. 20. 제12회 한마음체육대회(김천종합운동장)
- 2017. 05. 22. 교육연맹 사무총장 협의회 참석(대전교육노조)
- 2017. 05. 25. 밝은 세상 안과 MOU 체결
- 2017. 05. 26. 소년소녀 가정돕기 사랑의 쌀 기증식
- 2017. 05. 26. 상임집행위원 노동교육
- 2017. 05. 26. 제32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7. 05. 29. 군위자부 순회
- 2017. 05. 31.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7. 06. 01. 행정지원국장 협의
- 2017. 06. 10. 제37회 운전직 교통안전연수 및 체육대회 참석(봉화)
- 2017. 06. 14. 교육청노조 대의원대회 참석
- 2017. 06. 14. ~ 16. 교육청연맹 임원 연수 참석
- 2017. 06. 15. 제69차 상임위원회(제주 호텔살롱)
- 2017. 06. 24. 조리직별 체육대회 참석
- 2017. 06. 28. 2/4분기 노사협의회(본관 101 회의실)
- 2017. 06. 29.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7. 07. 06. 중·고·병설교 방과후 수당 관련 감사관 협의
- 2017. 07. 07. '자명종' 14호 발간
- 2017. 07. 07. 경산자부 순회
- 2017. 07. 07. 한국노총 의장단 교육실무직 관련 협의
- 2017. 07. 12. 공무원 및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토론회 참석(국회)
- 2017. 07. 13. 성과급제 및 성과연봉제 폐지 기자회견 참석(서울 정부청사)
- 2017. 07. 14. 상반기 노사합동 봉사활동(SMS 군위 요양원)
- 2017. 07. 17. 성과급제 및 성과연봉제 폐지 1인 시위 참석
- 2017. 07. 18. 유연근무제 관련 집행부 협의(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인사과장, 본청자부 조합원)
- 2017. 07. 19. 교육청노조 가맹조합 대표자 회의 참석(부산교육노조)
- 2017. 07. 24. 성과급제 및 성과연봉제 폐지 1인 시위 참석
- 2017. 07. 26. 교육감과 지방공무원과의 대화
- 2017. 07. 28. 교육청노조 제2차 사무총장 회의 참석(대구교육노조)

- 2017. 07. 28.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7. 07. 31. 인사혁신처장 간담회 참석
- 2017. 08. 02. 제33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7. 08. 03. 군위지부 순회
- 2017. 08. 04. 경주지부 순회
- 2017. 08. 09. 하반기 조합원 노동교육(상주권역)
- 2017. 08. 10. 하반기 조합원 노동교육(안동권역)
- 2017. 08. 11. 하반기 조합원 노동교육(포항권역)
- 2017. 08. 16. ~ 18. 노조 간부 노동교육(군위군 백송스파비스 관광호텔)
- 2017. 08. 25. 2017년 상반기 회계감사
- 2017. 08. 28. 안동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MOU 체결
- 2017. 08. 30.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7. 09. 04. ~ 05. 교육청노조 임원 연수 참석(강원도 양양군 낙산비치호텔)
- 2017. 09. 15. 성과급제 폐지 1인 시위 참석
- 2017. 09. 20. 구미지부 순회
- 2017. 09. 21. 군위지부 순회
- 2017. 09. 22. 교육청노조 가맹조합 대표자 회의 참석(전남 화순군)
- 2017. 09. 25. 전통시장보내기 행사 참석(안동중앙신시장)
- 2017. 09. 27. 교육부장관 면담(서울 청사)
- 2017. 10. 10. 제34차 상임집행위원회
- 2017. 10. 11. 3/4분기 노사협의회(본관 101회의실)
- 2017. 10. 13. 제70차 상임위원회(경주교육지원청)  
- 경북교육노조 15년사 편찬위원장 박흥기 사무관
- 2017. 10. 13. 하반기 노사합동 봉사활동(경주 성애원)
- 2017. 10. 16.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성과주의 폐지 기자회견 참석(인사혁신처)
- 2017. 10. 18. 신규 임용자 노동교육(경상북도교육연수원)
- 2017. 10. 18. ~ 19.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성과주의 폐지 24시간 천막농성 참석(인사혁신처)
- 2017. 10. 21. 사무관 면접심사 격려
- 2017. 10. 25. 교육청노조 대의원대회 참석(전남 담양군 담양리조트)
- 2017. 10. 26. 청도지부 순회
- 2017. 10. 27. 군위지부 순회
- 2017. 10. 30. ~ 31.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성과주의 폐지 24시간 천막농성 참석(인사혁신처)
- 2017. 10. 31. '자명종 15호 발간
- 2017. 11. 06. 경산지부 임원 간담회
- 2017. 11. 08. 공노총 중앙위원회 참석(대전 동구청)
- 2017. 11. 09. 군위지부 임원 간담회
- 2017. 11. 11. 의성지부 연탄 나눔 행사 참석
- 2017. 11. 14. 봉화지부 임원 간담회
- 2017. 11. 17. 교육청노조 대표자 및 사무총장 회의 참석(인천교육청)



- 2017. 11. 22. 행정실 법제화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의 참석
- 2017. 11. 29.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성과주의 폐지 집회 참석(인사혁신처)
- 2017. 11. 29. 공노총 대의원대회 참석(세종 컨벤션센터)
- 2017. 11. 30. 사무관 연수 대상자 격려(중앙교육연수원)
- 2017. 12. 01. ~ 02. 고령지부 노사합동워크숍
- 2017. 12. 02. 제34차 대의원대회(군위군청)
- 2017. 12. 05. 포항지진 피해자 성금 전달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7. 12. 07. 4/4분기노사협의회(본관 101 회의실)
- 2017. 12. 11.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
- 2017. 12. 13. ~ 14. 공무원 성과급제 및 성과연봉제 폐지 집회, 기자회견 참석
- 2017. 12. 18. 경북교육노조 15년사 발간 협의
- 2017. 12. 21. ~ 22. 2017년 노사실적 보고회 및 노조 임원 연수회
- 2017. 12. 26. LG전자 BEST SHOP MOU 연장 체결
- 2017. 12. 27. 교육청노조 가맹조합 대표자 회의 및 사무총장 회의 참석

## 2018년

- 2018. 01. 04. 교육청노조 부위원장 면담
- 2018. 01. 04. 조리직별 회장단 면담
- 2018. 01. 12. 지부임원 간담회(영덕, 포항, 경주)
- 2018. 01. 15. 경북교육노조 15년사 발간 협의
- 2018. 01. 17. 지부 간담회(봉화, 영주, 예천, 의성)
- 2018. 01. 19. 지부임원 간담회(문경, 상주, 김천, 칠곡)
- 2018. 01. 22. 전반기 노동교육(구미권역, 금오공대)
- 2018. 01. 24. 제71차 상임위원회(경북교육노조 사무실)
- 2018. 01. 24. 전반기 노동교육(안동권역, 경북도청 동라관)
- 2018. 01. 26. 전반기 노동교육(경주권역,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2018. 01. 30. 지부임원 간담회(안동, 구미)
- 2018. 01. 30.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협의(복무 조례 개정 관련)
- 2018. 01. 30.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8. 01. 31. 교육부 학교혁신담당관 협의(행정실 특수직무수당 지급 관련)
- 2018. 02. 06. 지부임원 간담회(영양, 청송, 영천, 경산)
- 2018. 02. 07. 교육부 학교혁신담당관 협의(행정실 특수 직무수당 지급 관련)
- 2018. 02. 08. 6.13 지방선거 관련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협의
- 2018. 02. 09. 지부임원 간담회(고령)
- 2018. 02. 13.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석(경산 자인시장)
- 2018. 02. 20. 경북교육노조 15년사 발간 TF 협의
- 2018. 02. 23. 경산지부 및 경주지부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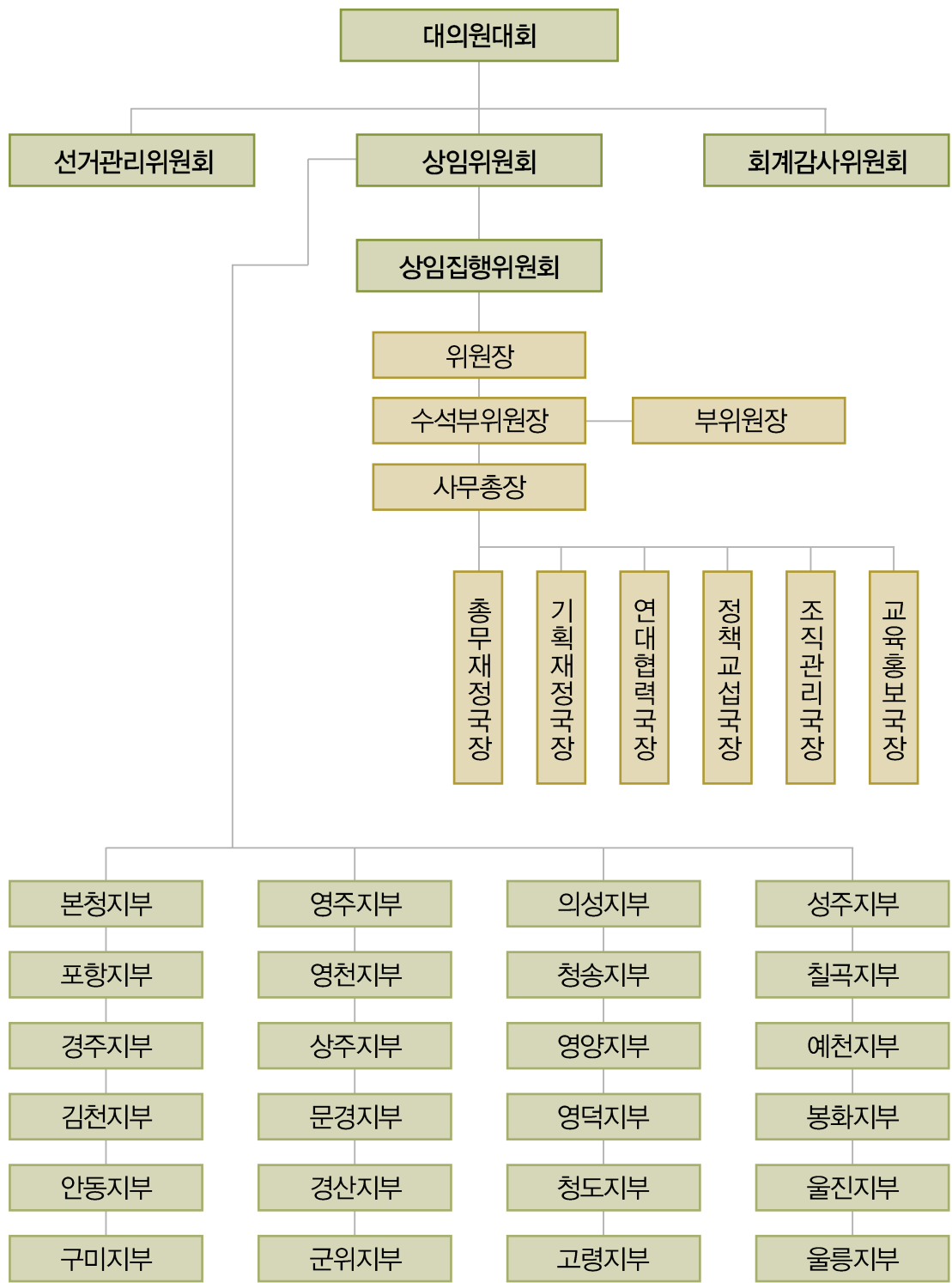
- 2018. 02. 24. 교육청노조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참석(대전교육청)
- 2018. 02. 26.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8. 02. 27. 성주지부장 선거
- 2018. 02. 27. 교육부 학교혁신담당관 협의(행정실 특수 직무수당 지급 관련)
- 2018. 03. 02. '지명종 16호 발간
- 2018. 03. 07. 교육감 면담(노조 현안 업무 관련)
- 2018. 03. 13.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8. 03. 13. 안동지부장 선거 권영국 지부장 당선
- 2018. 03. 22.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협의(복무 조례 개정 관련)
- 2018. 03. 22. 경북교육노조 15년사 발간 관련 TF 협의
- 2018. 03. 27. 지방분권 국회 토론회 참석
- 2018. 03. 27. 공노총 중앙위원회 참석
- 2018. 03. 27. 울릉지부 총회
- 2018. 03. 28. 2017년 하반기 회계 및 결산 감사(조합비 세입·세출, 특별회계)
- 2018. 03. 29. 1/4분기 노사협의회(본관 302회의실)
- 2018. 03. 30. 교육청노조 대표자회의 참석(경남교육청)
- 2018. 04. 06. 제72차 상임위원회(영천교육지원청)
- 2018. 04. 10. 경산지부 순회
- 2018. 04. 19. 조직개편 관련 행정과 협의
- 2018. 04. 26. 안동지부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참석
- 2018. 04. 27. 경북교육노조 15년사 발간 TF 협의
- 2018. 05. 02. 학교 조직 법제화 법안 공론화 국회 토론회 참석
- 2018. 05. 02. 청도지부장 선거 김광현 지부장 당선
- 2018. 05. 10. 예천지부 순회
- 2018. 05. 11. 교육청노조 대표자 회의 참석(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2018. 05. 12. 제13회 한마음체육대회(금오공고)
- 2018. 05. 1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교육감 후보자 교육정책 공개질서 발송
- 2018. 05. 16. 예천지부 임원 협의
- 2018. 05. 17. 봉화지부 임원 협의
- 2018. 05. 24. 문경지부 임원 협의
- 2018. 05. 25. 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답변서 홈페이지 탑재
- 2018. 05. 25. 고령지부 노사합동 워크숍 참석
- 2018. 05. 28. ~ 29. 교육청노조 대정부 단체교섭 교육(대전 인터시티호텔)
- 2018. 06. 01. '지명종 17호 발간
- 2018. 06. 05. 교육부 학교혁신과장 면담(행정실 법제화 후속조치 및 수당 관련)
- 2018. 06. 08. 안동지부 임원 협의
- 2018. 06. 12. 교육감 면담
- 2018. 06. 19.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협의
- 2018. 06. 22. 제35차 대의원대회(경상북도교육청)

- 2018. 06. 27. 2/4분기노사협의회(본관 101 회의실)
- 2018. 06. 28. 이영우 교육감 퇴임식 참석
- 2018. 07. 02. 제17대 임종식 교육감 취임식 참석
- 2018. 07. 04. 공노총 중앙위원회의 참석대전 동구청)
- 2018. 07. 05. 인사혁신처 규탄 기자회견 참석(청와대 앞)
- 2018. 07. 09. 경북교육발전기획단 출범식 참석
- 2018. 07. 12. 2008년 대정부 단체교섭 7분과교섭 참석(정부세종청사)
- 2018. 07. 19. 상임집행위원회
- 2018. 07. 20. 제73차 상임위원회(경주교육지원청)
- 2018. 07. 25.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8. 07. 27. 교육청노조 대표자 회의 참석
- 2018. 08. 06. 2018년 전반기 회계감사
- 2018. 08. 09. 하반기 조합원 노동교육(경북도청 동락관)
- 2018. 08. 10. 하반기 조합원 노동교육(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 2018. 08. 16. 교육청노조 가맹조합 대표자 회의 참석
- 2018. 08. 16. ~ 17. 임원 노동교육(문경)
- 2018. 08. 31. 2008년 대정부 단체교섭 7분과교섭 참석
- 2018. 09. 03. 공무원노조법 개정 토론회 참석(국회의원회관)
- 2018. 09. 12.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8. 09. 13.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시 노조 홍보(경북교육연수원)
- 2018. 09. 17.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참석(경주 성동시장)
- 2018. 09. 29. ~ 30. 운전직 교통안전 연수 및 체육대회 참석(경주 서라벌문화회관)
- 2018. 10. 01. '자명종 18호 발간
- 2018. 10. 02. 공무원 제단체 문재인정부 규탄대회 참석(청와대 앞)
- 2018. 10. 05. 3/4분기노사협의회(본관 101 회의실)
- 2018. 10. 13. 경북 학교 조리사 한마음대회 참석(의성학생체육관)
- 2018. 10. 15. 김천, 구미, 칠곡, 경산, 청도지부 지부장 협의
- 2018. 10. 20. 사무관 승진 대상자 면접 시험 격려(풍천중)
- 2018. 11. 06. 조합원과 교육감간의 참 좋은 대화
- 2018. 11. 07. ~ 09. 교육청노조 임원 노동교육 참석
- 2018. 11. 12. 행정사무감사 지역교육청 방문(영주)
- 2018. 11. 13. 행정사무감사 지역교육청 방문(영양)
- 2018. 11. 16. 행정사무감사 지역교육청 방문(성주), 상임집행위원회
- 2018. 11. 21. 제74차 상임위원회(군위교육지원청)
- 2018. 11. 21. 노사 합동 봉사활동(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 2018. 11. 21. 경북교육노조 15년사 발간 협의
- 2018. 11. 22. 대경공공노조협의회 참석
- 2018. 11. 26. 장기자직 휴가 조례개정 교육위원회 통과
- 2018. 11. 29. 4/4분기노사협의회(본관 101 회의실)

- 2018. 12. 03. 사무관 연수자 격려(중앙교육연수원)
- 2018. 12. 05. 경북교육노조 15년사 발간 협의
- 2018. 12. 06. 노사실적보고회
- 2018. 12. 06. ~ 07. 노사합동 연수회(경주 코모도호텔)
- 2018. 12. 14. 장기재직 휴가 조례개정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통과
- 2018. 12. 20.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
- 2018. 12. 21. 제36차 대의원대회(경북교육청 응비관)
- 2018. 12. 21. 경북교육노조 15년사 출판기념회(경북교육청 응비관)

| 부 록 |

조직도  
역대임원



## 노조(법외)

2004~2006

위원장



이철연

수석부위원장



정대림

부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



김호영

부위원장



황정사

사무총장



안길운

대변인



박홍기

회계감사위원장



이영욱

선거관리위원장



오건택

위원



최연성

위원



김순환

위원



이명구

위원



손정수

# 1기 노조

2006~2008

위원장



이철연

수석부위원장



김종기

부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



최상조

부위원장



황정자

사무총장



김태균

사무총장



박홍기

회계감사위원장



임상길

선거관리위원장



오건택



## 2기 노조

2008~2011

위원장



이철연

수석부위원장



김태균

부위원장



김종기

부위원장



황정사

사무총장



박홍기

사무총장



박귀훈

사무총장



김광현

회계감사위원장



임상길

### 3기 노조

2011~2013

위원장



이철연

수석부위원장



황금영

부위원장



김덕기

부위원장



이영욱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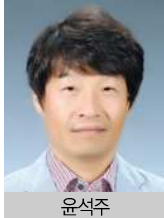
이재성

부위원장



정순재

사무총장



윤석주

사무총장



안승완

회계감사위원장



김형한

선거관리위원장



정대림

## 4기 노조

2013~2015

위원장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박홍기

부위원장



김태균

부위원장



박재훈

부위원장



장웅복

부위원장



전미경

사무총장



정원상

회계감사위원장



김종웅

선거관리위원장



정대림

기획정책국장



최대철

총무재정국장



이제복

정책교섭국장



서중철

연대협력국장



설성환

조직관리국장



신영찬

교육홍보국장



최정연

여성복지국장



김정교

# 5기 노조

2015~2017

위원장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박홍기

부위원장



김태균

부위원장



장응복

부위원장



최정연

부위원장



이명구

사무총장



정원상

회계감사위원장



김중웅

선거관리위원장



박규훈

총무재정국장



이재복

기획조정국장



박달원

연대협력국장



설상환

정책교섭국장



서종철

조직관리국장



손효승

교육홍보국장



정정옥

## 6기 노조

2017~현재

위원장



김종기

수석부위원장



서종철

부위원장



김태균

부위원장



최정연

부위원장



신영찬

부위원장



김진수

사무총장



정원상

회계감사위원장



강종현

선거관리위원장



강기태

총무재정국장



이제복

기획조정국장



김상은

연대협력국장



박달원

정책교섭국장



배응호

조직관리국장



정정옥

교육홍보국장



전현철

## 직협 1기

1999~2004



회장 김명곤

## 직협 2기

2004~2006



회장 이철연

| 부 록 |

강령  
규약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강령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노동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하여 「국민에게 참봉사」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 강령을 제정·선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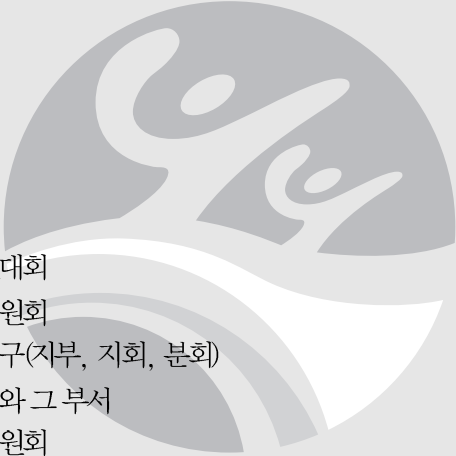
1. 우리는 국내의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노동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2.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 회복하여 인간적인 삶을 실현한다.
3.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인식하고 노동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상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문화를 선도한다.
5. 우리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여 공무원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국가이익 수호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관료주의 병폐를 과감히 타파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한다.
7. 우리는 공직사회내부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실현한다.
8. 우리는 국내·외의 공무원독자노조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의 통일을 기원한다.
9.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한다.
10. 우리는 인간존중의 보편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2004. 11. 26.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05. 03. 25. 제정)  
(1차개정 2006. 03. 04)  
(2차개정 2006. 07. 13)  
(3차개정 2007. 02. 10)  
(4차개정 2008. 02. 15)  
(5차개정 2008. 07. 25)  
(6차개정 2009. 08. 22)  
(7차개정 2010. 02. 27)  
(8차개정 2010. 09. 10)  
(9차개정 2012. 08. 18)  
(10차개정 2013. 07. 12)  
(11차개정 2017. 12. 02)

- 
- 제1장 총칙
  - 제2장 조합원
  - 제3장 조직 및 기구
    - 제1절 총 칙
    - 제2절 대의원대회
    - 제3절 상임위원회
    -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 제6절 특별위원회
    -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10절 자문기구
  - 제4장 임원
  - 제5장 재정
  -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 제7장 해산
  - 제8장 보칙
  - 부 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Gyeongbuk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GEPU) 이라 한다.(개정 2007. 02. 10)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3.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4.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교육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결성) 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 가맹한다(조개정 2010. 02. 27)

##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소속의 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퇴직한 조합원,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금지 공무원은 후원회원(준조합원) 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별표1)을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3. 04)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후원회원(준조합원)은 제2항의 권리와 제3항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에 자의로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다.

제10조(양성평등) 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구제)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운영및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개정 2010. 09. 10)

제12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조직 및 기구

###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상임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각 지부, 지회, 분회
8. 사무처와 그 부서
9. 자문기구

② 제8장 보칙 제1절의 상임집행위원회(조 신설 2009. 08. 22)

제14조(위원장, 사무총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2.08.18)

②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2. 08. 18)

③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권한) ①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서 산하 지부(지회)에서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의 임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개정 2006. 03. 04)

③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명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
10.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조 신설 2009. 08. 22)

제16조(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2007. 02. 10) (개정 2017. 12. 02)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 03. 04)

제17조(회의) ①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제정·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분할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03. 04)

②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해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개정 2006. 03. 04)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 ①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50인당 1인을 배정하고, 50인을 초과하는 단수 30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5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인씩을 배정한다.(개정 2010. 09. 10)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⑤ 당연직 대의원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지부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조신설 2006. 03. 04)

### 제3절 상임위원회

제19조(권한) 상임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수정 2009. 08. 22).

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입사항 처리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 03. 04)
-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 권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제21조(소집과 회의) 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수정 2009. 08. 22)
-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2조(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 ①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 ②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 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 분회장을 둔다.

-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 한다
- ③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조합과 지부, 지회·분회의 관계) ①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5조(구성) 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삭제 2013. 07. 12)

제27조(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상근직원)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9조(기능) 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수입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제6절 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제30조(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현안사업과 조합 발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속의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08. 07. 25 신설)

제31조(특별위원장·정책연구소장의 임명과 임기) ①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2008. 07. 25 개정)

②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2008. 07. 25 개정)

③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0. 9. 10 개정) (개정 2017. 12. 02)



###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0. 09. 10 개정) (개정 2017. 12. 02)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0. 09. 10개정) (개정 2017. 12. 02)
- ④ 각종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 03. 04)
- ⑤ 선거에 관한 규약 ·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4조(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2. 02)
-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0. 09. 10) (개정 2017. 12. 02)

제36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 ③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절 자문기구

제37조(고문)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단) 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장 임원

제39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 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4명(개정 2010.09.10)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제4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1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2조(임원의 선거) ① (삭제 2010. 09. 10)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개정 2012. 08. 18)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부위원장(여성부위원장포함),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09. 10)

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02)

제43조(임원의 자격) ①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써 1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하되, 창립 초대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6. 03. 04)

② (삭제 2006. 03. 04)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 12. 02)

②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7. 12. 02)

제45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5장 재 정

제46조(재정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7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8조(조합비)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특별기금 등) 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50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삭제 2006. 03. 04)

제51조(조정신청 등)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 결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지부에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2. 조합 및 지부는 1호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해도 동일하다.

## 제7장 해산

제52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3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8장 보칙

### 제1절 상임집행위원회(신설)

제55조(상임집행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2.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3.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4.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보고서의 심사
5.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56조(상임집행위원회의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총장
3. 본부 각 국장

제57조(상임집행위원회의 소집과 회의)

- ①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02)
- ② 상임집행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2005. 0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 조합비에 관한 제48조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 ① 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 ② (삭제 2017. 12. 02)
- ③ 본 조합에 필요한 일정액의 조합원 1인당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 규약 제39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열리는 첫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의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6. 03. 04.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07. 13.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2. 10.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07년 2월 10일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로 같음한다.

부칙(2008. 02. 15.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7. 25. 제11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8. 22. 제14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2. 27. 제1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8. 18. 제2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7. 12. 제2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02. 제34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록 |

# 단체협약서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단체협약 (2006년)

## 전 문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2조[성실의 의무]

- ① 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 ② 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자치법규의 제·개정]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및 훈령(행정지침 포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

- ① 본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근로기준 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규칙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

한다.

- ② 교육감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 활동

###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

-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 총회
  2.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 회의
  3. 정책협의회,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회의 참석
  4.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 ③ 교육감은 공무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시 1시간의 공무원노동 관련 과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장에게 지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도록 한다.
- ④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 이내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 ⑤ 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선출직)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6조[부당노동행위금지] 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7조[조합비 일괄 공제]

- ① 교육감은 조합의 의뢰가 있는 경우 조합비를 본인에 대한 확인 행위 없이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신규가입 및 탈퇴 조합원이 있을 경우 명단을 급여 지급일 7일전까지 해

당 조합원 급여 처리기관장(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조합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 내역을 전보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후원회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 제8조[시설편의 제공]

- ① 교육감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
- ② 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③ 교육감은 조합이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교육감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폐지학교를 포함한 각종 시설을 조합이 사용 요청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해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 교육감은 경북교육발전과 건전한 직장문화조성을 위하여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연구 행사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통지의 협조] 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

- 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폐(홈페이지 게재로 대체가능)
  - 2.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 사항
  -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 4.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수첩
  - 5. 각급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 ② 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
  -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제11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자료·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

제12조[홍보활동보장] 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3장 인사 및 조직

제13조[조직·인력 적정배분]

- ① 교육감은 산하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 경력자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수립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노력한다.

제14조[사무관승진제도의 방법 개선]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관련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다.

제15조[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

- ①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권리와 승진·보수 등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쳐 채용예정인원 중에 적정비율의 인원을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검토한다.
- ③ 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제16조[직위공모제 실시] 교육감은 특정직위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직속기관장 보임 개선] 교육감은 직속기관장의 보임 직렬을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18조[전보 인사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 교육감은 정기 인사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지방공무원의 인사발표 시기 개선] 교육감은 정기인사(1월,7월)시 10일 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인사예고제 실시]

- ① 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개요를 예고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21조[모범공무원 등 표창제도의 합리적 개선] 교육감은 표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 상자의 재직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를 기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 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 ①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현행 일반직 정원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위직급 배치비율이 적정화 되도록 노력하고, 전문직렬 (소수직렬) 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채정을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다면평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 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제23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 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4조[국외연수 확대] 교육감은 국외연수 기회 확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한다.

제25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동호인모임이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제26조[보직관리규정 정비]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 제5장 단체교섭

### 제27조[합의서 작성]

- ① 단체교섭에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육감과 조합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
- ② 교육감은 교섭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 제28조[단체협약 이행]

- ①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연 1회 조합에 통보한다.
- ② 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29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

- ①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 ②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행정실 소관 업무 등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가 행정실에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학교장이 부당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30조[보충협약 기태] 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장 근로조건

제31조[대체인력 지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2조[행정실 등 사무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

- ① 교육감은 각 사무실에 음료수 및 커피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기 및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② 도교육청은 행정실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자체 실정을 고려·설치하도록 지도한다.

제33조[업무대행]

- ① 교육감은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대행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위생원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제34조[당직실 근무환경 등]

- ① 교육감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실에 발신자 표시 및 녹취 가능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당직수당이 인상되도록 추진한다.

제35조[공무원 피복] 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방호원, 사무원(외근) 및 조무원: 작업복
2. 위생원: 위생복
3. 운전원: 운전복

제36조[정기 간담회]

- ① 교육감은 제5조 제2항 3호 정책협의회와 관련하여 연2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며, 협의안은 개최 10일전에 통보한다.
- ② 안건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관련 업무부서에서 참석한다.

제37조[근무환경개선]

- ① 교육감은 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직원 휴게실을 유희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교원 휴게실을 교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권장한다.
-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본청과 직속기관에 직원휴게시설이 없는 경우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한다.

제38조[직원 동원 최소화] 교육감은 교육청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시험감독 등)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제39조[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 제7장 교육재정

제40조[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 경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강구에 노력한다.

제41조[예산집행의 적정성]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2조[예산의 합리적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계획적인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즉흥적, 일회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노력한다.

## 제8장 공무원 권리보장

제43조[육아시간]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된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4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교육감은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5조[병설유치원 겸임수당]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여 처리할 때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 제9장 행정 제도 개선

제46조[교원인사 및 복무 이관]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상훈, 복무 업무, 인사기록카드정



리 업무 등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에서 담당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제47조[교직원업무경감 방안] 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8조[방화관리자 업무 등]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일반직 1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대해서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9조[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관리 및 공사지원팀 또는 담당자를 신설(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0조[학교시설물 관리]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51조[감사방법 등]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긴급적이면 학년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이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진력하도록 한다.

제52조[교직원 휴양시설 확충

- ① 교육감은 주 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추진에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휴양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당해 기관의 학생수련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3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노력한다.

## 제10장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제54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공무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5조[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를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되도록 건의한다.

#### 제56조[도의회 서류제출]

- ① 교육감은 도의원이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도의회에 요구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도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요구하도록 요청한다.

제57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8조[열린공간 운영] 교육감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59조[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대여 사업] 교육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인 교원복지대여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내 지원한다.

## 부 칙

#### 제1조(유효 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이행방법) 교육감은 단체협약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행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지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

제3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교육감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년 6월 28일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단체협약 (2013년)

## 전 문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2조[성실의 의무] 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제3조[자치법규의 제·개정]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및 훈령(행정지침 포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 제2장 조합 활동

###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

- ① 교육감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 운영에 대하여 방해 또는 개입하지 아니하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 총회
  2.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 회의
  3.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회의 참석
  4.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 ③ 교육감은 공무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시 신규직원 연수(2시간 이상) 및 전문교육 개설(기급적)시 공무원노동관계 관련 교과목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 ④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 ⑤ 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선출직)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6조[부당노동행위금지] 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7조[시설편의 제공]

- ① 교육감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
- ② 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③ 교육감은 조합이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④ 교육감은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당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도록 지도한다.

제8조[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 교육감은 경북교육 발전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행정 관련연구 행사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통지의 협조] 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

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폐(홈페이지 게재로 대체가능)
2.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 사항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4.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수첩
5. 각급 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② 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제10조[문서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자료·정보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

제11조[홍보활동보장] 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3장 인사 및 조직

제12조[조직·인력 적정배분]

- ① 교육감은 관할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수립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하

게 책정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정보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서를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감은 전문직렬(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추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노력한다.
- ⑥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 ⑦ 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행정실을 확대(학사 및 재정)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3조[일반직 공무원 처우 개선]

- ①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한 일반직의 상위직급 정원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소규모학교 1인 행정실장의 근무여건을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공립 유치원 행정전담 인력이 연차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의 정기 간담회를 년 2회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감은 학교장 부재시 징수 및 원인행위를 대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회계관련 전결위임규정)

제14조[각급학교 근무시간]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전보 인사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 교육감은 정기 인사 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6조[지방공무원의 인사발표 시기 개선] 교육감은 정기인사(1월, 7월)시 7일 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7조[인사예고제 실시]

- ① 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개요를 예고하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제18조[모범공무원 등 표창제도의 합리적 개선]

- ① 교육감은 표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상자의 재직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

정 안배를 기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경북교육상에 교육행정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제19조[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 ① 교육감은 근무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 비정규직 업무 전담팀을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③ 조합은 노동조건개선 및 근무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정원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필수실무요원 선발인원 및 기준을 직렬별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제20조[도교육청 근무자 기준 개선] 교육감은 도교육청 근무자를 선발할 때 학교근무 경력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1조[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공공도서관 분관 근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인력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사무직렬의 정원을 일반직 전환할 시 사서직 정원으로 충원되도록 노력한다.

## 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제22조[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 ①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보수 등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일반직 전환시험 등으로 상위직급 과원이 발생한 기능직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 ④ 교육감은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학교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감은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 등 현장에서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계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장에게 권장한다.

제23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국외연수 확대 등]

- ① 교육감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기회 확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게도 공로연수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제25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동호인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제26조[보직관리규정 정비]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시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제27조[수당 신설 등] 교육감은 학교에서 정부 시책사업 및 각종 연구·시범학교 등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직관리 규정 개정시 검토한다.

## 제5장 단체교섭

제28조[합의서 작성]

- ① 단체교섭에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육감과 조합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
- ② 교육감은 교섭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소속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9조[단체협약 이행]

- ①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반기별로 조합에 통보한다.
- ② 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0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

- ①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 ②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1조[보충협약 기태] 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장 근로조건

제32조[대체인력 지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3조[행정실 등 사무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

- ① 교육감은 환경 개선에 따른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도교육청은 행정실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자체 실정을 고려·설치하도록 한다.

제34조[업무대행]

- ① 교육감은 운전원의 토요일과 후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등 그에 상응하는 대가(시간외수당)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 대행문제 해결 방안(예비기사 확보,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노력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조리사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제35조[당직실 근무환경 등]

-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실의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당직수당을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당직을 할 경우 다음 날 반일휴무가 아닌 종일휴무가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제36조[공무원 피복] 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1. 방호원, 사무원(외근) 및 조무원: 작업복

2. 조리사(원) : 위생복

3. 운전원 : 운전복

#### 제37조[협의회 개최]

- ① 교육감은 제5조제2항3호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분기별로 개최하며, 협의 안건은 개최 10일전에 통보한다.
- ② 노사협의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회 개최를 위해 대표자를 행정지원국장으로서 하고, 관련 업무부서에서 참석한다.

#### 제38조[근무환경 개선]

- ① 교육감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급직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기존 교원 휴게실을 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한다.
-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모든 급식실에 냉온풍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 ④ 교육감은 교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 제39조[직원 동원 최소화]

- ① 교육감은 교육청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시험감독 등)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기초 연수 및 각종행사 개최를 최소화하며 지방공무원의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40조[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 제7장 교육재정

제41조[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 경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42조[예산집행의 적정성]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제43조[예산의 합리적 편성] 예산의 편성은 즉흥적이거나 일회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 제8장 공무원 권리보장

제44조[육아시간]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된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교육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46조[민간경력 인정]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 인정 추진에 있어서 행정보조, 과학보조 등의 경력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제47조[맞춤형 복지비 인상]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지자체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한다.

## 제9장 행정 제도 개선

제48조[행정실 업무 개선 방안]

- ① 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교원업무가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업무 전반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감은 새로운 회계시스템 도입 등 갈수록 증가하는 학교 행정업무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을 증원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책임감과 전문성 있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감은 중·고 병설학교의 경우 교무실과 마찬가지로 행정실도 중·고별로 분리 설치하여 맞춤형 학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급식 점검, 유해업소 점검 등 보건업무의 증가에 따른 보건직

공무원의 충원 노력을 통해 보진직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⑦ 교육감은 5급 학교행정실장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행정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⑧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일반직 과장급 보직이 2개 이상인 지역은 선임 과장직급 및 선임 담당직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제49조[방화관리자 업무 등] 교육감은 1인 행정실장 배치 학교에 대해서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0조[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

①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 공사 업무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제를 활성화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전담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시설직공무원의 연차적 충원·배치 노력을 함으로써 행정실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제51조[학교시설물 관리] 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2조[감사방법 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정기종합감사를 면제한다.

제53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복잡한 업무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4조[승진제도개선 등]

① 교육감은 사무관승진을 위한 심사방법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예고(공개)한다.

② 교육감은 승진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퇴직예정자 현황 등)를 공개한다.

제55조[조리종사원 인력배치 기준 변경 등]

① 교육감은 원활한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적정히 운영하고 위생 점검 시 현실에 맞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을 학교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

력한다.

## 제10장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제56조[호봉상한제 폐지]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호봉상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제57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

- ①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근무일수 제외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제58조[초·중등교육법 개정]

-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를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로 개정되도록 건의한다.
- ② 교육감은 행정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법제화되도록 노력한다.

제59조[도의회 서류제출]

- ① 교육감은 도의원이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도의회에 요구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도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요구하도록 요청한다.

제60조[병설유치원 전담인력 확충]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 부 칙

### 제1조(유효 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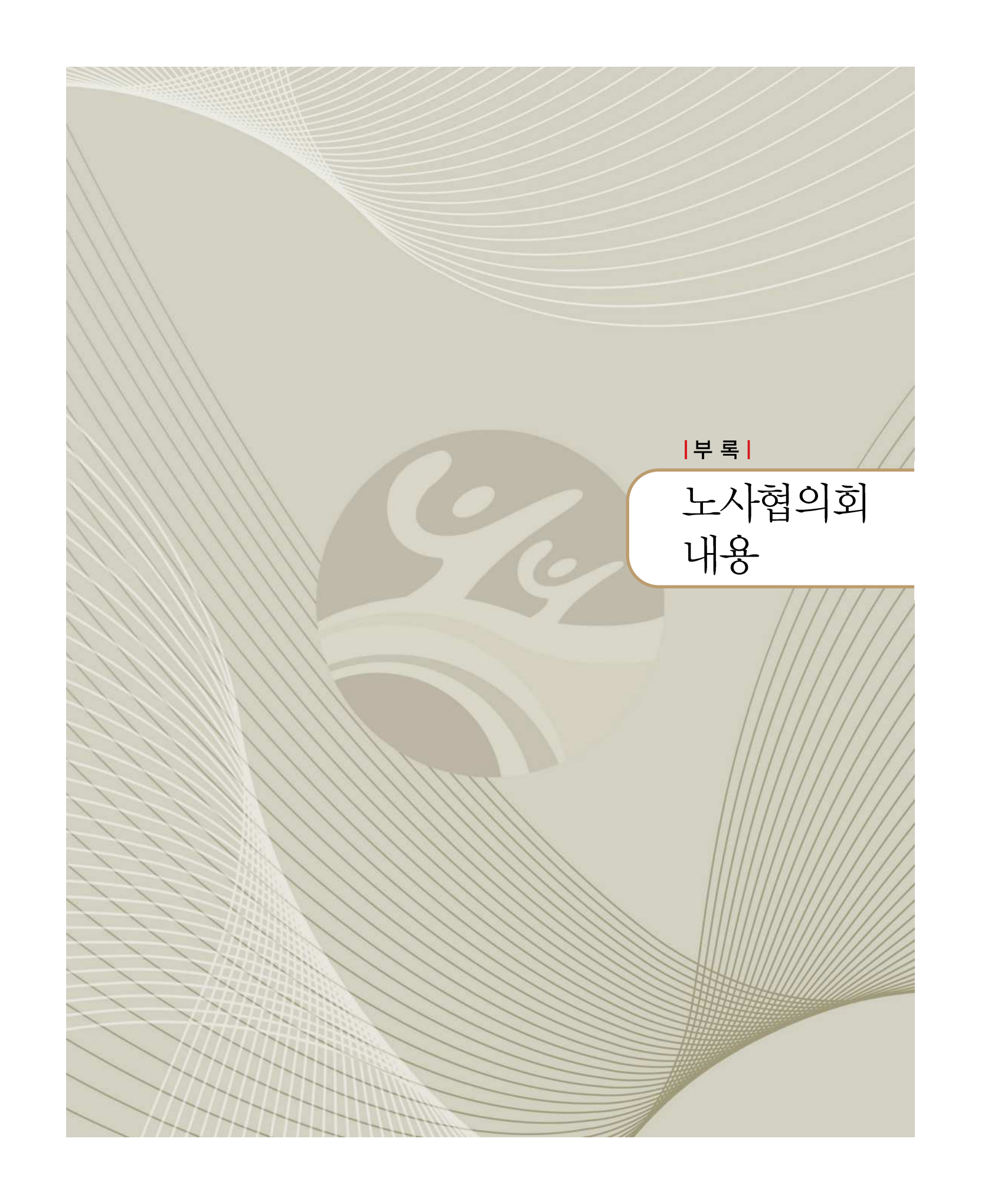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이행방법) 교육감은 단체협약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행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지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

제3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교육감과 조합이 각 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4년 3월 17일

The background features a light beige color with a pattern of thin, wavy lines that create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 In the center, there is a circular logo with a stylized, abstract design in shades of brown and beige, possibly representing a person or a group of people.

| 부 록 |

노사협의회  
내용

## 2014년 2/4분기

1. 일 시 : 2014. 7. 17.(목) 14:00~15:40
2. 장 소 : 경북교육청 본관 4층 대회의실
3. 주요내용 : 20년 이상 장기 재직 특별휴가, 행정실장 보직화 조례제정, 사무관 시험 시 소양고사 과목 상시 교육화
4. 협의내용

노동조합 의견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20년 이상 장기 재직 특별휴가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복무규정의 개정이 요구됨</li> <li>; 10~19년 : 10일 20~29년 : 20일, 30년 이상 : 20일(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4개청서울, 광주, 강원 전남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임.</li> <li>• 장기재직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li> </ul>	<input type="checkbox"/> 수정수용 도청 '14.5.15. 예고과 같이 20년이상 장기재직자에게 20일이내의 특별휴가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2. 행정실장 보직화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의 보직이 법령으로 미제정되어 업무분장시 혼선 발생되므로 관련 조례 개정하여 인사발령시 행정실장으로 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실장 직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인사발령 사항에 명시할 필요가 없음</li> </ul>	<input type="checkbox"/> 장기검토 행정실장 보직화는 추후 보직관리규정 개정 시 공청회 등 의견 수렴후 추진
4. 시설관리 직렬 결원에 관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결원으로 각급학교의 효율적인 학교 시설물 관리와 인력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관리 직렬 결원 해소 방안의 강구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리직렬 결원현황 : 정원821명, 현원683명, 결원138명(16.8%)</li> <li>• 향후 학교수 감소 등 인력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원에 대한 다양한 채용방법을 검토 추진</li> </ul>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시설관리직렬 결원 총원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
5. 노사합동워크숍 개최에 관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도 노사합동워크숍 일정 등 전반에 대하여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합동워크숍은 노조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li> </ul>	<input type="checkbox"/> 수용 노조측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
6. 한미음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도 한미음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개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음체육대회는 추가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노조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되 추가예산 미확보 시 ·군별로 개최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li> </ul>	<input type="checkbox"/> 수용 노조측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
7. 단체협약 이행(노동교육)에 관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협약 제5조③ ④항에 따라 동하절기 지부 노동교육, 교육연수원 노동교육실시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실시 계획 및 실사가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원의 교육시 노동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며,</li> <li>• 시·군자부별 노동관련 교육에 대한 노조측의 요구나 협조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검토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음.</li> </ul>	<input type="checkbox"/> 수용 노동교육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노조와 협의하여 지원
8.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학차량에 설치된 안전벨트중 일부가 성인용이어서 어린이 체형에 부적합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자동 안전띠로 교체하고 승하차보호기 운전석 옆면과 조수석 뒷면 끝에도 장착하여야 실효성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교는 통학차량에 자동으로 조절되는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지도하고, 통학차량에 승·하차 보호기를 탑재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도</li> </ul>	<input type="checkbox"/> 수정수용 학교 보유한 차량에 한해 차량교체 시기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2014년 3/4분기

1. 일 시 : 2014. 10. 16.(목) 14:00~15:40
2. 장 소 :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3. 주요내용 : 필수요원 지정 확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 복지 대책, 전일제 당직휴무
4. 협의내용

노동조합 의견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요구		
1) [20년 이상 장기 재직 특별휴가 조례 제정	• 2015.1.1.자로 시행토록 조례개정 추진	추진 중
2) 행정실장 보직화 조례 제정	• 2015.1.1.자로 행정실장 보직발령 추진	추진 중
3) 사무관 시험시 소양고사과목 상시교육해	•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사유로 반대의견이 많아 당장 도입은 불가능	수용불가
4) 시설관리 직렬 결원에 관한 건	• 종합적인 계획 수립후 향후 추진	장기검토
5) 노사협동워크숍 개최에 관한 건	• 10. 30. ~ 31. 경북학생해양수련원 계획하여 추진 중	추진 중
6)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건	• 11. 8.(토) 의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추진 중	추진 중
7) 단체협약 이행(노동교육)에 관한 건	• 시·군자부별 노동관련 교육 실시 발송했으며 2015년 권역별 실시토록 예산요청	추진 중
8)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 2015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권장	추진 중
2. 지역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급식지원담당 증설 • 학교 보건 급식관리 업무의 다양화와 업무증가에 따른 급식지원담당부서 증설 및 보건 정원 증원 요구	• 급식지원담당부서 증설 및 보건 정원 확대는 교육청 전체적인 업무추진의 형평성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2015년 3개청 담당부서 증설	일부수용
3. 필수요원 지정 확대 • 필수요원 부족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수요원 지정 확대가 요구됨 - 1~2% 범위 내에서 확대	• 승진심사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필수요원 신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비율로 운영하면서 문 제점이 발생 시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함	일부수용
4.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복지 대책강구 • 2015년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및 이주 직원에 대한 복지 대책 강구 - 직원 주거 대책 정착금 지급등	• 직원 연립주택 매입(56세대) 및 전세자금 지원 통근 버스 운행(5대), 이주 지원비 지원(월30만원 3년 조 례 제정 추진 • 기타 정주여건은 제반여건 검토후 추진	일부수용
5. 보직관리 규정 • 교장명모제 학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보장 - 각종 연구학교나 신선편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요망	•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센티브 보장하기 어려우나 향후 보직관리규정 개정시 가산 점 부여 등을 검토	수용불가
6. 전일제 당직 휴무 • 전일제 당직 휴무를 보장함으로써 당직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	• 강원, 울산교육청과 경북도청이 시행하고 있어 2015. 1. 1.부터 시행토록 추진	수용

## 2014년 4/4분기

1. 일 시 : 2014. 12. 15.(목) 14:00~15:40
2. 장 소 :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3. 주요내용 : 지역별·기관별 근무만기자사전예고제 도입, 사무관 승진 심사 제도 개선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의견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2, 3/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요구		
1) 2/4분기 안건 추진 현황 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의견]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안내	수용
2) 3/4분기 안건 추진 현황 가. [필수요원 지정 확대]	• 현 비율을 유지하되, 문제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 검토	일부수용
2. 지역별, 기관별 근무만기자 사전 예고제 도입 • 전보 내신 제출 시 기관별, 지역별 근무만기자에 대한 사전 정보 미흡으로 조합원의 희망지 선택의 어려움 해소	•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장기적으로 추진	일부수용
3. 사무관 승진 심사 제도 개선 • 사무관 승진 심사 제도 개선을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장기적으로 검토	장기검토
4. 학교 시설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 학생들의 안전 위협과 학교 시설물 무단 사용을 제한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통제의 어려움	• 학교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법규 기 제정하여 운용	수용불가
5. 교육행정 현장의 소리 청취 결과 협의 • 노사합동 교육행정 현장의 소리 청취 시 수렴된 의견 조치	• 수렴된 사안별 정리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수용
6. 전일제 당직 휴무 • 전일제 당직 휴무를 보장함으로써 당직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	• 강원, 울산교육청과 경북도청이 시행하고 있어 2015. 1. 1.부터 시행토록 추진	수용

## 2015년 1/4분기

1. 일 시 : 2015. 2. 12.(목) 14:00~17:00
2. 장 소 :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3. 주요내용 : 감사제도 개선, 장기재직휴가 실시에 따른 문제점 개선, 학교 통학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 제고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감사제도 개선		
1) 지역교육지원청 감사편 위임	상위법령 개정 필요, 실효성 문제 고려	수용불가
2) 종합감사 실시 지역소재 학교 필요사항 감사	교육지원청감사 시 관내 소규모학교 컨설팅 감사 확대 계획	수용
3) 일선학교 특정감사	특정감사 실시(추진중)	수용
4) 사이버 감사 강화로 상시 감사 체제 유지	사이버감사 강화(추진중)	수용
5) 감사편 개인용 컴퓨터 확보	예산부사와 협의 후 처리	일부수용
2. 장기재직휴가 실시에 따른 문제점 개선 • 운영 지침 개정 및 복무 조례 단서 조항 개정 - 잔여입수 소멸 및 사용횟수 제한 사항 삭제	장기재직휴가 근본 취지에 따라 1회 최소 5일 이상 사용도록 제정함. 지침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시 변경개정 검토하겠음	수용불가 (보류)
3.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 업무 대체능력이 있는 신규임용예정자(실무수습) 및 비정규직을 지역청에 배치·학교에서 운용	퇴직인력 활용, 신규임용예정자 활용 등 다각도로 연구 필요하므로 장기연구검토 과제로 분류 요망의견수렴, 공청회 필요)	수용불가 (장기검토과제)
4. 분교장 관리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 분교장 관리 행정실 직원에 대해 분교장 수당 및 벽지점수(실적)가점 또는 전보가점 부여	가점을 줄 경우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겠음	수용불가
5. 인사발령 통지서 서식 변경 • 통지서 서식에 성별 구분	정기인사 시 반영을 검토하겠음	수용
6. 지역교육청 교육상에 일반직 포함 • 모든 지역교육청 교육상에 일반직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	2015년부터 지역교육청 교육실적보고회와 교육상이 폐지됨 도교육청에서 관련 규정 정비 불가	수용불가
7. 학교 통학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학교별 승차 인원엔 맞는 차량을 운용토록 관리 전환 등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효율적 관리 방안을 위한 TF팀 구성·검토 (2015년 2월 중) - 시·군간 관리전환 운영방법 장·단점 분석 등 전반적 검토	수정수용
8. 일반직 교육행정 연구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청별 연구회(동아리) 활동 예산 확보 및 활성화 독려	실효성 있는 동아리 재검토 필요함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지원 및 활성화 독려하겠음	수용
9. 학생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 • 학교 안전교육연수시 전문교원 1명 지정·연수	• 안전5대영역 학생안전교육은 프로그램 담당교사가 실시함 • 향후 모든 교원에게 안전교육 이수 계획이며 학교안전책임자를 교감으로 지정 안전부장교사 배치방안 검토 중임	일부수용

## 2015년 2/4분기

1. 일 시 : 2015. 6. 18.(목) 15:00~17:00
2. 장 소 :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3. 주요내용 : 학교기본운영비 적정배분과 효율적 운용, 사무관 승진 심사 차별 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1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		
1-1 감사관 개인용 컴퓨터 확보	감사관전용 노트북컴퓨터 20대 예산반영 (예산 2,800만원)	수용
1-2 학교 통학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학차량 효율적 관리 방안 TF팀 운영 7월중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예정</li> <li>• 운전원 인력의 효율적 배치(인력공동활용) 문제는 관련부서(총무과,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재검토하겠음</li> </ul>	일부수용
2. 학교기본운영비 적정 배분과 효율적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운영비 집행 조사 후 내년도 기본운영비 배부 시 조정기본운영비 세부 배부기준 마련)</li> <li>•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조정권한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회수예정</li> <li>•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시 지원도 고려하겠음</li> <li>• 지역교육청 조정권한 부여불가</li> </ul>	일부수용
3. 사무관 승진심사 차별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평 제도 개선</li> <li>• 승진대상자 비율 조정학교근무자 10% 비율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기관을 대상으로 승진자 비율을 수치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근무기관에 상관없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li> </ul>	수용불가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조사휴가 개정</li> <li>•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육아시간을 남겨모두 사용토록 개정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 개정요구 반영사항 참조</li> <li>※ 수용불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결혼 : 본인및배우자 형제자매 (평일 실효성없음. 수용 불가)</li> <li>② 탈상부모휴가 특별휴가(수용 불가)</li> <li>③ 사망 특별휴가 기준 유지(수용불가)</li> </ul> </li> <li>• 육아시간 관련 사항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수용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사항</li> <li>도의회 조례심사를 위해 경북교육노조에서 경북도청 노조와 공조 요구</li> </ul>	일부수용

[표] 복무조례 개정요구 반영 사항

구분	대 상	기 존	개 정	수용여부
결혼	본인	5	5	기존
	자녀	1	1	기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수용불가
출산	배우자	5	5	기존
입양	본인	20	20	기존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5	기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2	기존유지 수용불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2	기존유지 수용불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1	수용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수용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수용불가
기타	자녀 군입대	-	1	수용
	가족 돌봄 휴가(부모휴가)	-	1	수용불가

## 2015년 3/4분기

1. 일 시 : 2015. 10. 22.(목) 15:00~17:00
2. 장 소 :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3. 주요내용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주 대책,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 결과 조치, 지방공무원 출납 수당 신설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2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		
1-1 학교기본운영비 적정 배분과 효율적 운용	학교기본운영비 학교회계 집행현황, 학교별 여건 교육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2016년도 기본운영비 지원 기준 조정 예정	일부수용
1-2 사무관 승진심사 차별 시정	현직급 경력 및 총경력 조작내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간 상관없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근평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불가
1-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도의회 조례심사를 위해 경북교육노조에서 경북도청 노조와 공조 요구	수용
2.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주 대책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정주직원 복지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li> <li>•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li> <li>• 출·퇴근 지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li> <li>• 정주 여건 조성 (어린이집 체육시설 도서관 식당 등)</li> </ul>	수용
3. 교육감과의 참 좋은 대화 결과 조치 사항 • 대화 안건 목록 21건(교육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대화내용 2건은 제외)에 대한 조치 결과	교육감과의 대화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수용
4. 소규모 통학차량 재배치 후 잉여 인력 재배치 계획 • 학교별 승차인원에 맞게 차량을 적정하게 재배치 및 잉여(여유) 차량을 도출하여 차량을 감축하는 등 차량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차량 감축 및 재배치 세부 추진계획(2015. 11월 중)	수용
5. 공무원 국외여비 과다지출에 관한 사항 • 공무원 국외 출장배낭여행 포함시 계약된 여행사의 계약금액이 과다함	국외연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원상 국외 여행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있어 업체선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 됨	수용불가
6. 교과서 대금 목적사업비로 전환 • 교과서 대금을 학교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분석 T/F팀 분석 결과 (기획조정관-14656, 2015. 8. 26)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전환	수용
7. 행정실무사 인건비 교무행정사와 동일하게 책정	직종별 보수체제 조정은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직종별 이해관계 등 각종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음	수용불가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8. 지방공무원 출납 수당 신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가 없어 출납 수당 지급 불가	수용불가
9. 교직원 현황조사 서식 변경 •기능직 용어 사용 금지	청렴도 측정 서식 중 “기능직” 명칭은 삭제(변경)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	수용

## 2015년 4/4분기

1. 일 시 : 2015. 12. 21.(월) 16:00~17:00
2. 장 소 :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3. 주요내용 : 소규모 통학차량 재배치 후 잉여 인력 재배치 계획, 장기재직휴가 관련 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소규모 통학차량 재배치 후 잉여 인력 재배치 계획 • 추후 조직 정비 시 노조의 사전협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제안사항은 추진 중에 있음 (시설거점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운전직렬 인력운용)</li> <li>• T/F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조직정비 시 노조와 협의하겠음</li> </ul>	수용
2. 장기재직휴가 관련 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 • 장기재직휴가 운영지침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5일에 대한 횟수 제한 삭제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으로 재검토</li> </ul>	수정수용



## 2016년 1/4분기

1. 일 시 : 2016. 3. 28.(월) 14:00~17:00
2. 장 소 : 본관 A-402 회의실
3. 주요내용 : 신청사 근무자 복지 환경 개선, 교육실무직 문제, 기록물 관리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2015년 4/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 2회에 걸쳐 ~ • 장기재직휴가 운영 지침 : 잔여일수 소멸 및 사용횟수 제한 사항 삭제	• 경상북도청과 연계하여 조례 개정추진 • 5일 이내 실시(제한 사항 삭제)소급 적용(단, 20년 초과자 제외)	일부수용 수용
2. 교육실무직 급여지급일 조정 • 4대 보험료 정산 등으로 급여 지급일 조정 • 연수 계획 공문 급여일 이전 발송(급여 일할계산)	• 교육실무직의 근로 여건저하 등으로 어려움 • 본청 각 사업부서에 안내 공문 발송	수용불가 일부수용
3. 신청사 근무자 복지환경 개선 • 통근버스 운영 개선 • 도청 어린이집 교육청 근무 자녀 입학 허가 • 휴게실, 체력단련실, 매점 자판기 등 부재 • 상록아파트 출근 시 도청 통과 허용 요청	• 2016. 12. 31.까지 운영 현황조사 후 개선 • 도청어린이집 정원초과 • 적극 검토하여 추진 여부 노조 통보 • 도청에 요청하여 가능 여부 노조 통보	수용불가 수용불가 일부수용 일부수용
4. 기록물관리 미배치 교육청 기록물 폐기 방안	• 관련 법령 개정 요구 • 기록연구사 5명을 순회 지원하여 문서고 일반문서 분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후 시행	수용
5. 기타안건 • 시간제 조리사 채용 • 교육실무직 채용시 승인 기간 단축 • 5대 교육실무직 관련 업무급여 등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 • 교육실무직 인사 이동 후, 4대 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 적극 검토하여 노조 통보	일부수용
6. 기타안건 •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 상품권 구매 관련 애로 사항(16:30 이후 금융권에서 판매되지 않음)	• 금융권과 협조하여 판매 가능하도록 조치	일부수용

## 2016년 2/4분기

1. 일 시 : 2016. 6. 15.(수) 10:00~12:00
2. 장 소 : 본관 101 회의실
3. 주요내용 : 맞춤형 복지비 인하, 피복비 인상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1/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		
1-1. 기록연구사 미배치 교육지원청 기록물 폐기 방안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7월부터 권역별로 교육지원청 문서고 내의 비기록물 정리 지원 및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li> <li>• 시·도교육청 기록연구사 협의시 지속적인 법령개정 건의를 하겠음</li> </ul>	수용
1-2. 단우학교 시간제 조리원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외 시간제 조리원 채용불가</li> <li>• 조리원 정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li> <li>• 급식소 청소용역관련 예산반영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후 그 결과를 노조에 통보해 주겠음</li> </ul>	수용불가
1-3. 교육실무직 인사이동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업무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무처 변동 신고로 업무처리 가능함</li> <li>• 고용, 산재보험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li> <li>• 교육실무직원 5대직종 대상 급여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는 안은 예산부담문제, 세입업무 등 장기적 검토</li> <li>• 교육실무직원 급여업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엑셀 프로그램 개발 검토</li> </ul>	일부수용
2. 노사협의회 결과 각급기관 공문 발송	노사협의회 결과 공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지하도록 하겠음	일부수용
3. 맞춤형복지 보험료 인하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 선택(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수용불가
4. 피복비 인상	2017 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작성 시 단위단가 표에 있는 작업복 단가를 100,000원으로 변경 반영할 계획임	수용

## 2016년 3/4분기

1. 일 시 : 2016. 9. 21.(수) 10:30~12:00
2. 장 소 : 본관 501 회의실
3. 주요내용 : 복무조례개정, 학교시설공사 개선, 연수과정 확대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p>1.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p> <p>가.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조례 개정시 반영하겠음 -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li> </ul>	일부수용																							
<p>나. 제18조(특별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조제1항(경조사별휴가일수) 조례개정시 일부 반영하겠음</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대상</th> <th colspan="2">일수</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현행</th> <th>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망</td>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자녀 군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현행	개정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3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2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기타	자녀 군일대	-	1	수용불가
구분	대상			일수																					
		현행	개정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3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2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기타	자녀 군일대	-	1																						
<p>2. 시설관리직 업무 효율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팀을 구성해서 시설관리직 표준업무 매뉴얼 제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li> <li>• 신규 시설관리직 대상 직무연수 10월에 실시할 예정임</li> </ul>	일부수용																							
<p>3. 조리사 근무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식학교 근무기한(2년 → 1년 6월) 변경은 조리사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검토하겠음</li> <li>• 1인 근무학교 급식실 청소용역(1일 2시간) 예산 편성은 영양교사, 조리사 등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검토하겠음</li> </ul>	수용불가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4. 학교 시설공사 설계내역 산출 애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여건 소액시설공사 등 학교 발주 공사 전담 설계내역 산출을 위한 건축사무소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li> <li>• 현재 기술직공무원 정원으로는 학교 발주 공사 설계내역 산출 업무지원이 어려움</li> <li>• 학교 발주 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5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을 위해 지역청 「학교시설 전담조직 구축」에 필요한 시설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향후 소관부서와 중장기적으로 협의 검토하겠음</li> </ul>	수용
5. 경북교육연수원 방학중 일반직 대상 집합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중에는 교원 집중연수로 인하여 연수원 강의실이 부족하여 일반직 대상 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실정임</li> <li>• 권역별로 일반직 대상 찾아가는 연수과정을 방학중에 개설하도록 하겠음</li> </ul>	수용

## 2016년 4/4분기

1. 일 시 : 2016. 12. 14.(수) 10:30~12:00
2. 장 소 : 본관 101 회의실
3. 주요내용 :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1/4분기, 3/4분기노사협의회 인건 추진 현황 요구  가. 기록연구사 미배치 교육지원청 기록물 폐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고 정비지원 계획 수립(2016. 6. 8.)</li> <li>• 예천교육지원청 현정방문 문서고 정리 시범 실시 (2016. 9. 20)</li> <li>• 2017년 상반기 권역별 문서고 정비를 지원할 계획 수립</li> </ul>	수용
나. 교육실무직 인사이동 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 지역청을 모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관내 학교간 전보 시 근무처 변동 신고로도 가능하나,</li> <li>•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어 근무처 변동신고 불가함</li> <li>•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근무처 변동신고만으로 통합처리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중임</li> </ul>	수용
다.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 복무조례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개정 [개정안 :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복무조례 제18조(특별휴가) [개정안 : 경조사휴가 확대, 자녀 군입영 동행 휴가 신설 - 복무조례 제18조 제6항(장기재직휴가) 개정 [개정안 : 2회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안(2016. 11. 2.)</li> <li>•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완료 (2016. 11. 3. ~ 11. 23.)</li> <li>• 2017년 상반기 도의회 조례 개정안 상정 예정</li> </ul>	수용
2.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학교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수용
3. 보건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	직무분석, 조직진단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수용불가
4. 차량용 타이어 공기압 측정 기계 설치	향후 설치장소, 정비업체 유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수용

## 2017년 2/4분기

1. 일 시 : 2017. 6. 28.(수) 14:00~17:00
2. 장 소 : 본관 101 회의실
3. 주요내용 : 공로연수 대상자 직급 확대, 필수실무요원지정비율 확대, 학교운영위원회당연직 간사 문제 해결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공로연수 대상자 직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7. 1.부터 공로연수 대상자를 7급까지 확대 시행 되도록 검토하겠음</li> <li>- 공로연수 대상자 예비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최종 확정</li> </ul>	수정수용
2. 필수실무요원 지정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실무요원 신청자 중 소수 직렬이 탈락되지 않도록 융통성있게 검토하겠음</li> <li>• 추후 예산확보 등으로 신청자 대부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li> <li>• 경력 및 연령제한 완화는 행자부 예규 개정이 필요함</li> </ul>	수정수용
3. 나홀로 행정실장 해소 및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을 반영하고 있음</li> <li>•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고려하겠음</li> <li>• 나홀로 행정실장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li> </ul>	일부수용
4.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인「행정실장」을「행정실직원」으로 개정하겠음</li> </ul>	수정수용
5. 시설관리직렬 업무 효율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관리자(행정실장) 인식전환 교육 실시(7월)</li> <li>- 인권침해요인, 관행화 등 불합리한 업무지시 사항 공문 시행 및 학교장 회의 시 전달</li> <li>• 시설관리 직렬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적용이 어려움</li> </ul>	일부수용
6. 경북교육사립카드 적립금 사용 적정성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교육사립카드 개인 적립금 해외연수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 후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li> </ul>	수정수용
7. [추가 안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인사제도 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할 예정임</li> </ul>	추후검토

## 2017년 3/4분기

1. 일 시 : 2017. 10. 11.(수) 13:30~17:00
2. 장 소 : 본관 101 회의실
3. 주요내용 : 당직근무제도, 소수직렬(운전) 8, 9급 정원 통합관리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p>1.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p> <p>가. 공로연수 대상자 직급 확대</p> <p>나. 필수실무요원 지정비율 확대</p> <p>다. 시설관리직렬 업무효율화 방안</p> <p>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인사제도 도입 검토</p> <p>마. 1인 행정실장 해소 및 처우개선</p> <p>바.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용 적정성 방안 마련</p>	<p>공로연수 대상자를 2018년 7월 이후 7급까지 확대 시행 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겠음</p> <p>필수실무요원 지정비율(7%)내에서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겠음</p> <p>•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관리자(행정실장 인식전환 교육 실시                      - 2017. 7. 13. 경북교육연수원                      - 2017. 7. 20. 경북학생문화회관</p> <p>•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공문 시행(2017. 9. 18.)</p> <p>• 시간선택제 운영이 가능한 직렬과 직무를 분석한 후 실시 (23개 시·군별 특성이 상이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p> <p>• 본청 시범운영 후 검토하겠음</p> <p>학교통폐합, 직속기관 조직개편 등으로 조정된 정원 변동범위 내에서 학교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 설문조사 결과                      - 해외문화 체험연수 반대 64%                      - 적립금 개인별 마일리지로 지급 81%</p> <p>• 경북교육사랑카드 해외문화 체험연수를 2019년도 폐지 검토 (단, 카드사용 교직원외의 신료보호를 위해 2018년도까지 연수 실시)</p> <p>• 경북교육사랑카드 제휴협약 변경 및 개인별 마일리지 지급여부는 다음 협의회(4분기)때 결정하겠음</p>	
<p>2. 교육실무직원 급여지급일 25일로 조정</p>	<p>• 급여지급일(17일-25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 매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 고용산재보험 개인별 상세내역 업로드 지원여부에 관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겠음</p> <p>• 보수의 재원이 상이하고, 급여 업무시스템 미구축 등으로 급여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불가함</p>	수용불가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3. 일반직공무원 NBS 연가 신청시 사유(응급) 미기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BS 연가 신청 시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라 종별이 연가인 경우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li> <l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S)과 협의를 거쳐 NBS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음</li> </ul>	수용
4. 당직근무 제도 개선(대체휴무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요일, 토요일 및 연휴 중간 날 당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는 불가함</li> <li>- 단, 여성 일직근무자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음 협의회(4분기)때 관련 안건을 재검토하기로 함</li> </ul>	수용불가
5. 소수직렬(운전직) 8·9급 정원 통합관리	타 직렬과 같이 소수직렬 8·9급 정원 통합관리 하겠음	수용
6. 시설관리직렬 위험물관리수당 지급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수용불가
7. 노사가 함께하는 국외체험 연수 실시	다수의 연수인원보다는 노사간 각각 3명씩 노동전문교육기관에 국외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일부수용



## 2017년 4/4분기

1. 일 시 : 2017. 12. 7.(목) 10:30~12:00
2. 장 소 : 본관 101 회의실
3. 주요내용 :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유연근무제 실시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3/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																
가.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용 적정성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교육사랑카드 사용 교직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8년도까지 연수 실시 후 폐지</li> <li>• 경북교육사랑카드 제휴협약 변경</li> <li>• 2018년도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은 개인별 마일리지로 지급</li> </ul>	수용														
나. 당직근무 제도 개선대체 휴무일 지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규정을 준용 해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경우 임신 후 일정 기간 및 임신기간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직근무 면제를 검토	수정수용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rowspan="2">재 직기간</th> <th colspan="2">일수</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현행</th> <th>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 2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년 이상 ~ 3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재 직기간	일수		현행	개정	10년 이상 ~ 20년 미만	5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5	20	30년 이상	0	10	2018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추진	일부수용
재 직기간		일수														
	현행	개정														
10년 이상 ~ 20년 미만	5	1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5	20														
30년 이상	0	10														
3. 유연근무제 실시	NEIS시스템 개선에 대해 교육부 협의해서 추후 시행	수정수용														
4. 조리직렬 근무환경 개선	조리직렬 근무환경 실태파악 공문 시행	수용														
5.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관련 온라인 선거 시스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 개발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 사용 안내 공문 발송	수용														
6. 2017년 교육감과 일반직공무원과의 참 좋은 대화 결과 조치 사항	관련부서 업무추진 하고 있음															

## 2018년 1/4분기

1. 일 시 : 2018. 3. 29.(목) 14:00~17:00
2. 장 소 : 본관 302 회의실
3. 주요내용 : 정원관리, 소수직렬 여건 개선, 맞춤형 복지비 개선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2017년 4/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		
가. 당직근무 제도 개선대체 휴무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여성 공무원 및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직근무 면제</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후부터 출산전까지</li> <li>·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범위내</li> </ul> </li> <li>- 본청 : 2018. 7. 1. 시행 예정</li> <li>-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 안내</li> </ul>	
나. 유연근무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 단위 유연근무제 실시</li> <li>- 본청 : 4월부터 시행</li> <li>• 교육지원청에 유연근무제 활용 안내시달</li> <li>※ 학교는 유연근무제 실시 불가</li> </ul>	
다. 조리직렬 근무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시달</li> <li>- 조리실 냉방시설 및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등 환</li> <li>• 경개선 추진</li> <li>- 조리종사원용 컴퓨터 등 사무 집기류 배치 권장</li> <li>•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조리원 사무 공간 확보</li> </ul>	
2. 학교여건을 고려한 정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행정실장 학교의 실제 운영 여건을 고려한 정원 조정</li> <li>• 시설관리직 정원을 학교규모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조정</li> <li>- 초·중학교 1명씩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특성급식소, 통학버스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 검토</li> <li>• 시설관리직 정원 배치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 조정하는 방안 검토</li> </ul>	수정수용
3. 소수직렬 근무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직렬에 대한 운전자 보험 가입</li> <li>• 대체 운전직 배치</li> <li>• 급식소 단기 근로자(배식 설거지 업무) 채용</li> <li>• 시설관리직렬 업무 역량 강화</li> <li>• 시설관리직렬 표준업무 개선</li> <li>• 기타 직렬에 대한 사택 우선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에 대한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도록 학교에 안내</li> <li>• 학교 및 개인이 유사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도록 지역별로 인력풀 제도 추진 방안 검토</li> <li>• 급식인원별 조리원 배치기준의 경계에 해당하는 학교 실태를 조사하여 시행 여부 검토</li> <li>• 학교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업무 및 안전내용이 포함된 연수를 운영하겠음</li> <li>- 학교에 근무중인 경력이 많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li> <li>• 업무 분장 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의견수렴 및 교육부의 시설관리직렬 직무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 검토</li> <li>• 연립사택 배정 후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li> </ul>	수정수용 수정수용 추후검토 수용 추후검토 추후검토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4. 맞춤형복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보험료 인하</li> <li>• 맞춤형복지접수 상황 조정</li> <li>•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 확대</li> </ul>	맞춤형복지 기본 점수(500점-600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일부수용
5.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발령으로 이사할 경우 공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는 공가 가능</li> </ul> </li> </ul>	지방공무원은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전보 발령이 이루어지므로,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원격지 :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	수용불기
6. 교육실무직 급여 처리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실무직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처리</li> <li>• 교육실무직 직종 임금체계 등이 상이하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교육실무직 인건비 지급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li> <li>• 교육실무직 인건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불가함</li> <li>• 향후 타시도 사례를 조사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li> </ul>	추후검토
7. 여비 정산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비 조례 개정을 통한 여비 정액 지급</li> <li>•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li> <li>•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임 및 숙박비 정산 권고</li> </ul>	수용불가

## 2018년 2/4분기

1. 일 시 : 2018. 6. 27.(수) 14:00~17:00
2. 장 소 : 본관 101 회의실
3. 주요내용 : 1사분기 안건 추진 현황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1/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 가. 학교여건을 고려한 정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행정실장 학교의 실제 운영 여건을 고려한 정원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7. 1. 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학년 초등학교 중 조리교(25교)에 1명(행정8급) 증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리직 정원을 학교규모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리직 배치 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의 시설관리직 정·현원 운용 가이드라인 결정후 검토</li> </ul> </li> <li>• 소규모학교 시설관리비 지원 확대 검토(총무과)</li> </ul>	
나. 소수직렬 근무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직렬에 대한 운전자 보험 가입 및 대체 운전직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보험 가입시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도록 학교에 안내(2018. 4. 28.)</li> <li>• 통학차량 대체 운전원 인력풀 운영 계획 수립·시행 (2018. 4. 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소 단기 근로자(배식, 설거지 업무) 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원 과원인력 경계학교 우선 배치 검토</li> <li>• 초단시간(일 2~3시간) 근무 인력 배치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실무직담당 부서와 협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리직렬 표준업무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의 시설관리직렬 정책연구 결과 검토 후 필요시 개선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직렬 거주 여건 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립주택 주거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간: 6. 21. ~ 6. 26.</li> <li>-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후 주거기간 조정 여부 검토</li> </ul> </li> <li>• 지역 내 미활용 주택을 인근 학교 교직원들이 활용하는 방안 권장</li> </ul>	
다. 맞춤형복지제도 개선 • 맞춤형복지접수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항목: 기본 점수</li> <li>- 시행 시기: 2019년 예정</li> </ul> </li> </ul>	
라. 교육실무직 급여 처리 방법 개선 • 교육실무직 급여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체계 및 근무형태가 정형화된 대표직종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2019년 예정</li> </ul> </li> </ul>	

## 2018년 3/4분기

1. 일 시 : 2018. 10. 5.(목) 10:30~12:00
2. 장 소 : 본관 302 회의실
3. 주요내용 : 학교 시설공사(운동장 조성) 예산 편성 방법 개선,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4. 상정안건 협의결과

노동조합 협의 요구사항	교육청 의견	협의 결과
1.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		
가. 급식소 단기 근로자배식, 설가지 업무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단시간(일 2~3시간) 근무 인력 배치 여부 검토 결과 추후 논의</li> <li>- 채용 여부 및 인원 시행 가능 시기 등</li> <li>- 급식담당과 교육실무직담당 협의</li> </ul>	추후검토
나. 교육실무직 급여 처리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체계 및 근무형태가 정형화된 직종(교무행정사) 시범 운영</li> <li>- 시기 : 2019년</li> <li>- 시범 운영 교육청 : 영주·군위</li> <li>• 시범 운영 결과 분석 후 확대 시행 검토</li> </ul>	수용
2. 학교 시설공사(운동장조성) 예산 편성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교육청에서 집행</li> <li>- 사업의 적시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집행 가능</li> </ul>	일부수용
3. 학교 당직 전담 인력 직고용에 따른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직 전담 인력 부재 시 대체 방안 시달</li> <li>- 1인 전담 인력 부재 시 당직근무에 대한 문제점 파악 후 대책 마련</li> </ul>	일부수용
4. 노사협의회 결과 각급기관 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협의회 합의로 시행되는 사업공문 발송 시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임을 명시</li> </ul>	수정수용
5.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평생교육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추후(4분기 노사협의회) 논의</li> </ul>	추후검토

| 부 록 |

성명서  
논 평  
보도자료

>>> 성명서

**불평등한 인사조치를 중단하고, 부정청탁 명단을 공개하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 2월 13일 노조 설립 신고에 즈음하여 본격적인 노조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보고 우리노동조합의 이념을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교육행정가족이 교육공공체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지난해 교육감이하 경북교육가족이 부정부패척결을 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4위를 평가받은바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행정의 깨끗한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교장의 명예 의거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울진 모초등학교 감사시 예산과다 집행의 징계건이 발생하여 교장(관내전보)과 행정실장(울릉도전출)의 징계처분에 따른 불평등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징계집행자의 의식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행정실장이 앞장설 수 있도록 관리자의 역할을 재강조 한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올바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지역 이기주의 예산편성요구와 인사 청탁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부당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활동에 대하여 도의원 및 교육위원들의 비전문적이고 법 경에도 없는 무분별한 자료 요구와 업무보고로 행정의 효율과 생산성이 떨어져 교육 활성화에 심히 우려가 되고 있으며, 공직 사회혁신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위와 사항이 조속히 시정 및 조치되지 않을 시 5,000여 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히 투쟁을 할 것이다.

2006. 2. 1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상북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경상북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은 지난 5월 4일자로 「성과급 상위 20% 대상자 공개」 여부와 「2006년도 업무혁신 현장테마 연수자 선발」시 산하기관(초,중,사업소)에 관련공문의 이첩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한 공문[경교노 2006-23(2006. 5. 4)]을 발송하였다.

성과급 상위 20% 해당자의 공개는 성과급지급지침에 따라 당연히 공개하여야 함과 업무혁신 등 현장연수자 선발에 관한 공문 등 상부기관에서 발송된 공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첩하여 교육행정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의 지급을 유도하고, 자기혁신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배려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문을 경상북도교육청은 담당자의 출장으로 공문을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무관심한 답변만 하고 있다. 이는 5,000여 명의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을 대표하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교육연맹소속 노동조합과 함께 수차례 교육부 등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원 같이 지급토록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성과급 지급 지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며, 위 현재 일부 시·군에서 일어나는 성과급에 대한 불합리함과 각종연수시찰자 선정 등에 부당함을 지적해 오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하고자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접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과급 지급대상자 상위 20%와 일부 교육청의 연수자 선발을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상적인 선발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다 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합법노동조합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무시한 행위는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행위임을 지적하며, 경상북도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5.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섣부른 예단으로 교육감 퇴진을 운운하지 말라

조합원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의아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었음에도 마치 4,800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국최대의 단일노조인 우리노조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본 사안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3만 교육가족과 40만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섣부른 예단으로 교육감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D시 모 교장 선생님도 아무 것도 아닌 사실을 특정단체가 사실로 오도하여 급기야는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 분야에서 소신껏 자신의 일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노조 역시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 특정단체의 개입으로 2004년도 국정감사시 사상 초유의 과다감사자료(2.6톤)를 제출하느라 많은 교육가족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9년도 2조 5천억원의 예산집행계획 등 경북교육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하여야만 경북교육미래를 보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프로젝트 들이 진행중에 있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또한 공복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기관 전국 최초로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웅도 경북의 인재육성지원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경북교육노조가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을 위한 참봉사의 신념을 기초로 조합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행정실 지방공무원을 폭행한 부장교사를 즉각 파면하라!

고령 모 초등학교 부장교사의 행정실 지방공무원 폭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며 신분을 망각한 부장교사를 즉각 파면 시켜라! 학교는 교사, 지방공무원이 서로 협력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며 꿈을 심어주는 텃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성의 전당인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학교행정실 지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개요를 보면 지난 2009년 6월 18일 오전 11:20분경 고령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모 행정실장(여)이 근무하고 있는 중 이 학교의 모 부장교사가 갑자기 행정실로 들어와서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채 어떤 말이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당일 3명이 점심시간에 외부에 식사를 하러 나가겠다고 실장한테 말했지만 실장은 교장선생님도 부재중이고, 3명 모두 다 나가면 점심시간에 일을 할 수가 없고, 너무 많은 인원이 학교를 비운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 위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러한 교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을 가르켜야 하는 교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며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도 아무런 대항조처 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실에 지방공무원 홀로 근무하게 방치한 도교육청도 그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여지는 아직도 도내에 수 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도교육청은 알아야 하며 나 홀로 근무하는 행정실장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방공무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일개 교사 한사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우리 경북교육노조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2009. 6. 2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의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감과 경북도지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경북은 200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50명 이하의 학교수도 223개교나 된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5년후에는 이 학교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폐교를 부채질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이후 “교과부”라 한다.)의 교육정책이 더욱 심각하다. 폐교를 하면 시도평가에 점수를 부여하는가 하면 교원 정원 배정기준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교원을 187명이나 경기도로 일방 전출하였다.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원1인당 학생수로 바꾸었다. 그러면 도서벽지와 농어촌이 많은 경북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자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교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수 기준 배정방법은 교육을 경제원리로 계상하여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학교가 조기에 문을 닫아야 하며, 경북의 인구는 더 많이 더 빠르게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교육이 부실한 국가는 국가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지역이 처한 상황과 특수성 등 지역적 여건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도별 여건에 맞는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한해에 학교신설이 100여개를 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 인구밀집이 50%를 넘어 80%가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인 것이다. 국가의 해외 경쟁력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여 한 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과부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직시하고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는 복지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국가의 주역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역의 여건이 고려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또한, 경북교육발전의 양대 산맥인 교육감과 경북지사는 정부 교육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우리지역 교육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명품! 경북교육」과 「웅도! 경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 1면 1개교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방과후 학생지도를 위하여 대학생 멘토링, IPTV를 이용한 실시간 방송교육,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1대일 교육, 농어촌의 교원 배치기준 하향조정, 무조건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중요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작은 학교 가꾸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 귀농을 망설이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한 부분인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IT 강국의 잇점을 최대한 살리고, 농어촌의 급당 인원을 도시와 다르게 적용하고, 첨단 교육매체

를 통한 저예산 고효율의 교수학습방법 발굴과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교과부는 교원의 정원배정을 시·도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라

교육감은 사교육비절감과 공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설비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교직원들은 분장한 업무를 초월하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라.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는 교직원이 공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자료요구를 자제하라.

도지사는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라.

2010. 3.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상북도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라!

그동안 학교현장은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학교 내 갈등이 유발되고 있었으며,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 번에 또다시 교원노조가 정보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최근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문제, 행정실 시설업무 기증 등으로 어려워진 행정실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얼마 전 행정실장 교육에서 특정 직급이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매도하였다. 이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행위임을 밝히는 바이다.

단체협약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행정실 소관 업무 등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가 행정실에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반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 28일 경상북도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최대 단일노조로서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협약이 준수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교육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단체협약 제22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현행 일반직 정원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위직급 배치비율이 적정화 되도록 노력하고, 전문직렬(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을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상위직급 비율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꼴찌 수준이고 소수직렬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단체협약 제49조에 따라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관리 및 공사지원팀 또는 담당자를 신설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비전문가인 단위학교에서 시설업무를 이루어지는 것은 여전히 최근 지적 위주의 감사로 인해 학교시설업무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은 실제 업무를 겸임하고 있음에도, 겸임 발령의 근거가 없으며 별도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교장, 교감도 받고 있는 겸임 수당을 실무를 보고 있

는 담당자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라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여 처리할 때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 마련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직원은 휴게시간 동안에도 학생들 안전관리(지도), 시설관리, 민원업무처리, 학교장의 지시 사항 수행, 교사요구 처리, 수업이나 행사시 사전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쉬는 시간을 정해 놓고 야박하게 행정실 문을 잠그거나 불을 절대 끌 수 없는 상황이고,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다. 학생들이 담보가 되어 법령에 의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음에도 휴일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근무해야하고 수당이 비정규직보다도 적다. 일선학교 운전원은 부모상을 당하여도 학생 통학을 우선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학교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홀로 여자 행정실장은 업무과중으로 잦은 유산 건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정보업무가 추가되면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작금의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단체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교육감은 전국 시도평가 최우수 교육청을 이끌어낸 조합원들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상위직급비율 확보로 승진기회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시설업무경감을 위한 인력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감은 주 5일제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대체인력, 대체휴무, 특별휴가, 휴일수당 등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라.

하나,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여 처리할 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감은 조합원들의 청렴성을 인정하고 지적위주의 감사를 지양하라.

하나, 국정감사 및 도의회감사 외 6종 사무감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는 위와 사항이 조속히 시정 및 조치되지 않을 시 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히 투쟁을 할 것이다.

2012. 4. 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현 시국을 고려치 않고 실시한 해외 연수, 도의회 의원까지 동반한 게 타당한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 11일 7박9일 일정으로 예산관계자 20여명이 북유럽으로 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는 예산담당공무원들의 폭넓은 식견함양과 선진교육 재정운용 실태 및 교육제도에 관한 운영방법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계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학기가 시작 된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 조직개편이 뒤늦게 이루어져 정국은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았고, 우리교육청은 부감이 공석인 상태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법을 어기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하여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급학교의 행정실은 새 학기를 맞아 밤늦게 야근까지 하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굳이 해외연수를 실시해야 하는가?

더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들과 함께 도의원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왜 도의원이 동행을 하는가? 말로는 경북교육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의 해외연수 시 동행하는 것과 경북교육청을 이해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1인당 400만원 이 넘는 경비총당은 누가 하는가?

경북교육노조는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워하고 권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한 목적이 있는 해외연수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과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의회 의원과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경북교육노조는 매우 유감을 표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수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업무 추진을 촉구한다.

2013. 4.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과 7월 정기 인사에 대한 입장

2013년 6월 12일(수)부터 그동안 국가공무원이었던 교육전문직이 전국적으로는 4,225명,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373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12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로 정원채정권이 교육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전문직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유휴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정원을 증원시키려고 하다가 지방의회 의원과 논쟁을 한 경우도 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또한 향후에 교육전문직의 증원을 검토 중이라면 보다 창의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업무외적인 선심성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코앞으로 다가온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이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亨通”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등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올바른 인사를 통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북교육이 되길 기대하면서 경북교육노조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갓 시중에 떠도는 스팸메일이기를 희망한다.

경북교육노조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서도 조직과 조합원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이번 인사 결과를 예의 주시 할 것이며, 만약에 이번 인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 청탁자·청탁수수자, 인사수혜자를 철저히 밝혀 형사적 처벌 요구는 물론이고, 결과에 따라 경북교육노조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이 뒤따를 것임을 밝혀둔다.

2013. 6. 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교육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수당 편법 지급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지난 6월 5일자로 「중학교 교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조치 계획」이란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는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던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교원에게는 월 6만원~9만원, 일반 직원에게 5만원~7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학교운영비 징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2012. 8. 23) 하자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지급을 중단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급 재원이 없어서 지급이 중단될 것에 대비하여 보직 교사수당 및 담임수당 인상을 통해 보전하려고 「교원수당체계 개편안」을 국무회의 상정(2013. 2. 22.)하려다 무산되었다. 이후 공무원수당 개정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개정이 어렵게 되자 안전행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보전조치를 요청(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517 (2013. 5. 15.))을 해 왔다고 하면서 「중학교 교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조치 계획」이란 것을 만들어 시달한 것이다.

조치 계획의 내용을 보면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시·도교육규칙(학교회계)개정을 통해 보전하라는 것으로 개정안 예시까지 만들어 통보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규칙(학교회계)을 개정하게 되면 분명한 수당의 이름은 아닐 수 있지만 각급학교에 없어지는 수당만큼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해당 교원들에게만 지급하라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경과조치까지 예시하고 있다. 공문에는 교육부도 교육규칙 개정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협조 요청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떤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의 협조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의 수당규정에 의해 지급되어야 마땅한데도 수당규정 개정이 좌절되자 꼼수를 부려 편법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교육부에서 현행 수당규정에도 없는, 미래에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당도 아닌 수당을 지급하라고 강요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분명한 지방교육자치의 훼손이며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이러한 시·도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수당규정 개정을 통하여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상급 단체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11만 조합원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 교육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13. 6.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조령모개 행정에 지방공무원 멎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5일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방법으로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원에게만 지급하라는 협조 공문을 시행하더니 공무원노조와 지방공무원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 10월 23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중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도 3월부터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 하라는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교육부의 차별적 관념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며 환영하였다.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난 10월 28일,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계획 알림 철회 통보" 라는 해괴망측한 공문을 시행하였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한 공문을 철회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가기관이란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으니 통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조령모개식의 행정을 해도 되는가?

그동안 우리들의 주장은 한 울타리 내에서 교육발전이란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지 수당 몇 푼 더 달라고 애걸복걸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돌림과 편 가르기는 학교폭력의 주원인으로 사회와 학교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시대적 소명임에도 교육부는 오히려 역행하여 이러한 사실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에 편 가르기를 즉각 중지하고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도 교원과 동일한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경북교육노조는 전역량을 동원하여 전국의 공무원 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 10. 2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청 1월 정기 인사에 대한 입장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2014년 1월 정기인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보니 근거 없는 뜬소문과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다. 가뜰이나 이번 인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흔들림 없는 교육행정을 진행해야할 인사인데도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매번 인사철이면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능력과 실적만큼 평가 받고 싶고 그것이 인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짐에도 혈연, 지연, 학연과 외부의 청탁과 압력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일한 만큼 평가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쌓여 가면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결국 견잡을 수 없이 추락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청렴이고 효율이고 친절이고 모두다 구호로만 전락하고 만다.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라도 주변에는 자신의 처신만을 위한 해바라기성 인물이 있기 마련이다. 인사를 잘하는 첫 번째가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여 배제하는 것이다.

권세를 믿고 멋대로 조종해서 자신의 명리만 원하는 사람, 뒷사람을 능숙하게 섬겨서 총애를 받고 재주를 부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백가지 계교로 교묘히 사리를 구하고 자기 몸만 살찌게 하는 사람을 잘 가려내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30년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공보담당관이 정년을 3년 앞두고서 후배를 위한 용퇴를 결정했다. 본인이야 개인사정이라고 하지만 후배들 입장에서 보면 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루라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도룩한데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공보담당관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모처럼 후배들을 위한 용퇴의 순수한 뜻이 남아있는 자들의 승진을 위한 혈투가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유능한 자들의 발탁으로 경북교육발전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경북교육노조는 조직과 조합원들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철저히 배척할 것이며 혹시라도 이번 인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 청탁자·청탁수수자는 물론이고, 인사수혜자를 철저히 밝혀 형사적 처벌 요구는 물론이고, 결과에 따라 경북교육노조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이 뒤따를 것임을 밝혀둔다.

2013. 12. 1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할 것을 촉구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교육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위해 경상북도의회에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존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문위원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지원 조직인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제10046호, 2010. 2. 26)에 의거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2014. 6. 30.까지 유효)됨에 따라 함께 폐지될 예정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연 예산 3조4천억, 본청을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등 2,000여개 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역할이나 비중을 볼 때 마땅히 단독 상임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교육행정공무원이 아닌 일반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충원한다면,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피해는 경북교육청의 35만명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경북교육노조는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만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북교육노조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 우리의 요구사항 〉

하나,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7호의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하라!

하나,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제5조(정원) 중,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사항을 존치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2조 제1호의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그대로 존치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2014. 5. 12.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청 2015년 1월 정기 인사에 바란다

경북교육청이 2015년도 1월 정기 인사를 사전 예고했다. 5급 17명, 6급 88명, 7급 288명 등 390명이 넘는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이번에 승진이 많은 것은 정년 평등화로 정년퇴직이 없었던 것과 노조의 요청 그리고 공무원연금 문제로 명퇴가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 아무튼 연금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 사기가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의 승진인사라 노조는 적극 환영한다.

한편, 2년 6개월 동안 행정지원국장으로 경북교육청과 애환을 함께 했던 문영규 국장이 공로연수를 떠난다. 또 4급도 6자리가 공로연수 내지는 정년퇴직으로 자리가 비게 되다보니 말들이 많다.

인사철이 되면 말들이야 많았지만 특히, 국장 자리에 관한 말들은 도를 넘어 벌서 줄까지 선다는, 요즘 유행하는 짜라시 수준의 말들도 많다 보니 외부에서 경북교육청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의 궤를 넘어 보일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그동안 능력보다는 연공위주 인사를 하다 보니 밀어내기식으로 정년이 임박해서 주요 보직으로 발령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업무파악 조차도 제대로 못한 채 퇴직을 하거나 이동하게 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퇴직이야 누구든 예외 없이 맞는 것으로 퇴직 날까지 근무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정년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는 조직의 미래를 위한다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다.

급기가 교육위원이 폐지되고 도의회와의 첫 대면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부결시킨 도의원 탓만 하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다.

이제 더 이상 연공위주로 밀어내기식 인사 관행은 경북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없어져야 한다.

그동안 이영우 교육감이 추진해온 명품 경북 교육 완성을 위해서라도 능력과 자질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여 주요 보직에 배치할 것을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년퇴직이 최소한 2년 이상 남은 사람을 기용하는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

물론 인사에 대한 일이야 결국 본인의 선택과 인사권자의 용단이겠지만, 명품 경북 교육을 완성하고자 하는 인사권자에게 개인적인 안위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진정으로 조직을 위하는 일일 것이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번 2015년 정기인사가 그동안의 인사 관행을 깨고 인사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경북교육행정의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4. 12.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행정실 법제화’ 법안심사소위 의결보류 - 교육청노조, 교육부 항의전화 및 집회 등 강력 대응키로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과 함께 4월 28일(화) 오전 10시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보류된 것에 항의하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실을 방문했다.

“행정실 법제화”를 주요 골자로 한 동 법안은 제3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쉽게도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측에서 학교 내 구성원간 또는 교원과 행정직원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행정조직을 교장 또는 교감 밑에 둘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2006 정부교섭부터 행정실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청노조는 이번 결과에 크게 실망하며, 교육부에 항의전화를 하는 동시에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행정실 법제화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2015. 4. 2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감사 수감 기간 중에 간부 역량 강화 연수라니!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12일자로 사무관이상 일반직공무원 전원(161명)을 대상으로 핵심리더 역량 강화 연수를 6월 8일~9일 이틀간 경주 모 호텔에서 개최한다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교육정책의 이해, 공직가치 확립,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행정인으로서의 역량 강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리더십 및 기본역량을 배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일정은 대부분이 본청의 예산, 감사, 홍보, 총무 담당사무관들의 강의가 20분단위로 배정되어 있는 등 어디를 봐도 연수목적은 알 수 없다.

사무관이상이든 이하든 역량강화 연수를 하겠다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최시기와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서 파견된 16명의 감사관에 의해 실지감사를 수감하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수감에 정신없는데 사무관이상은 핵심리더 역량을 기르겠다면서 이틀간이나 연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감사기간을 알고도 일정을 정했다면 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닐 것이고, 몰랐다면 부서 간 소통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실감하는 일이다.

물론 이런 연수가 처음은 아니다. 매년 많으면 2회, 적게는 한번은 꼭 시행을 하였다. 그런데 연수결과를 보면 대부분 연수목적과는 상관없는 부서별 전달사항을 전달하고는 식사시간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하는 분들의 송별식을 겸하는 자리였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알맹이 없는 연수를 진행하면서 경비비 모두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향후에 실시되는 연수는 적당한 시기에 알찬내용을 가진 연수를 진행하여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경북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지켜볼 것이다.

2015. 5. 2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청, 인사 적폐를 끊어야 한다 특정 부서에 가면 곧 승진(?)

경북교육청은 8월 오는 7월 1일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를 예고했다. 이번 인사는 경북교육노조의 5급 정원확대 요구를 수용한 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경북교육청의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3급 1명과 4급 5명의 승진인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3급 승진은 앞으로 2년간은 매 6개월마다 승진요인이 있다 보니 무수한 하마평이 나돈다.

금년 6월 구미도서관장부터 12월에는 상주도서관장, 내년 6월에 현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12월에는 정보센터 관장이 퇴직을 하게 된다. 승진 요인이 많아서 좋기는 하나 아직도 관선시대의 관행인 특정부서 인사 우대가 계속되는 현실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사를 보면 본청의 행정지원국 7개 부서 중 유독 한 부서에서만 3급 승진자가 나오고 5급도 2명이나 승진하였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직원들은 특정부서로 가기위해 내신 때 마다 줄을 서고 있다. 가기만 하면 승진하다는 것이다. 현재 직원들 사이에 나도는 말이 있다. 누구는 주요부서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승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부서에서 승진을 하지 왜 주요부서에 와서 업무는 하지 않고 승진만 목메어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지!! 직원들로부터 불멘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가? 또한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 특정부서를 거치는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인맥을 형성하는 것도 큰 병폐라고 꼬집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승진자들이 업무처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머지 부서 직원들이 특정부서의 연거푸 승진에 역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옛말대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부서에 대한 우대는 소위 '일만 많고 별 볼일 없다'는 격무·기피부서에서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부실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북교육행정을 망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인사부터라도 '특정부서에 가지 못하면 승진은 어렵다'는 직원들의 자조 섞인 푸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사기준의 재조정과 함께 정실에 치우친 인사의 피해는 반드시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앞으로 특정자리가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그런 인사를 기대한다. 이번 기외에 구시대의 인사 적폐를 반드시 끊고, 공정한 인사 운영만이 경북교육행정의 앞날을 굳게 다지고 명품교육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노조는 이번 7월 인사를 면밀히 살펴 볼 것이다.

2015. 6. 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청 1월 정기 인사는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경북교육청은 지방공무원들의 2016년 1월 정기인사를 24일에 발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인사는 경북교육청으로서는 최고위급인 3급 승진자가 2명, 4급 승진자가 4명이 되고 특히, 이번 인사부터는 그동안 연공서열로만 하던 밀어내기식 인사가 아니라 업무능력에 따른 발탁인사를 한다고 예고 한 상태이다 보니, 근래 언론 등을 통한 보도 내용과 근거 없는 추측성의 뜬소문으로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인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과 실적만큼 평가 받고 싶은 마음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짐에도 혈연, 지연, 학연과 외부의 청탁과 압력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청렴이고 효율이고 친절이고 모두다 헛구호에 불과하다.

특히, 인사가 조직 운영을 위한 행사임에도 외압에 의탁하거나 자신의 처신만을 위해서 조직의 순리는 무시한 채 구걸한다면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두고두고 후배 공무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라도 권세를 믿고 멋대로 조종해서 자신의 명리만 원하는 사람, 뒷사람을 능숙하게 섬겨서 총애를 받고 재주를 부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백가지 계교로 교묘히 사리를 구하고 자기 몸만 살찌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경북교육노조는 2016년 인사만큼은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경북교육노조는 조직과 조합원들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철저히 배척할 것이며, 혹시라도 이번 인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 청탁자·청탁수수자는 물론이고, 인사수혜자를 철저히 밝혀 형사적 처벌 요구는 물론이고, 경북교육노조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이 뒤따를 것임을 밝혀둔다.

2015. 12. 18.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7월 정기인사, 동일한 인사기준 평등하게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7월 정기인사를 6월 23일경 발표한다고 한다.

경북교육노조는 인사 행정에 있어 특정 부서에서의 승진인사 배제, 외압과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정실인사 배제 및 현장 조합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일한 인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줄곧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인사부터 일부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현장 행정을 담당하는 시·군 행정지원 과장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 인사에는 아직도 동일한 인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특히 시·군 행정지원과장 인사는 퇴직 1년 전 보직 변경 기준도 모호해지고, 최소 보직기간인 1년6월을 지키지 않는 일도 허다하다. 승진과 동시에 발령 나서 퇴직까지 하는 호사를 누리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퇴직 1년전 까지도 시·군 행정지원과장 발령 한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장 인사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 이렇듯 평등하게 적용시키지 않으니 인사권자의 결심만 있으면 참신한 능력이든 유능한 경험이든 다 필요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고,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짐에도 지연·혈연·학연 등을 동원하여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인사 담당자들에게까지 인사권자의 복심이라면서 압력을 넣는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물론 그럴 수 있다.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 권한은 많은 참모들과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에서의 평등하게 결정하는 권한이다. 외압과 정실이나 아집에 의해 결정된다면 경북 교육의 발전과 교육 행정의 현실과 미래는 암울하고 청렴한 경북 교육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아무썸록 이번 인사부터는 4·5급은 물론이고 직급과 직렬을 떠나 모든 지방공무원들에게 동일한 인사기준이 적용되는 평등한 인사행정으로 경북교육행정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를 기대 한다.

경북교육노조는 조직과 조합원들의 바른길을 위해서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철저히 배척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번 인사 행정에 대해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2017. 6. 1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2018년 1월 1차 정기인사 발령에 대한 논평

지난 12월 22일 경북교육청은 2018년 1월 1일자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94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승진 임용된 3급 1명, 4급 4명, 5급 28명, 6급 이하 173명 등 총 206명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로 기억될 이번 인사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에서 6급 이하에 대한 인사는 나름대로 전보 점수와 근무지역 안배를 고려한 것을 볼 때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규정에 얽매어 보니 퇴직이 6개월 정도 남은 동료들에게까지 전보를 하는 등 미흡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적인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사는 게 풍선효과와 같이 한쪽이 좋으면 다른 쪽은 불만이 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 만족을 하도록 하는 게 인사의 정도인 것이다.

이에 반해 5급 이상 인사는 낙제점을 피할 수 없다.

첫째, 보안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인사발표와 선거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겠는가? 사전에 당사자가 인지하여 지연, 혈연, 학연 등 외력을 동원한다면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노조가 입수한 여론에 의하면 이번 인사에서 권한도 없는 사람이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줌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방해하였고 그리하여 다른 동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위직의 경우 소문이 무성하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실명까지 거론되는 등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되었다. 내부에서 앞으로는 언론사 기자에게 인사를 물어봐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 보안을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임용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셀프 인사로 규정 할 수밖에 없다.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인사, 복무 등 근로여건 개선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업무들을 책임지는 총무과장 자리에 젊고 의욕이 넘치는 4급이 배치되어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승진연수가 안 되니 직무대리로, 또다시 승진후보자가 총무과장으로 오는 인사를 선택한 것은 통렬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주요 보직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3급이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직무대리 발령은 적절한 인사는 아닐 것이다. 이제까지 경북의 인사가 능력보다 연공서열에 얽매어 기차놀이를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임 총무과장이 승진예정자라서 그쪽으로 줄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

셋째, 5급 이상 전보임용에는 한심할 정도로 뒷말이 많다는 것이다.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5급 이상 중견관리자가 되고 고급관리자가 되었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후배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지금까지 자신을 있게 한 조직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는 막가자 식으로 온갖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인사권자의 의지를 바꾸게 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며 조직의 인사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배 고위공무원이 퇴직하여 후배들과 술 한 잔 나눌 수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사를 잘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직 행정지원국장 본인의 결단으로 직속기관장으로 가고 후임에게 자리를 물려준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고 모범이 되는 일임에 틀림없다. 노조에서 일찍이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다. 행정지원국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직속기관에서 남은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일일 것이다.

이번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는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한 6급 이하 인사는 성공적이었으나 보안문제 및 셀프인사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5급 이상 인사는 실패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지나간 인사에 대해서 왜 가타부타 하느냐고 하겠지만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차후에는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천하여 조직의 신뢰도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또한 우리 노조는 앞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각종 구설수에 오를 경우 단순 논평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외부 세력에 의한 청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철저한 배경인사를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7. 12.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논평

## 경북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평

(2013. 12. 24.)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교육청은 3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비해 1등급 하락하였다.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서 민원인 16만 5,191명과 기관 소속직원 5만 6,284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 1만 8,50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그리고 범죄발생 건수로 산출됐다.

이번 조사결과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아 취약한 분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주요 원인은 2008~2010년도 포항대학 진학 공직비리 부패사건을 감점 폭 최대인 0.44점으로 감점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감점을 받고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2위를 한 대구교육청의 종합평가점수 7.54보다 불과 0.33점의 차이이다.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실천 인터뷰, 청렴공직자 인증제 등 62과제 시책을 추진해왔으며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럼에도 결과만 놓고 보면 노력에 비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단순 순위로 보면 하위권으로 추락하였으나 위에서 보듯이 2위를 한 대구교육청과 불과 0.33점이 모자라는 것이다. 부패사건 감점(0.44점)이 아니라면 1위를 할 수도 있을 점수다. 이는 대부분의 경북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매우 청렴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 2011년 1위, 2012년 3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지만 일선 학교현장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렴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 것도 사실이다.

청렴, 공직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충성하고 시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면서 오로지 평가만을 위한 청렴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앞서 이룩한 경북교육청의 성과로 조직과 대부분의 구성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청렴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우선 피로를 감소시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면서 청렴업무를 추진하여야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것이고 추락한 2013년 평가결과를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청 2014. 1. 1. 인사발령에 대한 논평

(2013. 12. 30.)

경북교육청이 2014년 1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인사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 본청 및 지역교육청 과장 각급학교 행정실장 그리고 주무관으로 전보 및 신규 채용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인사는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 인사인데, 특히 5급 이상의 관리직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되어 많은 관심과 함께 여러 가지 소문도 무성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에서 인사는 매우 중요한 행정이다. 그래서 모든 인사권자들은 외부의 청탁과 주관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체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능력에 따라 탕평 인사를 하고자 노력한다. 인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즉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적인 연공서열 인사와 소위 말하는 능력에 따른 개혁적인 인사로 유념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외부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반면 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후자는 조직에 신선한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외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경북교육청 인사는 앞선 언급한 두가지중 아무래도 후자에 것에 속하는 것 같다.

다양한 실험적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조직의 변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한 것 같으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신뢰를 받아온 본청 과장급들을 외부로 전보한 것은 비록 본인들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조직을 위해선 삼고초려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사무관급 과장 인사가 진정으로 조직의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금상첨화지만, 도의회를 비롯한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도의회나 외부의 청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도민의 민의를 집행부에 전달해야 될 사람이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나, 또한 조직의 체계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에 청탁을 한사람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절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차제에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인사 그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경북교육노조에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인사에 앞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혹시라도 공무원조직과 동료의 배려 없이 오로지 개인의 편안함과 출세만을 위한 직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조그마한 눈앞의 이익보다는 우리 모두가 인간미 넘치는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북교육청의 공무원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경북교육노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분명 인사행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며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인사나 예산 같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자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상북도교육청 이영우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2014. 6. 5)

어제(6월 4일)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이영우 현 교육감이 52.1% (646,184표)의 득표로 3선에 성공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이영우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하며, 당선소감에서 밝힌 대로 지난 5년간 이룬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경북교육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동력을 찾아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경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공약사항인 교육 안전 시스템 개혁, 교직원 인사 제도 개혁, 교육 정책 및 교육 행정 개혁, 교수 문화 및 학습 문화의 개혁, 교육 시설 및 학습 자료 개혁 등은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경북교육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수백 명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과 정부의 무능, 사람이 아닌 돈을 앞세우고,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내세우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보수로 분류되는 이영우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지난 5년간의 타시·도를 능가하는 성과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과 지역적 정서의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타시도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아이들과 더불어 배움의 장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교직원을 우대하고,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을 보듬어 주는 학교 중심의 교육을 하라는 도민들의 회초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새로 시작될 직선 교육감 3기는 기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경북교육노조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경북교육노조는 학교 현장을 절망과 한숨의 공간이 아닌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이영우 교육감의 교육발전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동반자적 위치에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협력과 존중이 일상화된 학교, 배움과 연구가 즐겁게 이루어지는 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이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 밀려 제 자리 걸음을 할 경우,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주저 없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시 한 번 3선에 성공한 이영우 교육감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7월 정기인사에 대한 논평

(2016. 6. 27.)

경북교육청이 지난 24일 3급 1명, 4급 7명, 5급 6명 6급, 41명 등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64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방식과 달리 연공서열과 능력중심 발탁이 혼용 된 듯한 인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4급 이상 승진과 전보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5급 전보 이동은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에 무게를 둔 다소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듯하다. 지금까지 최초 발령일과 현 계급 승진일이 유일했(?) 인사의 기준점을 연공서열에서 능력중심으로 이동한 것이 변화의 조짐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하나, 학교 현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에서 행정기관의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달라 6개월의 기간으로 충분한 수습 기간이 되었는지가 우려의 마음도 있다.

앞서 언급한 4급 이상 전보와 승진 인사는 전부는 아니지만 연공서열에 의한 것으로 기대치와는 동떨어지게 느낀다는 게 전체적인 인식이다. 그것은 반세기만에 신청사 이전으로 새롭게 준비해야하는 경북 교육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도의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의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 임용에 대해서 도의회와 교육청 간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작용하여 양자의 갈등을 동시에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동의자가 적지는 않지만 비합리적인 이해관계로 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지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의회와 교육청이 서로 상생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긴 하나, 교육청에서 도의회의 숙제나 해결해 준다면 교육청의 위상 제고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번 인사의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서 예상한대로 이루어진 것도 언론의 심층 취재인지 아니면 조직의 허술함인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의 시발점은 무엇보다 열심히 근무하면서 묵묵히 기다렸던 공무원에게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는 인사여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식의 구태를 차단해야 하고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과감히 털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외압과 청탁을 배격하는 공정인사의 충분조건이다.

조직에 활력을 기하기 위한 발탁인사가 존재하는 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그대로 승진으로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 매년 근평 상위에 있는 사람이 탈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외부에서 볼 때 인사의 무리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평정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고 평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평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이 특정부서에 승진자가 몰리는 것이다. 대상자가 많은 곳이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감당할 수 없다. 총무과로 대표되는 이 부서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적성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근무를 희망하고는 하는데 이리다 보니 업무의 효율을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행정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일탈하여 조직이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인사권자는 승진 대상자를 임명할 때 의지대로 했지 언제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내 권한 내가 행사하는데 왜 말들이 많으냐?' 라는 식이라면 '제대로 된 인사'가 존재할 공간은 더 이상 없다. 인사에서 비합리적인 오기가 발동하면 조직은 흔들린다. 과오 없는 인사행정의 구현만이 어려운 시기를 꾸려가는 유일한 조직운영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그동안 공정한 인사를 위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질책도 하였다. 취사선택이야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 생리상 상위 지향이지 하향 지향은 아니어서 조직의 근본인 6급 이하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북교육노조는 6급 이하 조합원들의 의견과 5급 이상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번 인사가 종전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앞서 적시한 몇 가지 인사행정의 맹점을 깊이 생각하여 신청사에서 경북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에 조직원의 능력을 발휘하고 가능성의 기대치를 갖게 하는 인사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주민 직선 4기 임종식 후보의 경상북도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2018. 6. 14.)

먼저 임종식 후보의 주민직선 제4기(제17대) 경상북도교육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임종식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하며, 당선소감에 밝힌 대로 학생과 교직원이 주인이 되는 경북교육,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편히 기댈 수 있는 교육청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난번과 같이 소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과 정부의 무능, 사람이 아닌 돈을 앞세우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내세우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수로 분류되는 임종식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일정부분 보수적인 지역 정서에 힘입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선자는 타시도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아이들과 더불어 배움의 장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교직원을 우대하고,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을 보듬어 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새로 시작될 주민직선 교육감 4기는 기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당선자는 나누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경북교육노조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중단 없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경북교육노조는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임종식 교육감의 교육발전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동반자적 위치에서 따뜻한 교육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이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 밀려 제 자리 걸음을 할 경우,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주저 없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2018년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대한 논평

(2018. 6. 27.)

지난 6월 22일 경북교육청은 2018년 7월 1일자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4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승진 임용된 4급 2명, 5급 2명, 6급 이하 113명 등 총 117명과 신규 임용된 6명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정기인사는 주민직선 4기(제17대) 임종식 교육감 체제의 출범을 앞둔 과도기에 이루어졌지만 지방공무원 인사를 취임 이후로 미룰 경우 승진예정자 등이 받을 손해를 감안할 때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사 협의의 산물인 지역만기자 현황 공개 및 인사발령 사전예고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였다는 점과 인사발령 규모를 최소화하여 새 교육감의 보폭을 넓혀주려고 노력한 점은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대한 논평에서도 언급한 인사부서 관리자의 부적절한 임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부서는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로서 신규 공무원의 적기 채용, 나홀로 행정실장 지원책 마련, 시설관리직 채용방법 개선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 통상적인 업무 외 새로운 일도 많은 만큼, 우리 노조에서는 승진에 구애받지 않으며 소신껏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해당 보직을 맡아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총무과 인사담당 보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사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승진과 퇴직을 앞둔 사람을 굳이 막중한 노력과 책임이 따르는 요직에 발탁한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의 욕망이 아니면 인사권자의 보은인가? 분명한 것은 경북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였다는 것이다. 멀지 않은 시기에 당사자는 승진해서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것이고 곧바로 퇴직할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지난 1월 1일자 논평에서 각종 구설수에 오를 경우 단순 논평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오점을 남긴 인사부서 인사에 대해서 1인 시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리라 하지만 아직 새 교육감이 취임 전이라는 점 새로운 인사정책을 펼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도 단순논평에 그치고 마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이번 사안의 당사자에게는 앞으로 명확하고 열과 성을 다하는 업무 추진과 공명정대한 인사를 통해 본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새 교육감에게는 선거 기간 중 우리 노조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대로 적재적소 인사 및 인재 발굴 등을 통해 경북교육청 인사가 대한민국의 표준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희망하는 바이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안 제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노조 위원장 : 이철연) 은 2006년 7월 24일(월) 정부수립이후 58년 만에 단위노조로서는 최대 조직으로서는 처음으로(조합원수 4,600명)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상대로 약 200여개 조항의 단체교섭 안을 제출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004년 11월 26일 출범식을 가진 이후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교육청 단위로서는 전국최대 규모의 노조로 등록하여 합법노조가 되었으며, 2006년 7월 31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홍보가 주목되고 있다.

단체교섭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교원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근무시간 개선,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 정원 확보 및 승진 등이며, 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그 동안 많은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번에 단체교섭안을 제출함으로써 교육현장에는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의 교원단체와 함께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하여 앞으로 한층 다양해진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이 나옴에 따라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도 보다 질 높은 교육과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노조'는 현재9개 시·도교육청노동조합연맹소속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단체교섭을 위하여 각 시·도 노조에서 선발된 약 100여명의 교섭위원들은 2006년 7월 25일 대전 유성구 경하호텔에서 단체교섭전략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오는 9월 2일 공노총이 등록되는 시점에 교직원 수당 신설을 비롯하여 교원과의 차별적 대우 철폐 및 개선을 주요 골자로 이루어진 중앙교섭안을 중앙부처 및 교육인적자원부 제출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이철연) 은 9개 교육청의 연합단체로서 조합원수는 현재 20,000여 명으로서 2006년 5월 16일 노동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표명하고 있는 한교조, 자유노조, 교총 등의 단체와 연대하여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하여 방안을 모색중이며 공무원노총위원장 박성철과도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 7. 24.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 최초로 경북교육노조 역사적인 단체실무교섭 테이블에 앉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노조’ 위원장 이철연)은 8월 30일 16시에 노사단체교섭실에서 교육발전 및 교육행정 위상제고를 위한 200여개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신임 경상북도교육감과 역사적인 교섭을 위한 첫 대면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일반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4,600여 명의 염원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58년만에 일궈낸 단체교섭안은 그동안 열악한 여건과 환경이지만 교육발전을 향한 의지로 참고 견뎌낸 결과이다.

‘경북교육노조’는 공무원만의 자주노선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투쟁과 타협을 병행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의무도 함께 추구하는 선진 노동운동으로 전국 단일 최대인원의 노조로 성장하였다.

이번 단체교섭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 사업장에서 교원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수당 및 근무시간 개선,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 정원 확보 등이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그 동안 많은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번에 단체교섭안을 제출함으로써 교육현장에는 전교조, 한교조, 자유노조 등의 교원단체와 함께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하여 앞으로 한층 다양해진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이 나옴에 따라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도 보다 질 높은 교육과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 8. 2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노조 행정사무감사 개선 촉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노조’ 위원장 이철연)은 11월 17일 오전 10시 50분에 경상북도의회 전정에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조합원 400여명이 모여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 촉구기자 회견을 가진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13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같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지금까지 전국의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위원회의 감사를 전면 부정하고 동일한 기관에 대한 명백한 이중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가중을 시키고 있다. ▶ 그 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여 경북교육청 및 일선 23개 지역교육청은 매년 되풀이 되는 교육위원회와의 중복감사로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으며, 그 동안 중복감사로 인하여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소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시·도교육위원회가 2006년 11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 재직 의원 16명 중 12명 찬성반대2, 기권2) 의회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본회의에 통과를 앞두고 있어 교육관련 단체 간에도 의견이 여러 가지이다. 조합원 5,000명을 두고 있는 경북교육청노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의회는 한곳에서 통합하여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 따라서 이날 촉구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도의회가 교육학예에 대해 사무 감사를 할려면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사무 중 특정 사안만 실시하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4년 후 지방의회 선거 시 공무원이자 지역표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스스로 판단이 뒤따를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2006. 11.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시·도교육청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괄적인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 감축과 지역교육청 기능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론화하라!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등이 배석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5%를 일괄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 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에 더 나아가 5%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대한 형식화된 지도·감독 업무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 교사 능력개발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 공무원 정원 5% 일괄 감축 방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현장은 그 무엇보다 교육의 논리가 최우선돼야 한다. 교육은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이 때문에 공공성은 물론 자치와 규범성 등이 그 어떤 사회 기관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는 이같은 교육의 논리는 사라지고 실용주의적 경쟁이 바탕이된 경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교육은 주지하다시피 경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특히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새정부가 오히려 공교육 부실을 조장하고 나서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교육청 정원 감축의 부작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일선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을 가르쳐야 할 시간에 공문 처리를 하고 있으니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은 오히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공무원을 줄일 생각부터 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을 감축한다면 교원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즉 교과부가 획일적이고 한시적인 경제 논리에 몰려 교육청 정원 감축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교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고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마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교육환경,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학교나 교육기관이 규제와 통제로부터 서비스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거나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논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당해 지방교육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교육자치 아닌가?

또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지역교육청의 구조조정을 논하는 과정에 나타난 교육과학기술부의 비민주적 절차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괄 감축 5%도 문제지만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의 의견이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 교원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교육청의 예를 보더라도 교원의 업무가 행정업무로 이관되어 업무를 가중시켰음에도 10여년간 교육행정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수십년 동안 이어온 현재의 지역교육청 시스템을 여건에 맞는 면밀한 업무 분석도 없이 우리가 정했으니 너희는 따르라는 식으로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부하의 탁상공론의 정책결정 행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도교육청 정원 감축과 지역교육청 기능 조정 논의에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공론화하여 교육이 국가 융성의 근본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제논리와 효율성의 집착에 사로잡혀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정원 감축과 조정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 11. 24.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노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극지지

- 행정인력 보강 없는 업무이관 방치하지 않겠다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원단체의 행정실로의 업무 이관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대책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은 “현행 학교현장은 교원을 보조하는 각종 인력들이 정규 교사보다 더 많아지고 있음에도 교원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중요업무조차 교원업무경감을 빌미로 행정 직원에게 넘기려고 한다”면서 학교업무의 전산화·시스템화 등에 대해 교원 스스로 학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건을 모두 행정직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업무 이관을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비판했다.

다수의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원단체의 힘에 밀려, 교원업무경감을 빌미로 행정인력의 증원 없이 교사들의 전문적인 업무영역인 병설유치원업무, 급식업무, 보건업무, 교무업무 등을 행정실로 이관하고자 한다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적극지지(추진)하여 그로 인한 행정인력을 일선학교에 재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심지어 교직원수가 학생수 보다 많은 학교가 생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도 막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통·폐합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통·폐합이 되면 교장·교감의 자리가 없어짐을 우려하는 교원들의 이기심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충북교육청은 3개 교를 통합하여 속리산중학교(기숙형공립중학교)를 설립하고 기숙사 사감, 3식 급식을 위한 조리사 배치 등의 각종 일자리를 창출하고도 연간 5억 8천 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2012. 5. 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감사 종류 너무 많아 중복되고 피해 심각

— 결국 피해는 학생 몫...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연은 지방교육공무원 감사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다.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물론 필요한 국정 감시제도이지만 문제는 이런저런 감사가 너무 많을 뿐더러 중복돼 있고 365일 내내 계속되는 이른바 중복감사로 그 피해가 심하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교과부 감사, 행정사무감사, 사안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 등 수많은 중복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상당기간 감사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감사에 지적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은 어쩔 수없이 주 업무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중복감사로 인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뿐만 아니라 학생자살,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2004년도에 국회의원 1인이 요구한 경상북도교육청 국정감사자료의 무게가 26톤이나 되었고 이 정도 양은 실제 검토가 불가능한 분량으로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에 명시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감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쓸데없이 많은 자료 요청하여 행정력을 낭비시킨 사례도 있다고 한다. 금년도 10월 9일 현재 국정감사 건수가 이미 800건이 넘어 매년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결국 공무원들이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피해가기 위하여 쏟는 노력이 국가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통치와 권력행사의 수단으로 감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에서는 1인 시위를 통한 감사제도개선 입법촉구와 더불어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내기로 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권과 관련 기관 등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1세기에 적합한 감사시스템 도입을 호소할 계획이다.

2012. 10. 1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노조 설문조사결과 “대부분 학교 행정실 직원 총원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행정실 근무자들 대부분이 학교 행정실의 직원을 총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경북교육감 소속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총 912명중 75.22%인 686명이 “공무원의 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4명이 52.23%(48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명 이하인 곳도 22.63%(208명)였다.

이와 관련해 행정실의 근무인원 수가 '보통'이라는 답변이 30.24%를 차지했지만 '조금 적다'와 '매우 적다'를 포함해 적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8.5%(635명)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1인당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행정실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 “일반직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77.15%(699명)를 차지했다. 현재 교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직원은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이 없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실장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로 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2.52%(384명)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대부분이 교무·학사 관련이므로 교원이 당연직 간사가 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조례를 개정해 운영위원 중에 선출해야한다.”는 의견이 38.87%(351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분장이 명확히 나뉘져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9%(598명)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행정실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40시간 이상 50시간이 전체 응답자 중 77.7%(70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행정실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행정실 근무여건과 관련해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병설유치원 검입수당 등 형평성있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교원과 행정실직원간에 동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 “행정실장의 법적책임은 많지만 권한이 적다.” “1인 행정실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과중한 업무에 교육행정직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노조가 있어 든든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업무환경 및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형식적인 설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번 설문결과는 행정실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 학교 행정실도 교육청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통해 교원-행정직원간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울러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단체교섭을 통하여 각급학교 행정실 근무자와 관련된 정책사항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 7. 2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노조” 2013년도 단체교섭 시작하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3년 8월 7일(수)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경북교육청과 제1차 본교섭(이하 '제1차 본교섭」)을 가졌다.

제1차 본교섭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경북교육청 교섭위원과 김종기 경북교육청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양측 교섭대표의 인사, 교섭위원소개,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노조측 제안 설명과 요구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설명으로 진행 되었다.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교육청과 경북교육노조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이번 교섭도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영우 교육감은 “단체교섭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며 일부 의제는 교섭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장의 소리를 듣고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교섭의 또다른 소득”이라고 하면서, “노사 양측이 우리 교육청에 국한하지 말고 타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날 경북교육노조는 ▲학교행정실 업무매뉴얼제작 ▲학교행정실장 6급 배치 ▲조직·인력의 적정배분 ▲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 ▲예산의 합리적 편성 ▲복지포인트 인상 ▲7급까지의 자동승진 등이 포함된 전문과 총칙을 포함한 63개 조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였다.

노조측 요구사항에 대하여 경북교육청은 “2007년에 이루어진 교섭도 노사가 서로 양보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번에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날 본교섭을 시작으로 경북교육노조는 경북교육청과 주 1회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3. 8. 7.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노조, 2013년 단체교섭 타결 - 조합원의 염원을 담은 단체교섭을 쟁취하다 -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에서는 2014년 3월 17일(월) 지난해부터 실시한 '2013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과 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경북교육노조 제4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조합원이 바라는 역점추진 사업을 담아 2013년 5월에 '전문과 본문 62조 130항 및 부칙 4조 5항'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그동안 1차례의 본교섭과 10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및 예비교섭을 통해 10개월 만에 교섭을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경북교육노조는 2007년도에 한차례 단체교섭이 타결된 바 있다.

이번 2013년의 단체교섭은 조합원에 대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그리고 공정하게 노동 복지를 실현시키고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행복한 교육을 이루는 두 축인 교육과 교육행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있다.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근무 행정실장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인력 확충 등 기본적인 처우개선'과 '경북교육상의 교육행정 포함 및 학교운영위원회 교육행정 포함 할 수 있게 하는 등 균형있는 교육행정의 정상화'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과 승진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 공개'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다.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은 "행복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모든 교직원이 차별없는 환경에서 서로가 함께한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있는 만큼 앞으로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조가 추진하는 방향은 교육행정을 균형있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순	보도 내용	보도 매체
1	경북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단협체결	MBC 포항
2	경북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단협체결	MBC 안동

2014. 3. 17.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상 23년만에 교육행정 품대 - 경북교육상 대상자 확대 조례 개정(안)교육위 통과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그동안 현직교원에게만 수여하던 경북교육상에 교육행정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2014. 3. 20.)를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상은 경북교육감이 수여하는 경북교육 관련 최고권위의 상으로, 지금까지 현직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만 수여 하였다. 경북교육청이 교원 및 교육행정직으로 구성된 교육 공동체임을 감안하면 대상자를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경북교육노조에서는 수상대상자에 교육행정을 포함하여 차별을 없애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으며 지난 3월 17일 경북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상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모든 의원들의 긍정적인 의견 접근을 보았다.

특히,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구미3)에게 조례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수락한 구자근의원(구미3)의 입법발의로 지난 3월 12일 입법예고를 거쳐 3월 20일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으며 4월 3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수상대상자를 분야별 구분 없이 현직교원 3명에게만 수여하던 것을 초등 2명, 중등 2명, 유아 및 특수 1명, 교육행정 1명 등 6명 이내로 수상대상자를 확대 하였다.

이번 경북교육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김종기 경북교육노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행정직과 교원과의 차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교육행정인들의 위상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와주신 교육위원께 감사드립니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구자근(구미)의원은 “교육행정은 교원과 함께 공교육을 책임지는 한축으로서, 함께 해야 교육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힘을 보탤다”고 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차별적인 요소들을 철폐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 신명나는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 3. 24.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교육행정 나아갈 길을 논하다

— 경북교육노조, 제2회 교육행정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4년 4월 8일(화) 1400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행정실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오세희 교수가 「단위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실 발전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였으며, 경북구미교육지원청의 송명화 주무관의 사회로 정승표(본청감사관실) 백귀복(김천 감문중), 장병욱(구미 인의초), 천영선(울진 삼근초), 이정경(안동도립도서관)등 5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인 오세희 교수는 “학교행정실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 간의 유대와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학교행정실 직원들의 업무는 과다하게 늘어지지만 교원의 업무 경감만 논의되고 있으며, 현행 미비한 각급학교 행정실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실 직원의 위상과 사기를 진작시켜야 역량이 강화 된다.”라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정책토론회로 2013년 5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다. 그동안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각급 학교행정실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번 토론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지만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의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년 정례화 되어야 하며,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함께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면서도 학교 관련 정책 입안 시 항상 지방공무원들은 소외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정일용 부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도내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가운데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북교육의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고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기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공무원들도 당당하게 대안을 제시하여 스스로 근무 환경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중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부문들 대부분은 2013년도 단체협약에 담았으며 일부 명문화하지 못한 것들은 교섭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 최대한 전달했으며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4. 4. 8.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청 감사관 공모에 따른 논평

경북교육청이 세 번째 감사관 공모를 실시한다. 감사관 공모제 도입은 내·외부에서 유능한 인재가 기관장으로부터 감사행정을 독립하여 청렴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에 의한다. 이런 공모제의 입법취지는 내부보다는 외부의 전문가가 감사부서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경북교육청은 첫 감사부서장을 내부에서 맡게 되어 언론의 따가운 질책과 우려스러운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기관의 감사부서장보다 뛰어난 감사행정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는 언론과 교육공동체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부서장으로 연이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이번 감사관 공모에 즈음하여 감사부서장이 조직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끼치는 영향이 중차대하기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당부한다.

먼저, 감사관은 스스로 청렴하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 행정은 다른 부서의 행정 활동과는 다른 준 사법기관이다. 앞서 모범을 보이고 뛰어난 능력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감사로 인해 피로하지 않는 감사 행정을 펴야한다.

그리고 감사관은 조직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아우르고 소통할 수 있는 넓은 이량을 가져야 한다. 감사관은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의지해주는 지팡이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은 경북교육발전을 위한 길에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진력해야 한다. 강하면 무서워하고 약하면 무시한다. 경북교육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바른 길을 가야한다.

경북교육노조는 개방형 공모제에 부합하는 내·외부 차별 없이 유능하고 신망 받는 그리고 경북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감사부서장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2014. 11. 1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 파탄’ 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015년 5월 13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더니 급기야 7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 규칙 안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 기준은 내리고, 대신 학생 수 기준은 대폭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 들 수밖에 없어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경북교육청이 받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경북교육이 파탄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경북교육재정이 더 축소된다면 교육현장의 교육복지 축소, 교직원 인력감축, 인근 광역시와 타시도 학생 유출뿐만 아니라 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도 대폭 중단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가속화 하겠다며 통폐합 학교의 기준 학생 수를 60명으로 선정하였다. 학생 수 60명이하 학교는 경북도내 학교 306교 (약32%)에 달한다. 초등학교 190개교, 중학교 107개교, 고등학교 9개의 학교가 폐교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일부 면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정부와 교육부가 과연 지방교육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의 중심이며 교육자치의 상징이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작은 학교의 무한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의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책이며 정부가 교육현장의 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이 예라 할 수 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통폐합을 적극 실시한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이다.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고사 시킬수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예산의 국가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함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버렸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의무 편성지침으로 인하여 당장 이번 추경에만 약 452억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였다. 대통령의 공약은 증발해 버렸고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 자명하다.

예산삭감과 통폐합으로 인해 교육기관 종사자의 정원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미 2016년부터 경북도내 초등 300명 중등교사 97명의 교사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고, 지방공무원과 교육실무직도

대규모 정원감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그리고 경북도 시·군의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육 단체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백지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는 경북의 모든 세 단체와 연대하여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에 임할 것을 선포 한다. 우리는 경북교육을 파탄내는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교육황폐화 정책이 중단될 때 까지 경북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경북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 7. 2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노사합동 봉사활동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5월 13일(금) 경북 안동시 소재 경안신육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노동조합 임원과 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과 함께 노사 합동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축하 기념행사 대신 소외되고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건전 노사문화 조성 및 희망 나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청소년 복지시설에 후원한 물품은 경북교육노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축하 화환 대신 기증받은 봉사활동 후원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더욱 더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문화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 5. 1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경북교육청노조와 경북교육청 「사랑의 이불 나눔」행사 개최

– 사랑의 이불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과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난 2013년도부터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김장을 직접 담가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올해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의 이불 나눔」행사를 2016년 12월 13일(화) 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 지난 5월 개최한 제11회 한마음체육대회 일일모금행사 수익금과 그동안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합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연말을 앞두고 도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따뜻한 잠 자리를 제공하고자 이불 200채(900만 원 상당)를 각 가정으로 택배 발송하였다.

김종기 경북교육청노조 위원장은 “경북교육청과 힘을 합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나눔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우 교육감은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지역사회의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의 꿈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6. 12. 1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2018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감간의 대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11월 6일(화) 10시30분부터 도 교육청 홍익관에서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감간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이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에 의해 2015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본청을 비롯한 23개시군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각 직렬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평소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은 교육감과의 대화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나 이 행사를 통해 1년에 한번이지만 기관장에게 직접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라고 하였다.

이날 참석한 일반직공무원들은 학교업무 지속적 경감, 악성민원처리 방안, 신설학교 근무자 처우개선 문제, 소수직렬 인사적체 해소 방안, 임용예정자 인턴제 실시 등 학교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선 현장의 진솔한 의견에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이번 대화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 11. 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노조의 새 지평을 열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5년사

발행일 | 2018년 12월 21일  
발행인 | 김종기  
발행처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편집위원 | 박흥기, 서종철, 정원상  
감수 | 경북교육노조 15년사 편찬위원회  
글쓴이 | 박효정

펴낸곳 | 매일신문사  
출판등록 | 제 25100-1984-1호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계산동2가 71)  
전화 | (053)255-5001  
팩스 | (053)252-2228

ISBN 978-89-94637-87-7